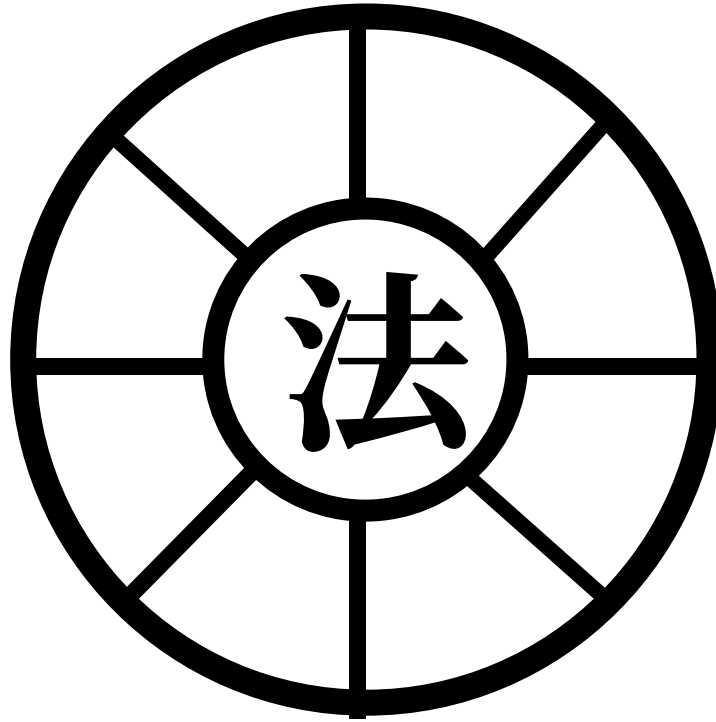


法華三部經



21세기 佛敎 최고지도자 양성기관
法華經 敎育院

<http://법화경.kr>



0502-353-9121

57057 전남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 369-12

- 저작권 등록 제 C-2001-002139호

법화삼부경 목차

法華三部經 目次

무량의경 無量義經

제일 第 一	덕 德	행 行	품 品	----- 7	
제이 第 二	설 說	법 法	품 品	----- 18	
제삼 第 三	십 十	공 功	덕 德	품 品	----- 33

묘법련화경 권제일 妙法蓮華經 卷第一

제일 第一	서 序		품 品	----- 55
제이 第二	방 方	편 便	품 品	----- 88

묘법련화경 권제이 妙法蓮華經 卷第二

제삼 비 유 품 ----- 128
 第 三 譬 喻 品

제사 신 해 품 ----- 185
 第 四 信 解 品

묘법련화경 권 제삼
 妙 法 蓮 華 經 卷 第 三

제오 약 초 유 품 ----- 213
 第 五 藥 草 喻 品

제륙 수 기 품 ----- 228
 第 六 授 記 品

제칠 화 성 유 품 ----- 244
 第 七 化 城 喻 品

묘법련화경 권 제사
 妙 法 蓮 華 經 卷 第 四

제팔 오백제자수기 품 ----- 287
 第 八 五 百 弟 子 授 記 品

제구 수학무학인기 품 ----- 304
 第 九 授 學 無 學 人 記 品

제십 법 사 품 ----- 313
 第 十 法 師 品

제 십일 견 보 탑 품 ----- 328
第 十 一 見 寶 塔 品

제 십이 제 파 달 다 품 ----- 348
第 十 二 提 婆 達 多 品

제 십삼 지 품 ----- 360
第 十 三 持 品

묘법련화경 권 제 오
妙 法 蓮 華 經 卷 第 五

제 십사 안 락 행 품 ----- 369
第 十 四 安 樂 行 品

제 십오 종 지 응 출 품 ----- 396
第 十 五 從 地 涌 出 品

제 십륙 여 래 수 량 품 ----- 416
第 十 六 如 來 壽 量 品

제 십칠 분 별 공 덕 품 ----- 430
第 十 七 分 別 功 德 品

묘법련화경 권 제 륵
妙 法 蓮 華 經 卷 第 六

제 십팔 수 희 공 덕 품 ----- 450
第 十 八 隨 喜 功 德 品

제십구 법사功德품 ----- 460
第 十 九 法 師 功 德 品

제이십 상불경보살품 ----- 483
第 二 十 常 不 輕 菩 薩 品

제이십일 여래신력품 ----- 494
第 二 十 一 如 來 神 力 品

제이십이 축루품 ----- 502
第 二 十 二 勑 累 品

제이십삼 약왕보살본사품 ----- 505
第 二 十 三 藥 王 菩 薩 本 事 品

묘법련화경 권 제칠
妙 法 蓮 華 經 卷 第 七

제이십사 묘음보살품 ----- 522
第 二 十 四 妙 音 菩 薩 品

제이십오 관세음보살보문품 ----- 535
第 二 十 五 觀 世 音 菩 薩 普 門 品

제이십륙 타라니품 ----- 549
第 二 十 六 陀 羅 尼 品

제이십칠 묘장엄왕본사품 ----- 557
第 二 十 七 妙 莊 嚴 王 本 事 品

제이십팔 보현보살권발품
第二十 八 普賢菩薩勸發品

----- 568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 578

법화삼부경 목차 종
法華三部經 目次 終

무량의경

無量義經

소제 천축 삼장 담마가타야사 역
蕭齊 天竺 三藏 曇摩伽陀耶舍 譯

무량의경 덕행품 제일

無量義經 德行品 第一

여시아문 일시 불재왕사성기사굴산중
如是 我聞 하노라 一時에 佛在王舍城耆闍崛山中 하

여대비구중만이천인구 보살마가살팔
여 與大比丘衆萬二千人俱 하시고 菩薩摩訶薩八

만인 천룡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
萬人과 天龍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

나라 마후라가 제비구 비구니금 우파새 우
那羅摩睺羅伽와 諸比丘比丘尼及 優婆塞 優

파이구 대전륜왕 소전륜왕 금륜 은륜 제
婆夷俱 하시며 大轉輪王 小轉輪王 金輪 銀輪 諸

륜지왕 국왕 왕자 국신 국민 국사 국녀 국
輪之王과 國王王子國臣國民國土國女國

대장자 각여권속 백천만수 이자위요 래
大長者와 各與眷屬百千萬數가 而自圍遶 하고 來

예 불 소 두면례족 요백천잡 소향산화
詣佛所 하여 頭面禮足 하고 遶百千匝 하며 燒香散華

종종공양이 퇴일면좌
하여 種種供養已 하고 退一面坐 하니라

기보살명왈 무수사리법왕자 대위덕장법왕자
其菩薩名曰 文殊師利法王子 大威德藏法王子

무우장법왕자 대변장법왕자 미륵보살 도수
無憂藏法王子 大辯藏法王子 彌勒菩薩 導首

보살 약왕보살 약상보살 화당보살 화광당보
菩薩 藥王菩薩 藥上菩薩 華幢菩薩 華光幢菩

살 타라니자재왕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
薩 陀羅尼自在王菩薩 觀世音菩薩 大勢至菩

살 상정진보살 보인수보살 보적보살 보장보
薩 常精進菩薩 寶印手菩薩 寶積菩薩 寶杖菩

살 월삼계보살 비마발라보살 향상보살 대향
薩 越三界菩薩 毘摩訶羅菩薩 香象菩薩 大香

상보살 사자후왕보살 사자유희세보살 사자
象菩薩 師子吼王菩薩 師子遊戲世菩薩 師子

분신보살 사자정진보살 용예력보살 사자위
奮迅菩薩 師子精進菩薩 勇銳力菩薩 師子威

맹복보살 장엄보살 대장엄보살 여시등보
猛伏菩薩 莊嚴菩薩 大莊嚴菩薩 이니 如是等菩

살마가살 팔만인구 시제보살 막불개시
薩摩訶薩 八萬人俱 하시니라 是諸菩薩은 莫不皆是

법신대사 제정혜해탈 해탈지견지소성
法身大士니 戒定慧解脫과 解脫知見之 所成

취 기심선적 상재삼매 념안담박
就 나라 其心禪寂 하고 常在三昧 하여 恬安淡泊 하여

무위무욕 전도란상 불부득입 정적청
無爲無欲이라 顛倒亂想이 不復得入 하며 靜寂清

징 지현허막 수지불동억백천겁 무량
澄 하고 志玄虛漠이라 守之不動億百千劫 하며 無量

법문 실효재전 득대지혜 통달제법
法門이 悉現在前이라 得大智慧 하여 通達諸法 하고

효료분별성상진실 유무장단 명현현백
曉了分別性相眞實 하되 有無長短을 明現顯白이라

우능선지제근성욕 이타라니무애변재 제
又能善知諸根性欲 하며 以陀羅尼無礙辯才로 諸

불전법륜 수순능전 미제선타 이엄욕
佛轉法輪을 隨順能轉이라 微滌先墮 하여 以淹欲

진 개넬반문 선해탈풍 제세뇌열 치
塵 하며 開涅槃門 하고 扇解脫風 하여 除世惱熱 하고 致

법청량 차강심십십이인연 용쇄무명
法清涼 이나라 次降甚深十二因緣 하여 用灑無明

로병사등 맹성치연고취일광 이내홍주
老病死等의 猛盛熾然苦聚日光 하고 爾乃洪注

무상대승 유지증생제유선근 포선종자
無上大乗 하여 潤漬衆生諸有善根 하고 布善種子 하

편공덕전 보령일체발보제맹 지혜
여 遍功德田 하여 普令一切發菩提萌 이니라 智慧

일월 방편시절 부소증장대승사업
日月 이요 方便時節 이라 扶蔬增長大乘事業 하여

령증질성아늑다라삼막삼보제 상주쾌락
令衆疾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여 常住快樂 하며

미묘진실 무량대비 구고증생 시제증생
微妙眞實 無量大悲로 救苦衆生 이라 是諸衆生

진선지식 시제증생대량복전 시제증생
眞善知識 이며 是諸衆生大良福田 이라 是諸衆生

불청지사 시제증생안온락처 구처호
不請之師 이며 是諸衆生安穩樂處 이며 救處護

처 대의지처 처처위증생작대량도사대도
處 이며 大依止處 라 處處爲衆生作大良導師大導

사 능위증생맹이작안목 롱의아자작이
師 라 能爲衆生盲而作眼目 하고 聾癩者作耳

비설 제근훼결 능령구족 전광황란
鼻舌 하며 諸根毀缺 하면 能令具足 하며 顛狂荒亂 이

작대 정념 선사 대선사 운재 군생
라도 作大正念 하리라 船師 大船師 이시라 運載群生

도생 사하 치열 반안 의왕 대의왕
하고 渡生死河 하여 置涅槃岸 이라 醫王 大醫王 이

분별 병상 효료 약성 수병 수약 령
시라 分別病相 하고 曉了藥性 하여 隨病授藥 하고 令

중락 복 조어 대조어 무제 방일행
衆樂服 이라 調御 大調御 이시라 無諸放逸 行 이며

유여 상마사 능조 무불조 사자 용맹 위
猶如象馬師 가 能調無不調 하며 師子勇猛 이 威

복중 수 난가 저괴 유희 보살제 파라밀
伏衆獸 하여 難可沮壞 라 遊戲菩薩諸波羅蜜 하고

어여래 지견 고불동 안주원력 광정불국
於如來地堅固不動 하며 安住願力 하여 廣淨佛國 하

불구득성 아녹 다라삼막삼보제 시제 보
니 不久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리라 是諸菩

살마가살 개유여사불가사의 공덕
薩摩訶薩 은 皆有如斯不可思議功德 이니라

기비 구명왈 대지 사리불 神通목건련 혜명수
其比丘名曰 大智舍利弗 神通目犍連 慧命須

보제 마가가전연 미다라니자부루나 아야교
菩提 摩訶迦旃延 彌多羅尼子富樓那 阿若憍

진여 천안아나를 지를우파리 시자아난 불자
陳如 天眼阿那律 持律憂波離 侍者阿難 佛子

라운 우파난타 리파다 겁빈나 박구라 아주타
羅雲 優波難陀 離婆多 劫賓那 薄拘羅 阿周陀

사가타 두타대가섭 우루빈라가섭 가야가섭
莎伽陀 頭陀大迦葉 優樓頻螺迦葉 伽耶迦葉

나제가섭 여시등비구만이천인 개아라한
那提迦葉이니 如是等比丘萬二千人은 皆阿羅漢

진제결루 무부박착 진정해탈
으로 盡諸結漏하여 無復縛著 眞正解脫이라

이시 대장엄보살마가살 편관중좌각정의
爾時에 大莊嚴菩薩摩訶薩이 遍觀衆坐各定意

이 여중팔만보살마가살구 종좌이기 래
已하고 與衆八萬菩薩摩訶薩俱로 從座而起하여 來

예불소 두면례족 요백천잡 소산천화
詣佛所하여 頭面禮足하고 遶百千匝하며 燒散天華

천향 천의 천영락 천무가보주 종상공공
天香하고 天衣 天瓔珞과 天無價寶珠가 從上空

중선전래하 사면운집 이헌어불 천
中旋轉來下하되 四面雲集하여 而獻於佛하며 天

주천발기 천백미충만영일 전색문향
廚天鉢器에 天百味充滿盈溢이라 見色聞香하면

자연포족 천당 천번 천헌개 천묘락구
自然飽足이라 天幢 天幡과 天軒蓋 天妙樂具를

처처안치 작천기악 오락어불 즉전호
處處安置하고 作天伎樂하여 娛樂於佛하고 卽前胡

웨합장 일심구공동성 설게찬언
跪合掌하고 一心俱共同聲으로 說偈讚言하되

대재대오대성주 무구무염무소착
大哉大悟大聖主시여 無垢無染無所著이라

천인상마조어사 도풍덕향훈일체
天人象馬調御師시여 道風德香薰一切하며

지념정박려응정 의멸식망심역적
智恬情泊慮凝靜하여 意滅識亡心亦寂하니

영단몽망사상념 무부제대음입제
永斷夢妄思想念하여 無復諸大陰入界라

기신비유역비무 비인비연비자타
其身非有亦非無하며 非因非緣非自他하고

비방비원비단장 비출비몰비생멸
非方非圓非短長하며 非出非沒非生滅하고

비조비기비위작 비좌비와비행주
非造非起非爲作하며 非坐非臥非行住하고

비동비전비한정 비진비퇴비안위
非動非轉非閑靜하며 非進非退非安危하고

비시비비비득실
非是非非非得失 하며

비피비차비거래
非彼非此非去來 하고

비청비황비적백
非靑非黃非赤白 하며

비홍비자종종색
非紅非紫種種色 이라

계정혜해지견생
戒定慧解知見生 하며

삼매륙통도품발
三昧六通道品發 하고

자비십력무외기
慈悲十力無畏起 하며

중생선업인연출
衆生善業因緣出 이라

시위장륙자금휘
示爲丈六紫金暉 하시고

방정조요심명철
方整照曜甚明徹 하시며

호상월선항일광
毫相月旋項日光 하시고

선발감청정육제
旋髮紺靑頂肉髻 시라

정안명경상하현
淨眼明鏡上下眴 하시고

미첩감서방구협
眉睫紺舒方口頰 하시며

수설적호약단과
脣舌赤好若丹菓 하시고

백치사십유가설
白齒四十猶珂雪 하시며

액광비수면문개
額廣鼻脩面門開 하시고

흉표만자사자억
胸表卍字師子臆 이시라

수족유연구천복
手足柔輓具千幅 하시고

액장합만내외악
腋掌合縵內外握 하시며

비수주장지직섬
臂脩肘長指直纖 하시고

피부세연모우선
皮膚細輓毛右旋 하시며

과슬불현음마장
踝膝不現陰馬藏 하시고

세근쇄골록박창
細筋鎖骨鹿膊脹 하시며

표리영철정무구
表裏映徹淨無垢 하여

탁수막염불수진
濁水莫染不受塵 이시라

여시등상삼십이
如是等相三十二 이시고

팔십종호사가견
八十種好似可見 이시라

이실무상비상색
而實無相非相色 이라

일체유상안대절
一切有相眼對絶 이요

무상지상유상신
無相之相有相身 이요

중생신상상역연
衆生身相相亦然 이라

능령중생환희례
能令衆生歡喜禮 하고

투심표경성은근
投心表敬誠慇懃 이라

인시자고아만제
因是自高我慢除 로

성취여시묘색구
成就如是妙色驅 시라

금아등팔만지중
今我等八萬之衆 은

구공제수함귀명
俱共稽首咸歸命 하여

선멸사상심의식
善滅思想心意識 하신

상마조어무착성
象馬調御無著聖 하나이다

제수귀의법색신
稽首歸依法色身 과

제정혜해지견취
戒定慧解知見聚 하나이다

제수귀의묘종상
稽首歸依妙種相 하나이다

제수귀의난사의
稽首歸依難思議 하나이다

범음뢰진향팔종
梵音雷震響八種으로

미묘청정심심원
微妙淸淨甚深遠이라

사체륙도십이연
四諦六度十二緣을

수순중생심업전
隨順衆生心業轉이시라

유문막불심의개
有聞莫不心意開니

무량생사중결단
無量生死衆結斷이리라

유문혹득수타원
有聞或得須陀洹과

사타아나아라한
斯陀阿那阿羅漢과

무루무위연각처
無漏無爲緣覺處와

무생무멸보살지
無生無滅菩薩地하며

혹득무량타라니
或得無量陀羅尼와

무애요설대변재
無礙樂說大辯才하여

연설심심미묘게
演說甚深微妙偈하고

유희조욕법청거
遊戲澡浴法淸渠하며

혹약비등현신족
或躍飛騰現神足하고

출몰수화신자유
出沒水火身自由라

여래법륜상여시
如來法輪相如是하여

청정무변난사의
淸淨無邊難思議라

아등함부공제수
我等咸復共稽首하여

귀의법륜전이시
歸依法輪轉以時니이다

제수귀의범음성
稽首歸依梵音聲이니이다

제수귀의연체도
稽首歸依緣諦度하나이다

세 존왕석 무량겁
世尊往昔無量劫에

근고수습중덕행
勤苦修習衆德行 하여

위아인천룡신왕
爲我人天龍神王 하여

보급일체제중생
普及一切諸衆生 이시라

능사일체제난사
能捨一切諸難捨 의

재보처자급국성
財寶妻子及國城 하시고

어법내외무소린
於法內外無所惱 하시며

두목수뇌실시인
頭目髓腦悉施人 이시라

몽지제불청정제
奉持諸佛清淨戒 하되

내지실명불훼상
乃至失命不毀傷 하며

약인도장래가해
若人刀杖來加害 하고

악구매욕종불진
惡口罵辱終不瞋 하며

력겁좌신불권타
歷劫挫身不倦怠 하고

주야섭심상재선
晝夜攝心常在禪 하며

편학일체중도법
遍學一切衆道法 하여

지혜심입중생근
智慧深入衆生根 이라

시고금득자재력
是故今得自在力 하여

어법자재위법왕
於法自在爲法王 이시라

아부함공구제수
我復感供俱稽首 하여

귀의능근제난근
歸依能勤諸難勤 하나이다

무량의경 덕행품 제일 종
無量義經 德行品 第一 終

무량의경 설법품 제이
無量義經 說法品 第二

이시 대장엄보살마가살 여팔만보살마가살
爾時에 大莊嚴菩薩摩訶薩이 與八萬菩薩摩訶薩

설시게찬불이 구백불언 세존 아
로 說 是 偈 讚 佛 已 하고 俱 白 佛 言 하되 世 尊 이시여 我

등팔만보살지중 금자옥어여래법중 유소자
等八萬菩薩之衆은 今者欲於如來法中에 有所諮

문 불심 세존 수민청부
問 하나이다 不 審 世 尊 이시여 垂 愍 聽 不 하리까

불고대장엄보살금팔만보살언 선재선재
佛告大莊嚴菩薩及八萬菩薩言 하시되 善哉善哉라

선남자 선지시시 자여소문 여래불구
善男子야 善知是時로다 恣汝所問하라 如來不久

당반넢반 넢반지후 보령일체무부여의
當般涅槃하리니 涅槃之後에 普令一切無復餘疑케

욕하소문 편가설지 어시대장엄보
하리라 欲何所問고 便可說之하라 於是大莊嚴菩

살 여팔만보살 즉공동성 백불언
薩이 與八萬菩薩로 卽共同聲으로 白佛言 하되

세존 보살마가살 욕득질성아녹다라삼
世尊이시여 菩薩摩訶薩이 欲得疾成阿耨多羅三

막삼보제 응당수행하등법문
藐三菩提면 應當修行何等法門니이까

하등법문 능령보살마가살 질성아녹다라삼
何等法門이 能令菩薩摩訶薩 疾成阿耨多羅三

막삼보제
藐三菩提니이까

불고대장엄보살급팔만보살언 선남자
佛告大莊嚴菩薩及八萬菩薩言하시되 善男子야

유일법문 능령보살질득성아녹다라삼막삼
有一法門하니 能令菩薩疾得成阿耨多羅三藐三

보제 약유보살학시법문자 즉능득아녹다
菩提니라 若有菩薩學是法門者는 則能得阿耨多

라삼막삼보제 세존 시법문자 호자하
羅三藐三菩提리라 世尊이시여 是法門者는 號字何

등 기의운하 보살운하수행
等이며 其義云何며 菩薩云何修行이니까

불언 선남자 시일법문 명위무량의
佛言하시되 善男子야 是一法門은 名爲無量義니라

보살욕득수학무량의자 응당관찰일체제법
菩薩欲得修學無量義者는 應當觀察一切諸法이

자본래금 성상공적 무대무소 무생무
自本來今으로 性相空寂하여 無大無小하며 無生無

멸 비주비동 불진불퇴 유여허공
滅 하며 非住非動 하며 不進不退 하며 猶如虛空 하여

무유이법 이세중생 허망횡계 시차
無有二法 이나라 而諸衆生은 虛妄橫計 하여 是此

시피 시득시실 기불선념 조중악업
是彼 하며 是得是失 하며 起不善念 하여 造衆惡業 하고

륜회륜취 수제고독 무량억겁 불능자
輪廻六趣 하며 受諸苦毒 하여 無量億劫에 不能自

출
出 이라

보살마가살 여시체관 생련민심 발대자
菩薩摩訶薩은 如是諦觀 하여 生憐愍心 하고 發大慈

비 장욕구발 우부심입일체제법
悲 하여 將欲救拔 하며 又復深入一切諸法 이나라

법상여시 생여시법 법상여시 주여시
法相如是 하여 生如是法 하고 法相如是 하여 住如是

법 법상여시 이여시법 법상여시 멸
法 이나라 法相如是를 異如是法 하고 法相如是를 滅

여시법 법상여시 능생악법 법상여시
如是法 하나라 法相如是를 能生惡法 하고 法相如是

능생선법 주이멸자 역부여시
하여 能生善法 하며 住異滅者도 亦復如是 나라

보살여시관찰사상시말 실편지이 차부
菩薩如是觀察四相始末 하고 悉遍知已 하고 次復

체관일체제법 념념불주 신신생멸 부
諦觀一切諸法 은 念念不住 하며 新新生滅 하고 復

관즉시생주이멸 여시관이 이입중생제
觀卽時生住異滅 하라 如是觀已 하고 而入衆生諸

근성욕 성욕무량고 설법무량 설법
根性欲 이니라 性欲無量故로 說法無量 하니라 說法

무량고 의역무량
無量故로 義亦無量 하니라

무량의자 종일법생 기일법자 즉무상야
無量義者는 從一法生 하며 其一法者는 卽無相也라

여시무상 무상불상 불상무상 명위실
如是無相은 無相不相 이니라 不相無相을 名爲實

상
相 이니라

보살마가살 안주여시진실상이 소발자비
菩薩摩訶薩이 安住如是眞實相已 하여 所發慈悲

명체불허 어중생소진능발고 고기발
는 明諦不虛 하리라 於衆生所眞能拔苦라 苦旣拔

이 부위설법 령제중생수어쾌락
已 하고 復爲說法 하여 令諸衆生受於快樂 하라

선남자 보살약능수일체법문무량의자 필득
善男子야 菩薩若能修一切法門無量義者는 必得

질성아녹다라삼막삼보제
疾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하리라

선남자 여시심심무상대승무량의경 문리진
善男子야 如是甚深無上大乘無量義經은 文理眞

정 존무과상 삼세제불 소공수호 무
正하고 尊無過上이니라 三世諸佛의 所共守護니 無

유증마군도득입 불위일체사견생사지소괴
有衆魔群道得入하며 不爲一切邪見生死之所壞

패 시고 선남자 보살마가살 약욕질
敗리라 是故로 善男子야 菩薩摩訶薩이 若欲疾

성무상보제 응당수학여시심심무상대승무량
成無上菩提면 應當修學如是甚深無上大乘無量

의경
義經이니라

이시 대장엄보살 부백불언 세존 세
爾時에 大莊嚴菩薩이 復白佛言하되 世尊이시여 世

존설법 불가사의 중생근성 역불가사의
尊說法은 不可思議요 衆生根性도 亦不可思議하

며 법문해탈 역불가사의
法門解脫도 亦不可思議하나이다

아등어불소설제법 무부의난 이제중생
我等於佛所說諸法에 無復疑難이라도 而諸衆生이

생미혹심고 중자세존 자중여래 득도이
生迷惑心故로 重諮世尊이니이다 自從如來 得道已

래사십여년 상위중생 연설제법사상지의
來四十餘年에 常爲衆生 演說諸法四相之義와

고의 공의 무상 무아 무대 무소 무생 무멸
苦義 空義 無常 無我 無大 無小 無生 無滅과

일상 무상 법성법상본래공적 불래 불거 불
一相 無相 法性法相本來空寂과 不來 不去 不

출 불몰 약유문자 혹득난법 정법 세
出 不沒하심이라 若有聞者면 或得煖法 頂法 世

제일법 수타원과 사타함과 아나함과 아라
第一法과 須陀洹果 斯陀含果와 阿那含果 阿羅

한과 벽지불도 발보제심 등제일지 제
漢果와 辟支佛道하여 發菩提心하여 登第一地 第

이지 제삼지 지제십지 왕일소설제법지의
二地 第三地하여 至第十地라 往日所說諸法之義

여금소설유하등이 이언심심무상대승무
와 與今所說有何等異하여 而言甚深無上大乘無

량의경 보살수행 필득질성무상보제
量義經만을 菩薩修行하면 必得疾成無上菩提니까

시사운하 유원세존 자애일체 광
是事云何 니이까 唯願世尊 이시여 慈哀一切 하여 廣

위증생이분별지 보령현재급미래세 유문
爲衆生而分別之 하여 普令現在及未來世에 有聞

법자 무여의망 어시불고대장엄보살
法者로 無餘疑網 케하소서 於是佛告大莊嚴菩薩 하시

선재선재 대선남자 능문여래여시심심
되 善哉善哉라 大善男子야 能問如來如是甚深

무상대승미묘지의 당지 여능다소리익
無上大乗微妙之義 뇨 當知 하라 汝能多所利益 하리

안락인천 발고중생 진대자비 신실
라 安樂人天 하여 拔苦衆生 하니 眞大慈悲라 信實

불허 이시인연 필득질성무상보제
不虛 하니 以是因緣 으로 必得疾成無上菩提 하리라

역령일체금세래세제유중생 득성무상보제
亦令一切今世來世諸有衆生 으로 得成無上菩提

케하리라

선남자 아선도장보제수하 단좌륙년 득
善男子야 我先道場菩提樹下에 端坐六年 하여 得

성아녹다라삼막삼보제 이불안관일체제
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니라 以佛眼觀 一切諸

법 하되 불가선설 소이자하 지제중생
法 하되 不 可 宣 說 하니라 所 以 者 何 오 知 諸 衆 生

성욕불동 성욕불동 중중설법 중
性 欲 不 同 이라 性 欲 不 同 하여 種 種 說 法 이니라 種

중설법 이방편력 사십여년 미현진실
種 說 法 하되 以 方 便 力 하니 四 十 餘 年 에 未 顯 眞 實 이

니라 시고중생 득도차별 불득질성무상
니라 是 故 衆 生 이 得 道 差 別 하여 不 得 疾 成 無 上

보제
菩 提 니라

선남자 법비여수능세구에 약정약지 약
善 男 子 야 法 譬 如 水 能 洗 垢 穢 니라 若 井 若 池 와 若

강약하 제거대해 개실능세제유구에 기
江 若 河 와 溪 渠 大 海 가 皆 悉 能 洗 諸 有 垢 穢 이듯 其

법수자 역부여시 능세중생제번뇌구 선
法 水 者 도 亦 復 如 是 하여 能 洗 衆 生 諸 煩 惱 垢 니라 善

남자 수성시일 강하정지 제거대해 각
男 子 야 水 性 是 一 이나 江 河 井 池 와 溪 渠 大 海 가 各

각별이 기법성자 역부여시 세제진로
各 別 異 이듯 其 法 性 者 도 亦 復 如 是 하여 洗 除 塵 勞 는

등무차별 삼법사과이도불일 선남자
等 無 差 別 이라도 三 法 四 果 二 道 不 一 이니라 善 男 子 야

수수구세 이정비지 지비강하 제거비해
水雖俱洗나 而井非池요 池非江河이며 溪渠非海니

이여래세웅 어법자재 소설제법 역
而如來世雄이 於法自在이듯 所說諸法도 亦

부여시 초중후설 개능세제 중생번뇌 이
復如是라 初中後說이 皆能洗除衆生煩惱나 而

초비중 이중비후 초중후설 문사수일
初非中이요 而中非後라 初中後說이 文辭雖一

이의각이
이라도 而義各異니라

선남자 아기수왕 예파라나룩야원중
善男子야 我起樹王하여 詣波羅奈鹿野園中하여

위아야구린등오인 전사체법륜시 역설
爲阿若拘隣等五人하여 轉四諦法輪時에도 亦說

제법본래공적 대사불주 넘넘생멸
諸法本來空寂이건만 代謝不住하며 念念生滅이니라

중간어차급이처처 위제비구병중보살
中間於此及以處處에도 爲諸比丘並衆菩薩하여

변연선설십이인연륙파라밀 역설제법본
辯演宣說十二因緣六波羅蜜하리라 亦說諸法本

래공적 대사불주 넘넘생멸 금부어
來空寂이건만 代謝不住하며 念念生滅하니라 今復於

차연설대승무량의경 역설제법본래공적
此演說大乘無量義經에 亦說諸法本來空寂이건만

대사불주 념념생멸 선남자 시고초설
代謝不住하며 念念生滅이니라 善男子야 是故初說

중설 후설 무사시일 이의별이 의이고
中說 後說이 文辭是 一이나 而義別異니라 義異故

중생해이 해이고 득법득과 득도역이
로 衆生解異하고 解異故로 得法得果 得道亦異니라

선남자 초설사체 위구성문인 이팔억
善男子야 初說四諦하여 爲求聲聞人이나 而八億

제천 래하청법 발보제심 중어처처
諸天이 來下聽法하고 發菩提心하며 中於處處에

연설심심십이인연 위구벽지불인 이무
演說甚深十二因緣하여 爲求辟支佛人이나 而無

량중생 발보제심 혹주성문 차설방
量衆生이 發菩提心하고 或住聲聞하니라 次說方

등십이부경 마가반야 화엄해공 선설보살
等十二部經 摩訶般若 華嚴海空하여 宣說菩薩

력겁수행 이백천비구 만억인천 무량중생
歷劫修行하니 而百千比丘 萬億人天 無量衆生이

득주수타원 사타함 아나함 아라한과 벽지
得住須陀洹 斯陀含 阿那含 阿羅漢果와 辟支

불 인연법중 선남자 이시 의고 고지 설
佛 을 因緣法中 하나라 善男子야 以是義故로 故知說

동이의별이 의이고 중생해이 해의고
同而義別異 나라 義異故로 衆生解異 나라 解義故

득법득과 득도역이 시고선남자 자아
로 得法得果 得道亦異 나라 是故善男子야 自我

득도 초기설법 지우금일 연설대승무량
得道 하여 初起說法 하고 至于今日에 演說大乘無量

의경 미증불설 고공무상 무아 비진 비
義經 토록 未曾不說 苦空無常 無我非眞非

가비대 비소 본래불생 금역불멸 일
假非大非小 하여 本來不生 하고 今亦不滅 하며 一

상무상 법상 법성 불래 불거 이제중생 사
相無相 法相 法性 不來 不去나 而諸衆生이 四

상소천
相所遷 이로다

선남자 이시 의고 일체제불 무유이언
善男子야 以是義故로 一切諸佛은 無有二言 이나라

능이일 음 보응중성 능이일신 시백천
能以一音으로 普應衆聲 하며 能以身으로 示百千

만억나유타무량무수항하사신 일일신중
萬億那由他無量無數恒河沙身 이나라 一一身中

우시약간백천만억나유타아승기항하사종
에 又示若干百千萬億那由他阿僧祇恒河沙種

종류형 일일형중 우시약간백천만억나유타아승기항하사형
種類形이며 一一形中에 又示若干百千萬億那由他阿僧祇恒河沙形이니라

타아승기항하사형
他阿僧祇恒河沙形이니라

선남자 시즉제불불가사의 심심경계 비이
善男子야 是則諸佛不可思議 甚深境界니 非二

승소지 역비십지보살소급 유불여불 내
乘所知며 亦非十地菩薩所及이니라 唯佛與佛이 乃

능구료
能究了나라

선남자 시고아설 미묘심심무상대승무
善男子야 是故我說하노라 微妙甚深無上大乘無

량의경 문리진정 존무과상 삼세제불
量義經은 文理眞正하고 尊無過上이니라 三世諸佛

소공수호 무유중마외도득입 불위일체
의 所共守護니 無有衆魔外道得入하고 不爲一切

사견생사지소괴패
邪見生死之所壞敗나라

보살마가살 약욕질성무상보제 응당수학여
菩薩摩訶薩이 若欲疾成無上菩提면 應當修學如

시심심무상대승무량의경 불설시이
是甚深無上大乗無量義經 이니라 佛說 是已 하시니

어시삼천대천세계 륜종진동 자연공중 우
於是三千大千世界는 六種震動 하고 自然空中 雨

종종천화 천우발라화 발담마화 구물두화 분
種種天華 天優鉢羅華 鉢曇摩華 拘物頭華 分

타리화 우우무수 종종천향 천의 천영락 천
陀利華 하며 又雨無數 種種天香 天衣 天瓔珞 天

무가보 어상공중 선전래하 공양어불급
無價寶가 於上空中에서 旋轉來下 하여 供養於佛及

제보살성문대중 천주천발기 천백미식
諸菩薩聲聞大衆이라 天廚天鉢器에 天百味食을

충만영일 천당 천번 천헌개 천묘락구
充滿盈溢 하고 天幢 天幡 과 天軒蓋 天妙樂具를

처처안치 작천기악 가탄어불
處處安置 하고 作天伎樂 하여 歌歎於佛이라

우부륜종진동 동방항하사등 제불세계 하고
又復六種震動 東方恒河沙等 諸佛世界 하고

역우천화 천향 천의 천영락 천무가보 천주 천
亦雨天華 天香 天衣 天瓔珞 天無價寶 天廚 天

발기 천백미 천당 천번 천헌개 천묘락구
鉢器 千百味 天幢 天幡 天軒蓋 天妙樂具 하고

작천기악 가탄피불급피보살성문대중 남
作天伎樂 하여 歌歎彼佛及彼菩薩聲聞大衆 이라 南

서북방사유상하 역부여시 어시중중삼만이
西北方四維上下도 亦復如是 라 於是衆中三萬二

천보살마가살 득무량의삼매 삼만사천보
千菩薩摩訶薩 은 得無量義三昧 하고 三萬四千菩

살마가살 득무수무량타라니문 능전일체
薩摩訶薩 은 得無數無量陀羅尼門 하여 能轉一切

삼세제불불퇴법륜
三世諸佛不退法輪 이라

기제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천 룡 야차
其諸比丘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天 龍 夜叉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대전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大轉

륜왕 소전륜왕 은륜 철륜제륜지왕 국왕 왕자
輪王 小轉論王 銀輪 鐵輪 諸輪之王 國王 王子

국신 국민 국사 국녀 국대장자 급제권속 백
國臣 國民 國士 國女 國大長者 及諸眷屬 百

천중구 문불여래설시경시 혹득난법 정법
千衆俱 하여 聞佛如來說 是經時 에 或得煖法 頂法

세간제일법 수타원과 사타함과 아나함과 아
世間第一法 須陀洹果 斯陀含果 阿那含果 阿

라한과 벽지불과 우득보살무생법인 우
羅漢果 辟支佛果 하고 又得菩薩無生法忍 하며 又

득일타라니 우득이타라니 우득삼타라
得一陀羅尼 하고 又得二陀羅尼 하며 又得三陀羅

니 우득사타라니 오륙칠팔구십타라니
尼 하고 又得四陀羅尼 와 五 六 七 八 九 十 陀羅尼 하며

우득백천만억타라니 우득무량무수항하사
又得百千萬億陀羅尼 하고 又得無量無數恒河沙

아승기타라니 개능수순전불퇴전법륜
阿僧祇陀羅尼 하여 皆能隨順轉不退轉法輪 하며

무량중생 발아녹다라삼막삼보제심
無量衆生 은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하니라

무량의경 설법품 제이 종
無量義經 說法品 第二 終

무량의경 십공덕품 제삼
無量義經 十功德品 第三

이시 대장엄보살마가살 부백불언 세존
爾時에 大莊嚴菩薩摩訶薩이 復白佛言하되 世尊

세존 설시미묘심심무상대승 무량의경
이시여 世尊 說是微妙甚深無上大乘 無量義經하

지심심심심심심심
시니 眞實甚深 甚深甚深이니이다

소이자하 어차중중제보살마가살급제사중
所以者何오 於此衆中諸菩薩摩訶薩及諸四衆과

천룡귀신국왕신민제유중생문시심심
天龍鬼神과 國王臣民의 諸有衆生이 聞是甚深

무상대승무량의경 무불획득타라니문 삼법
無上大乘 無量義經하고 無不獲得陀羅尼門 三法

사과보제지심
四果菩提之心이니이다

당지차법문리진정 존무과상 삼세제불
當知此法 文理眞正하고 尊無過上하며 三世諸佛

지소수호 무유중마군도득입 불위일체사
之所守護라 無有衆魔群道得入하며 不爲一切邪

견생사지소괴패
見生死之所壞敗니이다

소이 자 하 일 문 능 지 일 체 법 고 약 유 중 생 득
所以者何 오 一聞能持一切法故로 若有衆生이 得

문 시 경 즉 위 대 리
聞是經 하면 則爲大利 니이다

소이 자 하 약 능 수 행 필 득 질 성 아 녹 다 라 삼
所以者何 오 若能修行 하면 必得疾成阿耨多羅三

막 삼 보 제
藐三菩提 니이다

기 유 중 생 불 득 문 자 당 지 시 등 위 실 대 리
其有衆生이 不得聞者는 當知是等爲失大利 이다

과 무 량 무 변 불 가 사 의 아 승 기 겁 종 불 득 성
過無量無邊不可思議阿僧祇劫이라도 終不得成

무 상 보 제
無上菩提 니이다

소이 자 하 불 지 보 제 대 직 도 고 행 어 험 경
所以者何 오 不知菩提大直道故로 行於險徑 하며

다 류 난 고
多留難故 니이다

세 존 시 경 전 자 불 가 사 의 유 원 세
世尊 이시여 是經典者는 不可思議 하나이다 唯願世

존 광 위 대 중 자 애 부 연 시 경 심 심 불 사 의 사
尊은 廣爲大衆 하여 慈哀敷演是經 甚深不思議事

세 존 시 경 전 자 종 하 소 래 거 하 소
하소서 世尊 이시여 是經典者 是 從何所來며 去何所

지 주 하 소 주 내 유 여 시 무 량 공 덕 불 사 의
至며 住何所住 니이까 乃有如是無量功德不思議

력 령 중 질 성 아 녹 다 라 삼 막 삼 보 제
力하여 令衆疾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나이까

이 시 세 존 고 대 장 엄 보 살 마 가 살 언 선
爾時에 世尊이 告大莊嚴菩薩摩訶薩 言하시되 善

재 선 재 선 남 자 여 시 여 시 여 여 소 언
哉善哉라 善男子야 如是如是니 如汝所言이니라

선 남 자 아 설 시 경 십 십 십 십 진 실 십 십
善男子야 我說是經이 甚深甚深 眞實甚深 하나라

소 이 자 하 령 중 질 성 무 상 보 제 고 일 문 능 지
所以者何오 令衆疾成無上菩提故 나라 一聞能持

일 체 법 고 어 제 중 생 대 리 익 고 행 대 직 도
一切法故이며 於諸衆生大利益故이며 行大直道하

무 류 난 고
여 無留難故 나라

선 남 자 여 문 시 경 종 하 소 래 거 하 소 지 주
善男子야 汝問是經從何所來하며 去何所至며 住

하 소 주 자 당 선 체 청
何所住者이뇨 當善諦聽하라

선남자 시경 본종제 불실택 중래 거지일체
善男子야 是經本從諸佛室宅中來하여 去至一切

중생발보제심 주제보살소행지처
衆生發菩提心하며 住諸菩薩所行之處나라

선남자 시경여시래 여시거 여시주
善男子야 是經如是來하여 如是去하고 如是住나라

시고차경 능유여시 무량공덕불사의력 령
是故此經은 能有如是無量功德不思議力하여 令

중질성무상보제
衆疾成無上菩提케하느니라

선남자 여녕욕문시경부유십불사의공덕력불
善男子야 汝寧欲聞是經復有十不思議功德力不

대장엄보살언 원락욕문
야 大莊嚴菩薩言하되 願樂欲聞하나이다

불언 선남자 제일시경 능령보살미발심
佛言하시되 善男子야 第一是經은 能令菩薩未發心

자 발보제심 무자인심자 기어자심
者는 發菩提心하며 無慈仁心者는 起於慈心하며

호살륙자 기대비심 생질투자 기수희심
好殺戮者는 起大悲心하며 生嫉妬者는 起隨喜心하

유애착자 기능사심 제간탐자 기포시
며 有愛著者는 起能捨心하며 諸慳貪者는 起布施

심 다교만자 기지계심 진에성자 기인
心 하며 多 憍 慢 者 是 起 持 戒 心 하며 瞋 恚 盛 者 是 起 忍

욕심 생해태자 기정진심 제산란자 기
辱 心 하며 生 懈 怠 者 是 起 精 進 心 하며 諸 散 亂 者 是 起

선정심 다우치자 기지혜심 미능도피
禪 定 心 하며 多 愚 癡 者 是 起 智 慧 心 하며 未 能 度 彼

자 기도피심 행십악자 기십선심 락유
者 是 起 度 彼 心 하며 行 十 惡 者 是 起 十 善 心 하며 樂 有

위자 지무위심 윤회심자 작불퇴심
爲 者 是 志 無 爲 心 하며 有 退 心 者 是 作 不 退 心 하며

위유루자 기무루심 다번뇌자 기제멸심
爲 有 漏 者 是 起 無 漏 心 하며 多 煩 惱 者 是 起 除 滅 心 하

느니라

선남자 시명시경 제일공덕 불사의력
善 男 子 야 是 名 是 經 第 一 功 德 이요 不 思 議 力 이니라

선남자 제이시경 불가사의공덕력자 약유
善 男 子 야 第 二 是 經 의 不 可 思 議 功 德 力 者 是 若 有

중생 득문시경자 약일전 약일게 내지일
衆 生 이 得 聞 是 經 者 하여 若 一 轉 若 一 偈 乃 至 一

구 즉능통달백천억의 무량수겁 불능연
句 하면 則 能 通 達 百 千 億 義 하여 無 量 數 劫 에 不 能 演

설소수지법 소이자하 이기시법 의무
說所受持法 이리라 所以者何오 以其是法이 義無

량고
量故 나라

선남자 시경비여종일종자 생백천만 백
善男子야 是經譬如從一種子로 生百千萬 하며 百

천만중일일 부생백천만수 여시전전 내
千萬中一一이 復生百千萬數니 如是展轉 하여 乃

지무량 시경전자 역부여시 종어일법
至無量이듯 是經典者도 亦復如是 하여 從於一法으

로 생백천의 백천의중일일 부생백천만수
로 生百千義 하며 百千義中一一이 復生百千萬數니

여시전전 내지무량무변지의 시고차경
如是展轉 하여 乃至無量無邊之義라 是故此經은

명무량의
名無量義 나라

선남자 시명시경 제이공덕 불사의력
善男子야 是名是經 第二功德이요 不思議力이니라

선남자 제삼시경 불가사의 공덕력자 약
善男子야 第三是經의 不可思議 功德力者는 若

유중생 득문시경 약일전 약일게 내지일
有衆生이 得聞是經 하여 若一轉 若一偈 乃至一

구 통달백천만억의이 수유번뇌 여무
句 하면 通達百千萬億義已 하여 雖有煩惱라도 如無

번뇌 출입생사 무포외상 어제중생
煩惱 하며 出入生死라도 無怖畏想 이리라 於諸衆生에

생련민심 어일체법 득용건상 여장력
生憐慫心 하며 於一切法에 得勇健想 이니라 如壯力

사 능담능지제유중자 시지경인 역부여
士가 能擔能持諸有重者 이듯 是持經人도 亦復如

시 능하무상보제중보 담부중생 출생
是 하여 能荷無上菩提重寶 하고 擔負衆生 하며 出生

사도 미능자도 이능도피 유여선사
死道니라 未能自度라도 已能度彼 하리니 猶如船師

신영중병 사체불어 안지차안 유호
身嬰重病 하며 四體不御 하고 安止此岸 이라도 有好

전뢰주선 상변제도피자지구 급여이거
堅牢舟船과 常辦諸度彼者之具를 給與而去 이듯

시지경자 역부여시 수영오도제유지신
是持經者도 亦復如是 하여 雖嬰五道諸有之身이

백팔중병 항상상전 안지무명로사차안
百八重病 하고 恒常相纏 하며 安止無明老死此岸이

이유전뢰 차대승경 무량의변 능도중생
라도 而有堅牢 此大乘經 無量義辯 能度衆生 하

여설행자 득도생사
니 如說行者는 得度生死리라

선남자 시명시경 제삼공덕 불사의력
善男子야 是名是經 第三功德이요 不思議力이니라

선남자 제사시경 불가사의 공덕력자 약
善男子야 第四是經의 不可思議 功德力者는 若

유중생 득문시경 약일전 약일게 내지일
有衆生이 得聞是經하여 若一轉 若一偈 乃至一

구 득용건상 수미자도 이능도타
句하면 得勇健想하고 雖未自度라도 而能度他하리라

여제보살 이위권속 제불여래 상향시인
與諸菩薩로 以爲眷屬하며 諸佛如來가 常向是人하

이연설법 시인문인 실능수지
여 而演說法하시리라 是人聞已하여 悉能受持하고

수순불역 전부위인수의광설
隨順不逆하고 轉復爲人隨宜廣說하리라

선남자 시인비여 국왕부인 신생왕자 약
善男子야 是人譬如 國王夫人이 新生王子라 若

일일 약이일 약지칠일 약일월 약이월 약지
一日 若二日 若至七日하며 若一月 若二月 若至

칠월 약일세 약이세 약지칠세 수부불능
七月하며 若一歲 若二歲 若至七歲라 雖復不能

령리국사 이위신민지소종경 제대왕자
領理國事라도 已爲臣民之所宗敬하며 諸大王子

이위반려 왕급부인 애심편중 상여공
以爲伴侶리라 王及夫人의 愛心偏重하여 常與共

어 소이자하 이치소고
語리니 所以者何오 以稚小故니라

선남자 시지경자 역부여시 제불국왕
善男子야 是持經者도 亦復如是하여 諸佛國王이요

시경부인 화합공생시보살자
是經夫人이라 和合共生是菩薩子라

약보살 득문시경 약일구 약일게 약일
若菩薩이 得聞是經하여 若一句 若一偈라도 若一

전 약이전 약십 약백 약천 약만 약억만항
轉 若二轉하고 若十 若百 若千 若萬 若億萬恒

하사 무량무수전 수부불능체진리극 수
河沙 無量無數轉하면 雖復不能體眞理極하고 雖

부불능진동삼천대천국토 퇴분범음전대법
復不能震動三千大千國土하고 雷奮梵音轉大法

륜 이위일체사중팔부지소종앙 제대보
輪이라도 已爲一切四衆八部之所宗仰하며 諸大菩

살 이위권속 십입제불비밀지법 소가
薩이 以爲眷屬이리라 深入諸佛秘密之法하여 所可

연설무위무실 상위제불지소호념자애편부
演說無違無失하며 常爲諸佛之所護念慈愛偏覆

이신학고
하리니 以新學故니라

선남자 시명시경제사공덕 불사의력
善男子야 是名是經第四功德이요 不思議力이니라

선남자 제오시경 불가사의 공덕력자 약
善男子야 第五是經의 不可思議功德力者는 若

선남자 선녀인 약불재세 약멸도후 기유
善男子 善女人이 若佛在世거나 若滅度後에 其有

수지 독송 서사 여시심심 무상대승 무량의경
受持 讀誦 書寫 如是甚深 無上大乘 無量義經

시인수부구박번뇌 미능원리제범부사
하면 是人雖復具縛煩惱하여 未能遠離諸凡夫事라

이능시현대보살도 연어일일 이위백겁
도 而能示現大菩薩道하여 演於一日하여 以爲百劫

백겁역능촉위일일 령피중생환희신복
하며 百劫亦能促爲一日하여 令彼衆生歡喜信伏하

선남자 시선남자 선녀인 비여룡자 시
리라 善男子야 是善男子 善女人은 譬如龍子 始

생칠일 즉능흥운 역능강우
生七日이라도 卽能興雲하고 亦能降雨니라

선남자 시명시경제오공덕 불사의력
善男子야 是名是經第五功德이요 不思議力이니라

선남자 제륙시경 불가사의 공덕력자 약
善男子야 第六是經의 不可思議 功德力者는 若

선남자 선녀인 약불재세 약멸도후 수지
善男子 善女人이 若佛在世거나 若滅度後에 受持

독송 시경전자 수구번뇌 이위중생설법
讀誦 是經典者는 雖具煩惱라도 而爲衆生說法하여

령득원리번뇌생사 단일체고 중생문이
令得遠離煩惱生死하여 斷一切苦하리라 衆生聞已

수행 득법 득과 득도 여불여래등무차
하여 修行 得法 得果 得道하여 與佛如來等無差

별 비여왕자수부치소 약왕순유급이질
別하리라 譬如王子雖復稚小라도 若王巡遊及以疾

병 위시왕자 령리국사 왕자시시의대
病이면 委是王子하여 領理國事라 王子是時依大

왕명 여법교령군료백관 선류정화 국
王命하여 如法敎令群寮百官하며 宣流正化하니 國

토인민 각수기요 여대왕치 등무유이
土人民이 各隨其要하되 如大王治하여 等無有異나라

지경선남자 선녀인 역부여시 약불재세
持經善男子 善女人도 亦復如是하여 若佛在世거나

약멸도후 시선남자 수미득주초불동지
若滅度後에 是善男子가 雖未得住初不動地라도

의불여시용설교법이부연지 증생문이
依佛如是用說教法而敷演之나라 衆生聞已하고

일심수행 단제번뇌 득법득과 내지득
一心修行하여 斷除煩惱하고 得法得果하며 乃至得

도
道하리라

선남자 시명시경제륙공덕 불사의력
善男子야 是名是經第六功德이요 不思議力이니라

선남자 제칠시경 불가사의공덕력자 약선
善男子야 第七是經의 不可思議功德力者는 若善

남자 선녀인 어불재세 약멸도후 득문시
男子 善女人이 於佛在世거나 若滅度後에 得聞是

경 환희신락 생희유심 수지독송서
經하고 歡喜信樂하고 生希有心하여 受持讀誦書

사해설 여설수행 발보제심 기제선근
寫解說하며 如說修行하여 發菩提心하면 起諸善根

흥대비의 욕도일체고뇌증생 수미득
하며 興大悲意하여 欲度一切苦惱衆生하면 雖未得

수행륙파라밀 륜파라밀 자연재전 즉
修行六波羅蜜이라도 六波羅蜜이 自然在前하여 則

어시신득무생법인 생사번뇌 일시단괴
於是身得無生法忍 하고 生死煩惱를 一時斷壞 하고

승어보살제칠지지
昇於菩薩第七之地 하리라

비여건인 위왕제원 원기멸이 王大歡喜
譬如健人이 爲王除怨 하여 怨既滅已 하면 王大歡喜

상사반국지봉실이여지 지경선남자선
하여 賞賜半國之封悉以與之 나라 持經 善男子 善

녀인 역부여시 어제행인 최위용건 륵도
女人도 亦復如是 하여 於諸行人 最爲勇健 하니 六度

법보 불구자득지 생사원적 자연산괴
法寶를 不求自得 至라 生死怨敵이 自然散壞 하고

증무생인반불국보 봉상안락
證無生忍半佛國寶 하여 封賞安樂 하리라

선남자 시명시경제칠공덕 불사의력
善男子야 是名是經第七功德이요 不思議力이니라

선남자 제팔시경 불가사의 공덕력자 약
善男子야 第八是經의 不可思議 功德力者는 若

선남자 선녀인 약불재세 약멸도후 유인
善男子 善女人이 若佛在世 거나 若滅度後에 有人

능득시경전자 경신여시불신 령등무이
能得是經典者면 敬信如視佛身 하여 令等無異 하여

애락시경 수지 독송 서사 정대 여법봉
愛樂是經 하여 受持 讀誦 書寫 頂戴 하고 如法奉

행 견고제인 겸행 단도 심발자비
行 하며 堅固戒忍 하고 兼行 檀度 하여 深發慈悲 하며

이차 무상대승 무량의경 광위인설
以此 無上大乘 無量義經을 廣爲人說 이리라

약인선래도불신유죄복자 이시경시지 설
若人先來都不信有罪福者는 以是經示之 하고 設

종종방편 강화령신 이경위력고 발기인
種種方便 하여 強化令信 이면 以經威力故로 發其人

신심 흠연득회 신심기발 용맹정진
信心 하고 歆然得回 하리라 信心 既發 이면 勇猛精進

고 능득시경위덕세력 득도 득과
故로 能得是經威德勢力 하여 得道 得果 하리라

시고 선남자 선녀인 이몽화공덕고 남자녀
是故 善男子 善女人이 以夢化功德故로 男子 女

인 즉어시신득무생법인 득지상지 여제
人이 卽於是身得無生法忍 하여 得至上地 하고 與諸

보살 이위권속 속능성취중생 정불국토
菩薩로 以爲眷屬 하여 速能成就衆生 하여 淨佛國土

불구득성무상보제
하고 不久得成無上菩提 케하리라

선남자 시명시경제팔공덕 불사의력
善男子야 是名是經第八功德이요 不思議力이니라

선남자 제구시경 불가사의 공덕력자 약
善男子야 第九是經의 不可思議 功德力者는 若

선남자 선녀인 약불재세 약멸도후 유득
善男子 善女人이 若佛在世거나 若滅度後에 有得

시경 환희응약 득미증유 수지 독송
是經 하여 歡喜踊躍 하며 得未曾有 하여 受持 讀誦

서사 공양 광위증인 분별해설 시경의자
書寫 供養 하며 廣爲衆人 하여 分別解說 是經義者

즉득숙업여죄증장 일시멸진 변득청
는 卽得宿業餘罪重障이 一時滅盡하느니라 便得淸

정 체득대변 차제장엄제파라밀 획제
淨 하고 逮得大辯 하여 次第莊嚴諸波羅蜜 하고 獲諸

삼매 수릉엄삼매 입대총지문 득근정진
三昧 首楞嚴三昧 하고 入大總持門 하여 得勤精進

력 속득월상지 선능분신산체편십방극
力 하고 速得越上地 하여 善能分身散體遍十方國

토 발제일체이십오유극고증생 실령해
土 하며 拔濟一切二十五有極苦衆生 하여 悉令解

탈 시고시경 유여차력
脫 케하니라 是故是經은 有如此力이니라

선남자 시명시경제구공덕 불사의력
善男子야 是名是經第九功德이요 不思議力이니라

선남자 제십시경 불가사의 공덕력자 약선
善男子야 第十是經의 不可思議 功德力者는 若善

남자 선녀인 약불재세 약멸도후 약득시경
男子 善女人이 若佛在世거나 若滅度後에 若得是經

발대환희 생희유심 기자수지 독송 서
하고 發大歡喜하며 生希有心하여 既自受持 讀誦 書

사공양 여설수행 부능광권재가출가인
寫供養하며 如說修行하고 復能廣勸在家出家人하여

수지 독송 서사공양 해설 여법수행 기
受持 讀誦 書寫供養 解說 케하고 如法修行 케하면 既

령여인수행시경력고 득도 득과 개유시선
令餘人修行是經力故로 得道 得果 하리라 皆由是善

남자 선녀인 자심근화력고 시선남자 선녀인
男子 善女人의 慈心勤化力故로 是善男子 善女人

즉어시신 변체득무량제타라니문 어
은 卽於是身으로 便逮得無量諸陀羅尼門 하리라 於

범부지자연초시 능발무수아승기홍서대원
凡夫地自然初時에 能發無數阿僧祇弘誓大願 하고

심능발구일체중생 성취대비 광능발중고
深能發救一切衆生하여 成就大悲 하고 廣能拔衆苦 하

후집선근 요익일체 이연법택 홍
여 厚集善根 하고 饒益一切 케하리라 而演法澤 하여 洪

윤고학 능이법약 시제중생 안락일체
潤枯涸 하며 能以法藥 을 施諸衆生 하여 安樂一切 케하

점견초등주법운지 은택보윤 자피무
리라 漸見超登住法雲地 하리라 恩澤普潤 하여 慈被無

외 섭고중생 령입도적 시고차인
外 하고 攝苦衆生 하여 令入道跡 케하리라 是故此人 은

불구득성아녹다라삼막삼보제
不久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리라

선남자 시명시경제십공덕 불사의력
善男子야 是名是經第十功德 이요 不思議力 이니라

선남자 여시무상대승 무량의경 극유대위신
善男子야 如是無上大乗 無量義經 은 極有大威神

지력 존무과상 능령제범부 개성성과
之力 하고 尊無過上 이니라 能令諸凡夫 皆成聖果 하여

영리생사 개득자재
永離生死 하고 皆得自在 라

시고시경명무량의야 능령일체중생 어범
是故是經名無量義也 니라 能令一切衆生 으로 於凡

부지생기제보살무량도아 령공덕수을무부소
夫地生起諸菩薩無量道芽 하며 令功德樹鬱茂扶蔬

증장 증장하니 시고차경 是故此經은 호불가사의 공덕력 號不可思議功德力이니라

어시 대장엄보살마가살 급팔만보살마가살 동
於時 大莊嚴菩薩摩訶薩 及八萬菩薩摩訶薩이 同

성백불언 세존 여불소설 심심미묘 무
聲白佛言하되 世尊이시여 如佛所說 甚深微妙 無

상대승 무량의경 문리진정 존무과상
上大乘 無量義經은 文理眞正 하고 尊無過上이니이다

삼세제불 소공수호 무유중마군도득입 불
三世諸佛이 所共守護며 無有衆魔群道得入하고 不

위일체사견생사지소괴패 시고차경 내유
爲一切邪見生死之所壞敗이리니 是故此經은 乃有

여시십공덕불사의력야 대요익무량일체중
如是十功德不思議力也니이다 大饒益無量一切衆

생 령일체보살마가살 각득무량의삼매
生하며 令一切菩薩摩訶薩이 各得無量義三昧하고

혹득백천타라니문 혹령득보살제지제인
或得百千陀羅尼門하고 或令得菩薩諸地諸忍하며

혹득연각라한사도과증 세존자민 쾌
或得緣覺羅漢四道果證하나이다 世尊慈愍하시어 快

위아등설여시법 령아대획법리 심위기
爲我等說如是法하시어 令我大獲法利니이다 甚爲奇

특미증유야 세존자은 실난가보
特未曾有也이며 世尊慈恩은 實難可報 니이다

작시어이 이시 삼천대천세계 륵종진동
作是語已 하니 爾時 三千大千世界는 六種震動 하고

어상공중 부우종종 천화 천우발라화 발담마
於上空中에서 復雨種種 天華 天優鉢羅華 鉢曇摩

화 구물두화 분타리화 우우무수종종 천향
華 拘物頭華 分陀利華 하며 又雨無數種種 天香

천의 천영락 천무가보 어상공중선전래하
天衣 天瓔珞 天無價寶 하되 於上空中旋轉來下 하여

공양어불급제보살성문대중 천주천발기
供養於佛及諸菩薩聲聞大衆 이라 天廚 天鉢器에

천백미충만영일 견색무향 자연포족
天百味充滿盈溢 하니 見色聞香 하여도 自然飽足 이라

천당천번 천헌개천묘악구 처처안치 작천
天幢 天幡 과 天軒蓋 天妙樂具를 處處安置 하여 作天

기악 가탄어불 우부륵종진동 동방항하사
伎樂 하여 歌歎於佛 이라 又復六種震動 東方恒河沙

등제불세계 역우천화 천향 천의 천영락 천
等諸佛世界 하며 亦雨 天華 天香 天衣와 天瓔珞 天

무가보 천주천발기 천백미 견색무향 자
無價寶 하며 天廚 天鉢器 天百味를 見色聞香 하면 自

연포족 천당 천번 천헌개천묘악구 처처안
然飽足하며 天幢 天幡 天軒蓋 天妙樂具를 處處安

치 작천기악 가탄피불급제보살성문대중
置하며 作天伎樂하여 歌歎彼佛及諸菩薩聲聞大衆이

남서북방 사유상하 역부여시
라 南西北方 四維上下도 亦復如是나라

이시 불고대장엄보살마가살 급팔만보살마
爾時에 佛告大莊嚴菩薩摩訶薩 及八萬菩薩摩

가살언 여등당어차경응심기경심 여법
訶薩言하시되 汝等當於此經應深起敬心하고 如法

수행 광화일체 근심류포 상당은근주
修行하여 廣化一切하되 勤心流布하라 常當慇懃晝

야수호 령제중생 각획법리
夜守護하여 令諸衆生 各獲法利케하라

여등 진시대자대비 이립신통원력 수호시
汝等 眞是大慈大悲니 以立神通願力하여 守護是

경 물사의체 여어당시필령광행염부제
經하되 勿使疑滯하라 汝於當時必令廣行闍浮提하

령일체중생사득견문 독송 서사공양
여 令一切衆生使得見聞 讀誦 書寫供養케하라

이시지고 역질령여등속득아녹다라삼막삼보
以是之故로 亦疾令汝等速得阿耨多羅三藐三菩

제
提 하리라

시시 대장엄보살마가살 여팔만보살마가살
是時 大莊嚴菩薩摩訶薩 과 與八萬菩薩摩訶薩

즉종좌기 래예불소 두면례족 요백
이 卽從坐起 하여 來詣佛所 하고 頭面禮足 하고 遶百

천잡 즉전호쾌 구공동성백불언 세존
千匝 하고 卽前胡跪 하여 俱共同聲白佛言 하되 世尊

아등쾌몽세존자민 위아등설시심심
이시여 我等快蒙世尊慈愍 이니이다 爲我等說是甚深

미묘무상대승 무량의경 경수불칙 어여
微妙無上大乘 無量義經 하시니 敬受佛敕 하여 於如

래멸후 당광령류포시경전자 보령일체 수
來滅後에 當廣令流布是經典者 하여 普令一切 受

지 독송 서사공양 유원물수우려
持 讀誦 書寫供養 하리이다 唯願勿垂憂慮 하소서

아등당이원력 보령일체중생 사득차경
我等當以願力 으로 普令一切衆生 使得此經 하여

전문 독송서사공양 득시경법위신지복
見聞 讀誦書寫供養 하여 得是經法威神之福 하리이

다

이시 불찬언 선재선재 제선남자 여등
爾時에 佛讚言 하시되 善哉善哉라 諸善男子야 汝等

금자진시불자 홍대자비 심능발고 구액
今者眞是佛子라 弘大慈悲로 深能拔苦하여 救厄

자 일체중생 지량복전 광위일체작대량
者라 一切衆生 之良福田이며 廣爲一切作大良

도사 일체중생지대의지처 일체중생지
導師하니 一切衆生之大依止處이며 一切衆生之

대시주 상이법리광시일체 이시대회 개
大施主라 常以法利廣施一切케하라 爾時大會는 皆

대환희 위불작례 수지이거
大歡喜하여 爲佛作禮하고 受持而去니라

무량의경 십공덕품 종
無量義經 十功德品 終

무량의경 종
無量義經 終

묘법蓮華經 권 제 일
妙法蓮華經 卷 第 一

묘법蓮華經 서품 제 일
妙法蓮華經 序 品 第 一

여시아문 일시 불 주왕사성기사굴산중
如是我聞 하노라 一時에 佛이 住王舍城耆闍崛山中 하여

여대비구중만이천인 구 개시아라한 제 루
與大比丘衆萬二千人 俱 하시니 皆是阿羅漢이라 諸漏

이진 무부번뇌 채득이리 진제유결 심
已盡 하여 無復煩惱 하며 逮得已利 하여 盡諸有結 하고 心

득자재 기명왈아야교진여 마가가섭 우루빈
得自在 러시니 其名曰阿若憍陳如 摩訶迦葉 優樓頻

라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건련 마
螺迦葉 伽耶迦葉 那提迦葉 舍利弗 大目犍連 摩

가가전연 아누루타 겁빈나 교범파제 리파다 필
訶迦旃延 阿菟樓駄 劫賓那 憍梵波提 離婆多 畢

릉가파차 박구라 마가구치라 난타 손타라난타
陵伽婆蹉 薄拘羅 摩訶拘絺羅 難陀 孫陀羅 難陀

부루나미다라니자 수보제 아난 라후라 여
富樓那彌多羅尼子 須菩提 阿難 羅睺羅 등이라 如

시중소지식 대아라한등 부유학무학이천인
是衆所知識 大阿羅漢等 이며 復有學無學二千人 하며

마가파사파제비구니 여권속륙천인구 라후
摩訶波闍波提比丘尼 는 與眷屬六千人 俱 하며 羅睺

라모 야수타라비구니 역여권속구
羅母 耶輸陀羅比丘尼 도 亦 與眷屬 俱 하며

보살마가살 팔만인 개어아녹다라삼막삼보제
菩薩摩訶薩 八萬人 이 皆 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불퇴전 개득타라니 요설변재 전불퇴전법
不退轉 하고 皆得陀羅尼 樂說辯才 하여 轉不退轉法

륜 공양무량백천제불 어제불소 식중덕
輪 하며 供養無量百千諸佛 하여 於諸佛所 에서 植衆德

본 상위제불지소칭탄 이자수신 선입불
本 하여 常爲諸佛之所稱歎 하며 以慈修身 하여 善入佛

혜 통달대지 도어피안 명칭보문무량세
慧 하고 通達大智 하여 到於彼岸 하니 名稱普聞無量世

계 능도무수백천중생 기명왈문수사리보살
界 하고 能度無數百千衆生 하니 其名曰文殊師利菩薩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觀世音菩薩 得大勢菩薩 常精進菩薩 不休息菩薩

보장보살 약왕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寶掌菩薩 藥王菩薩 勇施菩薩 寶月菩薩 月光菩薩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
滿月菩薩 大力菩薩 無量力菩薩 越三界菩薩 跋陀

파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여시
婆羅菩薩 彌勒菩薩 寶積菩薩 導師菩薩 이니 如是

등보살마가살 팔만인구
等菩薩 摩訶薩 八萬人俱 하였으며

이시 석제환인 여기권속 이만천자구 부
爾時 釋提桓因 은 與其眷屬 二萬天子 俱 하였으며 復

유명월천자 보향천자 보광천자 사대천왕 여기
有名月天子 普香天子 寶光天子 四大天王 은 與其

권속 만천자 구 자재천자 대자재천자 여
眷屬 萬天子 로 俱 하며 自在天子 와 大自在天子 는 與

기권속삼만천자구 사파세계주범천왕 시
其眷屬 三萬天子 俱 하였으며 娑婆世界主 梵天王 과 尸

기대범 광명대범등 여기권속 만이천천자구
棄大梵 과 光明大梵 等 은 與其眷屬 萬二千天子 俱 하

유팔룡왕 난타룡왕 발난타룡왕 사가라
有八龍王 하니 難陀龍王 跋難陀龍王 娑伽羅

룡왕 화수길룡왕 덕차가룡왕 아나파달다룡왕 마
龍王 和修吉龍王 德叉迦龍王 阿那婆達多龍王 摩

나사룡왕 우발라룡왕등 각여약간백천권속 구
那斯龍王 優鉢羅龍王 等 이 各與若干百千眷屬 俱

유사긴나라왕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
有 四 緊 那 羅 王 하니 法 緊 那 羅 王 妙 法 緊 那 羅
하였으며

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 각여약간백천
王 大 法 緊 那 羅 王 持 法 緊 那 羅 王 이 各 與 若 干 百 千

권속구 유사건달파왕 악건달파왕 악음
眷 屬 俱 하였으며 有 四 乾 闥 婆 王 하니 樂 乾 闥 婆 王 樂 音

건달파왕 미건달파왕 미음건달파왕 각여약간
乾 闥 婆 王 美 乾 闥 婆 王 美 音 乾 闥 婆 王 이 各 與 若 干

백천권속구 유사아수라왕 파치아수라
百 千 眷 屬 俱 하였으며 有 四 阿 修 羅 王 하니 婆 稚 阿 修 羅

왕 거라건타아수라왕 비마질다라아수라왕 라후
王 佉 羅 鞞 駄 阿 修 羅 王 毘 摩 質 多 羅 阿 修 羅 王 羅 睺

아수라왕 각여약간백천권속구 유사가루
阿 修 羅 王 이 各 與 若 干 百 千 眷 屬 俱 하였으며 有 四 迦 樓

라왕 대위덕가루라왕 대신가루라왕 대만가루
羅 王 하니 大 威 德 迦 樓 羅 王 大 身 迦 樓 羅 王 大 滿 迦 樓

라왕 여의가루라왕 각여약간백천권속구
羅 王 如 意 迦 樓 羅 王 이 各 與 若 干 百 千 眷 屬 俱 하였으며

위제희자아사세왕 여약간백천권속구 각례
韋 提 希 子 阿 闍 世 王 도 與 若 干 百 千 眷 屬 俱 하여 各 禮

불족 퇴좌일면
佛 足 하고 退 坐 一 面 하니라

이시 세존 사중 위요 공양공경 존중 찬
爾時에世尊을四衆이圍繞하여供養恭敬하고尊重讚

탄 위제보살 설대승경 명무량의 교
歎하시고爲諸菩薩하여說大乘經하시니名無量義라敎

보살법 불소호념 불설차경이 결가부좌
菩薩法이며佛所護念이라佛說此經已結跏趺坐하시고

입어 무량의 처삼매 신심불동 시시 천우
入於無量義處三昧하시니身心不動하시거늘是時天雨

만타라화 마가만타라화 만수사화 마가만수사화
曼陀羅華 摩訶曼陀羅華 曼殊沙華 摩訶曼殊沙華

이산불상 급제대중 보불세계 륜종진동
하여而散佛上及諸大衆하며普佛世界가六種震動하

나라

이시회중 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천 룡 야
爾時會中에比丘比丘尼優婆塞 優婆夷 天 龍 夜

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
叉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人 非

인 급제소왕 전륜성왕 시제대중 득미증유
人及諸小王轉輪聖王의是諸大衆이得未曾有하여

환희합장 일심관불
歡喜合掌하고一心觀佛하나라

이시 불 방미 간백 호상광 조동방만팔천 세계
爾時에 佛 放眉間白毫相光 하여 照東方萬八千世界

미불주편 하지아비지옥 상지아가니타
하시니 靡不周徧 하여 下至阿鼻地獄 하고 上至阿迦尼吒

천 어차세계 진견피토 륵취중생 우견피
天 하며 於此世界에서 盡見彼土 六趣衆生 하며 又見彼

토 현재제불 급문제불 소설경법 병견피제
土 現在諸佛 하고 及聞諸佛 所說經法 하고 并見彼諸

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제수행득도자
比丘 比丘尼와 優婆塞 優婆夷의 諸修行得道者 하며

부견제보살마가살 종종인연 종종신해 종종상
復見諸菩薩摩訶薩이 種種因緣 種種信解 種種相

모 행보살도 부견제불 반넬반자 부견제불
貌로 行菩薩道 하며 復見諸佛 般涅槃者 하며 復見諸佛

반넬반후 이불사리 기칠보탑
般涅槃後에 以佛舍利 起七寶塔 하니라

이시 미륵보살 작시념 금자세존 현신변상
爾時에 彌勒菩薩이 作是念 하되 今者世尊이 現神變相

이하인연 이유태서 금불세존 입우
하시니 以何因緣으로 而有此瑞 하심인가 今佛世尊이 入于

삼매 시불가사의 현희유사 당이문수 수
三昧 하시니 是不可思議 現希有事 를 當以問誰 오며 誰

능답자 부작차념 시문수사리법왕지자 이
能答者 오 復作此念 하되 是文殊師利法王之子 는 已

증친근공양 과거무량제불 필응견차희유지상
曾親近供養 過去無量諸佛 이니 必應見此希有之相

아금당문
이리라 我今當問 하리라

이시 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급제천룡귀
爾時 에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와 及諸天龍鬼

신등 함작차념 시불광명신통지상 금당문
神等 이 咸作此念 하되 是佛光明神通之相 을 今當問

수 이시 미륵보살 욕자결의 우관사중
誰 오하더니 爾時 彌勒菩薩 이 欲自決疑 하고 又觀四衆

비구 비구니 우파새우파이 급제천룡귀신등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와 及諸天龍鬼神等

중회지심 이문문수사리언 이하인연 이
衆會之心 하고 而問文殊師利言 하되 以何因緣 으로 而

유차서 신통지상 방대광명 조우동방만팔
有此瑞 하여 神通之相 이 放大光明 하여 照于東方萬八

천토 실견피불 국계장엄
千土 하여 悉見彼佛 國界莊嚴 니이까

어시 미륵보살 욕중선차의 이계문왈
於是 彌勒菩薩 이 欲重宣此義 하여 以偈問曰 하되

문수사리
文殊師利 시여

도사하고
導師何故로

미간백호
眉間白毫에

대광보조
大光普照 하시며

우만타라
雨曼陀羅와

만수사화
曼殊沙華 하며

전단향풍
梅檀香風이

열가중심
悅可衆心 니이까

이시인연
以是因緣으로

지개엄정
地皆嚴淨 하며

이차세계
而此世界가

륙종진동
六種震動 하니

시사부중
時四部衆이

함개환희
咸皆歡喜 하고

신의쾌연
身意快然 하여

득미증유
得未曾有 니이까

미간광명
眉間光明이

조어동방
照於東方

만팔천토
萬八千土 하니

개여금색
皆如金色 이라

종아비옥
從阿鼻獄 하여

상지유정
上至有頂 토록

제세계중
諸世界 中

육도중생의
六道衆生 의

생사소취와
生死所趣 와

선악업연으로
善惡業緣 으로

수보호추를
受報好醜 를

어차실견하며
於此悉見 하며

우도제불
又觀諸佛

성주사자
聖主師子

연설경전
演說經典 이

미묘제일
微妙第一 이시라

기성청정
其聲淸淨

출유연음
出柔軟音 하여

교제보살
敎諸菩薩

무수억만
無數億萬 이니라

범음심묘
梵音深妙 하여

령인락무
令人樂聞 케하시며

각어세계
各於世界 에서

강설정법
講說正法 하시되

종종인연
種種因緣 과

이무량유
以無量喻 로

조명불법
照明佛法 하여

개오중생
開悟衆生 하심이라

약인조고
若人遭苦 하고

염로병사
厭老病死 거든

위설닐반
爲說涅槃 하여

진제고제
盡諸苦際 하며

약인유복
若人有福 하여

증공양불
曾供養佛 하고

지구승법
志求勝法 이거든

위설연각
爲說緣覺 하시며

약유불자
若有佛子

수종종행
修種種行 하여

구무상혜
求無上慧 하면

위설정도
爲說淨道 하시니

문수사리
文殊師利 시여

아주어차
我住於此 하여

견문약사
見聞若斯

급천억사
及千億事 이니

여시중다
如是衆多 를

금당략설
今當略說 하오리다

아견피토
我見彼土

항사보살
恒沙菩薩 이

종종인연
種種因緣 으로

이구불도
而求佛道 니이다

혹유행시
或有行施 하되

금은산호
金銀珊瑚 와

진주마니
眞珠摩尼

차거마노
碑磨碼瑙 와

금강제진
金剛諸珍

노비거승
奴婢車乘 과

보식련여
寶飾輦輿 를

환희포시
歡喜布施 하여

회향불도
廻向佛道 하고

원득시승
願得是乘 하니

삼제제일
三界第一 이라

제불소탄
諸佛所歎 이나다

혹유보살
或有菩薩 은

사마보거
駟馬寶車 를

라순화개
欄楯華蓋 로

헌식포시
軒飾布施 하며

부견보살
復見菩薩 은

신육수족
身肉手足 과

금처자시
及妻子施 하여

구무상도
求無上道 하며

우견보살
又見菩薩 은

두목신체
頭目身體 를

후락시여
欣樂施與 하여

구불지혜
求佛智慧 이나다

문수사리
文殊師利 시여

아견제왕
我見諸王 이

왕예불소
往詣佛所 하고

무무상도
問無上道 하고는

편사락토
便捨樂土 와

궁전신첩
宮殿臣妾 하고

체제수발
剃除鬚髮 하고

이피법복
而被法服 하며

혹견보살
或見菩薩 은

이작비구
而作比丘 하여

독처한정
獨處閒靜 하여

락송경전
樂誦經典 하며

우견보살
又見菩薩 은

용맹정진
勇猛精進 으로

입어심산
入於深山 하여

사유불도
思惟佛道 하며

우견리욕
又見離欲 하여

상처공한
常處空閒 하여

심수선정
深修禪定 하여

득오신통
得五神通 하며

우견보살
又見菩薩은

안선합장
安禪合掌하고

이천만게
以千萬偈로

찬제법왕
讚諸法王하며

부견보살
復見菩薩은

지심지고
智深志固하여

능문제불
能問諸佛하고

문실수지
聞悉受持하며

우견불자
又見佛子는

정혜구족
定慧具足하여

이무량유
以無量喻로

위증강법
爲衆講法하되

흥락설법
欣樂說法하여

화제보살
化諸菩薩하며

파마병중
破魔兵衆하고

이격법고
而擊法鼓니이다

우견보살
又見菩薩은

적연연묵
寂然宴默하여

천룡공경
天龍恭敬하여도

불이위희
不以爲喜하며

우견보살
又見菩薩은

처림방광
處林放光하되

제지옥고
濟地獄苦 하여

령입불도
令入佛道 하며

우견불자
又見佛子 는

미상수면
未嘗睡眠 하고

경행림중
經行林中 하여

근구불도
勤求佛道 하며

우견구제
又見具戒 하여

위의무결
威儀無缺

정여보주
淨如寶珠 하여

이구불도
以求佛道 하며

우견불자
又見佛子 는

주인욕력
住忍辱力 하여

증상만인
增上慢人 이

악매추타
惡罵捶打 라도

개실능인
皆悉能忍 하고

이구불도
以求佛道 하며

우견보살
又見菩薩 은

리제희소
離諸戲笑

급치권속
及癡眷屬 하고

친근지자
親近智者 하며

일심제란
一心除亂

섭념산림
攝念山林 하고

억천만세
億千萬歲에

이구불도
以求佛道하며

혹견보살
或見菩薩은

호선음식
肴饍飮食과

백종탕약
百種湯藥을

시불급승
施佛及僧하며

명의상복
名衣上服과

가치천만
價直千萬

혹무가의
或無價衣를

시불급승
施佛及僧하며

천만억종
千萬億種의

전단보사
旃檀寶舍와

중묘와구
衆妙臥具를

시불급승
施佛及僧하며

청정원림
淸淨園林의

화과무성
華果茂盛과

류천욕지
流泉浴池를

시불급승
施佛及僧이니다

여시등시
如是等施

종종미묘
種種微妙하되

환희무염
歡喜無厭하고

구무상도
求無上道하니

혹유보살
或有菩薩은

설적멸법
說寂滅法하여

중종교조
種種敎詔로

무수중생
無數衆生하며

혹견보살
或見菩薩은

관제법성
觀諸法性이

무유이상
無有二相하여

유여허공
猶如虛空이며

우견불자
又見佛子는

심무소착
心無所著하여

이차묘혜
以此妙慧로

구무상도
求無上道니이다

문수사리
文殊師利시여

우유보살
又有菩薩은

불멸도후
佛滅度後에

공양사리
供養舍利하고

우견불자
又見佛子는

조제탑묘
造諸塔廟를

무수항사
無數恒沙하여

엄식극계
嚴飾國界하니

보탑고묘
寶塔高妙

오천유순
五千由旬이며

종광정등은
縱廣正等은

이천유순이라
二千由旬이라

일일탑묘
一一塔廟에는

각천당번
各千幢幡하고

주교로만
珠交露幔하고

보령화명
寶鈴和鳴하니

제천룡신
諸天龍神과

인급비인
人及非人이

향화기악
香華伎樂으로

상이공양
常以供養이라

문수사리
文殊師利시여

제불자등
諸佛子등이

위공사리
爲供舍利하여

엄식탑묘
嚴飾塔廟하니

극제자연
國界自然

수특묘호
殊特妙好하여

여천수왕
如天樹王이

기화개부
其華開敷하나라

불방일광
佛放一光하시니

아급중회
我及衆會

견차국제
見此國界의

종종수묘
種種殊妙와

제불신력
諸佛神力과

지혜희유
智慧希有하며

방일정광
放一淨光하여

조무량국
照無量國하시니

아등견차
我等見此코

득미증유
得未曾有니이다

불자문수
佛子文殊여

원결중의
願決衆疑하소서

사중흥앙
四衆欣仰하여

침인급아
瞻仁及我니이다

세존하교
世尊何故로

방사광명
放斯光明하시니까

불자시답
佛子時答하여

결의령희
決疑令喜하소서

하소요익
何所饒益하여

연사광명
演斯光明이니까

불좌도장
佛坐道場하여

소득묘법
所得妙法을

위욕설차
爲欲說此니이까

위당수기
爲當授記니이까

시제불토
示諸佛土의

중보엄정
衆寶嚴淨하며

금견제불
及見諸佛하니

차비소연
此非小緣이니다

문수당지
文殊當知니이다

사중룡신
四衆龍神이

침찰인자
瞻察仁者하니

위설하등
爲說何等이니까

이시 문수사리 어미륵보살마가살금제대사
爾時에 文殊師利는 語 彌勒菩薩摩訶薩及諸大士하

선남자등 여아유존 금불세존 옥설대법
되 善男子等이여 如我惟忖컨대 今佛世尊이 欲說大法

우대법우 취대법라 격대법고
하시며 雨大法雨하시며 吹大法螺하시며 擊大法鼓하시며

연대법의 제선남자 아어과거제불 증견
演大法義하심이라 諸善男子여 我於過去諸佛의 曾見

차서 방사광이 즉설대법 시고당지
此瑞나라 放斯光已하고 卽說大法하시니라 是故當知하라

금불현광 역부여시 욕령중생 함득문지
今佛現光도 亦復如是니 欲令衆生으로 咸得聞知코자

일체세간난신지법 고헌사서 제선남자 여
一切世間難信之法을 故現斯瑞나라 諸善男子여 如

과거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승기겁 이시 유불
過去無量無邊 不可思議 阿僧祇劫에 爾時 有佛하시

호일월등명 여래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號日月燈明 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연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 이시라 演

설정법 초선중선후선 기의심원 기어교
說正法 하시니 初善中善後善 이라 其義深遠 하며 其語巧

묘 순일 무잡 구족청백범행지상 위구성
妙 하여 純一無雜 하고 具足清白梵行之相 이라 爲求聲

문자 설응사체법 도생로병사 구경멸
聞者 에게는 說應四諦法 하여 度生老病死 하시고 究竟涅

반 위구벽지불자 설응십이인연법
槃 케하시며 爲求辟支佛者 에게는 說應十二因緣法 하시며

위제보살 설응륙파라밀 령득아녹다라삼
爲諸菩薩 에게는 說應六波羅蜜 하여 令得阿耨多羅三

막삼보제 성일체종지
藐三菩提 하여 成一切種智 시니라

차부유불 역명일월등명 차부유불
次復有佛 하시니 亦名日月燈明 이시며 次復有佛 하시니

역명일월등명 여시이만불 개동일자 호
亦名日月燈明 이시라 如是二萬佛 이 皆同一字 시니 號

일월등명 우동일성 성파라타 미륵
日月燈明 이시며 又同一姓 이시니 姓은 頗羅墮 니라 彌勒

당지 초불후불 개동일자 명일월등명
當知 하라 初佛後佛이 皆同一字로 名日月燈明 이시니

십호구족 소가설법 초중후선 기최후불
十號具足 하시며 所可說法이 初中後善이니라 其最後佛

미출가시 유팔왕자 일명유의 이명선의 삼
未出家時에 有八王子 하니 一名有意요 二名善意요 三

명무량의 사명보의 오명증의 륵명제의의
名無量意요 四名寶意요 五名增意요 六名除疑意요

칠명향의 팔명법의 시팔왕자 위덕자재
七名響意요 八名法意니라 是八王子는 威德自在 하며

각령사천하 시제왕자문부출가 득아녹다
各領四天下 하더니 是諸王子聞父出家 하여 得阿耨多

라삼막삼보제 실사왕위 역수출가 발대
羅三藐三菩提 하고는 悉捨王位 하고 亦隨出家 하여 發大

승의 상수범행 개위법사 이어천만불소
乘意 하고 常修梵行 하여 皆爲法師 하니 已於千萬佛所에

식제선본
서 植諸善本 하니라

시시일월등명불 설대승경 명무량의 교보
是時日月燈明佛이 說大乘經 하시니 名無量義라 敎菩

살법 불소호념 설시경이 즉어대중중
薩法이며 佛所護念이라 說 是經 已 하시고 卽於大衆中에

결가부좌 입어 무량의 처 삼매 신심 불동
結跏趺坐 하시고 入於無量義處三昧 하여 身心不動 하시

시시천우만타라화 마가만타라화 만수사화 마
니 是時天雨曼陀羅華 摩訶曼陀羅華 曼殊沙華 摩

가만수사화 이산불상 급제대중 보불세계
訶曼殊沙華 하여 而散佛上 及諸大眾 하며 普佛世界 가

륙종진동 이시회중 비구비구니 우파새 우
六種震動 하나라 爾時會中 의 比丘比丘尼 優婆塞 優

파이천룡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婆夷 天 龍 夜叉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마후라가인비인 급제소왕 전륜성왕등 시제
摩睺羅伽 人 非人 과 及諸小王 轉輪聖王 等 是諸

대중 득미증유 환희합장 일심관불
大眾 이 得未曾有 하여 歡喜合掌 하고 一心觀佛 하나라

이시 여래 방미간백호상광 조동방만팔천불
爾時 에 如來 放眉間白毫相光 하여 照東方萬八千佛

토 미불주편 여금소견시제불토 미륵당
土 하여 靡不周遍 하시니 如今所見是諸佛土 라 彌勒當

지 이시회중 유이십억보살 락욕청법 시
知 하라 爾時會中 에 有二十億菩薩 이 樂欲聽法 하니 是

제보살 전차광명 보조불토 득미증유 욕지
諸菩薩 이 見此光明 普照佛土 하고 得未曾有 하여 欲知

차광소위인연 시유보살 명왈묘광 유팔
此光所爲因緣 하더니 時有菩薩 하니 名曰妙光 이며 有八

백제자 시시일월등명불 종삼매기 인묘
百弟子 하니라 是時日月燈明佛 이 從三昧起 하여 因妙

광보살 설대승경 명묘법련화 교보살법
光菩薩 하여 說大乘經 하시니 名妙法蓮華 라 敎菩薩法 이

불소호념
佛所護念 이라

륙십소겁 불기우좌 시회청자 역좌일처
六十小劫 을 不起于座 하시니 時會聽者 도 亦坐一處 하여

륙십소겁 신심불동 청불소설 위여식경
六十小劫 을 身心不動 하고 聽佛所說 하되 謂如食頃 하니

시시중중 무유일인 약신약심 이생해권
是時衆中 에 無有一人 도 若身若心 으로 而生懈怠 이더라

일월등명불 어륙십소겁 설시경이 즉어범
日月燈明佛 이 於六十小劫 에 說是經 已 하시고 卽於梵

마사문 파라문 급천인 아수라중중 이선차언
魔沙門 婆羅門 及天人 阿修羅衆中 에게 而宣此言

여래어금일중야 당입무여닐반 시유보
하되 如來於今日中夜 에 當入無餘涅槃 하리라 時有菩

살 명왈덕장 일월등명불 즉수기기 고
薩 하되 名曰德藏 이라 日月燈明佛 이 卽授其記 하시고 告

제비구 시덕장보살 차당작불 호왈 정
諸比丘하시되 是德藏菩薩이 次當作佛하리니 號曰 淨

신다타아가도 아라가 삼막삼불타 불수기이
身多陀阿伽度 阿羅訶 三藐三佛陀라 佛授記已하시

편어중야 입무여널반
고 便於中夜에 入無餘涅槃하시니라

불멸도후 묘광보살 지묘법련화경 만팔십
佛滅度後에 妙光菩薩이 持妙法蓮華經하여 滿八十

소겁 위인연설 일월등명불팔자 개사묘
小劫토록 爲人演說하니라 日月燈明佛八子도 皆師妙

광 묘광 교화 령기전고아녹다라삼막삼보
光하니 妙光이 敎化하여 令其堅固阿耨多羅三藐三菩

제 시제왕자 공양무량백천만억불이 개
提하니라 是諸王子는 供養無量百千萬億佛已하고 皆

성불도 기최후성불자 명왈연등 팔백제
成佛道하니 其最後成佛者는 名曰然燈이시라 八百弟

자중 유일인 호왈구명 탐착리양 수부
子中에 有一人하되 號曰求名이라 貪著利養하여 雖復

독송증경 이불통리 다소망실 고후구명
讀誦衆經하여도 而不通利하고 多所忘失하여 故號求名

이니라 시인역이종제선근인연고 득치무량백천
是人亦以種諸善根因緣故로 得值無量百千

만억제불 공양공경 존중찬탄
萬億諸佛 하여 供養恭敬 하고 尊重讚歎 하니라

미륵당지 이시묘광보살 기이인호 아신시
彌勒當知 하라 爾時妙光菩薩 이 豈異人乎 리오 我身是

야 구명보살 여신시아 금견차서 여본무
也 요 求名菩薩 은 汝身是也 니라 今見此瑞 하니 與本無

이 시고유존 금일여래 당설대승경 명
異 라 是故惟 忖 킨덴 今 日 如 來 當 說 大 乘 經 하시리니 名

묘법련화 교보살법 불소호념
妙法蓮華 라 敎菩薩法 이며 佛所護念 이니라

이시 문수사리 어대중중 욕중선차의 이설
爾時 에 文殊師利 가 於 大 衆 中 에 欲 重 宣 此 義 하여 而 說

게언
偈 言 하되

아념과거세
我念過去世

무량무수겁
無量無數劫에

유불인중존
有佛人中尊 하시니

호일월등명
號日月燈明 이시라

세존연설법
世尊演說法 하여

도무량중생과
度無量衆生과

무수억보살
無數億菩薩 하여

령입불지혜
令入佛智慧 하시니라

불미출가시
佛未出家時에

소생팔왕자
所生八王子는

전대성출가
見大聖出家하고

역수수법행
亦隨修梵行하니라

시불설대승
時佛說大乘하시니

경명무량의
經名無量義라

어제대중중
於諸大衆中에

이위광분별
而爲廣分別하시니라

불설차경이
佛說此經已하고

즉어법좌상
卽於法座上에서

가부좌삼매
跏趺坐三昧하시니

명무량의처
名無量義處라

천우만타화
天雨曼陀華하고

천고자연명
天鼓自然鳴하며

제천룡귀신
諸天龍鬼神이

공양인중존
供養人中尊하니

일체제불토
一切諸佛土가

즉시대진동
卽時大震動하니라

불방미간광
佛放眉間光하여

현제희유사
現諸希有事하시니라

차광조동방
此光照東方

만팔천불토
萬八千佛土하여

시 일 체 중 생 의
示 一 切 衆 生 의

생 사 업 보 처 라
生 死 業 報 處 라

유 견 제 불 토 는
有 見 諸 佛 土 는

이 중 보 장 엄 하여
以 衆 寶 莊 嚴 하여

류 리 파 리 색 하니
琉 璃 玻 梨 色 하니

사 유 불 광 조 니라
斯 由 佛 光 照 니라

급 견 제 천 인 과
及 見 諸 天 人 과

룡 신 야 차 중 과
龍 神 夜 叉 衆 과

건 달 긴 나 라 가
乾 闥 緊 那 羅 가

각 공 양 기 불 하며
各 供 養 其 佛 하며

우 견 제 여 래 는
又 見 諸 如 來 는

자 연 성 불 도 하여
自 然 成 佛 道 하여

신 색 여 금 산 하고
身 色 如 金 山 하고

단 엄 심 미 묘 함이
端 嚴 甚 微 妙 함이

여 정 류 리 중 에
如 淨 琉 璃 中 에

내 현 진 금 상 이라
內 現 眞 金 像 이라

세 존 재 대 중 하여
世 尊 在 大 衆 하여

부 연 심 법 의 하시니
敷 演 深 法 義 하시니

일 일 제 불 토 에
一 一 諸 佛 土 에

성 문 중 무 수 라
聲 聞 衆 無 數 라

인 불 광 소 조 로
因 佛 光 所 照 로

실 견 피 대 중 이라
悉 見 彼 大 衆 이라

혹유제비구
或有諸比丘는

재어산림중
在於山林中하여

정진지정계
精進持淨戒하되

유여호명주
猶如護明珠하며

우견제보살
又見諸菩薩은

행시인욕등
行施忍辱等하되

기수여항사
其數如恒沙하니

사유불광조
斯由佛光照라

우견제보살
又見諸菩薩이

심입제선정
深入諸禪定하고

신심적불동
身心寂不動하여

이구무상도
以求無上道하며

우견제보살
又見諸菩薩이

지법적멸상
知法寂滅相하고

각어기국토
各於其國土에서

설법구불도
說法求佛道하니라

이시사부중
爾時四部衆이

견일월등불
見日月燈佛의

현대신통력
現大神通力하고

기심개환희
其心皆歡喜하여

각각자상문
各各自相問하되

시사하인연
是事何因緣인고

천인소봉존
天人所奉尊이

적종삼매기
適從三昧起하여

찬묘광보살
讚妙光菩薩하시되

여위세간안
汝爲世間眼이니

일체소귀신
一切所歸信하리라

능봉지법장
能奉持法藏하되

여아소설법
如我所說法하라

유여능증지
唯汝能證知리라

세존기찬탄
世尊既讚歎하여

령묘광환희
令妙光歡喜케하시고

설시법화경
說是法華經하시되

만륙십소겁
滿六十小劫을

불기어차좌
不起於此座하시고

소설상묘법
所說上妙法을

시묘광법사
是妙光法師가

실개능수지
悉皆能受持하니라

불설시법화
佛說是法華하여

령중환희이
令衆歡喜已하시고

심즉어시일
尋卽於是日에

고어천인중
告於天人衆하시되

제법실상의
諸法實相義를

이위여등설
已爲汝等說하니라

아금어중야
我今於中夜에

당입어넬반
當入於涅槃하리니

여일심정진
汝一心精進하여

당리어방일
當離於放逸하라

제불심난치
諸佛甚難值라

억겁시일우
億劫時一遇니라

세존제자등이
世尊諸子等이

문불입넬반
聞佛入涅槃하고

각각회비뇌
各各懷悲惱하며

불멸일하속
佛滅一何速고

성주법지왕이
聖主法之王이

안위무량중
安慰無量衆하여

아약멸도시
我若滅度時에

여등물우포
汝等勿憂怖하라

시덕장보살이
是德藏菩薩이

어무루실상에
於無漏實相에

심이득통달
心已得通達하여

기차당작불
其次當作佛하리니

호왈위정신
號曰爲淨身이며

역도무량중
亦度無量衆하리라

불차야멸도
佛此夜滅度하시니

여신진화멸
如薪盡火滅이시라

분포제사리
分布諸舍利 하여

이기무량탑
而起無量塔 하고

비구비구니
比丘比丘尼 는

기수여항사
其數如恒沙 라

배부가정진
倍復加精進 하여

이구무상도
以求無上道 니라

시묘광법사
是妙光法師 는

봉지불법장
奉持佛法藏 하되

팔십소겁중
八十小劫中 에

광선법화경
廣宣法華經 하니라

시제팔왕자
是諸八王子 는

묘광소개화
妙光所開化 로

견고무상도
堅固無上道 하여

당견무수불
當見無數佛

공양제불이
供養諸佛 已 하고

수순행대도
隨順行大道 하니

상제득성불
相繼得成佛 하여

전차이수기
轉次而授記 하니라

최후천중천
最後天中天 은

호월연등불
號曰然燈佛 이시니라

제선지도사
諸仙之導師 이시며

도탈무량중
度脫無量衆 하시니라

시묘광법사
是妙光法師에

시유일제자
是有一弟子하니

심상회해태
心常懷懈怠하여

탐착어명리
貪著於名利하더니

구명리무염
求名利無厭하고

다유족성가
多遊族姓家하며

기사소습송
棄捨所習誦하여

페망불통리
廢忘不通利하니

이시인연고
以是因緣故로

호지위구명
號之爲求名이라

역행중선업
亦行衆善業하고

득견무수불
得見無數佛하여

공양어제불
供養於諸佛하고

수순행대도
隨順行大道하여

구륙파라밀
具六波羅蜜하고

금견석사자
今見釋師子하니

기후당작불
其後當作佛하되

호명왈미륵
號名曰彌勒이라

광도제중생
廣度諸衆生하되

기수무유량
其數無有量하리라

피불멸도후
彼佛滅度後에

해태자여시
懈怠者汝是요

묘광법사자
妙光法師者는

금즉아신시
今則我身是라

아견등명불
我見燈明佛의

본광서여차
本光瑞如此하니

이시지금불
以是知今佛도

욕설법화경
欲說法華經이니라

금상여본서
今相如本瑞는

시제불방편
是諸佛方便이시라

금불방광명
今佛放光明하여

조발실상의
助發實相義하심이라

제인금당지
諸人今當知리니

합장일심대
合掌一心待하라

불당우법우
佛當雨法雨하여

충족구도자
充足求道者하시리라

제구삼승인
諸求三乘人이

약유의회자
若有疑悔者면

불당위제단
佛當爲除斷하여

령진무유여
令盡無有餘하시리라

묘법련화경 서품 종
妙法蓮華經 序品 終

묘법蓮華經 방편품 제이
妙法蓮華經 方便品 第二

이시 세 존 종삼매안상이기 고사리불
爾時에世尊이從三昧安詳而起하여告舍利弗하시되

제불지혜 심심무량 기지혜문 난해난입
諸佛智慧는甚深無量하나라其智慧門은難解難入하니

일체성문벽지불 소불능지 소이자하 불증친
一切聲聞辟支佛이所不能知나라所以者何오佛曾親

근 백천만억 무수제불 진행제불무량도법
近百千萬億無數諸佛하여盡行諸佛無量道法하시고

용맹정진 명칭보문 성취심심미증유법
勇猛精進하여名稱普聞하나라成就甚深未曾有法하여

수의소설 의취난해 사리불 오종성불이래
隨宜所說은意趣難解나라舍利弗아吾從成佛已來로

종종인연 종종비유 광연언교 무수방편
種種因緣과種種譬喩로廣演言敎하며無數方便으로

인도중생 령리제착 소이자하 여래방편
引導衆生하여令離諸著하노라所以者何오如來方便

지견파라밀 개이구족
知見波羅蜜을皆已具足하나라

사리불 여래지견 광대심원 무량무애 력무
舍利弗아如來知見은廣大深遠하며無量無礙와力無

소외 선정해탈삼매 심입무제 성취일체 미
所畏와 禪定解脫三昧에 深入無際하시어 成就一切未

증유법 사리불 여래능종종분별 교설
曾有法하시니라 舍利弗아 如來能種種分別하여 巧說

제법 언사유연 열가중심 사리불 취요
諸法하시되 言辭柔輓하여 悅可衆心이니라 舍利弗아 取要

언지 무량무변미증유법 불실성취 지사
言之컨댄 無量無邊未曾有法을 佛悉成就하시니라 止舍

리불 불수부설 소이자하 불소성취 제일희
利弗아 不須復說이로다 所以者何오 佛所成就 第一希

유 난해지법 유불여불 내능구진 제법실상
有難解之法이니라 唯佛與佛이 乃能究盡 諸法實相하

소위제법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
나라 所謂諸法은 如是相이며 如是性이며 如是體이며 如

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是力이며 如是作이며 如是因이며 如是緣이며 如是果이며

여시보 여시본말구경등
如是報이며 如是本末究竟等이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시되

세웅불가량
世雄不可量이니라

제천급세인
諸天及世人과

일체중생류
一切衆生類는

무능지불자
無能知佛者나라

불력무소외
佛力無所畏와

해탈제삼매
解脫諸三昧

급불제여법
及佛諸餘法을

무능측량자
無能測量者나라

본종무수불
本從無數佛하여

구족행제도
具足行諸道라

심심미묘법
甚深微妙法은

난견난가료
難見難可了나라

어무량억겁
於無量億劫에

행차제도이
行此諸道已하고

도장득성과
道場得成果를

아이실지견
我已悉知見이니라

여시대과보
如是大果報의

종종성상의
種種性相義는

아급십방불
我及十方佛이

내능지시사
乃能知是事나라

시법불가시
是法不可示하니

언사상적멸
言辭相寂滅이라

제여중생류
諸餘衆生類는

무유능득해
無有能得解리라

제 제 보살 중
除 諸 菩 薩 衆

신력 견고자
信 力 堅 固 者 하노라

제 불제자 중
諸 佛 弟 子 衆 이

증공양제 불
曾 供 養 諸 佛 하여

일체 루이 진
一 切 漏 已 盡 한

주시최후신
住 是 最 後 身 의

여시제인 등
如 是 諸 人 等 도

기력소불감
其 力 所 不 堪 이니라

가사만세간
假 使 滿 世 間 의

개여사리 불
皆 如 舍 利 弗 하여

진사공탁량
盡 思 共 度 量 이라도

불능측불지
不 能 測 佛 智 니라

정사만십방
正 使 滿 十 方 이

개여사리 불
皆 如 舍 利 弗 하고

급여제제자
及 餘 諸 弟 子 가

역만십방찰
亦 滿 十 方 刹 하여

진사공탁량
盡 思 共 度 量 이라도

역부불능지
亦 復 不 能 知 니라

벽지불리지
辟 支 佛 利 智 와

무루최후신
無 漏 最 後 身 이

역만십방계
亦 滿 十 方 界 하여

기수여죽림
其 數 如 竹 林 하여

사등공일심
斯等共一心으로

어억무량겁
於億無量劫에

욕사불실지
欲思佛實智라도

막능지소분
莫能知少分이니라

신발의보살
新發意菩薩이

공양무수불
供養無數佛하여

료달제의취
了達諸義趣하고

우능선설법
又能善說法이

여도마죽위
如稻麻竹葦

충만십방찰
充滿十方刹하여

일심이묘지
一心以妙智로

어항하사겁
於恒河沙劫을

함개공사량
咸皆共思量이라도

불능지불지
不能知佛智니라

불퇴제보살
不退諸菩薩이

기수여항사
其數如恒沙하여

일심공사구
一心共思求라도

역부불능지
亦復不能知니라

우고사리불
又告舍利弗하시되

무루불사의
無漏不思議한

심심미묘법
甚深微妙法을

아금이구득
我今已具得하니

유아지시상
唯我知是相이며

십방불역연
十方佛亦然이라

사리불당지
舍利弗當知하라

제불어무이
諸佛語無異하니

어불소설법
於佛所說法에

당생대신력
當生大信力이니라

세존법구후
世尊法久後에야

요당설진실
要當說眞實하시느니라

고제성문중
告諸聲聞衆과

급구연각승
及求緣覺乘하노니

아령탈고박
我令脫苦縛하고

체득녕반자
逮得涅槃者하되

불이방편력
佛以方便力으로

시이삼승교
示以三乘敎는

중생처처착
衆生處處著하여

인지령득출
引之令得出이니라

이시 대중중 유제성문 루진아라한 아야교진
爾時에 大衆中에 有諸聲聞 漏盡阿羅漢 阿若橋陳

여등 천이백인 급발성문벽지불심 비구 비구
如等 千二百人과 及發聲聞辟支佛心한 比丘 比丘

니 우파새 우파이 각작시념 금자세존 하고
尼 優婆塞 優婆夷가 各作是念하되 今者世尊이 何故

은근칭탄방편 이작시언 불소득법 심
로 殷勤稱歎方便 하여 而作是言 하시느고 佛所得法 은 甚

심난해 유소언설 의취난지 일체성문벽지
深難解 하며 有所言說 은 意趣難知 라 一切聲聞辟支

불소불능급 불설일해탈의 아등역득차법
佛所不能及 이니까 佛說一解脫義 하여 我等亦得此法

도어널반 이금불지시의소취
하여 到於涅槃 이거늘 而今不知是義所趣 라

이시 사리불 지사중심의 자역미료 이백
爾時에 舍利弗이 知四衆心疑 하고 自亦未了 하여 而白

불언 세존 하인하연 은근칭탄 제불
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何因何緣 으로 殷勤稱歎 하시며 諸佛

제일방편 심심미묘난해지법 아자석래
第一方便 과 甚深微妙難解之法 이니까 我自昔來로

미증종불문여시설 금자사중 함개유의
未曾從佛聞如是說 이니다 今者四衆이 咸皆有疑 하오니

유원세존 부연사사 세존하고 은근칭탄
唯願世尊 은 敷演斯事 하소서 世尊何故로 殷勤稱歎

심심미묘 난해지법
甚深微妙 難解之法 이니까

이시 사리불 욕증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舍利弗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되

혜 일 대 성 존
慧 日 大 聖 尊 이

구 내 설 시 법
久 乃 說 是 法 하시되

자 설 득 여 시
自 說 得 如 是

력 무 외 삼 매
力 無 畏 三 昧 와

선 정 해 탈 등
禪 定 解 脫 等 의

불 가 사 의 법
不 可 思 議 法 하시며

도 장 소 득 법
道 場 所 得 法 은

무 능 발 문 자
無 能 發 問 者 하고

아 의 난 가 측
我 意 難 可 測 하여

역 무 능 문 자
亦 無 能 問 者 라 하시며

무 무 이 자 설
無 問 而 自 說 하시되

칭 탄 소 행 도
稱 歎 所 行 道 하시고

지 혜 심 미 묘
智 慧 甚 微 妙 하여

제 불 지 소 득
諸 佛 之 所 得 이라 하시니

무 루 제 라 한
無 漏 諸 羅 漢 과

급 구 념 반 자
及 求 涅 槃 者 는

금 개 타 의 망
今 皆 墮 疑 網 이니이다

불 하 고 설 시
佛 何 故 說 是 니이까

기 구 연 각 자
其 求 緣 覺 者 인

비 구 비 구 니
比 丘 比 丘 尼 와

제 천 룡 귀 신
諸 天 龍 鬼 神 과

급 건 달 파 등
及 乾 闥 婆 等 이

상시회유예
相視懷猶豫 하고

첨앙량족존
瞻仰兩足尊 하오니

시사위운하
是事爲云何 니이까

원불위해설
願佛爲解說 하소서

어제성문중
於諸聲聞衆 에게

불설아제일
佛說我第一 이나

아금자어지
我今自於智 로는

의혹불능료
疑惑不能了 이나라

위시구경법
爲是究竟法 이니까

위시소행도
爲是所行道 이니까

불구소생자
佛口所生子 는

합장첨앙대
合掌瞻仰待 하오니

원출미묘음
願出微妙音 하여

시위여실설
時爲如實說 하소서

제천룡신등
諸天龍神等 은

기수여항사
其數如恒沙 하며

구불제보살
求佛諸菩薩 은

대수유팔만
大數有八萬 하며

우제만억국
又諸萬億國 의

전륜성왕지
轉輪聖王至 하여

합장이경심
合掌以敬心 으로

욕문구족도
欲聞具足道 니이다

이시 불고사리불 지지 불수부설 약설
爾時에 佛告舍利弗하시되 止止하라 不須復說하라 若說

시사 일체세간 제천급인 개당경의 사리
是事하면 一切世間 諸天及人이 皆當驚疑하리라 舍利

불 중백불언 세존 유원설지 유원설
弗이 重白佛言하되 世尊이시여 唯願說之하소서 唯願說

지 소이자하 시회무수 백천만억 아승기중
之하소서 所以者何오 是會無數 百千萬億 阿僧祇衆

생 증견제불 제근맹리 지혜명료 문불
生은 曾見諸佛하여 諸根猛利하고 智慧明了하여 聞佛

소설 즉능경신
所說하면 則能敬信하리이다

이시 사리불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舍利弗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되

법왕무상존 유설원물려
法王無上尊이시여 唯說願勿慮하소서

시회무량중 유능경신자
是會無量衆은 有能敬信者니이다

불부지 사리불 약설시사 일체세간 천인
佛復止하시고 舍利弗아 若說是事면 一切世間 天人

아수라 개당경의 증상만비구 장추어대갱
阿修羅는 皆當驚疑하며 增上慢比丘는 將墜於大坑하

이시 세 존 중설게언
爾時에世尊이重說偈言하시되

지지불수설
止止不須說하라

아법묘난사
我法妙難思리니

제증상만자
諸增上慢者는

무필불경신
聞必不敬信하리라

이시 사리불 중백불언 세 존 유원설지
爾時에舍利弗이重白佛言하되世尊이시여唯願說之하

유원설지 금차회중 여아등비백천만억
소서唯願說之하소서今此會中의如我等比百千萬億은

세세이증종불수화 여차인등 필능경신 장
世世已曾從佛受化니如此人等은必能敬信하여長

야안은 다소요익
夜安隱하며多所饒益하리이다

이시 사리불 욕증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舍利弗이欲重宣此義하여而說偈言하되

무상량족존
無上兩足尊이시여

원설제일법
願說第一法하소서

아워불장자
我爲佛長子이니

유수분별설
唯垂分別說하소서

시회무량중
是會無量衆은

능경신차법
能敬信此法하리이다

불이 증세 세
佛已曾世世에

교화여시 등
教化如是等이니이다

개일심합장
皆一心合掌하고

욕청수불어
欲聽受佛語니이다

아등천이백
我等千二百과

급여구불자
及餘求佛者는

원위차중고
願爲此衆故로

유수분별설
唯垂分別說하소서

시 등문차법
是等聞此法이면

즉생대환희
則生大歡喜하리이다

이시 세 존 고사리 불 여이 은근삼청 기
爾時에世尊이告舍利弗하시되汝已殷勤三請하니豈

득불설 여금 체청 선사념지 오당위여
得不說이라汝今諦聽하고善思念之하라吾當爲汝

분별해설 설차어시 회중유 비구 비구니 우
分別解說하리라說此語時에會中有比丘比丘尼優

파새 우파이 오천인 등 즉종좌기 례불이퇴
婆塞優婆夷五千人等이卽從座起하여禮佛而退하

소이자하 차배 죄근심중 급증상만
나라所以者何오此輩는罪根深重하고及增上慢하여

미득위득 미증위증 유여차실 시이불주
未得謂得하며未證謂證이라有如此失하여是以不住

세 존 묵연 이 불 제 지 이 시 불 고 사 리
니라 世尊默然하여而不制止하시고爾時에佛告舍利

불 아 금 차 중 무 부 지 업 순 유 정 실
弗하시되我今此衆은無復枝葉하고純有貞實하니라

사 리 불 여 시 증 상 만 인 퇴 역 가 의 여 금 선 청
舍利弗아如是增上慢人은退亦佳矣니汝今善聽하

당 위 여 설 사 리 불 언 유 연 세 존 원 락
라當爲汝說하리라舍利弗言하되唯然世尊이시여願樂

욕 문
欲聞이니이다

불 고 사 리 불 여 시 묘 법 제 불 여 래 시 내 설 지
佛告舍利弗하시되如是妙法은諸佛如來가時乃說之

여 우 담 발 화 시 일 현 이 사 리 불 여 등 당 신
하시니如優曇鉢華時一現耳니라舍利弗아汝等當信하

불 지 소 설 언 불 허 망
라佛之所說은言不虛妄이니라

사 리 불 제 불 수 의 설 법 의 취 난 해 소 이 자
舍利弗아諸佛隨宜說法하시니意趣難解니라所以者

하 아 이 무 수 방 편 중 중 인 연 비 유 언 사 연 설
何오我以無數方便과種種因緣과譬喩言辭로演說

제 법 시 법 비 사 량 분 별 지 소 능 해 유 유 제 불
諸法하니是法은非思量分別之所能解리니唯有諸佛

내 능지 지 소이 자하 제 불세 존 유이 일대 사
이 乃能知之니라 所以者何오 諸佛世尊이 唯以一大事

인연고 출현어 세 사리불 운하명제 불세 존
因緣故로 出現於世시니라 舍利弗아 云何名諸佛世尊

유이 일대 사인연고 출현어 세 제 불세 존
이 唯以一大事因緣故로 出現於世라하고 諸佛世尊이

욕령 중생 개불지견 사득청정고 출현어 세
欲令衆生으로 開佛知見하여 使得清淨故로 出現於世

욕시 중생 불지 지견고 출현어 세 욕령
하시며 欲示衆生에 佛之知見故로 出現於世하시며 欲令

중생 오불지견고 출현어 세 욕령 중생
衆生으로 悟佛知見故로 出現於世하시며 欲令衆生으로

입불지견도고 출현어 세 사리불 시위제
入佛知見道故로 出現於世하시니라 舍利弗아 是爲諸

불 유이 일대 사인연고 출현어 세
佛이 唯以一大事因緣故로 出現於世시니라

불고 사리불 제불여래 단교화보살 제
佛告 舍利弗하시되 諸佛如來는 但敎化菩薩이니라 諸

유소작 상위일사 유이 불지 지견 시오 중생
有所作은 常爲一事 唯以佛之知見으로 示悟衆生이니

사리불 여래 단이 일불승고 위 중생 설법
라 舍利弗아 如來 但以一佛乘故로 爲衆生說法하시고

무유여승 약이약삼 사리불 일체십방제불
無有餘乘이 若二若三이리라 舍利弗아 一切十方諸佛

법역여시 사리불 과거제불 이무량무수방
法도亦如是니라 舍利弗아 過去諸佛이 以無量無數方

편종종인연 비유언사 이위중생 연설제법
便과種種因緣과 譬喩言辭로 而爲衆生하여 演說諸法

시법개위일불승고 시제중생 중제불문
하시니 是法皆爲一佛乘故니라 是諸衆生이 從諸佛聞

법구경개득일체종지 사리불 미래제불
法하고 究竟皆得一切種智니라 舍利弗아 未來諸佛이

당출어세 역이무량무수방편 종종인연 비
當出於世하여 亦以無量無數方便과 種種因緣과 譬

유언사 이위중생 연설제법 시법개위일
喩言辭로 而爲衆生하여 演說諸法하리니 是法皆爲一

불승고 시제중생 중불문법 구경개득일체
佛乘故니라 是諸衆生이 從佛聞法하고 究竟皆得一切

종지 사리불 현재십방무량백천만억불토중
種智니라 舍利弗아 現在十方無量百千萬億佛土中の

제불세존 다소요익 안락중생 시제불
諸佛世尊이 多所饒益하여 安樂衆生하시니라 是諸佛도

역이무량무수방편 종종인연 비유언사 이위
亦以無量無數方便과 種種因緣과 譬喩言辭로 而爲

중생 연설 제법 시법개위일 불승고 시제
衆生 하여 演說 諸法 하시니 是法 皆爲 一佛 乘故 나라 是 諸

중생 증불문법 구경개득일체종지
衆生 이 從佛 聞法 하고 究竟 皆得 一切 種智 나라

사리불 시제불 단교화보살 욕이불지지견
舍利弗 아 是 諸佛 은 但 敎化 菩薩 이나라 欲 以佛 之知 見

시중생고 욕이불지지견 오중생고 욕
을 示 衆生 故 이며 欲 以佛 之知 見 으로 悟 衆生 故 이며 欲

령중생 입불지지견고 사리불 아금역부여
令 衆生 으로 入佛 之知 見故 나라 舍利弗 아 我 今 亦 復 如

시 지제중생 유종종욕 심심소착 수기본
是 하여 知 諸衆生 의 有 種 種 欲 이 深 心 所 著 이니 隨 其 本

성 이종종인연 비유언사 방편력 이위설법
性 하여 以 種 種 因緣 과 譬 喻 言辭 方便力 으로 而 爲 說 法

사리불 여차개위득일불승일체종지고
하느니라 舍利弗 아 如 此 皆 爲 得 一佛 乘 一切 種智 故 나라

사리불 십방세계중 상무이승 하황유삼
舍利弗 아 十 方 世 界 中 에 尙 無 二 乘 이거늘 何 況 有 三 이라

사리불 제불 출어오탁악세 소위겁탁 번뇌
舍利弗 아 諸佛 이 出 於 五 濁 惡 世 나라 所 謂 劫 濁 煩 惱

탁 중생탁 견탁 명탁 여시사리불 겁탁란시
濁 衆生 濁 見 濁 命 濁 이나라 如 是 舍利弗 아 劫 濁 亂 時

중생구중 간탐질투 성취제불선근고 제
에는 衆生垢重 하여 慳貪嫉妬 로 成就諸不善根 故로 諸

불이방편력 어일불승 분별설삼
佛以方便力 으로 於一佛乘 하여 分別說三 이니라

사리불 약아제자 자위 아라한 벽지불자 불
舍利弗 아 若我弟子 가 自謂 阿羅漢 辟支佛 者 하며 不

문불지 제불여래단교화보살사 차비불제자
聞不知 諸佛如來但敎化菩薩事 면 此非佛弟子 이며

비아라한 비벽지불 우사리불 시제비구
非阿羅漢 이며 非辟支佛 이니라 又舍利弗 아 是諸比丘

비구니 자위이득아라한 시최후신 구경멸
比丘尼 가 自謂已得阿羅漢 하고 是最後身 이며 究竟涅

반 변불부지구아녹다라삼막삼보제 당지
槃 이라하여 便不復志求阿耨多羅三藐三菩提 면 當知

차배 개시증상만인 소이자하 약유비구 실
此輩 는 皆是增上慢人 이니라 所以者何 오 若有比丘 實

득아라한 약불신차법 무유시처 제불멸
得阿羅漢 하고 若不信此法 이면 無有是處 니라 除佛滅

도후 현전무불 소이자하 불멸도후 여시
度後 에 現前無佛 하라 所以者何 오 佛滅度後 에 如是

등경 수지 독송 해의자 시인난득 약우여
等經 을 受持 讀誦 解義 者 는 是人難得 이리라 若遇餘

불 어차법중 변득결료 사리불 여등
佛이라도 於此法中에서 便得決了하리라 舍利弗아 汝等은

당일심신해 수지불어 제불여래 언무허망
當一心信解하여 受持佛語하라 諸佛如來는 言無虛妄

무유여승 유일불승
이니 無有餘乘하고 唯一佛乘이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시되

비구비구니
比丘比丘尼는

유회증상만
有懷增上慢하고

우파새아만
優婆塞我慢과

우파이불신
優婆夷不信과

여시사중등의
如是四衆等의

기수유오천
其數有五千이라

불자견기과
不自見其過하고

어제유결루
於戒有缺漏하여

호석기하자
護惜其瑕疵니라

시소지이출
是小智已出이니

중중지조강은
衆中之糟糠은

불위덕고거
佛威德故去니라

사인선복덕
斯人尠福德하여

불감수시법
不堪受是法이니라

차중무지엽
此衆無枝葉 하고

유유제정실
唯有諸貞實 이라

사리불선청
舍利弗善聽 하라

제불소득법
諸佛所得法 을

무량방편력
無量方便力 으로

이위중생설
而爲衆生說 하느니라

중생심소념
衆生心所念 과

중종소행도
種種所行道 와

약간제욕성
若干諸欲性 과

선세선악업
先世善惡業 을

불실지시이
佛悉知是已 하시고

이제연비유
以諸緣譬喩 와

언사방편력
言辭方便力 으로

령일체환희
令一切歡喜 케하느니라

혹설수다라
或說脩多羅 와

가타급본사
伽陀及本事 와

본생미증유
本生未曾有 하며

역설어인연
亦說於因緣 과

비유병기야
譬喩并祇夜 와

우파제사경
優波提舍經 하노라

둔근락소법
鈍根樂小法 하여

탐착어생사
貪著於生死 하며

어제 무량불
於諸無量佛의

불행심묘도
不行深妙道하고

중고소뇌란
衆苦所惱亂하여

위시설넬반
爲是說涅槃이니라

아설시방편
我設是方便하여

령득입불혜
令得入佛慧니라

미증설여등
未曾說汝等에

당득성불도
當得成佛道니라

소이미증설
所以未曾說은

설시미지고
說時未至故니

금정시기시
今正是其時라

결정설대승
決定說大乘하노라

아차구부법
我此九部法은

수순중생설
隨順衆生說하여

입대승위본
入大乘爲本이라

이고설시경
以故說是经이니라

유불자심정
有佛子心淨하고

유연역리근
柔軟亦利根하여

무량제불소
無量諸佛所에서

이행심묘도
而行深妙道니라

위차제불자
爲此諸佛子하여

설시대승경
說是大乘經하노라

아기여시인
我記如是人은

래세성불도
來世成佛道하리니

이심심념불
以深心念佛하고

수지정계고
修持淨戒故나라

차등문득불
此等聞得佛하면

대희충편신
大喜充徧身하리라

불지피심행
佛知彼心行하여

고위설대승
故爲說大乘하리라

성문약보살
聲聞若菩薩이

문아소설법
聞我所說法과

내지어일게
乃至於一偈라도

개성불무의
皆成佛無疑리라

십방불토중
十方佛土中에는

유유일승법
唯有一乘法하고

무이역무삼
無二亦無三이니

제불방편설
除佛方便說이니라

단이가명자
但以假名字로

인도어중생
引導於衆生하여

설불지혜고
說佛智慧故나라

제불출어세
諸佛出於世는

유차일사실
唯此一事實이요

여이즉비진
餘二則非眞이니

종불이소승
終不以小乘으로

제도어중생
濟度於衆生이니라

불자주대승
佛自住大乘하시며

여기소득법
如其所得法하여

정혜력장엄
定慧力莊嚴이라

이차도중생
以此度衆生이니라

자증무상도
自證無上道와

대승평등법
大乘平等法하고

약이소승화
若以小乘化하여

내지어일인
乃至於一人이면

아즉타간탐
我則墮慳貪이니

차사위불가
此事爲不可니라

약인신귀불
若人信歸佛하면

여래불기광
如來不欺誑하며

역무탐질의
亦無貪嫉意로

단제법중악
斷諸法中惡이니라

고불어십방
故佛於十方에서

이독무소외
而獨無所畏니라

아이상엄신
我以相嚴身하며

광명조세간
光明照世間하여

무량중소존
無量衆所尊하고

위설실상인
爲說實相印이니라

사리불당지
舍利弗當知 하라

아본립서원
我本立誓願 이

욕령일체중
欲令一切衆 으로

여아등무이
如我等無異 나라

여아석소원
如我昔所願 이

금자이만족
今者已滿足 하니

화일체중생
化一切衆生 하여

개령입불도
皆令入佛道 나라

약아우중생
若我遇衆生 하면

진교이불도
盡教以佛道 건마는

무지자착란
無智者錯亂 하고

미혹불수교
迷惑不受教 하니

아지차중생
我知此衆生 이

미증수선본
未曾修善本 이나라

견착어오욕
堅著於五欲 하여

치애고생뇌
癡愛故生惱 나라

이제욕인연
以諸欲因緣 으로

추타삼악도
墮墮三惡道 하며

륜회륙취중
輪廻六趣中 하여

비수제고독
備受諸苦毒 이나라

수래지미형
受胎之微形 으로

세세상증장
世世常增長 하며

박덕소복인
薄德少福人 으로

중고소핍박
衆苦所逼迫 하며

입사견주림
入邪見稠林 하여

약유약무등
若有若無等 이라

의지차제견
依止此諸見 하여

구족륙십이
具足六十二 하며

심착허망법
深著虛妄法 하여

견수불가사
堅受不可捨 하고

아만자궁고
我慢自矜高 하며

첨곡심불실
諂曲心不實 하여

어천만억겁
於千萬億劫 에도

불문불명자
不聞佛名字 하고

역불문정법
亦不聞正法 이니

여시인난도
如是人難度 니라

시고사리불
是故舍利弗 아

아위설방편
我爲設方便 하여

설제진고도
說諸盡苦道 하며

시지이멸반
示之以涅槃 이니라

아수설멸반
我雖說涅槃 이나

시역비진멸
是亦非眞滅 이니라

제법종본래
諸法從本來 로

상자적멸상
常自寂滅相 하니

불자행도이
佛子行道已하면

래세득작불
來世得作佛이라

아유방편력
我有方便力으로

개시삼승법
開示三乘法하니

일체제세존
一切諸世尊도

개설일승도
皆說一乘道나라

금차제대중
今此諸大衆은

개응제의혹
皆應除疑惑하라

제불어무이
諸佛語無異하여

유일무이승
唯一無二乘이라

과거무수겁
過去無數劫에

무량멸도불
無量滅度佛이

백천만억종
百千萬億種으로

기수불가량
其數不可量이니라

여시제세존
如是諸世尊도

종종연비유
種種緣譬喩와

무수방편력
無數方便力으로

연설제법상
演說諸法相하시니

시제세존등
是諸世尊等도

개설일승법
皆說一乘法하여

화무량중생
化無量衆生하여

령입어불도
令入於佛道나라

우제대성주
又諸大聖主는

지일체세간
知一切世間

천인군생류
天人群生類의

심심지소욕
深心之所欲하고

갱이이방편
更以異方便으로

조현제일의
助顯第一義나라

약유중생류
若有衆生類

치제과거불
值諸過去佛하여

약문법포시
若聞法布施하고

혹지제인욕
或持戒忍辱과

정진선지등
精進禪智等으로

종종수복혜
種種修福慧하면

여시제인등
如是諸人等은

개이성불도
皆已成佛道나라

제불멸도후
諸佛滅度後에

약인선연심
若人善軟心하면

여시제중생
如是諸衆生은

개이성불도
皆已成佛道나라

제불멸도이
諸佛滅度已에

공양사리자
供養舍利者는

기만억종탑
起萬億種塔하되

금은금파려
金銀及玻瓈

차거여마노
碑磔與碼礪와

매괴류리주
玫瑰瑠璃珠로

청정광엄식
淸淨廣嚴飾하고

장교어제탑
莊校於諸塔하며

혹유기석묘
或有起石廟하되

전단금침수
梅檀及沈水와

목밀병여재
木櫛并餘材와

전와니토등
甄瓦泥土等으로

약어광야중
若於曠野中에

적토성불묘
積土成佛廟하며

내지동자희
乃至童子戲로

취사위불탑
聚沙爲佛塔하면

여시제인등
如是諸人等은

개이성불도
皆已成佛道나라

약인위불고
若人爲佛故로

건립제형상
建立諸形像하며

각조성중상
刻雕成衆相하면

개이성불도
皆已成佛道나라

혹이칠보성
或以七寶成하며

유석적백동
鑰鉞赤白銅과

백랍금연석
白蠟金鉛錫과

철목금여니
鐵木及與泥하며

혹이교칠포
或以膠漆布로

엄식작불상
嚴飾作佛像하면

여시제인등
如是諸人等은

개이성불도
皆已成佛道하나라

채화작불상
彩畫作佛像하여

백복장엄상
百福莊嚴相하되

자작약사인
自作若使人이라도

개이성불도
皆已成佛道하리라

내지동자희
乃至童子戲로

약초목급필
若草木及筆이나

혹이지조갑
或以指爪甲으로

이화작불상
而畫作佛像하여도

여시제인등
如是諸人等은

점점적공덕
漸漸積功德으로

구족대비심
具足大悲心하여

개이성불도
皆已成佛道하고

단화제보살
但化諸菩薩하여

도탈무량중
度脫無量衆하리라

약인어탑묘
若人於塔廟와

보상급화상
寶像及畫像에

이화향번개
以華香幡蓋로

경심이공양
敬心而供養하며

약사인작악
若使人作樂 하되

격고취각패
擊鼓吹角貝 하고

소적금공후
簫笛琴箏篴 와

비파노동발
琵琶鐺銅鈸 의

여시중묘음
如是衆妙音 으로

진지이공양
盡持以供養 하며

혹이환희심
或以歡喜心 으로

가패송불덕
歌唄頌佛德 하되

내지일소음
乃至一小音 이라도

개이성불도
皆已成佛道 하리라

약인산란심
若人散亂心 으로

내지이일화
乃至以一華 를

공양어화상
供養於畫像 이라도

점견무수불
漸見無數佛 하며

혹유인례배
或有人禮拜 하되

혹부단합장
或復但合掌 하거나

내지거일수
乃至舉一手

혹부소저두
或復小低頭 하여

이차공양상
以此供養像 하면

점견무량불
漸見無量佛 하며

자성무상도
自成無上道 하여

광도무수중
廣度無數衆 하고

입 무여닐반
入 無 餘 涅 槃 하되

여신진화멸
如 薪 盡 火 滅 이리라

약인산란심
若 人 散 亂 心 으로

입어탑묘중
入 於 塔 廟 中 하여

일칭남무불
一 稱 南 無 佛 하면

개이성불도
皆 已 成 佛 道 니라

어제과거불
於 諸 過 去 佛 의

재세혹멸후
在 世 或 滅 後 에

약유문시법
若 有 聞 是 法 하면

개이성불도
皆 已 成 佛 道 니라

미래제세존
未 來 諸 世 尊 은

기수무유량
其 數 無 有 量 하니

시제여래등
是 諸 如 來 等 도

역방편설법
亦 方 便 說 法 하리라

일체제여래
一 切 諸 如 來 는

이무량방편
以 無 量 方 便 으로

도탈제중생
度 脫 諸 衆 生 하여

입불무루지
入 佛 無 漏 智 니라

약유문법자
若 有 聞 法 者 는

무일불성불
無 一 不 成 佛 이니

제불본서원
諸 佛 本 誓 願 은

아소행불도
我 所 行 佛 道 를

보욕령중생
普欲令衆生으로

역동득차도
亦同得此道나라

미래세제불
未來世諸佛이

수설백천억
雖說百千億의

무수제법문
無數諸法門이라도

기실위일승
其實爲一乘이니

제불량족존
諸佛兩足尊은

지법상무성
知法常無性하여

불종종연기
佛種從緣起니

시고설일승
是故說一乘이니라

시법주법위
是法住法位이며

세간상상주
世間相常住니

어도장지이
於道場知己하고

도사방편설
導師方便說하시니라

천인소공양
天人所供養의

현재십방불
現在十方佛이

기수여항사
其數如恒沙하여

출현어세간
出現於世間하여

안은중생고
安隱衆生故로

역설여시법
亦說如是法이니라

지제일적멸
知第一寂滅이건만은

이방편력고
以方便力故로

수시종종도
雖示種種道 하시나

기실위불승
其實爲佛乘 이나라

지중생제행
知衆生諸行 과

심심지소념
深心之所念 과

과거소습업
過去所習業 과

욕성정진력
欲性精進力 과

급제근리둔
及諸根利鈍 이나

이종종인연
以種種因緣 과

비유역언사
譬喻亦言辭 로

수응방편설
隨應方便說 이나라

금아역여시
今我亦如是 하여

안은중생고
安隱衆生故 로

이종종법문
以種種法門 으로

선시어불도
宣示於佛道 니라

아이지혜력
我以智慧力 으로

지중생성욕
知衆生性欲 하여

방편설제법
方便說諸法 하여

개령득환희
皆令得歡喜 니라

사리불당지
舍利弗當知 하라

아이불안관
我以佛眼觀 으로

견육도중생
見六道衆生 하니

빈궁무복혜
貧窮無福慧 하며

입생사험도
入生死險道 하여

상속고불단
相續苦不斷 하고

심착어오욕
深著於五欲 하되

여모우애미
如犛牛愛尾 하며

이탐애자폐
以貪愛自蔽 하여

맹명무소견
盲瞑無所見 이라

불구대세불
不求大勢佛 과

급여단고법
及與斷苦法 하고

심입제사견
深入諸邪見 하여

이고욕사고
以苦欲捨苦 하니

위시중생고
爲是衆生故 로

이기대비심
而起大悲心 이니라

아시좌도장
我始坐道場 하고

관수역경행
觀樹亦經行 하며

어삼칠일중
於三七日中 에

사유여시사
思惟如是事 하니라

아소득지혜
我所得智慧 는

미묘최제일
微妙最第一 이라

중생제근둔
衆生諸根鈍 하여

착락치소맹
著樂癡所盲 이니

여사지등류
如斯之等類 를

운하이가도
云何而可度 뇨

이시제법왕
爾時諸梵王과

급제천제석
及諸天帝釋과

호세사천왕
護世四天王과

급대자재천
及大自在天과

병여제천중
并餘諸天衆의

권속백천만
眷屬百千萬이

공경합장례
恭敬合掌禮하며

청아전법륜
請我轉法輪커늘

아즉자사유
我卽自思惟하되

약단찬불승
若但讚佛乘이라도

중생몰재고
衆生沒在苦하니

불능신시법
不能信是法하여

파법불신고
破法不信故로

추어삼악도
墮於三惡道리니

아녕불설법
我寧不說法하고

질입어널반
疾入於涅槃하려다가

십념과거불
尋念過去佛의

소행방편력
所行方便力하고

아금소득도
我今所得道를

역응설삼승
亦應說三乘하리라

작시사유시
作是思惟時에

십방불개현
十方佛皆現하여

범음위유아
梵音慰喻我 하되

선재석가문
善哉釋迦文

제일지도사
第一之導師 여

득시무상법
得是無上法 이건마는

수제일체불
隨諸一切佛 하여

이용방편력
而用方便力 하시느뇨

아등역개득
我等亦皆得

최묘제일법
最妙第一法 이건만은

위제중생류
爲諸衆生類 하여

분별설삼승
分別說三乘 이니다

소지락소법
小智樂小法 하고

불자신작불
不自信作佛 이라

시고이방편
是故以方便 으로

분별설제과
分別說諸果 하고

수부설삼승
雖復說三乘 하니

단위교보살
但爲敎菩薩 이니다

사리불당지
舍利弗當知 하라

아문성사자
我聞聖師子 의

심정미묘음
深淨微妙音 하고

칭남무제불
稱南無諸佛 하니라

부작여시념
復作如是念 하되

아출탁악세
我出濁惡世 니

여 제 불 소 설
如 諸 佛 所 說 로

아 역 수 순 행
我 亦 隨 順 行 하리라

사 유 시 사 이
思 惟 是 事 已 하고

즉 취 파 라 나
卽 趣 波 羅 奈 하여

제 법 적 멸 상
諸 法 寂 滅 相 을

불 가 이 언 선
不 可 以 言 宣 하고

이 방 편 력 고
以 方 便 力 故 로

위 오 비 구 설
爲 五 比 丘 說 하니

시 명 전 법 률
是 名 轉 法 輪 이라

편 유 념 반 음
便 有 涅 槃 音 과

급 이 아 라 한
及 以 阿 羅 漢 과

법 승 차 별 명
法 僧 差 別 名 하니라

종 구 원 겁 래
從 久 遠 劫 來 로

찬 시 념 반 법
讚 示 涅 槃 法 하고

생 사 고 영 진
生 死 苦 永 盡 을

아 상 여 시 설
我 常 如 是 說 하노라

사 리 불 당 지
舍 利 弗 當 知 하라

아 견 불 자 등
我 見 佛 子 等 하니

지 구 불 도 자
志 求 佛 道 者

무 량 천 만 억
無 量 千 萬 億 이

함 이 공 경 심
咸 以 恭 敬 心 으로

개 래 지 불 소
皆 來 至 佛 所 하여

증종제불문
曾從諸佛聞

방편소설법
方便所說法이라

아즉작성념
我卽作是念하되

여래소이출
如來所以出은

위설불혜고
爲說佛慧故니

금정시기시
今正是其時라

사리불당지
舍利弗當知하라

둔근소지인
鈍根小智人과

착상교만자
著相憍慢者는

불능신시법
不能信是法이라

금아희무외
今我喜無畏하여

어제보살중
於諸菩薩中에

정직사방편
正直捨方便하고

단설무상도
但說無上道하노라

보살문시법
菩薩聞是法하고

의망개이제
疑網皆已除리니

천이백라한
千二百羅漢도

실역당작불
悉亦當作佛하리라

여삼세제불
如三世諸佛

설법지의식
說法之儀式으로

아금역여시
我今亦如是

설무분별법
說無分別法하노라

제불흥출세
諸佛興出世_는

현원치우난
懸遠值遇難_{이라}

정사출우세
正使出于世_{라도}

설시법부난
說是法復難_{하여}

무량무수겁
無量無數劫_에

무시법역난
聞是法亦難_{이라}

능청시법자
能聽是法者_도

사인역부난
斯人亦復難_{이니라}

비여우담화
譬如優曇華_를

일체개애요
一切皆愛樂_{함은}

천인소희유
天人所希有_{하여}

시시내일출
時時乃一出_{이니라}

문법환희찬
聞法歡喜讚_{하되}

내지발일언
乃至發一言_{이라도}

즉위이공양
卽爲已供養

일체삼세불
一切三世佛_{이니라}

시인심희유
是人甚希有_{하여}

과어우담화
過於優曇華_{니라}

여등물유의
汝等勿有疑_{하라}

아위제법왕
我爲諸法王_{이니}

보고제대중
普告諸大衆_{하노니}

단일일승도
但以一乘道_로

교화제보살
敎化諸菩薩 하되

무성문제자
無聲聞弟子 나라

여등사리불
汝等舍利弗

성문급보살
聲聞及菩薩 은

당지시묘법
當知是妙法 은

제불지비요
諸佛之秘要 나라

이오탁악세
以五濁惡世 에는

단락착제욕
但樂著諸欲 하니

여시등중생
如是等衆生 은

종불구불도
終不求佛道 나라

당래세악인
當來世惡人 은

무불설일승
聞佛說一乘 이라도

미혹불신수
迷惑不信受 하고

파법타악도
破法墮惡道 하리라

유참괴청정
有慙愧淸淨 하여

지구불도자
志求佛道者 거든

당위여시등
當爲如是等 하여

광찬일승도
廣讚一乘道 하라

사리불당지
舍利弗當知 하라

제불법여시
諸佛法如是 하니

이만억방편
以萬億方便 으로

수의이설법
隨宜而說法 하시니

기불습학자
其不習學者는

불능효료차
不能曉了此나라

여등기이지
汝等既已知

제불세지사
諸佛世之師의

수의방편사
隨宜方便事하니

무부제의혹
無復諸疑惑하고

심생대환희
心生大歡喜하여

자지당작불
自知當作佛하라

묘법련화경 방편품 종
妙法蓮華經 方便品 終

묘법련화경 권제일 종
妙法蓮華經 卷第一 終

묘법蓮華經 권 제이
妙法蓮華經 卷 第二

묘법蓮華經 비유품 제삼
妙法蓮華經 譬喻品 第三

이시 사리불 응약환희 즉기합장 첨앙존
爾時에舍利弗이踊躍歡喜하며卽起合掌하고瞻仰尊

안 이백불언 금종세존 무차법음 심회응
顔하며而白佛言하되今從世尊聞此法音하고心懷踊

약 득미증유 소이자하 아석종불 문여시
躍하여得未曾有나이다所以者何오我昔從佛聞如是

법 견제보살 수기작불 이아등불예사사
法하니見諸菩薩이受記作佛하되而我等不預斯事하여

심자감상실어여래 무량지견
甚自感傷失於如來無量知見이니다

세존 아상독처산림수하 약좌약행 매작
世尊이시여我常獨處山林樹下에서若坐若行하며每作

시념 아등동입법성 운하여래 이소승법
是念하니我等同入法性이거늘云何如來는以小乘法으

이견제도 시아등구 비세존야
로而見濟度이신고是我等咎라非世尊也이니다

소이자하 약아등 대설소인 성취아능다라
所以者何 오 若我等 이 待說所因 하여 成就阿耨多羅

삼막삼보제자 필이대승 이득도탈 연아
三藐三菩提者 이면 必以大乘 으로 而得度脫 이거늘 然我

등불해 방편수의소설 초문불법 우편신수
等不 解 方便隨宜所說 를 初聞佛法 하고 遇便信受 하여

사유취증 세존 아종석래 종일경야
思惟取證 이니다 世尊 이시여 我從昔來 로 終日竟夜 토록

매자극책 이금종불 문소미문 미증유법
每自剋責 하더니 而今從佛 하여 聞所未聞 未曾有法 하고

단제의회 신의태연 쾌득안온 금일내지
斷諸疑悔 하고 身意泰然 하여 快得安穩 이니다 今日乃知

진시불자 종불구생 종법화생 득불법분
眞是佛子 니이다 從佛口生 하며 從法化生 하여 得佛法分

하나이다

이시 사리불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 에 舍利弗 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되

아문시법음
我聞是法音 하고

득소미증유
得所未曾有 하여

심희대환희
心懷大歡喜

의망개이제
疑網皆已除 니이다

석래몽불교
昔來蒙佛敎 하여

불실어대승
不失於大乘 하니

불음심희유
佛音甚希有 하여

능제중생뇌
能除衆生惱 하시니

아이득루진
我已得漏盡 하여

무역제우뇌
聞亦除憂惱 니이다

아처어산곡
我處於山谷

혹재림수하
或在林樹下 에서

약좌약경행
若坐若經行 하며

상사유시사
常思惟是事 하고

오호심자책
嗚呼深自責 하되

운하이자기
云何而自欺 인고

아등역불자
我等亦佛子 로

동입무루법
同入無漏法 이건만은

불능어미래
不能於未來 에

연설무상도
演說無上道 하며

금색삼십이
金色三十二 와

십력제해탈
十力諸解脫 이

동공일법중
同共一法中 이거늘

이불득차사
而不得此事 하며

팔십종묘호
八十種妙好 와

십팔불공법
十八不共法 의

여시등공덕
如是等功德을

이아개이실
而我皆已失인고

아독경행시
我獨經行時에

전불재대중
見佛在大衆하여

명무만십방
名聞滿十方하여

광요익중생
廣饒益衆生이시거늘

자유실차리
自惟失此利하고

아위자기광
我爲自欺誑이니다

아상어일야
我常於日夜에

매사유시사
每思惟是事하여

욕이문세존
欲以問世尊하되

위실위불실
爲失爲不失이니까

아상견세존
我常見世尊이

칭찬제보살
稱讚諸菩薩하고

이시어일야
以是於日夜에

주량여차사
籌量如此事니이다

금무불음성
今聞佛音聲하니

수의이설법
隨宜而說法하여

무루난사의
無漏難思議라

령중지도장
令衆至道場이니다

아본착사견
我本著邪見하여

위제범지사
爲諸梵志師러니

세 존지 아심
世尊知我心 하시고

발사설멸반
拔邪說涅槃 이시니

아실제사견
我悉除邪見 하여

어공법득증
於空法得證 이니다

이시심자위
爾時心自謂 하되

득지어멸도
得至於滅度 러니

이금내자각
而今乃自覺 하니

비시실멸도
非是實滅度 니이다

약득작불시
若得作佛時 에

구삼십이상
具三十二相 하며

천인야차중
天人夜叉衆 과

룡신등공경
龍神等恭敬 하리니

시시내가위
是時乃可謂

영진멸무여
永盡滅無餘 니이다

불어대중중
佛於大衆中 에

설아당작불
說我當作佛 하시니

문여시법음
聞如是法音 하고

의회실이제
疑悔悉已除 니이다

초문불소설
初聞佛所說 하고

심중대경의
心中大驚疑 하되

장비마작불
將非魔作佛 하여

뇌란아심야
惱亂我心耶 러니

불이종종연
佛以種種緣과

비유교언설
譬喻巧言說하시니

기심안여해
其心安如海하여

아문의망단
我聞疑網斷이니다

불설과거세
佛說過去世에

무량멸도불
無量滅度佛도

안주방편중
安住方便中하여

역개설시법
亦皆說是法이며

현재미래불
現在未來佛도

기수무유량
其數無有量하되

역이제방편
亦以諸方便으로

연설여시법
演說如是法하시며

여금자세존
如今者世尊도

종생급출가
從生及出家하여

득도전법륜
得道轉法輪하되

역이방편설
亦以方便說하시니

세존설실도
世尊說實道시나

파수무차사
波旬無此事니이다

이시아정지
以是我定知니이다

비시마작불
非是魔作佛이요

아타의망고
我墮疑網故로

위시마소위
謂是魔所爲니이다

문불유연음
聞佛柔輓音으로

심원심미묘
深遠甚微妙의

연창청정법
演暢淸淨法하고

아심대환희
我心大歡喜하여

의회영이진
疑悔永已盡하고

안주실지중
安住實智中하니

아정당작불
我定當作佛하여

위천인소경
爲天人所敬하고

전무상법륜
轉無上法輪하여

교화제보살
教化諸菩薩하니이다

이시 불고사리불 오금어 천인사문파라
爾時에 佛告舍利弗 하시오 吾今於 天人沙門 婆羅

문등대중중설 아석증어 이만억불소 위무
門等大衆中說하노라 我昔曾於 二萬億佛所에서 爲無

상도고 상교화여 여역장야 수아수학
上道故로 常教化汝니라 汝亦長夜에 隨我受學하니라

아이방편 인도여고 생아법중 사리불
我以方便으로 引導汝故로 生我法中이니라 舍利弗아

아석교여 지원불도 여금실망 이편자위
我昔敎汝하여 志願佛道거늘 汝今悉忘하고 而便自謂

이득멸도 아금환욕령여억념 본원소행도고
已得滅度라하니라 我今還欲令汝憶念 本願所行道故

위 제 성 문 설 시대 승 경 명 묘 법련 화 교 보
로 爲 諸 聲 聞 하여 說 是 大 乘 經 하니 名 妙 法 蓮 華 라 敎 菩

살 법 불 소 호 념 사 리 불 여 어 미 래 세 과
薩 法 이며 佛 所 護 念 이니라 舍 利 弗 아 汝 於 未 來 世 에 過

무 량 무 변 불 가 사 의 겁 공 양 약 간 천 만 억 불
無 量 無 邊 不 可 思 議 劫 하여 供 養 若 干 千 萬 億 佛 하고

봉 지 정 법 구 족 보 살 소 행 지 도 당 득 작 불
奉 持 正 法 하여 具 足 菩 薩 所 行 之 道 하고 當 得 作 佛 하리니

호 월 화 광 여 래 응 공 정 편 지 명 행 족 선 서 세 간 해
號 曰 華 光 如 來 應 供 正 遍 知 明 行 足 善 逝 世 間 解

무 상 사 조 어 장 부 천 인 사 불 세 존 극 명 리 구
無 上 士 調 御 丈 夫 天 人 師 佛 世 尊 이라 國 名 離 垢 요

기 토 평 정 청 정 업 식 안 온 풍 락 천 인 치
其 土 平 正 하고 淸 淨 嚴 飾 하며 安 穩 豐 樂 하여 天 人 이 熾

성 류 리 위 지 유 팔 교 도 황 금 위 승 이
盛 하리라 瑠 璃 爲 地 하고 有 八 交 道 하되 黃 金 爲 繩 하여 以

계 기 측 기 방 각 유 칠 보 향 수 상 유 화 과 화
界 其 側 하고 其 傍 各 有 七 寶 行 樹 하여 常 有 華 果 니라 華

광 여 래 역 이 삼 승 교 화 중 생 사 리 불 피
光 如 來 도 亦 以 三 乘 으로 敎 化 衆 生 하리라 舍 利 弗 아 彼

불 출 시 수 비 악 세 이 본 원 고 설 삼 승 법 기
佛 出 時 에 雖 非 惡 世 나 以 本 願 故 로 說 三 乘 法 하니라 其

겁명 대보장엄 하고 명왈대보장엄 기국중
劫名은 대寶莊嚴이라 何故로 名曰大寶莊嚴고 其國中

이보살위대보고
은 以菩薩爲大寶故니라

피제보살 무량무변 불가사의 산수비유 소불
彼諸菩薩이 無量無邊 不可思議라 算數譬喩로 所不

능급 비불지력 무능지자 약욕행시 보
能及이니 非佛智力이면 無能知者니라 若欲行時면 寶

화승족 차제보살 비초발의 개구식덕본
華承足이니라 此諸菩薩은 非初發意요 皆久植德本하여

어무량 백천만억불소 정수범행 항위제불
於無量 百千萬億佛所에서 淨修梵行하여 恒爲諸佛

지소칭탄 상수불혜 구대신통 선지일체
之所稱歎이니라 常修佛慧하여 具大神通하고 善知一切

제법지문 질직무위 지념견고 여시보살
諸法之門하여 質直無僞하며 志念堅固하니 如是菩薩이

충만기국 사리불 화광불수 십이소겁
充滿其國하리라 舍利弗아 華光佛壽는 十二小劫이니

제위왕자 미작불시 기국인민수 팔소겁
除爲王子하여 未作佛時며 其國人民壽는 八小劫이니라

화광여래 과십이소겁 수전만보살아녹다라
華光如來는 過十二小劫하여 授堅滿菩薩阿耨多羅

삼막삼보제기 고제비구 시견만보살 차당
三藐三菩提記 하고 告諸比丘 하되 是堅滿菩薩 이 次當

작불 호왈화족안행 다타아가도 아라가 삼막
作佛 하여 號曰華足安行 多陀阿伽度 阿羅訶 三藐

삼불타 기불국토 역부여시 사리불 시
三佛陀 라하리니 其佛國土 도 亦復如是 니라 舍利弗 아 是

화광불멸도지후 정법주세 삼십이소겁 상
華光佛滅度之後 에 正法住世 는 三十二小劫 이며 像

법주세 역삼십이소겁
法住世 도 亦三十二小劫 이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 에 世尊 이 欲重宣此義 하시어 而說偈言 하시되

사리불래세
舍利弗來世 에

성불보지존
成佛普智尊 하면

호명왈화광
號名曰華光 이라

당도무량중
當度無量衆 하리라

공양무수불
供養無數佛 하고

구족보살행
具足菩薩行 과

십력등공덕
十力等功德 을

증어무상도
證於無上道 하리라

과무량겁이
過無量劫 已 하고

겁명대보엄
劫名大寶嚴 이요

세 제 명 리 구
世 界 名 離 垢 라

청 정 무 하 예
淸 淨 無 瑕 穢 하며

이 류 리 위 지
以 瑠 璃 爲 地 하고

금 승 제 기 도
金 繩 界 其 道 하며

칠 보 잡 색 수
七 寶 雜 色 樹 에는

상 유 화 과 실
常 有 華 果 實 이니라

피 국 제 보 살
彼 國 諸 菩 薩 은

지 념 상 견 고
志 念 常 堅 固 하여

신 통 파 라 밀
神 通 波 羅 蜜 을

개 이 실 구 족
皆 已 悉 具 足 하고

어 무 수 불 소
於 無 數 佛 所 에서

선 학 보 살 도
善 學 菩 薩 道 하니

여 시 등 대 사
如 是 等 大 士 는

화 광 불 소 화
華 光 佛 所 化 니라

불 위 왕 자 시
佛 爲 王 子 時 에

기 국 사 세 영
棄 國 捨 世 榮 하고

어 최 말 후 신
於 最 末 後 身 에

출 가 성 불 도
出 家 成 佛 道 하리라

화 광 불 주 세
華 光 佛 住 世 의

수 십 이 소 겁
壽 十 二 小 劫 이며

기 국 인 민 중
其 國 人 民 衆 의

수 명 팔 소 겁
壽 命 八 小 劫 이라

불멸도지후
佛滅度之後에

정법주어세
正法住於世는

삼십이소겁
三十二小劫이니

광도제중생
廣度諸衆生하고

정법멸진이
正法滅盡已하면

상법삼십이
像法三十二나라

사리광류포
舍利廣流布하여

천인보공양
天人普供養하리니

화광불소위
華光佛所爲의

기사개여시
其事皆如是나라

기량족성존
其兩足聖尊은

최승무류필
最勝無倫匹이니

피즉시여신
彼卽是汝身이니

의응자흔경
宜應自欣慶할지라

이시 사부중 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천
爾時에 四部衆 比丘 比丘尼와 優婆塞 優婆夷와 天

룡 야차 전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
龍 夜叉 乾闥婆와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와 摩睺羅

가등 대중 전사리불 어불전 수아녹다라삼막삼
伽等 大衆이 見舍利弗 於佛前 受阿耨多羅三藐三

보제기 심대환희 용약무량 각각탈신소
菩提記하고 心大歡喜하여 踊躍無量하며 各各脫身所

착상의 이공양불 석제환인 범천왕등 여무
著上衣 하여 以供養佛 하니 釋提桓因 梵天王等 이 與無

수천자역이천묘의 천만타라화 마가만타라화
數天子亦以天妙衣 와 天曼陀羅華 摩訶曼陀羅華

등 공양어불 소산천의주허공중 이자회
等 으로 供養於佛 하니 所散天衣住虛空中 하여 而自廻

전 제천기악백천만종 어허공중 일시구작
轉 하며 諸天伎樂百千萬種 은 於虛空中에 一時俱作

우중천화 이작시언 불석어파라나 초
하며 雨衆天華 하니 而作是言 하되 佛昔於波羅奈에서 初

전법륜 금내부전무상최대법륜
轉法輪 하시고 今乃復轉無上最大法輪 이로다

이시 제천자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諸天子는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되

석어파라나
昔於波羅奈에서

전사체법륜
轉四諦法輪 하여

분별설제법
分別說諸法

오중지생멸
五衆之生滅 하시고

금부전최묘의
今復轉最妙의

무상대법륜
無上大法輪 하시도다

시법심심오
是法甚深奧 하여

소유능신자
少有能信者 리라

아등종석래
我等從昔來로

삭문세존설
數聞世尊說이나

미증문여시
未曾聞如是

심묘지상법
深妙之上法이니이다

세존설시법
世尊說是法하시니

아등개수희
我等皆隨喜니이다

대지사리불
大智舍利弗이

금득수존기
今得受尊記하니

아등역여시
我等亦如是

필당득작불
必當得作佛하여

어일체세간
於一切世間에

최존무유상
最尊無有上하리이다

불도파사의
佛道叵思議니

방편수의설
方便隨宜說이라

아소유복업
我所有福業과

금세약과세
今世若過世에

급견불공덕
及見佛功德을

진회향불도
盡廻向佛道하나이다

이시 사리불 백불언 세존 아금무부의
爾時에舍利弗이白佛言하되世尊이시여我今無復疑

회 친어불전 득수아녹다라삼막삼보제기
悔하여親於佛前得受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니이다

시제천이백 심자재자 석주학지 불상교화언
是諸千二百心自在者는 昔住學地에 佛常敎化言하

아법능리 생로병사 구정널반 시학
我法能離生老病死하고 究竟涅槃이라하셨거늘 是學

무학인 역각자이리아견 급유무견등 위득널
無學人도 亦各自已離我見 及有無見等하여 謂得涅槃

반 이금어세 존전 문소미문 개타의혹
槃이러니 而今於世尊前에서 聞所未聞하고 皆墮疑惑이

선재세존 원위사중 설기인연 령리
善哉世尊이시여 願爲四衆하여 說其因緣하여 令離

의회 이시 불고사리불 아선불언제불세
疑悔하소서 爾時에 佛告舍利弗하시되 我先不言諸佛世

존 이종종인연 비유언사 방편설법 개위아
尊이 以種種因緣과 譬喩言辭로 方便說法이 皆爲阿

녹다라삼막삼보제야 시제소설 개위화보살고
耨多羅三藐三菩提耶아 是諸所說이 皆爲化菩薩故

연사리불 금당부이비유 갱명차의 제
然舍利弗아 今當復以譬喩로 更明此義하리라 諸

유지자 이비유득해
有智者는 以譬喩得解하리라

사리불 약국읍취락 유대장자 기년쇠매
舍利弗아 若國邑聚落에 有大長者하니 其年衰邁하되

재부무량 다유전택 급제동복 기가광대
財富無量 하여 多有田宅及諸僮僕 하며 其家廣大 하되

유유일문 다제인중 일백이백내지오백인
唯有一門 하고 多諸人衆 하여 一百二百乃至五百人 이

지주기중 당각후고 장벽퇴락 주근부패
止住其中 하니라 堂閣朽故 하고 牆壁隕落 하여 柱根腐敗

량동경위 주잡구시 홀연화기 분소사
하고 梁棟傾危 한데 周匝俱時 에 歟然火起 하여 焚燒舍

택 장자제자 약십이십혹지삼십 재차택중
宅 이니라 長者諸子 가 若二十或至三十 이 在此宅中

장자 견시대화종사면기 즉대경포 이
이라 長者 는 見是大火從四面起 하고 卽大驚怖 하여 而

작시념 아수능어차소소지문 안온득출
作是念 하되 我雖能於此所燒之門 에서 安穩得出 이나

이제자등 어화택내 락착희희 불각불지
而諸子等 은 於火宅內 에서 樂著嬉戲 하되 不覺不知 하고

불경불포 화래핍신 고통절이 심불염환
不驚不怖 하며 火來逼身 하여 苦痛切已 로되 心不厭患 하

무구출의 사리불 시장자 작시사유 아신
고 無求出意 라 舍利弗 아 是長者 는 作是思惟 하되 我身

수유력 당이의극 약이케안 종사출지
手有力 하니 當以衣祴 이나 若以几案 으로 從舍出之 라하

부갱사유 시사유유일문 이부협소 제
더니 復更思惟 하되 是舍唯有一門 하고 而復狹小 하되 諸

자유치 미유소식 련착희처 흑당타락
子幼稚 하여 未有所識 하고 戀著戲處 하니 或當墮落 하거

위화소소 아당위설포외지사 차사이소
나 爲火所燒 리니 我當爲說怖畏之事 하리라 此舍已燒 하

의시질출 무령위화지소소해 작시념이
니 宜時疾出 하여 無令爲火之所燒害 하리라 作是念已 하

여소사유 구고제자 여등속출 부수
고 如所思惟 하여 具告諸子 하되 汝等速出 하라하니라 父雖

련민 선언유유 이제자등 락착희희 불
憐愍 하여 善言誘喻 하나 而諸子等 은 樂著嬉戲 하되 不

응신수 불경불외 료무출심 역부불지하
肯信受 하고 不驚不畏 하여 了無出心 하니 亦復不知何

자시화 하자위사 운하위실 단동서주희
者是火며 何者爲舍며 云何爲失 하고 但東西走戲 하며

시부이이
視父而已라

이시 장자 즉작시념 차사이위대화소소
爾時에 長者는 卽作是念 하되 此舍已爲大火所燒 하니

아금제자 약불시출 필위소분 아금당설
我及諸子가 若不時出 하면 必爲所焚 하리라 我今當設

방편 령제자등 득면사해 부지제자선심
方便 하여 令 諸 子 等 을 得 免 斯 害 하리라 父 知 諸 子 先 心 에

각유소호종종진완기이지물 정필락착 이고
各 有 所 好 種 種 珍 玩 奇 異 之 物 을 情 必 樂 著 하고 而 告

지언 여등소가완호 희유난득 여악불취
之 言 하되 汝 等 所 可 玩 好 는 希 有 難 得 이니라 汝 若 不 取 면

후필우회 여차종종양거 록거 우거 금재문외
後 必 憂 悔 리라 如 此 種 種 羊 車 鹿 車 牛 車 가 今 在 門 外

가이유희 여등 어차화택 의속출래
하니 可 以 遊 戲 하라 汝 等 은 於 此 火 宅 에서 宜 速 出 來 하라

수여소욕 개당여여 이시제자 문부소설
隨 汝 所 欲 하여 皆 當 與 汝 하리라 爾 時 諸 子 는 聞 父 所 說

진완지물 적기원고 심각응예 호상추배
珍 玩 之 物 이 適 其 願 故 로 心 各 勇 銳 하여 互 相 推 排 하고

경공치주 쟁출화택 시시장자 견제자등
競 共 馳 走 하여 爭 出 火 宅 하니라 是 時 長 者 는 見 諸 子 等 이

안온득출 개어사구도중 로지이좌 무부장
安 穩 得 出 하여 皆 於 四 衢 道 中 에 露 地 而 坐 하여 無 復 障

애 기심태연 환희응약 시제자등 각백
礙 하고 其 心 泰 然 하며 歡 喜 踊 躍 하니라 時 諸 子 等 이 各 白

부언 부선소허완호지구 양거 록거 우거 원
父 言 하되 父 先 所 許 玩 好 之 具 인 羊 車 鹿 車 牛 車 를 願

시사여
時賜與 하소서

사리불 이시장자 각사제자등일대거 기거
舍利弗 아 爾時長者는 各賜諸子等 一大車 하니 其車

고광 중보장교 주잡란수 사면현령 우
高廣 하며 衆寶莊校 하고 周匝欄楯 하여 四面懸鈴 하고 又

어기상 장설헌개 역이진기잡보 이엄식지
於其上에 張設幃蓋 하되 亦以珍奇雜寶로 而嚴飾之 하

보승교락 수제화영 중부완연 안치단
며 寶繩交絡 하고 垂諸華瓔 하여 重敷婉筵 하고 安置丹

침 가이백우 부색충결 형체주호 유대
枕 하며 駕以白牛 하니 膚色充潔 하며 形體姝好 하고 有大

근력 행보평정 기질여풍 우다복종 이
筋力 하여 行步平正 하고 其疾如風 하며 又多僕從 하여 而

시위지 소이자하 시대장자 재부무량 종
侍衛之나라 所以者何오 是大長者는 財富無量 하여 種

종제장 실개충일 이작시념 아재물무극
種諸藏이 悉皆充溢 이라 而作是念 하되 我財物無極 하니

불응이하렬소거 여제자등 금차유동 개시
不應以下劣小車를 與諸子等 이라 今此幼童은 皆是

오자 애무편당 아유여시칠보대거 기수무
吾子니 愛無偏黨 이라 我有如是七寶大車 하되 其數無

량 응당 등심 각각여지 불의차별 소
量 하니 應當等心 으로 各各與之 하되 不宜差別 하나라 所

이 자 하 이 아차물 주 급 일 국 유 상 불 케
以者何 오 以我此物 로 周給一國 이라도 猶尙不匱 거든

하 황 제 자 시 시 제 자 각 승 대 거 득 미 증 유
何況諸子 리오 是時諸子 는 各乘大車 하고 得未曾有 하여

비 본 소 망 사 리 불 어 여 의 운 하 시 장 자 등
非本所望 이라 하나라 舍利弗 아 於汝意云何 오 是長者等

여 제 자 진 보 대 거 녕 유 허 망 부 사 리 불 언 불
與諸子珍寶大車 가 寧有虛妄 아 舍利弗 言 하되 不

야 세 존 시 장 자 단 령 제 자 득 면 화 난
也 니이다 世尊 이시여 是長者 는 但令諸子 로 得免火難 하

전 기 구 명 비 위 허 망 하 이 고 약 전 신
여 全其軀命 이라도 非爲虛妄 이니이다 何以故 오 若全身

명 편 위 이 득 완 호 지 구 황 부 방 편 어 피
命 하여도 便爲已得玩好之具 이거늘 況復方便 으로 於彼

화 택 이 발 제 지 세 존 약 시 장 자 내 지
火宅 에서 而拔濟之 니이까 世尊 이시여 若是長者 가 乃至

불 여 최 소 일 거 유 불 허 망 하 이 고 시 장 자
不與最小一車 라도 猶不虛妄 이니이다 何以故 오 是長者

선 작 시 의 아 이 방 편 령 자 득 출 이 시 인
先作是意 하되 我以方便 으로 令子得出 이라 하니 以是因

연 무허망야 하황장자 자지재부무량
緣 으로 無 虛 妄 也 니이다 何 況 長 者 는 自 知 財 富 無 量 하고

욕요익제자 등여대거
欲 饒 益 諸 子 하여 等 與 大 車 니이까

불고 사리불 선재선재 여여소언
佛 告 舍 利 弗 하시되 善 哉 善 哉 라 如 汝 所 言 이니라

사리불 여래역부여시 즉위일체세간지부
舍 利 弗 아 如 來 亦 復 如 是 하여 則 爲 一 切 世 間 之 父 니라

어제포외 쇠뇌우환 무명암폐 영진무여 이
於 諸 怖 畏 와 衰 惱 憂 患 과 無 明 闇 蔽 가 永 盡 無 餘 하고 而

실성취 무량지견력 무소외 유대신력 급지혜
悉 成 就 無 量 知 見 力 無 所 畏 하여 有 大 神 力 及 智 慧

력 구족방편 지혜 파라밀 대자대비 상무
力 하고 具 足 方 便 智 慧 婆 羅 蜜 하며 大 慈 大 悲 로 常 無

해권 항구선사 리익일체 이생삼제 후고
懈 倦 하고 恒 求 善 事 하여 利 益 一 切 니라 而 生 三 界 朽 故

화택 위도중생 생로병사 우비고뇌 우치압
火 宅 은 爲 度 衆 生 의 生 老 病 死 와 憂 悲 苦 惱 와 愚 癡 闇

폐 삼독지화 교화령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蔽 의 三 毒 之 火 하고 敎 化 令 得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니

견제중생 위생로병사 우비고뇌지소소자
라 見 諸 衆 生 하니 爲 生 老 病 死 와 憂 悲 苦 惱 之 所 燒 煮 하

역이오욕재리고 수종종고 우이탐착추구
며 亦以五欲財利故로 受種種苦하며 又以貪著追求

고 현수종고 후수 지옥 축생 아귀지고 약
故로 現受衆苦하며 後受地獄畜生餓鬼之苦하며 若

생천상 급재인간 빈궁곤고 애별리고
生天上이거나 及在人間이라도 貧窮困苦하며 愛別離苦

원증회고 여시등종종제고 중생몰재기중
와 怨憎會苦의 如是等種種諸苦니라 衆生沒在其中하

환희유희 불각불지 불경불포 역불생
여 歡喜遊戲하고 不覺不知하며 不驚不怖하며 亦不生

염 불구해탈 어차삼제화택 동서치주
厭하며 不求解脫하여 於此三界火宅에서 東西馳走하며

수조대고 불이위환 사리불 불견차이
雖遭大苦나 不以爲患이니라 舍利弗아 佛見此已하시고

변작시념 아위중생지부 응발기고난 여
便作是念하시되 我爲衆生之父라 應拔其苦難하고 與

무량무변 불지혜락 령기유희 사리불 여
無量無邊 佛智慧樂하여 令其遊戲니라 舍利弗아 如

래부작시념 약아단이신력 급지혜력 사어
來復作是念하시되 若我但以神力 及智慧力으로 捨於

방편 위제중생 찬여래지견력 무소외자
方便하고 爲諸衆生하여 讚如來知見力 無所畏者면

중생불능이시득도 소이자하 시제중생 미
衆生不能以是得度니라 所以者何 是諸衆生은 未

면생로병사 우비고뇌 이위삼제화택소소
免生老病死와 憂悲苦惱하고 而爲三界火宅所燒리니

하유능해불지지혜
何由能解佛之智慧리오

사리불 여피장자 수부신수유력 이불용지
舍利弗아 如彼長者가 雖復身手有力이나 而不用之하

단이은근방편 면제제자화택지난 연후각
고 但以殷勤方便으로 勉濟諸子火宅之難하고 然後各

여진보대거 여래 역부여시 수유력무소외
與珍寶大車라 如來도 亦復如是하여 雖有力無所畏나

이불용지 단이지혜방편 어삼제화택 발
而不用之하고 但以智慧方便으로 於三界火宅에서 拔

제중생 위설삼승 성문벽지불 불승 이작
濟衆生하여 爲說三乘 聲聞 辟支佛 佛乘하노라 而作

시언 여등막득락주삼제화택 물탐추폐색
是言하시되 汝等莫得樂住三界火宅하라 勿貪麤弊色

성향미촉야 약탐착생애 즉위소소 여속
聲香味觸也하라 若貪著生愛하면 則爲所燒리라 汝速

출삼제 당득삼승 성문벽지불 불승 아금
出三界하면 當得三乘 聲聞 辟支佛 佛乘이니라 我今

위여 보임차사 종불허야 여등 단당근수
爲汝 하여 保任此事 하니 終不虛也 리라 汝等 但當勤修

정진 여래 이시방편 유진중생 부작시
精進 하라 如來 以是方便 으로 誘進衆生 하니라 復作是

언 여등 당지 차삼승법 개시성소칭탄
言 하시되 汝等 當知 하라 此三乘法 은 皆是聖所稱歎 이라

자재 무제 무소의구 승시삼승 이무루근
自在 無繫 하고 無所依求 니라 乘是三乘 하여 以無漏根

력각도 선정 해탈 삼매등 이자오락 변득
力覺道 와 禪定 解脫 三昧等 으로 而自娛樂 하면 便得

무량안온쾌락
無量安穩快樂 하리라

사리불 약유중생 내유지성 종불세존 문
舍利弗 아 若有衆生 이 內有智性 하고 從佛世尊 하여 聞

법신수 은근정진 욕속출삼계 자구멸반
法信受 하고 殷勤精進 하여 欲速出三界 하고 自求涅槃 하

시명성문승 여피제자 위구양거 출어
면 是名聲聞乘 이니라 如彼諸子 가 爲求羊車 하여 出於

화택 약유중생 종불세존 문법신수 은
火宅 이라 若有衆生 이 從佛世尊 하여 聞法信受 하고 殷

근정진 구자연혜 락독선적 심지제법인
勤精進 하여 求自然慧 하며 樂獨善寂 하고 深知諸法因

연 시명벽지불승 여피제자 위구록거
緣 하면 是名辟支佛乘 이니라 如彼諸子 가 爲求鹿車 하여

출어화택 약유중생 중불세존 문법신수
出 於 火宅 이니라 若 有 衆生 이 從 佛 世 尊 하여 聞 法 信 受 하

고 근수정진 구일체지 불지 자연지 무사지 여
고 勤 修 精 進 하여 求 一 切 智 佛 智 自 然 智 無 師 智 如

래지견력 무소외 민념안락 무량중생 리익
來 知 見 力 無 所 畏 하며 慳 念 安 樂 無 量 衆 生 하여 利 益

천인 도탈일체 시명대승보살 구차승고
天 人 하며 度 脫 一 切 하면 是 名 大 乘 菩 薩 이니라 求 此 乘 故

명위마가살 여피제자 위구우거 출어
로 名 爲 摩 訶 薩 이니라 如 彼 諸 子 가 爲 求 牛 車 하여 出 於

화택
火 宅 이니라

사리불 여피장자 견제자등 안온득출화택
舍 利 弗 아 如 彼 長 者 가 見 諸 子 等 安 穩 得 出 火 宅 하여

도무외처 자유재부무량 등이대거 이사제
到 無 畏 處 하고 自 惟 財 富 無 量 하여 等 以 大 車 를 而 賜 諸

자 여래역부여시 위일체중생지부 약견
子 듯이 如 來 亦 復 如 是 하니 爲 一 切 衆 生 之 父 니라 若 見

무량억천중생 이불교문 출삼제고 포외험
無 量 億 千 衆 生 이 以 佛 教 門 으로 出 三 界 苦 하고 怖 畏 險

도 득닐반락 여래이시 편작시념 아유
道하여 得涅槃樂이면 如來爾時에 便作是念하시되 我有

무량무변지혜력 무외등 제불법장 시제중생
無量無邊智慧力 無畏等 諸佛法藏하며 是諸衆生은

개시아자 등여대승 불령유인 독득멸도
皆是我子니 等與大乘하리라 不令有人으로 獨得滅度니

개이여래멸도 이멸도지 시제중생 탈삼계
皆以如來滅度로 而滅度之하리라 是諸衆生의 脫三界

자 실여제불 선정 해탈등 오락지구 개시일
者에 悉與諸佛 禪定 解脫等 娛樂之具하리니 皆是一

상일종 성소칭탄 능생정묘제일지락 사
相一種으로 聖所稱歎이라 能生淨妙第一之樂이니라 舍

리불 여피장자 초이삼거 유인제자 연후
利弗아 如彼長者가 初以三車로 誘引諸子하고 然後

단여대거보물장엄 안온제일 연피장자 무
但與大車寶物莊嚴하여 安穩第一하나 然彼長者는 無

허망지구 여래역부여시 무유허망 초설
虛妄之咎라 如來亦復如是하여 無有虛妄이니라 初說

삼승 인도중생연후 단이대승 이도탈지
三乘하여 引導衆生然後 但以大乘으로 而度脫之나라

하이고 여래유무량지혜력 무소외 제법지장
何以故오 如來有無量智慧力 無所畏와 諸法之藏하

능여일체중생대승지법 단불진능수
여 能與一切衆生大乘之法 이건만은 但不盡能受 나라

사리불 이시인연 당지 제불 방편력고
舍利弗 아 以是因緣 으로 當知 하라 諸佛 은 方便力故 로

어일불승 분별설삼
於一佛乘 을 分別說三 하니라

불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佛 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비여장자
譬如長者

유일대택
有一大宅 하되

기택구고
其宅久故 하여

이부돈폐
而復頓弊 하고

당사고위
堂舍高危

주근최후
柱根摧朽 하며

량동경사
梁棟傾斜 하고

기폐퇴회
基陛隤毀 하며

장벽비탈
牆壁圯坼 하고

니도타락
泥塗隤落 하며

부점란추
覆苫亂墜 하고

연려차탈
椽梠差脫 하며

주장굴곡
周障屈曲 하고

잡예충편
雜穢充遍 한데

유오백인
有五百人이

지주기중
止住其中이라

치효조취
鴟梟鵬鷲와

오작구합
烏鵲鳩鵠과

완사복갈
蜃蛇蝮蝎과

오공유연
蜈蚣蚰蜒과

수궁백족
守宮百足과

유리혜서
鼬狸麝鼠와

제악충배
諸惡蟲輩가

교횡치주
交橫馳走하며

시뇨취처
屎尿臭處에

불정류일
不淨流溢하며

강랑제충
螳螂諸蟲이

이집기상
而集其上하고

호랑야간
狐狸野干이

저작천답
咀嚼踐踏하며

제설사시
噉齧死屍하여

골육랑자
骨肉狼藉하니

유시군구
由是羣狗가

경래박촬
競來搏撮하나

기리장황
飢羸惺惶하여

처처구식
處處求食하되

투쟁차철
鬪諍擄掣 하고

애자호폐
喈噤嗥吠 하여

기사공포
其舍恐怖 하며

변상여시
變狀如是 라

처처개유
處處皆有

리매망량
魑魅魍魎 과

야차악귀
夜叉惡鬼 가

식담인육
食噉人肉 하며

독충지속
毒蟲之屬 과

제악금수
諸惡禽獸 는

부유산생
孚乳產生 하되

각자장호
各自藏護 건만

야차경래
夜叉競來 하여

쟁취식지
爭取食之 하며

식지기포
食之既飽 하면

악심전치
惡心轉熾 하여

투쟁지성
鬪諍之聲 이

심가포외
甚可怖畏 하고

구반다귀
鳩槃荼鬼 는

준거토타
蹲踞土埵 하여

혹시리지
或時離地 하되

일척이척
一尺二尺 하며

왕반유행
往返遊行

종일희희
縱逸嬉戲 하며

착구량족
捉狗兩足 하여

박령실성
撲令失聲 하며

이각가경
以脚加頸 하여

포구자락
怖狗自樂 하며

부유제귀
復有諸鬼 하니

기신장대
其身長大 한데

라형흑수
裸形黑瘦 가

상주기중
常住其中 하며

발대악성
發大惡聲 으로

규호구식
叫呼求食 하며

부유제귀
復有諸鬼 하니

기인여침
其咽如針 이며

부유제귀
復有諸鬼 하니

수여우두
首如牛頭 하며

혹식인육
或食人肉

혹부담구
或復噉狗 하며

두발봉란
頭髮鬢亂 하고

잔해흉험
殘害兇險 하며

기갈소핍
飢渴所逼 하여

규환치주
叫喚馳走 하고

야차아귀
夜叉餓鬼와

제악조수
諸惡鳥獸가

기급사향
飢急四向하며

규간창유
窺看窗牖하니라

여시제난
如是諸難이

공외무량
恐畏無量이라

시후고택
是朽故宅은

속우일인
屬于一人이니

기인근출
其人近出

미구지간
未久之間에

어후택사
於後宅舍에

홀연화기
忽然火起하여

사면일시
四面一時에

기염구치
其燄俱熾하니

동량연주
棟梁椽柱가

폭성진렬
爆聲震裂하고

최절타락
摧折墮落하여

장벽붕도
牆壁崩倒라

제귀신등
諸鬼神等이

양성대규
揚聲大叫하며

조취제조
鵄鷲諸鳥와

구반다등
鳩槃茶等은

주장황포
周 悼 惶 怖 하여

불능자출
不 能 自 出 하며

악수독충
惡 獸 毒 蟲 은

장차공혈
藏 竄 孔 穴 하고

비사사귀
毗 舍 闍 鬼 도

역주기중
亦 住 其 中 이러니

박복덕고
薄 福 德 故 로

위화소핍
爲 火 所 逼 하고

공상잔해
共 相 殘 害 하여

음혈담육
飲 血 噉 肉 하고

야간지속
野 干 之 屬 이

병이전사
竝 已 前 死 하니

제대악수
諸 大 惡 獸 가

경래식담
競 來 食 噉 하며

취연봉발
臭 烟 蓬 煇 이

사면충색
四 面 充 塞 하며

오공유연
蜈 蚣 蚰 蜒 과

독사지류
毒 蛇 之 類 가

위화소소
爲 火 所 燒 로

쟁주출혈
爭 走 出 穴 하면

구반다귀
鳩 槃 荼 鬼 는

수취이식
隨 取 而 食 하며

우제아귀
又諸餓鬼는

두상화연
頭上火然으로

기갈열뇌
飢渴熱惱하여

주장민주
周惴悶走하니

기택여시
其宅如是

심가포외
甚可怖畏라

독해화재
毒害火災와

중난비일
衆難非一이라

시시택주
是時宅主는

재문외립
在門外立하니

문유인언
聞有人言하되

여제자등
汝諸子等이

선인유희
先因遊戲하여

래입차택
來入此宅이라

치소무지
稚小無知하여

환오락착
歡娛樂著이라

장자문이
長者聞已

경입화택
警入火宅하여

방의구제
方宜救濟

령무소해
令無燒害리라하고

고유제자
告喻諸子하되

설중환난
說衆患難이라

악귀독충
惡鬼毒蟲과

재화만연
災火蔓筵하여

중고차제
衆苦次第로

상속불절
相續不絶하며

독사완복
毒蛇虺蝮

급제야차
及諸夜叉와

구반다귀
鳩槃荼鬼와

야간호구
野干狐狗와

조취치효
鵄鷲鴟梟와

백족지속
百足之屬이

기갈뇌급
飢渴惱急하여

심가포외
甚可怖畏라

차고난처
此苦難處에

황부대화
況復大火건마는

제자무지
諸子無知하여

수문부회
雖聞父誨나

유고락착
猶故樂著하여

희희불이
嬉戲不已라

시시장자
是時長者는

이작시념
而作是念하되

제자여차
諸子如此하니

익아수뇌
益我愁惱로다

금차사택
今此舍宅에

무일가락
無一可樂이건만

이제자등
而諸子等이

탐면희희
耽湎嬉戲하여

불수아교
不受我敎하니

장위화해
將爲火害리라

즉변사유
卽便思惟하여

설제방편
設諸方便하고

고제자등
告諸子等하되

아유종종
我有種種

진완지구
珍玩之具

묘보호거
妙寶好車하니

양거록거
羊車鹿車와

대우지거
大牛之車가

금재문외
今在門外하니

여등출래
汝等出來하라

오위여등
吾爲汝等

조작차거
造作此車하였으니

수의소락
隨意所樂

가이유희
可以遊戲하라

제자문설
諸子聞說

여차제거
如此諸車하고

즉시 분경
卽時奔競

치주이출
馳走而出 하여

도어공지
到於空地 하니

리제고난
離諸苦難 하니라

장자견자
長者見子 하니

득출화택
得出火宅 하여

주어사구
住於四衢 라

좌사자좌
坐師子座 하여

이자경언
而自慶言 하되

아금쾌락
我今快樂 이로다

차제자등
此諸子等 은

생육심난
生育甚難 이라

우소무지
愚小無知 하여

이입험택
而入險宅 하니

다제독충
多諸毒蟲 하고

리매가외
魑魅可畏 며

대화맹염
大火猛焰 이

사면구기
四面俱起 거늘

이차제자
而此諸子 는

탐락희희
貪樂嬉戲 라

아이구지
我已救之 하여

령득탈난
令得脫難 이니라

시고제인
是故諸人이여

아금쾌락
我今快樂이로다

이시제자
爾時諸子는

지부안좌
知父安坐하고

개예부소
皆詣父所하여

이백부언
而白父言하되

원사아등
願賜我等에

삼종보거
三種寶車를

여전소허
如前所許하소서

제자출래
諸子出來하면

당이삼거
當以三車를

수여소욕
隨汝所欲하시니

금정시시
今正是時라

유수급여
唯垂給與하소서

장자대부
長者大富하여

고장중다
庫藏衆多

금은류리
金銀琉璃와

차거마노
車磑碼瑙라

이중보물
以衆寶物로

조제대거
造諸大車하고

장교엄식
莊校嚴飾

주잡란수
周匝欄楯하고

사면현령
四面懸鈴 하고

금승교락
金繩交絡 하고

진주라망
眞珠羅網 으로

장시기상
張施其上 하고

금화제영
金華諸瓔 을

처처수하
處處垂下 하고

중채잡식
衆綵雜飾 으로

주잡위요
周匝圍繞 하고

유연증광
柔輓繒纒 으로

이위인옥
以爲茵褥 하고

상묘세첩
上妙細氎 하니

가치천억
價值千億 이라

선백정결
鮮白淨潔 로

이부기상
以覆其上 하며

유대백우
有大白牛 하되

비장다력
肥壯多力 하며

형체주호
形體姝好 로

이가보거
而駕寶車 하고

다제빈종
多諸僮從 이

이시위지
而侍衛之 라

이시묘거
以是妙車 를

등사제자
等賜諸子 하니

제 자 시 시
諸 子 是 時 에

환희 응약
歡 喜 踊 躍 하며

승시 보거
乘 是 寶 車 하고

유어 사방
遊 於 四 方 하여

희희 쾌락
嬉 戲 快 樂

자재 무애
自 在 無 礙 라

고사리 불
告 舍 利 弗 하시되

아역여시
我 亦 如 是 니

중성 중존
衆 聖 中 尊 이며

세간지부
世 間 之 父 라

일체 중생
一 切 衆 生 은

개시오자
皆 是 吾 子 전마는

심착세락
深 著 世 樂 하여

무유혜심
無 有 慧 心 이니

삼계 무안
三 界 無 安

유여 화택
猶 如 火 宅 하여

중고 충만
衆 苦 充 滿 하고

심가포외
甚 可 怖 畏 라

상유생로
常 有 生 老

병사우환
病 死 憂 患 이며

여시 등화
如 是 等 火

치연 불식
熾 然 不 息 이나

여래이리
如來已離

삼제화택
三界火宅하고

적연한거
寂然閑居하며

안처림야
安處林野나라

금차삼제
今此三界는

개시아유
皆是我有니

기중중생이
其中衆生이

실시오자
悉是吾子라

이금차처
而今此處에

다제환난
多諸患難이나

유아일인이
唯我一人이

능위구호
能爲救護나라

수부교조
雖復敎詔나

이불신수
而不信受하고

어제욕염
於諸欲染

탐착심고
貪著深故로

이시방편
以是方便으로

위설삼승
爲說三乘하여

령제중생이
令諸衆生이

지삼제고
知三界苦하고

개시연설
開示演說

출세간도
出世間道나라

시 제 자 등 이
是 諸 子 等 이

악심결정
若 心 決 定 하면

구족삼명
具 足 三 明

급륙신통
及 六 神 通 하고

유득연각
有 得 緣 覺 하여

불퇴보살
不 退 菩 薩 하리라

여사리불
汝 舍 利 弗 아

아위중생
我 爲 衆 生 하여

이차비유
以 此 譬 喻 로

설일불승
說 一 佛 乘 하니

여등약능
汝 等 若 能

신수시어
信 受 是 語 하면

일체개당
一 切 皆 當

성득불도
成 得 佛 道 하리라

시승미묘
是 乘 微 妙 하고

청정제일
清 淨 第 一 이니

어제세간
於 諸 世 間 에서

위무유상
爲 無 有 上 이라

불소열가
佛 所 悅 可 며

일체중생
一 切 衆 生 이

소응칭찬
所 應 稱 讚 하고

공양례배
供 養 禮 拜 할지니

무량억천
無量億千의

제력해탈
諸力解脫과

선정지혜
禪定智慧와

급불여법
及佛餘法이라

득여시승
得如是乘하면

령제자등
令諸子等으로

일야겁수
日夜劫數에

상득유희
常得遊戲하며

여제보살
與諸菩薩

급성문중
及聲聞衆과

승차보승
乘此寶乘하고

직지도장
直至道場이리라

이시인연
以是因緣으로

십방체구
十方諦求하여도

갱무여승
更無餘乘이니

제불방편
除佛方便이니라

고사리불
告舍利弗하시되

여제인등
汝諸人等은

개시오자
皆是吾子요

아즉시부
我則是父라

여등루겁
汝等累劫에

중고소소
衆苦所燒거늘

아개 제 발
我 皆 濟 拔 하여

령 출 삼 제
令 出 三 界 나라

아 수 선 설
我 雖 先 說

여 등 멸 도
汝 等 滅 度 나

단 진 생 사
但 盡 生 死 요

이 실 불 멸
而 實 不 滅 이 나라

금 소 응 작
今 所 應 作 은

유 불 지 혜
唯 佛 智 慧 나라

약 유 보 살
若 有 菩 薩 은

어 시 중 중
於 是 衆 中 에서

능 일 심 청
能 一 心 聽

제 불 실 법
諸 佛 實 法 하라

제 불 세 존
諸 佛 世 尊 이

수 이 방 편
雖 以 方 便 으로

소 화 중 생
所 化 衆 生 하시니

개 시 보 살
皆 是 菩 薩 이 나라

약 인 소 지
若 人 小 智 하여

심 착 애 욕
深 著 愛 欲 하면

위 차 등 고
爲 此 等 故 로

설 어 고 체
說 於 苦 諦 나라

중 생 심 희
衆 生 心 喜 하여

득 미 증 유
得 未 曾 有 하리니

불설고체
佛說苦諦는

진실무이
眞實無異나라

약유중생
若有衆生이

불지고본
不知苦本하고

심착고인
深著苦因하여

불능잠사
不能暫捨면

위시등고
爲是等故로

방편설도
方便說道나라

제고소인
諸苦所因은

탐욕위본
貪欲爲本이니

약멸탐욕
若滅貪欲하면

무소의지
無所依止나라

멸진제고
滅盡諸苦를

명제삼체
名第三諦라하며

위멸체고
爲滅諦故로

수행어도
修行於道니

리제고박
離諸苦縛을

명득해탈
名得解脫이라

시인어하
是人於何에

이득해탈
而得解脫이리오

단리허망
但離虛妄을

명위해탈
名爲解脫이니

기실미득
其實未得

일체해탈
一切解脫이니라

불설시인
佛說是人은

미실멸도
未實滅度라하시니라

사인미득
斯人未得

무상도고
無上道故로

아의불욕
我意不欲

령지멸도
令至滅度니라

아위법왕
我爲法王이라

어법자재
於法自在하니

안온중생
安穩衆生코자

고현어세
故現於世니라

여사리불
汝舍利弗아

아차법인
我此法印은

위욕리익
爲欲利益

세간고설
世間故說이니

재소유방
在所遊方하며

물망선전
勿妄宣傳하라

약유문자
若有聞者가

수희정수
隨喜頂受하면

당지시인
當知是人은

아유월치
阿惟越致니라

약유신수
若 有 信 受

차경법자
此 經 法 者 是

시인이증
是 人 已 曾

전과거불
見 過 去 佛 和 高

공경공양
恭 敬 供 養

역문시법
亦 聞 是 法 이 라

약인유능
若 人 有 能

신여소설
信 汝 所 說 이 면

즉위전아
則 爲 見 我 하 고

역전어여
亦 見 於 汝

급비구승
及 比 丘 僧 과

병제보살
并 諸 菩 薩 하 리 라

사법화경
斯 法 華 經 은

위심지설
爲 深 智 說 이 니

천식문지
淺 識 聞 之 하 면

미혹불해
迷 惑 不 解 하 리 니

일체성문
一 切 聲 聞

급벽지불
及 辟 支 佛 은

어차경중
於 此 經 中 에

력소불급
力 所 不 及 이 니 라

여사리불
汝 舍 利 弗 도

상어차경
尙 於 此 經 에

이신득입
以信得入 이거늘

황여성문
況餘聲聞 이라

기여성문
其餘聲聞 도

신불어고
信佛語故 로

수순차경
隨順此經 이요

비기지분
非己智分 이니라

우사리불
又舍利弗 아

고만해태
憍慢懈怠 하거나

제아견자
計我見者 에게는

막설차경
莫說此經 하라

범부천식
凡夫淺識 하고

심착오욕
深著五欲 하여

문불능해
聞不能解 하리니

역물위설
亦勿爲說 하라

약인불신
若人不信 하고

훼방차경
毀謗此經 하면

즉단일체
則斷一切

세간불종
世間佛種 이리라

혹부빈촉
或復嘖蹙 하며

이회의혹
而懷疑惑 하면

여당청설
汝當聽說

차인죄보
此人罪報 하리라

약불재세
若佛在世 거나

약멸도후
若滅度後 에

기유비방
其有誹謗

여사경전
如斯經典 하고

견유독송
見有讀誦

서지경자
書持經者 를

경천증질
輕賤憎嫉 하고

이회결한
而懷結恨 하면

차인죄보
此人罪報 를

여금부청
汝今復聽 하라

기인명종
其人命終 하고

입아비옥
入阿鼻獄 하여

구족일겁
具足一劫 하고

겁진갱생
劫盡更生 하되

여시전전
如是展轉 을

지무수겁
至無數劫 하리라

종지옥출
從地獄出 하면

당타축생
當墮畜生 하되

약구야간
若狗野干 으로

기형굴수
其形鎖瘦 하고

리심개라
鰥黥疥癩 하여

인소촉요
人所觸 嬌 하며

우부위인
又復爲人

지소오천
之所惡賤하고

상곤기갈
常困飢渴하여

골육고갈
骨肉枯竭하며

생수초독
生受楚毒하고

사피와석
死被瓦石이니

단불종고
斷佛種故로

수사죄보
受斯罪報하니라

약작탁타
若作駝駝나

혹생려중
或生驢中하여

신상부중
身常負重하고

가제장추
加諸杖捶하며

단념수초
但念水草요

여무소지
餘無所知니

방사경고
謗斯經故로

획죄여시
獲罪如是하니라

유작야간
有作野干하여

래입취락
來入聚落하되

신체개라
身體疥癩하고

우무일목
又無一目으로

위제동자
爲諸童子

지소타척
之所打擲하며

수제 고통
受諸苦痛 하고

혹시 치사
或時致死 하여

어차사이
於此死已 하면

갱수망신
更受蟒身 하되

기형장대
其形長大

오백유순
五百由旬 이며

롱애무족
龍駭無足 하여

원전복행
蜿轉腹行 타가

위제소충
爲諸小蟲

지소잡식
之所啗食 으로

주야수고
晝夜受苦 하되

무유휴식
無有休息 이니

방사경고
謗斯經故 로

획죄여시
獲罪如是 하니라

약득위인
若得爲人 이라도

제근암둔
諸根闇鈍 하며

좌루련벽
矬陋戀壁

맹롱배구
盲聾背偻 하여

유소언설
有所言說 이라도

인불신수
人不信受 하며

구기상취
口氣常臭 하고

귀매소착
鬼魅所著 하며

빈궁하천
貧窮下賤 하여

위인소사
爲人所使 하되

다병소수
多病瘠瘦 하며

무소의호
無所依怙 이니

수친부인
雖親附人 이라도

인불재의
人不在意 하며

약유소득
若有所得 하여도

심부망실
尋復忘失 하며

약수의도
若修醫道 하여

수방치병
順方治病 일지라도

갱증타질
更增他疾 하고

혹부치사
或復致死 하며

약자유병
若自有病 이라도

무인구료
無人救療 이며

설복량약
設服良藥 이라도

이부증극
而復增劇 하며

약타반역
若他反逆 커나

초겁절도
抄劫竊盜

여시등죄
如是等罪 는

횡리기앙
橫罹其殃 하리라

여사죄인
如斯罪人 은

영불견불
永不見佛 이니

중성지왕
衆聖之王이

설법교화
說法敎化하여도

여사죄인
如斯罪人은

상생난처
常生難處하리라

광릉심란
狂聾心亂하여

영불무법
永不聞法이리라

어무수겁
於無數劫

여항하사
如恒河沙에

생첩릉아
生輒聾啞하며

제근불구
諸根不具하고

상처지옥
常處地獄하되

여유원관
如遊園觀하며

재여악도
在餘惡道하되

여기사택
如己舍宅하며

타려저구
駝驢豬狗의

시기행처
是其行處하리니

방사경고
謗斯經故로

획죄여시
獲罪如是하니라

약득위인
若得爲人이라도

릉맹음아
聾盲瘖瘂하여

빈궁제쇠
貧窮諸衰로

이자장엄
以自莊嚴하며

수종건소
水腫乾瘡와

개라옹저
疥癩癰疽

여시등병
如是等病으로

이위의복
以爲衣服하며

신상취처
身常臭處하여

구예불정
垢穢不淨이며

심착아견
深著我見하여

증익진에
增益瞋恚하고

음욕치성
婬欲熾盛하여

불택금수
不擇禽獸하니

방사경고
謗斯經故로

획죄여시
獲罪如是하니라

고사리불
告舍利弗하노니

방사경자
謗斯經者의

약설기죄
若說其罪는

궁겁불진
窮劫不盡이라

이시인연
以是因緣으로

아고어여
我故語汝하노니

무지인중
無智人中에는

막설차경
莫說此經하라

약유리근
若有利根하고

지혜명료
智慧明了하여

다문강식
多聞強識

구불도자
求佛道者인

여시지인
如是之人에게

내가위설
乃可爲說하라

약인증견
若人曾見

억백천불
億百千佛하고

식제선본
植諸善本하여

심심견고
深心堅固하면

여시지인
如是之人에게

내가위설
乃可爲說하라

약인정진
若人精進하여

상수자심
常修慈心하되

불석신명
不惜身命이면

내가위설
乃可爲說하라

약인공경
若人恭敬

무유이심
無有異心하며

리제범우
離諸凡愚하고

독처산택
獨處山澤이면

여시지인
如是之人에게

내가위설
乃可爲說하라

우사리불
又舍利弗아

약견유인
若見有人이

사악지식
捨惡知識 하고

친근선우
親近善友 하면

여시지인
如是之人에게

내가위설
乃可爲說 하라

약견불자
若見佛子가

지제청결
持戒清潔 하되

여정명주
如淨明珠 하여

구대승경
求大乘經 이면

여시지인
如是之人에게

내가위설
乃可爲說 하라

약인무진
若人無瞋

질직유연
質直柔軟 하여

상민일체
常愍一切 하며

공경제불
恭敬諸佛 이면

여시지인
如是之人에게

내가위설
乃可爲說 하라

부유불자
復有佛子가

어대중중
於大衆中에서

이청정심
以清淨心으로

종종인연
種種因緣과

비유언사
譬喩言辭로

설법무애
說法無礙 커든

여시지인
如是之人에게

내가위설
乃可爲說하라

약유비구
若有比丘가

위일체지
爲一切智하여

사방구법
四方求法

합장정수
合掌頂受하며

단락수지
但樂受持

대승경전
大乘經典하고

내지불수
乃至不受

여경일게
餘經一偈이면

여시지인
如是之人에게

내가위설
乃可爲說하라

여인지심
如人至心으로

구불사리
求佛舍利하고

여시구경
如是求經하여

득이정수
得已頂受하고

기인불부
其人不復

지구여경
志求餘經이면

역미증념
亦未曾念

외도전적
外道典籍커든

여시지인
如是之人에게

내가위설
乃可爲說하라

고사리불
告舍利弗 하노니

아설시상
我說是相 으로

구불도자
求佛道者 하되

궁겁불진
窮劫不盡 이며

여시등인
如是等人 은

즉능신해
則能信解 하리니

여당위설
汝當爲說

묘법화경
妙法華經 하라

묘법련화경 비유품 종
妙法蓮華經 譬喻品 終

묘법蓮華經 신해품 제사
妙法蓮華經 信解品 第四

이시 혜명수보제 마가가전연 마가가섭 마
爾時에 慧命須菩提와 摩訶迦旃延과 摩訶迦葉과 摩

가목건련 종불소문미증유법 세존 수사리
訶目犍連이 從佛所聞未曾有法하고 世尊이 授舍利

불아녹다라삼막삼보제기 발희유심 환희응
弗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하고 發希有心하여 歡喜踊

약 즉종좌기 정의복편단우견 우슬착지
躍하며 卽從座起하여 整衣服偏袒右肩하고 右膝著地

일심합장 곡궁공경 첨앙존안 이백불언
하여 一心合掌 曲躬恭敬하고 瞻仰尊顏하며 而白佛言

아등 거승지수 년병후매 자위이득녕반
하되 我等은 居僧之首로 年竝朽邁하여 自謂已得涅槃

무소감임 불부진구아녹다라삼막삼보
이라하고 無所堪任하여 不復進求阿耨多羅三藐三菩

제 세존왕석 설법기구 아시재좌 신체
提니이다 世尊 往昔에 說法既久시니 我時在座하되 身體

피해 단념공무상무작 어보살법유희신통
疲懈하여 但念空無相無作하고 於菩薩法遊戲神通하

정불국토 성취중생 심불희락 소이자
여 淨佛國土하며 成就衆生을 心不喜樂하더이다 所以者

하 세 존 령 아 등 출 어 삼 제 득 념 반 증 우
何 世 尊 令 我 等 出 於 三 界 得 涅槃 證 이 니 다 又

금 아 등 년 이 후 매 어 불 교 화 보 살 아 녹 다 라
今 我 等 이 年 已 朽 邁 於 佛 教 化 菩 薩 의 阿 耨 多 羅

삼 막 삼 보 제 불 생 일 념 호 락 지 심 아 등 금 어
三 藐 三 菩 提 에 는 不 生 一 念 好 樂 之 心 이 니 다 我 等 今 於

불 전 문 수 성 문 아 녹 다 라 삼 막 삼 보 제 기 심 심
佛 前 에 서 聞 授 聲 聞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記 하 고 心 甚

환 희 득 미 증 유 불 위 어 금 홀 연 득 문 희 유
歡 喜 하 여 得 未 曾 有 니 이 다 不 謂 於 今 에 忽 然 得 聞 希 有

지 법 심 자 경 행 획 대 선 리 무 량 진 보 불
之 法 하 고 深 自 慶 幸 이 니 다 獲 大 善 利 니 無 量 珍 寶 를 不

구 자 득
求 自 得 니 이 다

세 존 아 등 금 자 요 설 비 유 이 명 사 의
世 尊 이 시 여 我 等 今 者 에 樂 說 譬 喻 하 여 以 明 斯 義 하 리 다

비 약 유 인 년 기 유 치 사 부 도 서 구 주 타 국
譬 若 有 人 이 年 既 幼 稚 에 捨 父 逃 逝 하 여 久 住 他 國 하 되

혹 십 이 십 지 오 십 세 년 기 장 대 가 부 궁 곤
或 十 二 十 至 五 十 歲 니 이 다 年 既 長 大 하 고 加 復 窮 困 하 여

치 빙 사 방 이 구 의 식 점 점 유 행 우 향 본 국
馳 騁 四 方 하 며 以 求 衣 食 하 여 漸 漸 遊 行 하 다 가 遇 向 本 國

기부선래 구자불득 중지일성 기가대
하니 其父先來 하여 求子不得 하고 中止一城 하니 其家大

부 재보무량 금은류리 산호 호박 파려주
富 하여 財寶無量 하고 金銀琉璃珊瑚琥珀玻璃珠

등 기제창고 실개영일 다유동복 신좌리민
等 이 其諸倉庫에 悉皆盈溢 하며 多有僮僕 臣佐吏民과

상마거승 우양무수 출입식리 내편타국
象馬車乘과 牛羊無數 하고 出入息利가 乃徧他國 하며

상고고객 역심중다 시빈궁자 유제취락
商估賈客도 亦甚衆多 하더이다 時貧窮子는 遊諸聚落

경력국읍 수도기부소지 지성 부매념
하며 經歷國邑 하여 遂到其父所止之城 하더이다 父每念

자 여자리별 오십여년 이미증향인설여
子 하되 與子離別 五十餘年 이건마는 而未曾向人說如

차사 단자사유 심회회한 자념로후 다
此事 하고 但自思惟 하여 心懷悔恨 하며 自念老朽 하고 多

유재물 금은진보 창고영일 무유자식
有財物 하여 金銀珍寶가 倉庫盈溢 이나 無有子息 하니

일단종몰 재물산실 무소위부 시이은
一旦終沒 이면 財物散失 이라하고 無所委付 하여 是以慙

근매억기자 부작시념 아약득자 위부재
慙每億其子 하며 復作是念 하되 我若得子 하여 委付財

물 탄연쾌락 무부우려
物 하면 坦然快樂 하여 無復憂慮 하나이다

세 존 이시궁자 응임전전 우도부사
世尊 이시여 爾時窮子 는 傭賃展轉 하다가 遇到父舍 하여

주립문측 요견기부 거사자상 보게승족
住立門側 하고 遙見其父 하니 踞師子牀 하여 寶几承足 하

제파라문 찰리거사 개공경위요 이진주영
고 諸婆羅門과 刹利居士가 皆恭敬圍繞 하며 以眞珠璣

락 가치천만 장엄기신 리민동복 수집백불
珞 價直千萬 으로 莊嚴其身 하고 吏民僮僕이 手執白拂

시립좌우 부이보장 수제화번 향수쇄
하고 侍立左右 하며 覆以寶帳 하고 垂諸華幡 하며 香水灑

지 산중명화 라렬보물 출납취여 유여
地 하고 散衆名華 하며 羅列寶物 하고 出內取與 하며 有如

시등종종엄식 위덕특존 궁자견부유대력세
是等種種嚴飾 하여 威德特尊 이라 窮子見父有大力勢

즉회공포 회래지차 절작시념 차혹시
하고 卽懷恐怖 하여 悔來至此 하고 竊作是念 하되 此或是

왕혹시왕등 비아용력득물지처 불여왕지
王 或是王等 이니 非我傭力得物之處 로다 不如往至

빈리 사력유지 의식이득 약구주차 혹
貧里 하여 肆力有地 하여 衣食易得 이라 若久住此 타가 或

견핍박 강사아작 작시념이 질주이거
見逼迫하여 強使我作이리라 作是念已하고 疾走而去니

이다

시부장자 어사자좌 견자변식 심대환희
時富長者는 於師子座하여 見子便識하고 心大歡喜하여

즉작시념 아재물고장 금유소부 아상사념
卽作是念하되 我財物庫藏을 今有所付로다 我常思念

차자 무유견지 이홀자래 심적아원 아
此子나 無由見之러니 而忽自來하니 甚適我願이로다 我

수년후 유고탐석 즉견방인 급추장환
雖年朽나 猶故貪惜이라하고 卽遭傍人하여 急追將還하

이시사자 질주왕착 궁자경악 칭원대
니이다 爾時使者가 疾走往捉하니 窮子驚愕하여 稱怨大

환 아불상범 하위견착 사자집지 유급
喚하되 我不相犯이거늘 何爲見捉이뇨 使者執之逾急하

강견장환 우시궁자자념 무죄이피수집
여 強牽將還하니 于時窮子自念하되 無罪而被囚執하니

차필정사 전갱황포 민절벽지 부요견지
此必定死라하고 轉更惶怖하여 悶絕壁地하니 父遙見之

이어사언 불수차인 물강장래 이냉수
하고 而語使言하되 不須此人이니 勿強將來하라 以冷水

쇄면 령득성오 막부여어 소이자하
灑面 하여 令得醒寤 하고 莫復與語 하라하니 所以者何 오

부지기자지의하렬 자지호귀 위자소난
父知其子志意下劣 하고 自知豪貴 하여 爲子所難 하고

심지시자 이이방편 불어타인운시아자
審知是子나 而以方便 으로 不語他人云是我子 니이다

사자어지 아금방여 수의소취 궁자환희
使者語之 하되 我今放汝 하리니 隨意所趣 하라 窮子歡喜

득미증유 종지이기 왕지빈리 이구의
하여 得未曾有 하고 從地而起 하여 往至貧里 하여 以求衣

식
食 하더이다

이시장자 장욕유인기자 이설방편 밀견이
爾時長者는 將欲誘引其子 코자 而設方便 하여 密遣二

인형색초취 무위덕자 여가예피 서어궁
人形色憔悴 하고 無威德者 하되 汝可詣彼 하여 徐語窮

자 차유작처 배여여치 궁자약허
子 하라 此有作處 하니 倍與汝 直 하리라하여 窮子若許 거든

장래사작 약언욕하소작 편가어지 고여
將來使作 하라 若言欲何所作 이거든 便可語之 하되 雇汝

제분 아등이인 역공여작 시이사인
除糞 하고 我等二人도 亦共汝作 하리라하라 時二使人이

즉구궁자 기이득지 구진상사 이시궁자
卽求窮子 하여 旣已得之 하고 具陣上事 하니 爾時窮子 는

선취기가 심여제분 기부견자 민이괴지
先取其價 하고 尋與除糞 하니 其父見子 하고 慙而怪之 니

우이타일 어창유중요견자신 리수초취
이다 又以他日 에 於窓牖中 遙見子身 하니 羸瘦憔悴 하고

분토진분 오예불정 즉탈영락세연상복엄식
糞土塵坩 으로 汙穢不淨 커늘 卽脫瓔珞細軟上服嚴飾

지구 갱착추폐 구니지의 진토분신 우수
之具 하고 更著麤弊垢膩之衣 하여 塵土坩身 하고 右手

집지제분지기 상유소외 어제작인 여등근
執持除糞之器 하고 狀有所畏 로 語諸作人 하되 汝等勤

작 물득해식 이방편고 득근기자 후부
作 하여 勿得懈怠 하라 以方便故 로 得近其子 니라 後復

고언 돌남자 여상차작 물부여거 당가
告言 하되 咄男子 야 汝常此作 하고 勿復餘去 하라 當加

여가 제유소수분기미면염초지촉 막자의난
汝價 리라 諸有所須盆器米麵鹽醋之屬 을 莫自疑難 하

역유로폐사인 수자상급 호자안의 아
라 亦有老弊使人 하여 須者相給 하리니 好自安意 하라 我

여여부 물부우려 소이자하 아년로대
如汝父 하니 勿復憂慮 하라 所以者何 오 我年老大 하고

이여소장 여상작시 무유기태진한원언 도
而汝少壯하니汝常作時에無有欺怠瞋恨怨言이라都

불견여유차제악 여여작인 자금이후 여소
不見汝有此諸惡하여如餘作人이라自今已後로如所

생자 즉시장자 갱여작자 명지위아
生子하리라하고卽時長者는更與作字하고名之爲兒니이

이시궁자 수훈차우 유고자위 객작천인
다爾時窮子는雖欣此遇나猶故自謂하되客作賤人이

유시지고 어이십년중 상령제분 과시
라하여由是之故로於二十年中에常令除糞하여過是

이후 심상체신 입출무난 연기소지 유재
已後에心相體信하여入出無難이나然其所止는猶在

본처
本處하더이다

세존 이시장자유질 자지장사불구 어궁
世尊이시여爾時長者有疾하여自知將死不久하여語窮

자언 아금다유금은진보 창고영일 기중
子言하되我今多有金銀珍寶하며倉庫盈溢하니其中

다소소응취여 여실지지 아심여시 당체차
多少所應取與를汝悉知之하라我心如是하니當體此

의 소이자하 금아여여 변위불이 의가용
意하라所以者何오今我與汝는便爲不異이니宜加用

심 무령루실 이시궁자 즉수교칙 령지
心 하여 無 令 漏 失 하라 爾 時 窮 子 는 卽 受 敎 勅 하여 領 知

증물금은진보금제고장 이무희취일찬지의
衆 物 金 銀 珍 寶 及 諸 庫 藏 이나 而 無 希 取 一 餐 之 意 하며

연기소지 고재본처 하렬지심 역미능사
然 其 所 止 는 故 在 本 處 하니 下 劣 之 心 을 亦 未 能 捨 하더이

부경소시 부지자의점이통태 성취대지
다 復 經 少 時 에 父 知 子 意 漸 已 通 泰 하고 成 就 大 志 하여

자비선심 림욕종시 이명기자 병회친족 국
自 鄙 先 心 하고 臨 欲 終 時 에 而 命 其 子 하여 并 會 親 族 國

왕대신찰리거사 개실이집 즉자선언 제
王 大 臣 刹 利 居 士 를 皆 悉 已 集 하여 卽 自 宣 言 하되 諸

군당지 차시아자 아지소생 어모성중
君 當 知 하라 此 是 我 子 니 我 之 所 生 이라 於 某 城 中 에서

사오도주 령병신고오십여년 기본자모 아
捨 吾 逃 走 하여 玲 嬀 辛 苦 五 十 餘 年 이라 其 本 字 某 요 我

명모갑 석재본성 회우추먹 홀어차간
名 某 甲 이라 昔 在 本 城 하여 懷 憂 推 覓 다가 忽 於 此 間 에

우회득지 차실아자 아실기부 금아소유일
遇 會 得 之 하니라 此 實 我 子 요 我 實 其 父 라 今 我 所 有 一

체재물 개시자유 선소출납 시자소지
切 財 物 은 皆 是 子 有 이며 先 所 出 內 도 是 子 所 知 라하더이

세 존 시시 궁자 문부차언 즉대환희
다 世尊 이시여 是時 窮子 는 聞 父 此 言 하고 卽 大 歡 喜 하여

득미증유 이작시념 아본무심유소희구
得 未 曾 有 하고 而 作 是 念 하되 我 本 無 心 有 所 希 求 건마는

금차보장 자연이지
今 此 寶 藏 이 自 然 而 至 라하더이다

세 존 대 부장자 즉시여래 아등 개사불
世尊 이시여 大 富 長 者 는 則 是 如 來 시고 我 等 은 皆 似 佛

자 여래상설 아등위자 세 존 아등
子 니 如 來 常 說 我 等 爲 子 라하시니이다 世尊 이시여 我 等 이

이삼고고 어생사중 수제열뇌 미혹무지
以 三 苦 故 로 於 生 死 中 에서 受 諸 熱 惱 하며 迷 惑 無 知 하여

락착소법 금일세 존 령아등사유견제제법
樂 著 小 法 하니이다 今 日 世 尊 이 令 我 等 思 惟 蠲 除 諸 法

희론지분 아등 어중근가정진 득지널반
戲 論 之 糞 케하시니 我 等 이 於 中 勤 加 精 進 하여 得 至 涅 槃

일일지가 기득차이 심대환희 자이위족
一 日 之 價 니이다 既 得 此 已 하고 心 大 歡 喜 하여 自 以 爲 足

변자위언 어불법중근정진고 소득홍다
하고 便 自 謂 言 하되 於 佛 法 中 勤 精 進 故 로 所 得 弘 多 하니

연세 존 선지아등심착폐욕 락어소법
이다 然 世 尊 이 先 知 我 等 心 著 弊 欲 하여 樂 於 小 法 하고

변견종사 불위분별 여등당유여래지견보
便見縱捨 하여 不爲分別 하시고 汝等當有如來知見寶

장지분 세존 이방편력 설여래지혜
藏之分 이라하시고 世尊이 以方便力으로 說如來智慧 건마

아등종불 득닐반일일지가 이위대득
는我等從佛 하여 得涅槃一日之價 하고는 以爲大得 하고

어차대승 무유지구 아등 우인여래지혜
於此大乘을 無有志求 니이다 我等은 又因如來智慧로

위제보살 개시연설 이자어차무유지원
爲諸菩薩 하여 開示演說 하되 而自於此無有志願 하니이

소이자하 불지아등심락소법 이방편력
다 所以者何오 佛知我等心樂小法 하시고 以方便力으

수아등설 이아등 불지진시불자
로 隨我等說 이건만은 而我等 不知眞是佛子 니이다

금아등 방지세존 어불지혜 무소린석 소
今我等 方知世尊 於佛智慧를 無所慍惜 이니이다 所

이자하 아등석래 진시불자 이단락소법
以者何오 我等昔來로 眞是佛子 이건마는 而但樂小法

약아등 유락대지심 불즉위아 설대승법
이니이다 若我等 有樂大之心 인댄 佛則爲我 說大乘法

어차경중 유설일승 이석어보살
일러이다 於此經中에서 唯說一乘 이시니이다 而昔於菩薩

전 회자성문락소법자 연불실이대승교화
前에서 毀 訾 聲 聞 樂 小 法 者 시나 然 佛 實 以 大 乘 教 化 시

시고아등 설본무심유소희구 금법왕대보
니이다 是 故 我 等 이 說 本 無 心 有 所 希 求 나 今 法 王 大 寶

자연이지 여불자소응득자 개이득지
가 自 然 而 至 니 如 佛 子 所 應 得 者 를 皆 已 得 之 니이다

이시 마가가섭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 摩訶迦葉 이 欲 重 宣 此 義 하여 而 說 偈 言 하되

아등금일
我 等 今 日 에

문불음교
聞 佛 音 教 하고

환희응악
歡 喜 踊 躍 하며

득미증유
得 未 曾 有 니이다

불설성문
佛 說 聲 聞 도

당득작불
當 得 作 佛 이라하시니

무상보취
無 上 寶 聚 를

불구자득
不 求 自 得 이니이다

비여동자
譬 如 童 子 가

유치무식
幼 稚 無 識 하여

사부도서
捨 父 逃 逝 하여

원도타토
遠 到 他 土 하되

주류제국
周 流 諸 國

오십여년
五 十 餘 年 이라

기부우념
其父憂念 하며

사방추구
四方推求 타가

구지기피
求之既疲 하여

돈지일성
頓止一城

조립사택
造立舍宅 하고

오욕자오
五欲自娛 니이다

기가거부
其家巨富 하여

다제금은
多諸金銀 과

차거마노
碑磔碼礪 와

진주류리
眞珠琉璃 와

상마우양
象馬牛羊 과

련여거승
輦輿車乘 하고

전업동복
田業僮僕 과

인민중다
人民衆多 하며

출입식리
出入息利 가

내편타국
乃徧他國 하며

상고고인
商估賈人 이

무처불유
無處不有 하며

천만억중
千萬億衆 이

위요공경
圍繞恭敬 하고

상위왕자
常爲王者

지소애념
之所愛念 하며

군신호족이
群臣豪族이

개공종중하니
皆共宗重하니

이제연고로
以諸緣故로

왕래자중이라
往來者衆이라

호부여시
豪富如是하고

유대력세나
有大力勢나

이년후매
而年朽邁하니

익우념자하며
益憂念子하며

숙야유념타가
夙夜唯念타가

사시장지라
死時將至라

치자사아
癡子捨我

오십여년이니
五十餘年이니

고장제물
庫藏諸物을

당여지하
當如之何리요하더니

이시궁자
爾時窮子는

구색의식
求索衣食하며

종읍지읍
從邑至邑하고

종국지국
從國至國하되

혹유소득
或有所得하고

혹무소득
或無所得하되

기아리수
飢餓羸瘦하고

체생창선
體生瘡癰하여

점차경력
漸次經歷 타가

도부주성
到父住城 하여

응임전전
傭賃展轉 타가

수지부사
遂至父舍 나라

이시장자
爾時長者 는

어기문내
於其門內 에

시대보장
施大寶帳 하고

처사자좌
處師子座 하여

권속위요
眷屬圍繞

제인시위
諸人侍衛 하며

혹유계산
或有計算

금은보물
金銀寶物 하고

출납재산
出內財產 을

주기권소
注記券疏 라

궁자견부
窮子見父 하니

호귀존엄
豪貴尊嚴 하고

위시국왕
謂是國王 이거나

약시왕등
若是王等 이라고

경포자괴
驚怖自怪 하며

하고지차
何故至此 뇨하고

복자념언
覆自念言 하되

아악구주
我若久住 면

혹견핍박
或見逼迫 하여

강구사작
強驅使作 이리라

사유시이
思惟是已 하고

치주이거
馳走而去 하여

차무빈리
借問貧里에

욕왕용작
欲往傭作 이라

장자시시
長者是時에

재사자좌
在師子座 하여

요견기자
遙見其子 하고

묵이식지
默而識之 하고

즉칙사자
卽勅使者 하여

추착장래
追捉將來 하라하니

궁자경환
窮子驚喚 하여

미민벽지
迷悶壁地 하며

시인집아
是人執我 하니

필당견살
必當見殺 이리라

하용의식
何用衣食 하여

사아지차
使我至此 이노함이라

장자지자
長者知子

우치협렬
愚癡狹劣 하여

불신아언
不信我言 하며

불신시부
不信是父 하고

즉이 방편
卽以方便

갱견여인
更遣餘人 하여

묘목좌누
眇目矬陋 인

무위덕자
無威德者 하여

여가어지
汝可語之 하되

운당상고
云當相雇 하여

제제분예
除諸糞穢 하면

배여여가
倍與汝價 리라하고

궁자문지
窮子聞之 하고

환희수래
歡喜隨來 하여

위제분예
爲除糞穢 하며

정제방사
淨諸房舍 라

장자어유
長者於牖에

상견기자
常見其子 하니

념자우렬
念子愚劣 하여

요위비사
樂爲鄙事 라

어시장자
於是長者는

착폐구의
著幣垢衣

집제분기
執除糞器 하고

왕도자소
往到子所 하여

방편부근
方便附近 하여

어령근작
語令勤作 하라

기익여가
既益汝價 하고

병도족유
并塗足油 와

음식충족
飮食充足 하며

천석후난
薦席厚暖 케하리라

여시고언
如是苦言 하되

여당근작
汝當勤作 하라하며

우이연어
又以輓語 하되

약여아자
若如我子 라하니이다

장자유지
長者有智 하여

점령입출
漸令入出 하여

경이십년
經二十年 토록

집작가사
執筆作家事 하고

시기금은
示其金銀

진주파려
眞珠玻瓈 의

제물출입
諸物出入 도

개사령지
皆使令知 하되

유처문외
猶處門外 하여

지숙초암
止宿草菴 하며

자념빈사
自念貧事 하여

아무차물
我無此物 이라하니

부지자심
父知子心 이

점이광대
漸已曠大 하고

욕여재물
欲與財物 하여

즉취친족
卽聚親族 과

국왕대신
國王大臣 과

찰리거사
刹利居士 하고

어차대중
於此大衆에

설시아자
說是我子 라

사아타행
捨我他行 이

경오십세
經五十歲 요

자견자래
自見子來 도

이이십년
已二十年 이라

석어모성
昔於某城에서

이실시자
而矢是子 하고

주행구색
周行求索 타가

수래지차
遂來至此 하니

범아소유
凡我所有 의

사택인민
舍宅人民 을

실이부지
悉已付之 하여

자기소용
恣其所用 이라하니

자념석빈
子念昔貧 하여

지의하렬
志意下劣 터니

금어부소
今於父所에서

대획진보
大獲珍寶 와

병급사택
并及舍宅과

일체재물
一切財物하고

심대환희
甚大歡喜하여

득미증유
得未曾有로다

불역여시
佛亦如是하니

지아락소
知我樂小하시고

미증설언
未曾說言

여등작불
汝等作佛하시고

이설아등
而說我等이

득제무루
得諸無漏하여

성취소승
成就小乘의

성문제자
聲聞弟子라하시니이다

불칙아등
佛勅我等하여

설최상도
說最上道하되

수습차자
修習此者는

당득성불
當得成佛이라하시니이다

아승불교
我承佛敎하여

위대보살
爲大菩薩하여

이제인연
以諸因緣과

종종비유
種種譬喩와

약간언사
若干言辭로

설무상도
說無上道니이다

제 불 자 등 은
諸 佛 子 等 是

종 아 무 법 하고
從 我 聞 法 故

일 야 사 유 하며
日 夜 思 惟 故

정 근 수 습 하니
精 勤 修 習 故

시 시 제 불 이
是 時 諸 佛 也

즉 수 기 기 하시 되
卽 授 其 記 故

여 어 래 세 에
汝 於 來 世 也

당 득 작 불 하리라 하시니
當 得 作 佛 當 得 作 佛 故

일 체 제 불 의
一 切 諸 佛 也

비 장 지 법 은
秘 藏 之 法 是

단 위 보 살 하여
但 爲 菩 薩 故

연 기 실 사 하시 고
演 其 實 事 故

이 불 위 아 하여
而 不 爲 我 故

설 사 진 요 니이다
說 斯 眞 要 故

여 피 궁 자 가
如 彼 窮 子 故

득 근 기 부 하여
得 近 其 父 故

수 지 제 물 이나
雖 知 諸 物 也

심 불 희 취 이듯
心 不 希 取 故

아 등 수 설
我 等 雖 說

불 법 보 장 하나
佛 法 寶 藏 故

자 무 지 원 이
自 無 志 願 也

역 부 여 시 니이다
亦 復 如 是 故

아등내멸
我等內滅 하고는

자위위족
自謂爲足 하여

유료차사
唯了此事 하고

갱무여사
更無餘事 니이다

아등약문
我等若聞

정불국토
淨佛國土 하고

교화중생
教化衆生 하고도

도무후락
都無欣樂 이니이다

소이자하
所以者何 오

일체제법
一切諸法 이

개실공적
皆悉空寂 하여

무생무멸
無生無滅 하며

무대무소
無大無小 하며

무루무위
無漏無爲 하여

여시사유
如是思惟 하고

불생희락
不生喜樂 이니이다

아등장야
我等長夜 에

어불지혜
於佛智慧 를

무탐무착
無貪無著 하고

무부지원
無復志願 하고

이자어법
而自於法 에

위시구경
謂是究竟 이라하니이다

아등장야
我等長夜에

수습공법
修習空法하여

득탈삼계
得脫三界

고뇌지환
苦惱之患하여

주최후신
住最後身인

유여넬반
有餘涅槃이라

불소교화
佛所敎化는

득도불허
得道不虛라

즉위이득
則爲已得

보불지은
報佛之恩이라하니이다

아등수위
我等雖爲

제불자등
諸佛子等하여

설보살법
說菩薩法하여

이구불도
以求佛道나

이어시법
而於是法을

영무원락
永無願樂이니이다

도사견사
導師見捨하심은

관아심고
觀我心故로

초불권진
初不勸進

설유실리
說有實利시니이다

여부장자
如富長者는

지자지렬
知子志劣하고

이 방편력
以方便力으로

유복기심
柔伏其心하고

연후내부
然後乃付

일체재물
一切財物이듯

불역여시
佛亦如是하여

현희유사
現希有事시니이다

지요소자
知樂小者하고

이 방편력
以方便力으로

조복기심
調伏其心하고

내교대지
乃敎大智하시니

아등금일
我等今日에

득미증유
得未曾有니이다

비선소망
非先所望을

이금자득
而今自得하니

여피궁자
如彼窮子의

득무량보
得無量寶니이다

세존아금
世尊我今에

득도득과
得道得果하여

어무루법
於無漏法의

득청정안
得淸淨眼이니이다

아등장야
我等長夜에

지불정계
持佛淨戒타가

시어금일
始於今日에야

득기과보
得其果報이니다

법왕법중
法王法中에

구수범행
久修梵行하여

금득무루
今得無漏의

무상대과
無上大果니이다

아등금자
我等今者에야

진시성문
眞是聲聞이니이다

이불도성
以佛道聲으로

령일체문
令一切聞하리이다

아등금자
我等今者에야

진아라한
眞阿羅漢이니이다

어제세간
於諸世間

천인마법
天人魔梵이나

보어기중
普於其中에서

응수공양
應受供養하리이다

세존대은
世尊大恩은

이희유사
以希有事로

련민교화
憐愍教化하시교

리익아등
利益我等하시니

무량억겁
無量億劫엔들

수능보자
誰能報者리요

수족공급
手足供給 하고

두정례경
頭頂禮敬 하며

일체공양
一切供養 이라도

개불능보
皆不能報 니이다

약이정대
若以頂戴 하고

량견하부
兩肩荷負 하고

어항사겁
於恒沙劫 에

진심공경
盡心恭敬 하며

우이미선
又以美膳 과

무량보의
無量寶衣 와

급제와구
及諸臥具 와

종종탕약
種種湯藥 과

우두전단
牛頭梅壇 과

급제진보
及諸珍寶 로

이기탑묘
以起塔廟 하고

보의포지
寶衣布地 하며

여사등사
如斯等事 로

이용공양
以用供養

어항사겁
於恒沙劫 이라도

역불능보
亦不能報 리이다

제불희유
諸佛希有 하시니

무량무변
無量無邊

불가사의의
不可思議의

대신통력
大神通力이시며

무루무위
無漏無爲하신

제법지왕
諸法之王이건마는

능위하렬
能爲下劣하여

인우사사
忍于斯事하시고

취상범부
取相凡夫에게

수의위설
隨宜爲說하시니이다

제불어법
諸佛於法에

득최자재
得最自在하시고

지제중생
知諸衆生의

종종욕락
種種欲樂과

급기지력
及其志力하시고

수소감임
隨所堪任하여

이무량유
以無量喻로

이위설법
而爲說法하시니이다

수제중생
隨諸衆生의

숙세선근
宿世善根하여

우지성숙
又知成熟

미성숙자
未成熟者하시고

종종주량
種種籌量하여

분별지이
分別知己하시고

어 일 승 도
於 一 乘 道 를

수의 설 삼
隨 宜 說 三 하시니이다

묘 법 려 화 경 신 해 품 종
妙 法 蓮 華 經 信 解 品 終

묘 법 려 화 경 권 제 이 종
妙 法 蓮 華 經 卷 第 二 終

묘법蓮華經 권 제삼
妙法蓮華經 卷 第三

묘법蓮華經 약초유품 제오
妙法蓮華經 藥草喻品 第五

이시세존 고마가가섭급제대제자 선재선재
爾時世尊이 告摩訶迦葉及諸大弟子하시되 善哉善哉

가섭 선설여래진실공덕 성여소언 여
라 迦葉아 善說如來眞實功德 하나라 誠如所言 이라 如

래부유무량무변아승기공덕 여등약어무량억
來復有無量無邊阿僧祇功德 하니 汝等若於無量億

겁 설불능진 가섭당지 여래시제법지왕
劫에 說不能盡 하리라 迦葉當知 하라 如來是諸法之王이

약유소설 개불허야 어일체법 이지방편
니 若有所說은 皆不虛也 나라 於一切法을 以智方便으

이연설지 기소설법 개실도어일체지 지
로 而演說之 하니 其所說法은 皆悉到於一切智地 나라

여래관지일체제법지소귀취 역지일체중생
如來觀知一切諸法之所歸趣 하며 亦知一切衆生의

심심소행 통달무애 우어제법 구진명료
深心所行 하며 通達無礙 나라 又於諸法 究盡明了 하여

시제중생 일체지혜 가섭 비여삼천대천세계
示諸衆生一切智慧 나라 迦葉 아 譬如三千大千世界

산천계곡 토지소생 회목총림 급제약초 중
의 山川谿谷 과 土地所生 의 卉木叢林 及 諸藥草 의 種

류약간 명색각이 밀운미포 편부삼천대
類若干 이며 名色各異 나라 密雲彌布 하여 徧覆三千大

천세계 일시등주 기택보함 회목총림 급
千世界 하여 一時等樹 하여 其澤普洽 하면 卉木叢林 及

제약초 소근소경 소지소엽 중근중경 중지중
諸藥草 의 小根小莖 小枝小葉 과 中根中莖 中枝中

엽 대근대경 대지대엽 제수대소 수상중하
葉 과 大根大莖 大枝大葉 과 諸樹大小 가 隨上中下 하여

각유소수 일운소우 칭기종성 이득생장
各有所受 나라 一雲所雨 에 稱其種性 하여 而得生長 하며

화과부실 수일지소생 일우소윤 이제초
華果數實 이나라 雖一地所生 이며 一雨所潤 이나 而諸草

목 각유차별
木 이 各有差別 이나라

가섭당지 여래역부여시 출현어세 여대운
迦葉當知 하라 如來亦復如是 하여 出現於世 는 如大雲

기 이대음성 보편세계 천인아수라 여피대
起 하고 以大音聲 으로 普徧世界 天人阿修羅 는 如彼大

우 편부삼천대천국토 어대중중 이창시언
雲이 偏覆三千大千國土나라 於大衆中에서 而唱是言

아시여래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하되 我是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미도자령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이나라 未度者令

도 미해자령해 미안자령안 미널반자
度하고 未解者令解 하며 未安者令安 하고 未涅槃者를

령득널반 금세후세 여실지 지 아시일체지
令得涅槃 하며 今世後世를 如實知之나라 我是一切知

자 일체견자 지도자 개도자 설도자
者며 一切見者며 知道者며 開道者며 說道者나라

여등천인아수라중 개응도차 위청법고 이
汝等天人阿修羅衆이 皆應到此는 爲聽法故나라 爾

시 무수천만억종중생 래지불소 이청법
時 無數千萬億種衆生이 來至佛所 하여 而聽法이나라

여래우시 관시중생 제근리둔 정진해태 수
如來于時에 觀是衆生 諸根利鈍과 精進懈怠 하시고 隨

기소감 이위설법 중중무량 개령환희
其所堪 하여 而爲說法 하되 種種無量 하여 皆令歡喜 하고

쾌득선리 시제중생 무시법이 현세안온
快得善利나라 是諸衆生이 聞是法已면 現世安穩 하고

후생선처 이도수락 역득문법 기문법이
後生善處 하여 以道受樂 하고 亦得聞法 하리라 既聞法已

리제장애 어제법중 입력소능 점득입
하여 離諸障礙 하고 於諸法中 에 任力所能 으로 漸得入

도 여피대운 우어일체훼목총림 급제약초
道 나라 如彼大雲 이 雨於一切卉木叢林 과 及諸藥草면

여기종성 구족몽운 각득생장 여래설법
如其種性 하여 具足蒙潤 하여 各得生長 하니라 如來說法

일상일미 소위해탈상 리상멸상 구경지
은 一相一味 니 所謂解脫相 이며 離相滅相 이니 究竟至

어일체종지 기유중생 문여래법 약지독송
於一切種智 나라 其有衆生 이 聞如來法 하고 若持讀誦

여설수행 소득공덕 불자각지 소이자
하며 如說修行 하면 所得功德 은 不自覺知 나라 所以者

하 유유여래 지차중생 종상체성 념하사
何 오 唯有如來 知此衆生 의 種相體性 하되 念何事 하며

사하사 수하사 운하념 운하사 운하
思何事 하며 修何事 하며 云何念 하며 云何思 하며 云何

수 이하법념 이하법사 이하법수 이하
修 하며 以何法 念 하며 以何法 思 하며 以何法 修 하며 以何

법득하법 중생주어종종지지 유유여래여
法得何法 이나라 衆生住於種種之地 를 唯有如來如

실견지 명료무애 여피훼목총림제약초등
實見之하여 明了無礙니라 如彼卉木叢林諸藥草等이

이불자지상중하성 여래지시일상일미지법
而不自知上中下性이라 如來知是一相一味之法이니

소위해탈상 리상멸상 구경널반상적멸상
라 所謂解脫相이며 離相滅相이며 究竟涅槃常寂滅相

종귀어공 불지시이 관중생심욕 이
으로 終歸於空이니라 佛知是已하여 觀衆生心欲하여 而

장호지 시고불즉위설일체종지 여등가섭
將護之니 是故不卽爲說一切種智거늘 汝等迦葉은

심위희유 능지여래수의설법 능신능수 소
甚爲希有라 能知如來隨宜說法을 能信能受하라 所

이자하 제불세존 수의설법 난해난지
以者何오 諸佛世尊의 隨宜說法은 難解難知니라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시되

파유법왕
破有法王이

출현세간
出現世間하여

수중생욕
隨衆生欲하여

종종설법
種種說法하니라

여래존중
如來尊重

지혜심원
智慧深遠하여

구묵사요
久默斯要 하고

불무속설
不務速說 하니라

유지약문
有智若聞 이면

즉능신해
則能信解 하려니와

무지의회
無智疑悔 하여

즉위영실
則爲永失 하니라

시고가섭
是故迦葉 아

수력위설
隨力爲說 하며

이종종연
以種種緣 으로

령득정견
令得正見 케하니라

가섭당지
迦葉當知 하라

비여대운
譬如大雲 이

기어세간
起於世間 하여

편부일체
遍覆一切 하니

혜운함유
慧雲含潤 하고

전광황요
電光晃曜 하며

뢰성원진
雷聲遠震 하여

령중열예
令衆悅豫 하며

일광엄폐
日光掩蔽 하여

지상청량
地上淸涼 하며

애채수포
爰垂垂布 하여

여가승람
如可承攬 이라

기우보등
其雨普等 하여

사방구하
四方俱下 하며

류주무량
流澍無量 하여

솔토충흡
率土充洽 하면

산천험곡
山川險谷 과

유수소생
幽邃所生 의

훼목약초
卉木藥草 와

대소제수
大小諸樹 와

백곡묘가
百穀苗稼 와

감자포도
甘蔗蒲萄 가

우지소윤
雨之所潤 하여

무불풍족
無不豐足 이라

건지보흡
乾地普洽 하여

약목병무
藥木並茂 하니

기운소출
其雲所出

일미지수
一味之水 에

초목총림
草木叢林 이

수분수윤
隨分受潤 이라

일체제수
一切諸樹 의

상중하등
上中下等 이

칭기대소
稱其大小 하여

각득생장
各得生長 하니

근경지엽
根莖枝葉과

화과광색
華果光色이

일우소급
一雨所及에

개득선택
皆得鮮澤이니라

여기체상
如其體相

성분대소
性分大小이나

소유시일
所潤是一이라

이각자무
而各滋茂니라

불역여시
佛亦如是하여

출현어세
出現於世함

비여대운
譬如大雲이

보부일체
普覆一切이라

기출우세
既出于世하시어

위제중생
爲諸衆生하여

분별연설
分別演說

제법지실
諸法之實이라

대성세존
大聖世尊이

어제천인
於諸天人과

일체중중
一切衆中에

이선시언
而宣是言하시노라

아위여래
我爲如來

량족지존
兩足之尊이라

출우세간
出于世間이

유여대운
猶如大雲하여

충윤일체
充潤一切

고고중생
枯槁衆生하고

개령리고
皆令離苦하여

득안온락
得安穩樂과

세간지락
世間之樂과

급닐반락
及涅槃樂이니라

제천인중
諸天人衆은

일심선청
一心善聽하고

개응도차
皆應到此하여

근무상존
觀無上尊하라

아위세존
我爲世尊이니

무능급자
無能及者니라

안온중생
安穩衆生코자

고현어세
故現於世하여

위대중설
爲大衆說

감로정법
甘露淨法하니라

기법일미
其法一味로써

해탈닐반
解脫涅槃이라

이일묘음
以一妙音으로

연창사의
演暢斯義하며

상위대승
常爲大乘 하여

이작인연
而作因緣 이니라

아관일체
我觀一切 하되

보개평등
普皆平等 하여

무유피차
無有彼此

애증지심
愛憎之心 이며

아무탐착
我無貪著 하고

역무한애
亦無限礙 니라

항위일체
恒爲一切 하여

평등설법
平等說法 하되

여위일인
如爲一人 하며

중다역연
衆多亦然 이니라

상연설법
常演說法 하고

증무타사
曾無他事 하며

거래좌립
去來坐立 에

종불피염
終不疲厭 하여

충족세간
充足世間 이

여우보유
如雨普潤 이니라

귀천상하
貴賤上下 거나

지제훼제
持戒毀戒 거나

위의구족
威儀具足

급불구족
及不具足 이거나

정견사견
正見邪見 커나

리근둔근
利根鈍根 커나

등우법우
等雨法雨 하여

이무해권
而無懈倦 이나라

일체중생
一切衆生

문아법자
聞我法者 는

수력소수
隨力所受 하여

주어제지
住於諸地 나라

혹처인천
或處人天

전륜성왕
轉輪聖王 과

석범제왕
釋梵諸王 하면

시소약초
是小藥草 나라

지무루법
知無漏法 하여

능득녕반
能得涅槃 하고

기륙신통
起六神通 하며

급득삼명
及得三明 하고

독처산림
獨處山林 하며

상행선정
常行禪定 하여

득연각증
得緣覺證 하면

시중약초
是中藥草 나라

구세존처
求世尊處 하여

아당작불
我當作佛 하리라

행 정 진 정
行 精 進 定 하면

시 상 약 초
是 上 藥 草 나라

우 제 불 자
又 諸 佛 子 가

전 심 불 도
專 心 佛 道 하여

상 행 자 비
常 行 慈 悲 하며

자 지 작 불
自 知 作 佛 하고

결 정 무 의
決 定 無 疑 하면

시 명 소 수
是 名 小 樹 라

안 주 신 통
安 住 神 通 하여

전 불 퇴 룬
轉 不 退 輪 하며

도 무 량 억
度 無 量 億

백 천 중 생
百 千 衆 生 하는

여 시 보 살
如 是 菩 薩 은

명 위 대 수
名 爲 大 樹 나라

불 평 등 설
佛 平 等 說 은

여 일 미 우
如 一 味 雨 라

수 중 생 성
隨 衆 生 性

소 수 불 동
所 受 不 同 이

여 피 초 목
如 彼 草 木 의

소 품 각 이
所 稟 各 異 듯하니라

불 이 차 유
佛 以 此 喻

방 편 개 시
方 便 開 示 하며

종종언사
種種言辭로

연설일법
演說一法함은

어불지혜
於佛智慧엔

여해일적
如海一滴나라

아우법우
我雨法雨하여

충만세간
充滿世間하니

일미지법
一味之法을

수력수행
隨力修行은

여피총림
如彼叢林과

약초제수
藥草諸樹가

수기대소
隨其大小하여

점증무호
漸增茂好하듯하니라

제불지법
諸佛之法은

상이일미
常以一味로

령제세간
令諸世間이

보득구족
普得具足하여

점차수행
漸次修行하여

개득도과
皆得道果케하니라

성문연각
聲聞緣覺이

처어산림
處於山林에서

주최후신
住最後身하여

무법득과
聞法得果는

시명약초
是名藥草

각득증장
各得增長 이라하니라

약제보살
若諸菩薩 이

지혜견고
智慧堅固 하여

료달삼계
了達三界 하고

구최상승
求最上乘 은

시명소수
是名小樹

이득증장
而得增長 이라하니라

부유주선
復有住禪 하여

득신통력
得神通力 하고

무제법공
聞諸法空 하고

심대환희
心大歡喜 하며

방무수광
放無數光 하여

도제중생
度諸衆生 은

시명대수
是名大樹

이득증장
而得增長 이라하니라

여시가섭
如是迦葉 아

불소설법
佛所說法 은

비여대운
譬如大雲 이

이일미우
以一味雨 로

유어인화
潤於人華 하여

각득성실
各得成實 이니라

가섭당지
迦葉當知 하라

이제인연
以諸因緣 과

중중비유
種種譬喩 로

개시불도
開示佛道 하니

시아방편
是我方便 이라

제불역연
諸佛亦然 이니라

금위여등
今爲汝等 하여

설최실사
說最實事 하니라

제성문중
諸聲聞衆 은

개비멸도
皆非滅度 이며

여등소행
汝等所行 은

시보살도
是菩薩道 니라

점점수학
漸漸修學 하면

실당성불
悉當成佛 하리라

묘법련화경 약초유품 종
妙法蓮華經 藥草喩品 終

묘법련화경 수기품 제륙
妙法蓮華經 授記品 第六

이시세존 설시게이 고제대중 창여시언
爾時世尊이說是偈已하고告諸大衆하여唱如是言하

아차제자 마가가섭 어미래세 당득봉근삼
我此弟子摩訶迦葉은於未來世에當得奉觀三

백만억제불세존 공양공경 존중찬탄 광
百萬億諸佛世尊하고供養恭敬하여尊重讚歎하고廣

선제불무량대법 어최후신 득성위불
宣諸佛無量大法하다가於最後身에得成爲佛하리라

명월광명여래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名曰光明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극명광덕
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이라國名光德이

겁명대장엄 불수십이소겁 정법주세 이
劫名大莊嚴이며佛壽十二小劫이라正法住世는二

십소겁 상법역주이십소겁 극제엄식 무
十小劫이고像法亦住二十小劫이리라國界嚴飾하고無

제예악 와력형극 편리불정 기토평정 무
諸穢惡과瓦礫荊棘과便利不淨이며其土平正하여無

유고하 갱감퇴부 류리위지 보수행렬
有高下와坑坎堆阜이며琉璃爲地하고寶樹行列하여

황금위승 이계도측 산제보화 주편청정
黃金爲繩으로 以界道側하고 散諸寶華하여 周遍淸淨이

기국보살 무량천억 제성문중 역부무수
其國菩薩은 無量千億이며 諸聲聞衆도 亦復無數하

무유마사 수유마급마민 개호불법
無有魔事나라 雖有魔及魔民이라도 皆護佛法이니라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시되

고제비구
告諸比丘하노니

아이불안
我以佛眼으로

견시가섭
見是迦葉하니

어미래세
於未來世에

과무수겁
過無數劫하여

당득작불
當得作佛하리라

이어래세
而於來世에

공양봉근
供養奉觀

삼백만억
三百萬億의

제불세존
諸佛世尊하며

위불지혜
爲佛智慧하여

정수범행
淨修梵行하며

공양최상
供養最上

이족존이
二足尊已하고

수습일체
修習一切

무상지혜
無上之慧 하여

어최후신
於最後身에

득성위불
得成爲佛 하리라

기토청정
其土淸淨 하여

류리위지
瑠璃爲地 하고

다재보수
多諸寶樹 하여

항렬도측
行列道側 하고

금승계도
金繩界道 하니

견자환희
見者歡喜 나라

상출호향
常出好香 하며

산중명화
散衆名華 하고

종종기묘
種種奇妙 로

이위장엄
以爲莊嚴 하며

기지평정
其地平正 하여

무유구갱
無有丘坑 하며

제보살중
諸菩薩衆 이

불가칭계
不可稱計 리니

기심조유
其心調柔 하여

체대신통
逮大神通 하며

봉지제불
奉持諸佛

대승경전
大乘經典 하며

제성문중
諸聲聞衆

무루후신
無漏後身과

법왕지자
法王之子弟

역불가계
亦不可計라

내이천안
乃以天眼으로도

불능수지
不能數知하리라

기불당수
其佛當壽는

십이소겁
十二小劫이요

정법주세
正法住世는

이십소겁
二十小劫이며

상법역주
像法亦住

이십소겁
二十小劫이니

광명세존
光明世尊의

기사여시
其事如是하리라

이시 대목건련 수보제 마가가전연등 개실송
爾時에 大目犍連 須菩提 摩訶迦旃延等이 皆悉悚

를 일심합장 칙앙존안 목불잠사 즉
慄하며 一心合掌 하고 瞻仰尊顏 하되 目不暫捨 하더니 卽

공동성 이설게언
共同聲으로 而說偈言 하되

대웅맹세존
大雄猛世尊은

제석지법왕
諸釋之法王이시니

애민아등고
哀慙我等故로

이사불음성
而賜佛音聲하소서

약지아심심
若知我深心하시교

견위수기자
見爲授記者면

여이감로쇄
如以甘露灑하여

제열득청량
除熱得清涼이리이다

여종기극래
如從飢國來하여

홀우대왕선
忽遇大王饕이나

심유회의구
心猶懷疑懼하여

미감즉편식
未敢卽便食타가

약부득왕교
若復得王敎면

연후내감식
然後乃敢食이니이다

아등역여시
我等亦如是하여

매유소승과
每惟小乘過하고

불지당운하
不知當云何

득불무상혜
得佛無上慧니이다

수문불음성
雖聞佛音聲으로

언아등작불
言我等作佛이라도

심상회우구
心尙懷憂懼하여

여미감편식
如未敢便食이니

약몽불수기
若蒙佛授記면

이내쾌안락
爾乃快安樂하리이다

대웅맹세존
大雄猛世尊이

상욕안세간
常欲安世間하시니

원사아등기
願賜我等記하소서

여기수교식
如飢須敎食하리이다

이시세존 지제대제자 심지소념 고제비구
爾時世尊이 知諸大弟子의 心之所念하시고 告諸比丘

시수보제 어당래세 봉근삼백만억나유타
是須菩提는 於當來世에 奉觀三百萬億那由他

불 공양공경 존중찬탄 상수범행 구보
佛하여 供養恭敬하고 尊重讚歎하며 常修梵行하여 具菩

살도 어최후신 득성위불 호왈명상여래
薩道하며 於最後身에 得成爲佛하리라 號曰名相如來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

장부 천인사 불 세존 겁명유보 국명보생
丈夫 天人師 佛 世尊이라 劫名有寶요 國名寶生이며

기토평정 파려위지 보수장엄 무제구갱
其土平正하고 玻瓈爲地하고 寶樹莊嚴하며 無諸丘坑과

사력형극 편리지예 보화부지 주편청정
沙礫荊棘과 便利之穢이며 寶華覆地하여 周遍清淨하며

기토인민 개처보대진묘루각 성문제자 무
其土人民은 皆處寶臺珍妙樓閣하니 聲聞弟子는 無

량무변 산수비유 소불능지 제보살중
量無邊 하여 算數譬喩 로는 所不能知 니라 諸菩薩衆 도

무수천만억나유타 불수십이소겁 정법주세
無數千萬億那由他 나라 佛壽十二小劫 이요 正法住世

이십소겁 상법역주이십소겁 기불상처허
는 二十小劫 이며 像法亦住二十小劫 이라 其佛常處虛

공 위중설법 도탈무량보살급성문중
空 하여 爲衆說法 하여 度脫無量菩薩及聲聞衆 하리라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제비구중
諸比丘衆 아

금고여등
今告汝等 하노니

개당일심
皆當一心 으로

청아소설
聽我所說 하라

아대제자
我大弟子

수보제자
須菩提者는

당득작불
當得作佛 하리니

호왈명상
號曰名相 이라

당공무수
當供無數

만억제불
萬億諸佛 하고

수불소행
隨佛所行 하여

점구대도
漸具大道 하고

최후신득
最 後 身 得

삼십이상
三 十 二 相 하여

단정수묘
端 正 殊 妙 는

유여보산
猶 如 寶 山 이리라

기불국토
其 佛 國 土 는

엄정제일
嚴 淨 第 一 이니

중생견자
衆 生 見 者 는

무불애락
無 不 愛 樂 이리라

불어기중
佛 於 其 中 에

도무량중
度 無 量 衆 하시리라

기불법중
其 佛 法 中 에는

다제보살
多 諸 菩 薩 이

개실리근
皆 悉 利 根 하여

전불퇴륜
轉 不 退 輪 하리라

피국상이
彼 國 常 以

보살장엄
菩 薩 莊 嚴 하고

제성문중
諸 聲 聞 衆 도

불가칭수
不 可 稱 數 리니

개득삼명
皆 得 三 明 하고

구륙신통
具 六 神 通 하며

주팔해탈
住 八 解 脫 하여

유대위덕
有 大 威 德 이리라

기불설법
其佛說法은

현어무량
現於無量하여

신통변화
神通變化

불가사의
不可思議라

제천인민
諸天人民의

수여항사
數如恒沙하고

개공합장
皆共合掌하여

청수불어
聽受佛語하리라

기불당수
其佛當壽는

십이소겁
十二小劫이요

정법주세
正法住世는

이십소겁
二十小劫이며

상법역주
像法亦住

이십소겁
二十小劫하리라

이시세존 부고제비구중 아금어여 시대
爾時世尊이復告諸比丘衆하시되我今語汝하노라是大

가전연 어당래세 이제공구 공양봉사팔천억
迦旃延은於當來世에以諸供具로供養奉事八千億

불 공경존중 제불멸후 각기탑묘 고천
佛하며恭敬尊重하리라諸佛滅後에各起塔廟하되高千

유순 종광정등 오백유순 이금은 류리차
由旬이며縱廣正等五百由旬이라以金銀琉璃磚

거 마노 진주 매괴 칠보 합성 중화영락 도
磔 碼 磧 眞 珠 玫 瑰 의 七 寶 로 合 成 하고 衆 華 瓔 珞 과 塗

향 말향 소향 증개당번 공양탑묘 과시이
香 抹 香 燒 香 과 繒 蓋 幢 幡 을 供 養 塔 廟 하리라 過 是 已

후 당부공양이만억불 역부여시 공양시제
後 에 當 復 供 養 二 萬 億 佛 하되 亦 復 如 是 리니 供 養 是 諸

불이 구보살도 당득작불 호왈 염부나
佛 已 하고는 具 菩 薩 道 하여 當 得 作 佛 하리니 號 曰 閼 浮 那

제금광여래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提 金 光 如 來 應 供 正 遍 知 明 行 足 善 逝 世 間 解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기토평정
無 上 士 調 御 丈 夫 天 人 師 佛 世 尊 이라 其 土 平 正 하

파려위지 보수장엄 황금위승 이제도
되 玻 瓈 爲 地 하고 寶 樹 莊 嚴 하며 黃 金 爲 繩 하여 以 界 道

측 묘화부지 주편청정 전자환희 무사
側 하고 妙 華 覆 地 하여 周 徧 清 淨 하니 見 者 歡 喜 리라 無 四

악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도 다유천인 제성
惡 道 地 獄 餓 鬼 畜 生 阿 修 羅 道 하고 多 有 天 人 諸 聲

문중급제보살 무량만억 장엄기국 불수십
聞 衆 及 諸 菩 薩 의 無 量 萬 億 이 莊 嚴 其 國 하리라 佛 壽 十

이소겁 정법주세 이십소겁 상법역주이십
二 小 劫 이요 正 法 住 世 는 二 十 小 劫 이며 像 法 亦 住 二 十

소겁
小劫 하리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世尊이欲重宣此義하여而說偈言하시되

제비구중
諸比丘衆은

개일심청
皆一心聽 하라

여아소설
如我所說은

진실무이
眞實無異 하니라

시가전연
是迦旃延은

당이종종
當以種種

묘호공구
妙好供具로

공양제불
供養諸佛 하고

제불멸후
諸佛滅後에

기칠보탑
起七寶塔 하고

역이화향
亦以華香으로

공양사리
供養舍利 하고

기최후신
其最後身에

득불지혜
得佛智慧 하여

성등정각
成等正覺 하리니

극토청정
國土淸淨 하며

도탈무량
度脫無量

만억중생
萬億衆生 하고

개위십방
皆爲十方

지소공양
之所供養 하리니

불지광명
佛之光明 은

무능승자
無能勝者 리라

기불호왈
其佛號曰

염부금광
閻浮金光 이라

보살성문
菩薩聲聞 이

단일체유
斷一切有 하되

무량무수
無量無數 하여

장엄기국
莊嚴其國 하리라

이시세존 부고대중 아금어여 시대목건
爾時世尊이 復告大衆 하시되 我今語汝 하노라 是大目犍

련 당이종종공구 공양팔천제불 공경존중
連 은 當以種種供具로 供養八千諸佛 하여 恭敬尊重 하

제불멸후 각기탑묘 고천유수 종광정등
고 諸佛滅後에 各起塔廟 하되 高千由旬 이요 縱廣正等

오백유수 이금 은 류리 차거 마노 진주 매괴
五百由旬 이라 以金銀琉璃 碑磬 碼碯 眞珠 玫瑰

칠보 합성 증화영락 도향 말향 소향 증
의 七寶로 合成 하며 衆華瓔珞과 塗香 抹香 燒香과 繒

개 당번 이용공양 과시이후 당부공양이
蓋 幢幡 으로 以用供養 하리라 過是已後에 當復供養二

백만억제불 역부여시 당득성불 호왈
百萬億諸佛 하되 亦復如是 하고 當得成佛 하리니 號曰

다마라발전단향여래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多摩羅跋耨檀香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겁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 이라 劫

명희만 국명의락 기토평정 파려위지
名喜滿 이요 國名意樂 이며 其土平正 하여 玻瓈爲地 하고

보수장엄 산진주화 주편청정 견자환희
寶樹莊嚴 하며 散眞珠華 하고 周遍淸淨 하여 見者歡喜 하

다제천인 보살성문 기수무량 불수이
고 多諸天人 이며 菩薩聲聞 은 其數無量 하리라 佛壽二

십사소겁 정법주세 사십소겁 상법역주사
十 四小劫 이요 正法住世 는 四十小劫 이며 像法亦住四

십소겁
十小劫 이리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 에 世尊 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아차제자
我此弟子

대목건련
大目犍連 은

사시신이
捨是身 已 하고

득견팔천
得見八千

이백만억
二百萬億

제불세존
諸佛世尊 하고

위불도고
爲佛道故로

공양공경
供養恭敬 하며

어제불소
於諸佛所에서

상수범행
常修梵行 하여

어무량겁
於無量劫에

봉지불법
奉持佛法 하리라

제불멸후
諸佛滅後에

기칠보탑
起七寶塔 하되

장표금찰
長表金刹 하고

화향기악
華香伎樂 으로

이이공양
而以供養

제불탑묘
諸佛塔廟 하여

점점구족
漸漸具足

보살도이
菩薩道已 하여

어의락국
於意樂國에서

이득작불
而得作佛 하리라

호다마라
號多摩羅

전단지향
栴檀之香 이며

기불수명
其佛壽命 은

이십사겁
二十四劫 이고

상위천인
常爲天人

연설불도
演說佛道 하리라

성문무량
聲聞無量 하여

여항하사
如恒河沙 하되

삼명륙통
三明六通 하여

유대위덕
有大威德 이리라

보살무수
菩薩無數 하되

지고정진
志固精進 하여

어불지혜
於佛智慧 에서

개불퇴전
皆不退轉 하리라

불멸도후
佛滅度後 에

정법당주
正法當住

사십소겁
四十小劫 하며

상법역이
像法亦爾 하리라

아제제자
我諸弟子

위덕구족
威德具足 하니

기수오백
其數五百 이며

개당수기
皆當授記 하되

어미래세
於未來世 에

함득성불
咸得成佛 하리라

아급여등
我及汝等 의

숙세인연
宿世因緣 을

오금당설
呑今當說 하리니

여등선청
汝等善聽 하라

묘법련화경 수기품 종
妙法蓮華經 授記品 終

묘법蓮華經 화성유품 제칠
妙法蓮華經 化城喻品 第七

불고제비구 내왕과거 무량무변불가사의아
佛告諸比丘 乃往過去 無量無邊 不可思議阿

승기겁 이시유불 명대통지승여래 응공정
僧祇劫에 爾時有佛 名大通智勝如來 應供正

편지명행족선서세간해무상사조어장부천
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

인사불세존기국명호성겁명대상제비
人師 佛 世尊 其國名好城 劫名大相 諸比

구피불멸도이래심대구원비여삼천대천세
丘야 彼佛滅度已來 甚大久遠 譬如三千大千世

계소유지종가사유인마이위묵과어동
界의 所有地種을 假使有人이 磨以爲墨 하여 過於東

방천국토내하일점대여미진우과천국
方千國土 乃下一點 大如微塵 又過千國

토부하일점여시전전진지종묵어여
土 復下一點 如是展轉 盡地種墨 於汝

등의운하시제국토약산사약산사제자능득
等意云何 是諸國土를 若算師 若算師弟子 能得

변제지기수불불야세존제비구
邊際 知其數 不也 世尊 諸比丘야

시인소경국토 약점불점 진말위진 일진일
是人所經國土의 若點不點을 盡抹爲塵 하여 一塵一

겁 피불멸도이래 부과시수 무량무변 백
劫이라도 彼佛滅度已來는 復過是數 하여 無量無邊 百

천만억 아승기겁 아이여래지견력고 관피구
千萬億 阿僧祇劫이니 我以如來知見力故로 觀彼久

원 유약금일
遠 하되 猶若今日 이니라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아념과거세
我念過去世

무량무변겁
無量無邊劫 하니

유불량족존
有佛兩足尊 하시되

명대통지승
名大通智勝 이라

여인이력마
如人以力磨

삼천대천토
三千大千土의

진차제지종
盡此諸地種 하여

개실이위묵
皆悉以爲墨 하여

과어천국토
過於千國土 하며

내하일진점
乃下一塵點 하되

여시전전점
如是展轉點 하여

진차제진묵
盡此諸塵墨 이라

여시제국토
如是諸國土의

점여불점등
點與不點等을

부진말위진
復盡抹爲塵하여

일진위일겁
一塵爲一劫이라도

차제미진수
此諸微塵數에

기겁부과시
其劫復過是리라

피불멸도래
彼佛滅度來는

여시무량겁
如是無量劫이니라

여래무애지
如來無礙智로

지피불멸도
知彼佛滅度와

급성문보살
及聲聞菩薩하되

여견금멸도
如見今滅度니라

제비구당지
諸比丘當知하라

불지정미묘
佛智淨微妙하여

무루무소애
無漏無所礙하며

통달무량겁
通達無量劫하니라

불고제비구 대통지승불수 오백사십만억나
佛告諸比丘하시되 大通智勝佛壽는 五百四十萬億那

유타겁 기불본좌도장 파마군이 수득아
由他劫이니라 其佛本坐道場하여 破魔軍已하고 垂得阿

녹다라삼막삼보제 이제불법 불현재전 여
耨多羅三藐三菩提하나 而諸佛法이 不現在前이라 如

시일소겁 내지십소겁 결가부좌 신심불
是 一 小 劫 으로 乃 至 十 小 劫 토록 結 跏 趺 坐 하고 身 心 不

동 이제불법 유불재전 이시 도리제천
動 이나 而 諸 佛 法 이 猶 不 在 前 이라 爾 時 에 忉 利 諸 天 이

선위피불 어보제수하 부사자좌 고일유순
先 爲 彼 佛 하여 於 菩 提 樹 下 에 敷 師 子 座 하되 高 一 由 旬

 불어차좌 당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이라 佛 於 此 坐 하여 當 得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하리라고

적좌차좌 시제범천왕 우중천화 면백유순
適 坐 此 座 하니 時 諸 梵 天 王 이 雨 衆 天 華 하되 面 百 由 旬

 향풍시래 취거위화 갱우신자 여시불
이라 香 風 時 來 하여 吹 去 萎 華 하고 更 雨 新 者 하되 如 是 不

절 만십소겁 공양어불 내지멸도 상우
絶 하니 滿 十 小 劫 토록 供 養 於 佛 하되 乃 至 滅 度 하니 常 雨

차화 사왕제천 위공양불 상격천고 기
此 華 하니라 四 王 諸 天 은 爲 供 養 佛 하되 常 擊 天 鼓 하며 其

여제천 작천기악 만십소겁 지우멸도
餘 諸 天 은 作 天 伎 樂 하되 滿 十 小 劫 하고 至 于 滅 度 토록

역부여시 제비구 대통지승불 과십소겁
亦 復 如 是 니라 諸 比 丘 야 大 通 智 勝 佛 이 過 十 小 劫 하여

제불지법 내현재전 성아녹다라삼막삼보제
諸 佛 之 法 이 乃 現 在 前 하여 成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하

시니라

기불 미출가시 유십륙자 기제일자 명왈지
其佛이未出家時에 有十六子하니 其第一者는 名曰智

적 제자각유종종진이완호지구 문부득
積이니라 諸子各有種種珍異玩好之具하더니 聞父得

성아능다라삼막삼보제 개사소진 왕예불소
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하고 皆捨所珍하고 往詣佛所

제모체읍 이수송지 기조전륜성왕 여
諸母涕泣하며 而隨送之니라 其祖轉輪聖王은 與

일백대신급여백천만억인민 개공위요 수지
一百大臣及餘百千萬億人民이 皆共圍繞하여 隨至

도장 함욕친근 대통지승여래 공양공경
道場하여 咸欲親近 大通智勝如來하고 供養恭敬하고

존중찬탄 도이두면례족 요불필이 일심합
尊重讚歎코자 到已頭面禮足하고 繞佛畢已 一心合

장 첩앙세존 이계송왈
掌하며 瞻仰世尊하고 以偈頌曰하되

대위덕세존
大威德世尊이

위도중생고
爲度衆生故로

어무량억세
於無量億歲에

이내득성불
爾乃得成佛하시니라

제원이구족
諸願已具足 하시니

선재길무상
善哉吉無上 이로다

세존심희유
世尊甚希有 하시여

일좌십소겁
一坐十小劫 토록

신체급수족
身體及手足이

정연안불동
靜然安不動 하시며

기심상담박
其心常憺怕 하여

미증유산란
未曾有散亂 하시고

구경영적멸
究竟永寂滅 하여

안주무루법
安住無漏法 이시라

금자견세존
今者見世尊이

안온성불도
安穩成佛道 하고

아등득선리
我等得善利 하여

칭경대환희
稱慶大歡喜 니이다

중생상고뇌
衆生常苦惱 하되

맹명무도사
盲冥無導師 라

불식고진도
不識苦盡道며

불지구해탈
不知求解脫 하고

장야증악취
長夜增惡趣

감손제천중
減損諸天衆 하여

종명입어명
從冥入於冥 하여

영불문불명
永不聞佛名 이니이다

금불득최상
今佛得最上

안온무루도
安穩無漏道 하시니

아등급천인
我等及天人이

위득최대리
爲得最大利 리이라

시고함계수
是故威稽首 하고

귀명무상존
歸命無上尊 이니이다

이시십륙왕자 게찬불이 권청세존전어법륜
爾時十六王子는 偈讚佛已 하고 勸請世尊轉於法輪

함작시언 세존설법 다소안온 려
하고 威作是言 하되 世尊說法 하시면 多所安穩 이리이다 憐

민요익제천인민 중설게언
愍饒益諸天人民 하소서 重說偈言 하되

세웅무등륜
世雄無等倫 하여

백복자장엄
百福自莊嚴 하시고

득무상지혜
得無上智慧 시니

원위세간설
願爲世間說 하소서

도탈어아등
度脫於我等

급제중생류
及諸衆生類 하시어

위분별현시
爲分別顯示 하시고

령득시지혜
令得是智慧 하소서

약아등득불
若我等得佛 이면

중생역부연
衆生亦復然 이리이다

세 존지 중생
世尊知衆生

심심지소념
深心之所念 하시며

역지소행도
亦知所行道 하며

우지지혜력
又知智慧力 이리이다

욕락급수복
欲樂及修福 과

숙명소행업
宿命所行業 을

세 존실지이
世尊悉知已 시니

당전무상륜
當轉無上輪 하소서

불고제비구 대통지승불 득아녹다라삼막삼
佛告諸比丘 하시되 大通智勝佛이 得阿耨多羅三藐三

보제시 십방 각오백만억제불세계육종진동
菩提時에 十方의 各五百萬億諸佛世界六種震動 하고

기국중간유명지처 일월위광 소불능조 이개
其國中間幽冥之處의 日月威光의 所不能照를 而皆

대명 기중중생 각득상견 함작시언 차
大明이라 其中衆生이 各得相見 하고 威作是言 하되 此

중운하홀생중생 우기국제 제천궁전내지범
中云何忽生衆生이뇨 又其國界와 諸天宮殿乃至梵

궁 륜종진동 대광보조 편만세계 승제
宮도 六種震動 하고 大光普照 하여 徧滿世界 하니 勝諸

천광 이시동방오백만억 제국토중범천궁전
天光이라 爾時東方五百萬億인 諸國土中梵天宮殿에

광명조요 배어상명 제법천왕 각작시념
光明照曜하되 倍於常明이라 諸梵天王이 各作是念하되

금자궁전광명 석소미유 이하인연 이현차
今者宮殿光明은 昔所未有니 以何因緣으로 而現此

상 시시제법천왕 즉각상예 공의차사
相이뇨 是時諸梵天王은 卽各相詣하여 共議此事하니

시피중중 유일대법천왕 명구일체 위제법
時彼衆中에 有一大梵天王하되 名救一切라 爲諸梵

중 이설게언
衆하여 而說偈言하되

아등제궁전
我等諸宮殿의

광명석미유
光明昔未有라

차시하인연
此是何因緣고

의각공구지
宜各共求之로다

위대덕천생
爲大德天生이신가

위불출세간
爲佛出世間이신가

이차대광명
而此大光明이

편조어십방
徧照於十方이로다

이시 오백만억국토 제법천왕 여궁전구 각
爾時 五百萬億國土의 諸梵天王이 與宮殿俱하여 各

이의 극성제천화 공예서방 추심시상 전
以衣 袂盛諸天華하고 共詣西方하여 推尋是相타가 見

대통지승여래 처우도장 보제수하 좌사자좌
大通智勝如來가 處于道場 菩提樹下에 坐師子座하

제천룡왕 건달파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 등
諸天龍王 乾闥婆 緊那羅 摩睺羅伽 人 非人等

공경위요 급견십륙왕자 청불전법륜 즉시
이 恭敬圍繞하고 及見十六王子 請佛轉法輪이라 卽時

제범천왕 두면례불 요백천잡 즉이천화 이
諸梵天王이 頭面禮佛하고 繞百千市하고 卽以天華而

산불상 기소산화 여수미산 병이공양불 보
散佛上하니 其所散華가 如須彌山이며 并以供養佛 菩

제수 기보제수 고십유순 화공양이 각
提樹하니 其菩提樹의 高十由旬이라 華供養已하고 各

이궁전 봉상피불 이작시언 유견애민
以宮殿을 奉上彼佛하고 以作是言하되 惟見哀愍하시어

요익아등 소헌궁전 원수납처 시제범천
饒益我等하고 所獻宮殿을 願垂納處하소서 時諸梵天

왕 즉어불전 일심동성 이게송왈
王이 卽於佛前에서 一心同聲으로 以偈頌曰하되

세존심희유
世尊甚希有시니

난가득치우
難可得值遇라

구무량공덕
具無量功德하시어

능구호일체
能救護一切하시며

천인지대사
天人之大師이니

애민어세간
哀愍於世間이니

십방제중생
十方諸衆生은

보개몽요익
普皆蒙饒益하리이다

아등소종래
我等所從來는

오백만억국
五百萬億國이며

사심선정락
捨深禪定樂은

위공양불고
爲供養佛故니이다

아등선세복
我等先世福으로

궁전심엄식
宮殿甚嚴飾이니이다

금이봉세존
今以奉世尊하오니

유원애납수
惟願哀納受하소서

이시제법천왕 게찬불이 각작시언 유원세
爾時諸梵天王이 偈讚佛已하고 各作是言하되 唯願世

존 전어법륜 도탈중생 개녕반도
尊이시여 轉於法輪하여 度脫衆生하시고 開涅槃道하소서

시 제법천왕 일심동성 이설게언
時에 諸梵天王이 一心同聲으로 而說偈言하되

세웅량족존
世雄兩足尊이시여

유원연설법
惟願演說法하시고

이대자비력
以大慈悲力으로

도고뇌중생
度苦惱衆生하소서

이 시대 통지 승여래 묵연허지 우제비구
爾時大通智勝如來는默然許之하시니라 又諸比丘야

동남방 오백만억국토 제대범왕 각자견궁전광
東南方五百萬億國土의 諸大梵王이 各自見宮殿光

명조요 석소미유 환희응약 생희유심
明照曜하되 昔所未有하고 歡喜踴躍하며 生希有心하여

즉각상에 공의차사 시피중중 유일대범천
卽各相詣하여 共議此事러니 時彼衆中에 有一大梵天

왕 명왈대비 위제범중 이설게언
王하니 名曰大悲라 爲諸梵衆하여 而說偈言하되

시사하인연
是事何因緣으로

이현여차상
而現如此相인고

아등제궁전
我等諸宮殿에

광명석미유
光明昔未有라

위대덕천생
爲大德天生이신가

위불출세간
爲佛出世間이신가

미증견차상
未曾見此相이로다

당공일심구
當共一心求하되

과천만억토
過千萬億土라도

심광공추지
尋光共推之로다

다시불출세
多是佛出世하여

도탈고중생
度脫苦衆生이리라

이시 오백만억제범천왕 여궁전구 각이의극
爾時五百萬億諸梵天王이 與宮殿俱하며 各以衣祴

성제천화 공예서북방 추심시상 전대통
盛諸天華하고 共詣西北方하여 推尋是相타가 見大通

지승여래 처우도장보제수하 좌사자좌
智勝如來가 處于道場菩提樹下하여 坐師子座하고

제천룡왕건달파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등
諸天龍王乾闥婆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이

공경위요 급전십륙왕자 청불전법륜 시
恭敬圍繞하며 及見十六王子가 請佛轉法輪이리라 時

제범천왕 두면례불 요백천잡 즉이천화이
諸梵天王이 頭面禮佛하고 繞百千市하며 卽以天華而

산불상 소산지화 여수미산 병이공양불보
散佛上하니 所散之華가 如須彌山하고 并以供養佛菩

제수 화공양이 각이궁전 봉상피불 이작
提樹라 華供養已하고 各以宮殿을 奉上彼佛하여 而作

시언 유전애민 요익아등 소헌궁전 원
是言하되 唯見哀愍하여 饒益我等하고 所獻宮殿을 願

수납수
垂納受하소서

이시제범천왕 즉어불전 일심동성 이게송
爾時諸梵天王이 卽於佛前에서 一心同聲으로 以偈頌

왈
曰 하되

성주천중왕
聖主天中王 이시여

가릉빈가성
迦陵頻伽聲 으로

애민중생자
哀愍衆生者 시라

아등금경례
我等今敬禮 하옵니다

세존심희유
世尊甚希有 하여

구원내일현
久遠乃一現 하심이라

일백팔십겁
一百八十劫 을

공과무유불
空過無有佛 하니

삼악도충만
三惡道充滿 하고

제천중감소
諸天衆減少 라

금불출어세
今佛出於世 하여

위중생작안
爲衆生作眼 하시니

세간소귀취
世間所歸趣 라

구호어일체
救護於一切 하여

위중생지부
爲衆生之父 하여

애민요익자
哀愍饒益者 시라

아등숙복경
我等宿福慶 으로

금득치세존
今得值世尊 이니이다

이시제범천왕 게찬불이 각작시언 유원세
爾時諸梵天王이 偈讚佛已 하고 各作是言 하되 唯願世

존애민일체 전어법륜 도탈중생
尊이시여 哀愍一切 하여 轉於法輪 하시여 度脫衆生 하소서

시제범천왕 일심동성 이설게언
時諸梵天王이 一心同聲 으로 而說偈言 하되

대성전법륜
大聖轉法輪 하여

현시제법상
顯示諸法相 하시고

도고뇌중생
度苦惱衆生 하여

령득대환희
令得大歡喜 케하소서

중생문차법
衆生聞此法 이면

득도약생천
得道若生天 하며

제악도감소
諸惡道減少 하고

인선자증익
忍善者增益 하리이다

이시대통지승여래 묵연허지 우제비구
爾時大通智勝如來는 默然許之 하시니라 又諸比丘야

남방오백만억국토 제대범왕 각자견궁전 광
南方五百萬億國土의 諸大梵王이 各自見宮殿에 光

명조요 석소미유 환희응약 생희유심
明照耀 하되 昔所未有 하고 歡喜踴躍 하며 生希有心 하여

즉각상예 공의차사 이하인연 아등궁전
卽各相詣 하여 共議此事 하되 以何因緣 으로 我等宮殿에

유차광요 이피중중 유일대범천왕 명왈묘
有此光曜 인고 而彼衆中에 有一大梵天王 하니 名曰妙

법 위 제 범 중 이 설 게 언
法 이라 爲 諸 梵 衆 하여 而 說 偈 言 하되

아 등 제 궁 전
我 等 諸 宮 殿 에

광 명 심 위 요
光 明 甚 威 曜 하니

차 비 무 인 연
此 非 無 因 緣 이리라

시 상 의 구 지
是 相 宜 求 之 로다

과 어 백 천 겁
過 於 百 千 劫 토록

미 증 견 시 상
未 曾 見 是 相 하니

위 대 덕 천 생
爲 大 德 天 生 이신가

위 불 출 세 간
爲 佛 出 世 間 이신가

이 시 오 백 만 억 제 범 천 왕 여 궁 전 구 각 의 의 극
爾 時 五 百 萬 億 諸 梵 天 王 이 與 宮 殿 俱 하며 各 以 衣 祴

성 제 천 화 공 예 북 방 추 심 시 상 견 대 통 지
盛 諸 天 華 하고 共 詣 北 方 하여 推 尋 是 相 타가 見 大 通 智

승 여 래 처 우 도 장 보 제 수 하 좌 사 자 좌 제
勝 如 來 가 處 于 道 場 菩 提 樹 下 하여 坐 師 子 座 하시고 諸

천 룡 왕 건 달 파 긴 나 라 마 후 라 가 인 비 인 등 공
天 龍 王 乾 闥 婆 緊 那 羅 摩 睺 羅 伽 人 非 人 等 이 恭

경 위 요 급 견 십 륜 왕 자 청 불 전 법 륜 시 제
敬 圍 繞 하며 及 見 十 六 王 子 가 請 佛 轉 法 輪 이니라 時 諸

범 천 왕 두 면 레 불 요 백 천 잡 즉 이 천 화 이
梵 天 王 이 頭 面 禮 佛 하고 繞 百 千 帛 하고 卽 以 天 華 로 而

산불상 소산지화 여수미산 병이공양불보
散佛上하니 所散之華가 如須彌山하고 并以供養佛菩

제수 화공양이 각이궁전 봉상피불 이작
提樹라 華供養已하고 各以宮殿을 奉上彼佛하고 而作

시언 유견애민 요익아등 소헌궁전 원
是言하되 唯見哀慙하여 饒益我等하시고 所獻宮殿을 願

수납수
垂納受하소서

이시제범천왕 즉어불전 일심동성 이게송
爾時諸梵天王이 卽於佛前에서 一心同聲으로 以偈頌

왈
曰하되

세존심난견
世尊甚難見이라

파제번뇌자
破諸煩惱者시니

과백삼십겁
過百三十劫토록

금내득일견
今乃得一見이니이다

제기갈중생
諸飢渴衆生을

이법우충만
以法雨充滿하소서

석소미증견
昔所未曾見의

무량지혜자
無量智慧者시니

여우담발화
如優曇鉢華를

금일내치우
今日乃值遇니이다

아등제궁전
我等諸宮殿이

몽광고엄식
蒙光故嚴飾이니이다

세존대자민
世尊大慈愍하여

유원수납수
唯願垂納受하소서

이시제범천왕 게찬불이 각작시언 유원세
爾時諸梵天王이 偈讚佛已하고 各作是言하되 唯願世

존 전어법륜 령일체세간제천마범 사문
尊이시여 轉於法輪하여 令一切世間諸天魔梵과 沙門

파라문 개획안온 이득도탈
婆羅門이 皆獲安穩하고 而得度脫케하소서

시제범천왕 일심동성 이계송왈
時諸梵天王이 一心同聲으로 以偈頌曰하되

유원천인존
唯願天人尊이시여

전무상법륜
轉無上法輪하소서

격우대법고
擊于大法鼓하시고

이취대법라
而吹大法螺하시며

보우대법우
普雨大法雨하여

도무량중생
度無量衆生하소서

아등함귀청
我等咸歸請하오니

당연심원음
當演深遠音하소서

이시대통지승여래 묵연허지 서남방 내
爾時大通智勝如來는 默然許之하시니라 西南方과 乃

지하방역부여시 이시상방오백만억국토
至下方도亦復如是나라 爾時上方五百萬億國土의

제대범왕개실자도소지궁전 광명위요 석
諸大梵王이 皆悉自觀所止宮殿에 光明威曜하며 昔

소미유 환희응약 생희유심 즉각상에
所未有라 歡喜踴躍하며 生希有心하여 卽各相詣하여

공의차사 이하인연 아등궁전 유사광명
共議此事하되 以何因緣으로 我等宮殿에 有斯光明이노

시피중중 유일대범천왕 명왈시기 위제범
時彼衆中에 有一大梵天王하니 名曰尸棄라 爲諸梵

중 이설게언
衆하여 而說偈言하되

금이하인연
今以何因緣으로

아등제궁전
我等諸宮殿에

위덕광명요
威德光明曜하여

엄식미증유
嚴飾未曾有라

여시지묘상
如是之妙相은

석소미무견
昔所未聞見이로다

위대덕천생
爲大德天生이신가

위불출세간
爲佛出世間이신가

이시오백만억제범천왕 여궁전구 각이의극
爾時五百萬億諸梵天王이 與宮殿俱하며 各以衣祴

성제천화 공예하방 추심시상 견대통지
盛諸天華 하고 共詣下方 하여 推尋是相 타가 見大通智

승여래 처우도장보제수하 좌사자좌 제
勝如來가 處于道場菩提樹下 하여 坐師子座 하시고 諸

천룡왕건달파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등 공
天龍王乾闥婆 緊那羅摩睺羅伽 人非人等 이 恭

경위요 급견십륙왕자 청불전법륜 시제범
敬圍繞 하며 及見十六王子 는 請佛轉法輪 이라 時諸梵

천왕 두면례불 요백천잡 즉이천화 이산
天王이 頭面禮佛 하고 繞百千帛 하고 卽以天華로 而散

불상 소산지화 여수미산 병이공양불보제
佛上 하니 所散之華가 如須彌山 하며 并以供養佛菩提

수 화공양이 각이궁전 봉상피불 이작시
樹라 華供養已 하고 各以宮殿을 奉上彼佛 하고 而作是

언 유견애민 요익아등 소헌궁전 원수
言 하되 唯見哀愍 하여 饒益我等 하시고 所獻宮殿을 願垂

납처 시제범천왕 즉어불전 일심동성
納處 하소서 時諸梵天王이 卽於佛前에서 一心同聲으로

이게송왈
以偈頌曰 하되

선재견제불
善哉見諸佛

구세지성존
救世之聖尊 이로다

능어삼제옥
能於三界獄에서

면출제중생
勉出諸衆生하심이라

보지천인존
普智天人尊께서

애민군맹류
哀愍群萌類하여

능개감로문
能開甘露門하시여

광도어일체
廣度於一切시니이다

어석무량겁
於昔無量劫을

공과무유불
空過無有佛하니

세존미출시
世尊未出時는

십방상암명
十方常闇冥이며

삼악도증장
三惡道增長하고

아수라역성
阿修羅亦盛하여

제천중전감
諸天衆轉滅하고

사다타악도
死多墮惡道니이다

불종불문법
不從佛聞法하여

상행불선사
常行不善事하고

색력급지혜
色力及智慧

사등개감소
斯等皆減少니이다

죄업인연고
罪業因緣故로

실락급락상
失樂及樂想하고

주어사견법
住於邪見法하니

불식선의칙
不識善儀則하고

불몽불소화
不蒙佛所化 하여

상타어악도
常墮於惡道 니이다

불위세간안
佛爲世間眼 하여

구원시내출
久遠時乃出 하시니

애민제중생
哀愍諸衆生 하여

고현어세간
故現於世間 하시어

초출성정각
超出成正覺 이시니

아등심흥경
我等甚欣慶 이며

급여일체중
及餘一切衆도

희탄미증유
喜歎未曾有 니이다

아등제궁전
我等諸宮殿이

몽광고엄식
蒙光故嚴飾 하고

금이봉세존
今以奉世尊 하오니

유수애납수
唯垂哀納受 하소서

원이차공덕
願以此功德 으로

보급어일체
普及於一切 하여

아등여중생
我等與衆生이

개공성불도
皆共成佛道 하여지이다

이시오백만억제범천왕 게찬불이 각백불언
爾時五百萬億諸梵天王이 偈讚佛已 하고 各白佛言 하

유원세존 전어법륜 다소안온 다소
되 唯願世尊이시여 轉於法輪 하시면 多所安穩 하며 多所

도탈 시제법천왕 이설게언
度脫 하리이다 時諸梵天王 이 而說偈言 하되

세존전법륜
世尊轉法輪 하소서

격감로법고
擊甘露法鼓 하여

도고뇌중생
度苦惱衆生 하시고

개시널반도
開示涅槃道 하소서

유원수아청
唯願受我請 하여

이대미묘음
以大微妙音 으로

애민이부연
哀愍而敷演

무량겁습법
無量劫習法 하소서

이시대통지승여래 수십방제법천왕급십륙왕
爾時大通智勝如來 께서 受十方諸梵天王及十六王

자청 즉시삼전십이행법륜 약사문파라
子請 하시고 卽時三轉十二行法輪 하시니라 若沙門婆羅

문약천마법 급여세간 소불능전 위시고
門若天魔梵及餘世間엔 所不能轉 이니라 謂是苦며

시고집 시고멸 시고멸도 급광설십이
是苦集이며 是苦滅이며 是苦滅道 라하시고 及廣說十二

인연법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因緣法 하시되 無明緣行 하고 行緣識 하고 識緣名色 하고

명색연륙입 륜입연촉 촉연수 수연애
名色緣六入 하고 六入緣觸 하고 觸緣受 하고 受緣愛 하고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연로사우비고
愛緣取 하며 取緣有 하고 有緣生 하고 生緣老死憂悲苦

뇌 무명멸 즉행멸 행멸 즉식멸 식멸 즉
惱 하느니라 無明滅 則行滅 하고 行滅 則識滅 하고 識滅 則

명색멸 명색멸 즉륙입멸 륵입멸 즉촉멸
名色滅 하고 名色滅 則六入滅 하고 六入滅 則觸滅 하고

촉멸 즉수멸 수멸 즉애멸 애멸 즉취멸 취
觸滅 則受滅 하고 受滅 則愛滅 하고 愛滅 則取滅 하고 取

멸 즉유멸 유멸 즉생멸 생멸 즉로사우비고
滅 則有滅 하고 有滅 則生滅 하고 生滅 則老死憂悲苦

뇌멸 불어천인 대중지중 설시법시 륵백
惱滅 하느니라 佛於天人 大衆之中 說是法時에 六百

만억나유타인 이불수일체법고 이어제루심득
萬億那由他人이 以不受一切法故로 而於諸漏心得

해탈 개득심묘 선정삼명 륵통 구팔해탈
解脫 하고 皆得深妙 禪定 三明 六通 하여 具八解脫 하며

제이제삼제사설법시 천만억항하사나유타등
第二第三第四說法時에도 千萬億恒河沙那由他等

중생 역이불수일체법고 이어제루심득해탈
衆生이 亦以不受一切法故로 而於諸漏에 心得解脫

종시이후 제성문중 무량무변불가칭수
하며 從是已後에 諸聲聞衆도 無量無邊不可稱數 나라

이시 십륙왕자 개이동자 출가이위사미 제
爾時十六王子는皆以童子로出家而爲沙彌하여諸

근통리 지혜명료 이증공양백천만억제불
根通利하고智慧明了하여已曾供養百千萬億諸佛하

정수범행 구아녹다라삼막삼보제 구백불
고淨修梵行하여求阿耨多羅三藐三菩提니라俱白佛

언 세존 시제 무량천만억대덕성문 개이
言하되世尊이시여是諸無量千萬億大德聲聞은皆已

성취 세존 역당위아등 설아녹다라삼
成就니이다世尊이시여亦當爲我等하여說阿耨多羅三

막삼보제법 아등문이 개공수학 세
藐三菩提法하소서我等聞已하고皆共修學하리이다世

존 아등지원 여래지견 심심소념 불자
尊이시여我等志願如來知見하오니深心所念을佛自

증지 이시전륜성왕소장중중 팔만억인
證知시니이다爾時轉輪聖王所將衆中の八萬億人이

견십륙왕자출가 역구출가 왕즉청허
見十六王子出家하고亦求出家커늘王卽聽許하니라

이시피불 수사미청 과이만겁이 내어사중
爾時彼佛이受沙彌請하여過二萬劫已하여乃於四衆

지중 설시대승경 명묘법련화 교보살법
之中에說是大乘經하시니名妙法蓮華라敎菩薩法이며

불소호념 설시경이 십륙사미 위아늑다
佛所護念 이니라 說 是 經 已 하시니 十 六 沙 彌 는 爲 阿 耨 多

라삼막삼보제고 개공수지 풍송통리 설시
羅 三 藐 三 菩 提 故 로 皆 共 受 持 하여 諷 誦 通 利 니라 說 是

경시 십륙보살사미 개실신수 성문중중
經 時 에 十 六 菩 薩 沙 彌 는 皆 悉 信 受 하고 聲 聞 衆 中 에도

역유신해 기여중생천만억종 개생의혹 불
亦 有 信 解 나 其 餘 衆 生 千 萬 億 種 은 皆 生 疑 惑 하니라 佛

설시경 어팔천겁 미증휴폐 설차경이
說 是 經 을 於 八 千 劫 에 未 曾 休 廢 하시니라 說 此 經 已 하고

즉입정실 주어선정팔만사천겁 시시 십륙
卽 入 靜 室 하여 住 於 禪 定 八 萬 四 千 劫 이시라 是 時 十 六

보살사미 지불입실적연선정 각승법좌 역
菩 薩 沙 彌 는 知 佛 入 室 寂 然 禪 定 하고 各 陞 法 座 하여 亦

어팔만사천겁 위사부중 광설분별묘법화경
於 八 萬 四 千 劫 을 爲 四 部 衆 하여 廣 說 分 別 妙 法 華 經 하

일일개도륙백만억 나유타 항하사등중생
니라 一 一 皆 度 六 百 萬 億 那 由 他 恒 河 沙 等 衆 生 하여

시교리희 령발아늑다라삼막삼보제심 대
示 敎 利 喜 하여 令 發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心 하니라 大

통지승불 과팔만사천겁이 종삼매기 왕예
通 智 勝 佛 이 過 八 萬 四 千 劫 已 하고 從 三 昧 起 하여 往 詣

법좌 안상이좌 보고대중 시십륙보살
法座 하여 安詳而坐 하시고 普告大衆 하시되 是十六菩薩

사미 심위희유 제근통리 지혜명료 이증
沙彌는 甚爲希有 라 諸根通利 하여 智慧明了 하니 已曾

공양무량천만억수제불 어제불소 상수범행
供養無量千萬億數諸佛 하고 於諸佛所에서 常修梵行

수지불지 개시중생 령입기중 여등개
하여 受持佛智 하고 開示衆生 하여 令入其中 하니 汝等皆

당삭삭친근 이공양지 소이자하 약성문
當數數親近 하여 而供養之 하라 所以者何 오 若聲聞

벽지불 급제보살 능신시십륙보살소설경법
辟支佛 及諸菩薩이 能信是十六菩薩所說經法 하고

수지불훼자 시인개당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受持不毀者는 是人皆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의

여래지혜
如來之慧 리라

불고제비구 시십륙보살 상요설시묘법련화
佛告諸比丘 하시되 是十六菩薩은 常樂說是妙法蓮華

경 일일보살소화륙백만억나유타항하사등
經 하나라 一一菩薩所化六百萬億那由他恒河沙等

중생 세세소생 여보살구 중기문법 실
衆生이라 世世所生에 與菩薩俱 하여 從其聞法 하고 悉

개신해 이차인연 득치사만억제불세존 우
皆信解라以此因緣으로得值四萬億諸佛世尊하되于

금불진
今不盡이나라

제비구 아금어여 피불제자십륙사미 금개
諸比丘야我今語汝하리라彼佛弟子十六沙彌는今皆

득아늑다라삼막삼보제 어십방국토 현재설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하여於十方國土에서現在說

법 유무량백천만억보살성문 이위권속 기
法하며有無量百千萬億菩薩聲聞이以爲眷屬이라其

이사미 동방작불 일명아촉 재환희국
二沙彌는東方作佛하시니一名阿閼이라在歡喜國하시

이명수미정 동남방이불 일명사자음
고二名須彌頂이시며東南方二佛은一名師子音이요

이명사자상 남방이불 일명허공주 이명상
二名師子相이며南方二佛은一名虛空住요二名常

멸 서남방이불 일명제상 이명범상 서
滅이며西南方二佛은一名帝相이요二名梵相이며西

방이불 일명아미타 이명도일체세간고뇌
方二佛은一名阿彌陀요二名度一切世間苦惱이시며

서북방이불 일명다마라발전단향신통 이명
西北方二佛은一名多摩羅跋梅檀香神通이요二名

수미상 북방이불 일명운자재 이명운자재
須彌相이시며 北方二佛은 一名雲自在요 二名雲自在

왕 동북방불명 괴일체세간포외 제십륙
王이시며 東北方佛名은 壞一切世間怖畏시라 第十六은

아석가모니불 어사파국토 성아녹다라삼막
我釋迦牟尼佛이니 於娑婆國土에서 成阿耨多羅三藐

삼보제 제비구 아등위사미시 각각교화 무
三菩提나라 諸比丘야 我等爲沙彌時에 各各敎化 無

량백천만억 항하사등중생 종아문법 위아녹
量百千萬億 恒河沙等衆生하니 從我聞法은 爲阿耨

다라삼막삼보제 차제중생 우금유주성문지
多羅三藐三菩提나라 此諸衆生이 于今有住聲聞地

자 아상교화아녹다라삼막삼보제 시제인등
者라 我常敎化阿耨多羅三藐三菩提하느니 是諸人等

응이시법 점입불도 소이자하 여래지
은 應以是法으로 漸入佛道하리라 所以者何오 如來智

혜 난신난해
慧는 難信難解나라

이시소화무량항하사등중생자 여등제비구 급
爾時所化無量恒河沙等衆生者는 汝等諸比丘와 及

아멸도후미래세중 성문제자시야 아멸도후
我滅度後未來世中의 聲聞弟子是也나라 我滅度後에

부유제자 불문시경 불지불각보살소행
復有弟子 하되 不聞是經 하여 不知不覺菩薩所行 하며

자어소득공덕 생멸도상 당입넬반 아어
自於所得功德 으로 生滅度想 하여 當入涅槃 하리라 我於

여국작불 갱유이명 시인수생멸도지상
餘國作佛 하되 更有異名 하리라 是人雖生滅度之想 하여

입어넬반 이어피토 구불지혜 득문시경
入於涅槃 이라도 而於彼土에서 求佛智慧 하여 得聞是經

하리라

유이불승 이득멸도 갱무여승 제제여래방
唯以佛乘 으로 而得滅度 요 更無餘乘 하니 除諸如來方

편설법 제비구 약여래자지넬반시도 중
便說法 하노라 諸比丘야 若如來自知涅槃時到 하고 衆

우청정 신해견고 료달공법 심입선정
又清淨 하여 信解堅固 하며 了達空法 하고 深入禪定 하면

변집제보살급성문중 위설시경 세간 무
便集諸菩薩及聲聞衆 하여 爲說 是經 하니라 世間에 無

유이승이득멸도 유일불승 득멸도이
有二乘而得滅度 니 唯一佛乘 으로 得滅度 耳 니라

비구당지 여래방편 심입중생지성 지기
比丘當知 하라 如來方便 으로 深入衆生之性 하여 知其

지락소법 심착오욕 위시등고 설어넬반
志樂小法 하며 深著五欲 하시고 爲是等故로 說於涅槃이

시인약문 즉변신수
나라 是人若聞이면 則便信受 하리라

비여오백유순험난악도 광절무인포외지처 약
譬如五百由旬險難惡道에 曠絕無人怖畏之處를 若

유다중 욕과차도 지진보처 유일도사 총
有多衆이 欲過此道 하여 至珍寶處라 有一導師 하되 聰

혜명달 선지험도통색지상 장도중인 욕
慧明達 하여 善知險道通塞之相 하고 將導衆人 하여 欲

과차난 소장인중 중로 해퇴 백도사언
過此難이라 所將人衆이 中路에 懈退 하여 白導師言 하되

아등피극 이부포외 불능부진 전로유
我等疲極 하고 而復怖畏 하여 不能復進 이니이다 前路猶

원 금욕퇴환 도사다제방편 이작시념
遠 하니 今欲退還 이니이다 導師多諸方便이라 而作是念

차등가민 운하사대진보 이욕퇴환
하되 此等可慙 이로다 云何捨大珍寶 하고 而欲退還 이까

작시념이 이방편력 어험도중과삼백유순
作是念已 하고 以方便力 으로 於險道中 過三百由旬에

화작일성 고중인언 여등물포 막득퇴환
化作一城 하고 告衆人言 하되 汝等 勿怖 하고 莫得退還

금차대성 가어 중지 수의소작 약입시
하라 今此大城에 可於中止 하여 隨意所作이니 若入是

성 쾌득안은 약능전지보소 역가득거
城이면 快得安隱 하리라 若能前至寶所도 亦可得去리라

시시피극지중 심대환희 탄미증유 아등금
是時疲極之衆이 心大歡喜 하여 歎未曾有 하며 我等今

자 면사악도 쾌득안은 어시중인 전입
者에 免斯惡道 하고 快得安隱 이로다 於是衆人이 前入

화성 생이도상 생안은상 이시도사 지
化城 하여 生已度想 하고 生安隱想 이라 爾時導師는 知

차인중 기득지식 무부피권 즉멸화성
此人衆이 既得止息 하여 無復疲倦 하고 卽滅化城 하고

어중인언 여등거래 보처재근 향자대성
語衆人言 하되 汝等去來 하라 寶處在近 하니라 向者大城

아소화작 위지식이 제비구 여래역부여
은 我所化作 하여 爲止息耳 니라 諸比丘야 如來亦復如

시 금위여등 작대도사 지제생사번뇌악
是 하여 今爲汝等 하여 作大導師 하여 知諸生死煩惱惡

도 험난장원 응거응도 약중생 단문일불
道의 險難長遠 함을 應去應度 니라 若衆生이 但聞一佛

승자 즉불욕견불 불욕친근 변작시념
乘者면 則不欲見佛 하며 不欲親近 하고 便作是念 하되

불도장원 구수근고 내가득성 불지시
佛道長遠 하여 久受勤苦 라야 乃可得成 하리라고 佛知是

심겁약하력 이방편력 이어중도위지식고
心怯弱 下劣 하여 以方便力 으로 而於中道爲止息故로

설이널반 약중생 주어이지 여래이시
說二涅槃 이니라 若衆生 이 住於二地 하면 如來爾時에

즉변위설 여등소작미판 여소주지 근어
卽便爲說 하되 汝等所作未辦 이니라 汝所住地는 近於

불혜 당관찰주량 소득널반 비진실야 단시
佛慧니 當觀察籌量 하라 所得涅槃은 非眞實也니 但是

여래방편지력 어일불승 분별설삼 여피
如來方便之力 으로 於一佛乘을 分別說三 이니라 如彼

도사 위지식고 화작대성 기지식이이 고지
導師가 爲止息故로 化作大城 하고 既知息已而告之

언 보처재근 차성비실 아화작이
言 하되 寶處在 近 이라 此城非實 이니 我化作耳 니라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대통지승불
大通智勝佛이

십겁좌도장
十劫坐道場 하되

불법불현전
佛法不現前 하여

불득성불도
不得成佛道 라

제 천 신 룡 왕
諸 天 神 龍 王

아 수 라 중 등 이
阿 修 羅 衆 等 이

상 우 어 천 화
常 雨 於 天 華 하여

이 공 양 피 불
以 供 養 彼 佛 하며

제 천 격 천 고
諸 天 擊 天 鼓 하고

병 작 중 기 악
并 作 衆 伎 樂 하며

향 풍 취 위 화
香 風 吹 萎 華 하고는

갱 우 신 호 자
更 雨 新 好 者 라

과 십 소 겁 이
過 十 小 劫 已 하여

내 득 성 불 도
乃 得 成 佛 道 하시니

제 천 급 세 인 이
諸 天 及 世 人 이

심 개 회 용 약
心 皆 懷 踊 躍 이라

피 불 십 륵 자
彼 佛 十 六 子 는

개 여 기 권 속
皆 與 其 眷 屬

천 만 억 위 요
千 萬 億 圍 繞 하여

구 행 지 불 소
俱 行 至 佛 所 하여

두 면 례 불 족
頭 面 禮 佛 足 하고

이 청 전 법 률
而 請 轉 法 輪 하되

성 사 자 법 우
聖 師 子 시여 法 雨 로

충 아 급 일 체
充 我 及 一 切 하소서

세 존 심 난 치
世 尊 甚 難 值 하여

구 원 시 일 현
久 遠 時 一 現 하여

위각오군생
爲覺悟群生 코자

진동어일체
震動於一切 시니이다

동방제세계
東方諸世界

오백만억국
五百萬億國 의

범궁전광요
梵宮殿光曜 하되

석소미증유
昔所未曾有 라

제범견차상
諸梵見此相 하고

심래지불소
尋來至佛所 하여

산화이공양
散華以供養 하고

병봉상궁전
并奉上宮殿 하며

청불전법륜
請佛轉法輪 하고

이게이찬탄
以偈而讚歎 이라

불지시미지
佛知時未至 하여

수청묵연좌
受請默然坐 시라

삼방급사유
三方及四維 와

상하역부이
上下亦復爾 하여

산화봉궁전
散華奉宮殿 하고

청불전법륜
請佛轉法輪 하되

세존심난치
世尊甚難值 니이다

원이본자비
願以本慈悲 로

광개감로문
廣開甘露門 하여

전무상법륜
轉無上法輪 하소서

무량혜세존이
無量慧世尊이

수피중인청
受彼衆人請 하시고

위선종종법
爲宣種種法

사체십이연
四諦十二緣 하시되

무명지로사
無明至老死가

개종생연유
皆從生緣有니

여시중과환
如是衆過患을

여등응당지
汝等應當知 하라

선창시법시
宣暢是法時에

륙백만억해
六百萬億垓

득진제고제
得盡諸苦際 하고

개성아라한
皆成阿羅漢 하니라

제이설법시
第二說法時에

천만항사중
千萬恒沙衆이

어제법불수
於諸法不受 하고

역득아라한
亦得阿羅漢 하니라

종시후득도
從是後得道는

기수무유량
其數無有量이니

만억겁산수
萬億劫算數라도

불능득기변
不能得其邊이니라

시십륙왕자
時十六王子는

출가작사미
出家作沙彌 하여

개공청피불
皆共請彼佛 하되

연설대승법
演說大乘法 하소서

아등급영종
我等及營從 이

개당성불도
皆當成佛道 하리니

원득여세존
願得如世尊 의

혜안제일정
慧眼第一淨 이니이다

불지동자심
佛知童子心 과

숙세지소행
宿世之所行 하시고

이무량인연
以無量因緣 과

종종제비유
種種諸譬喩 로

설륙파라밀
說六波羅蜜

급제신통사
及諸神通事 하여

분별진실법
分別眞實法 과

보살소행도
菩薩所行道 하시고

설시법화경
說是法華經 의

여항하사게
如恒河沙偈 하심이라

피불설경이
彼佛說經已 하시고

정실입선정
靜室入禪定 하여

일심일처좌
一心一處坐

팔만사천겁
八萬四千劫 이라

시제사미등
是諸沙彌等 이

지불선미출
知佛禪未出 하고

위 무량억중
爲 無 量 億 衆 에게

설불무상혜
說 佛 無 上 慧 라

각각좌법좌
各 各 坐 法 座 하여

설시대승경
說 是 大 乘 經 하며

어불연적후
於 佛 宴 寂 後 에도

선양조법화
宣 揚 助 法 化 니라

일일사미등
一 一 沙 彌 等 의

소도제중생
所 度 諸 衆 生 은

유륙백만억
有 六 百 萬 億

항하사등중
恒 河 沙 等 衆 이라

피불멸도후
彼 佛 滅 度 後 에

시제문법자
是 諸 聞 法 者 는

재재제불토
在 在 諸 佛 土 에서

상여사구생
常 與 師 俱 生 이라

시십륙사미
是 十 六 沙 彌 는

구족행불도
具 足 行 佛 道 하고

금현재십방
今 現 在 十 方 하여

각득성정각
各 得 成 正 覺 하니라

이시문법자
爾 時 聞 法 者 는

각재제불소
各 在 諸 佛 所 하되

기유주성문
其 有 住 聲 聞 은

점교이불도
漸 教 以 佛 道 니라

아재 십륙수
我在十六數 하여

증역 위여 설
曾亦爲汝說 하니

시고이 방편
是故以方便 으로

인여 취 불혜
引汝趣佛慧 나라

이시 본인연
以是本因緣 으로

금설 법화경
今說法華經 하여

령여 입 불도
令汝入佛道 니

신물 회경 구
慎勿懷驚懼 하라

비여 험악도
譬如險惡道 에

형절 다독수
迴絕多毒獸 하며

우부무수초
又復無水草 하여

인소포외처
人所怖畏處 를

무수천만중
無數千萬衆 이

욕과차험도
欲過此險道 라

기로심광원
其路甚廣遠 하여

경오백유수
經五百由旬 이라

시유일도사
時有一導師 하되

강식유지혜
強識有智慧

명료심결정
明了心決定 하여

재험제중난
在險濟衆難 이라

중인개피권
衆人皆疲倦 하여

이백도사언
而白導師言 하되

아등금돈핍
我等今頓乏 하여

어차욕퇴환
於此欲退還 이니이다

도사작시념
導師作是念 하되

차배심가민
此輩甚可慙 이로다

여하욕퇴환
如何欲退還 하여

이실대진보
而失大珍寶 이까

심시사방편
尋時思方便 하되

당설신통력
當設神通力 하리라하고

화작대성곽
化作大城郭 하여

장엄제사택
莊嚴諸舍宅 하고

주잡유원림
周市有園林

거류급욕지
渠流及浴池 하고

중문고루각
重門高樓閣 에는

남녀개충만
男女皆充滿 케함이라

즉작시화이
卽作是化已 하고

위중언물구
慰衆言勿懼 하라

여등입차성
汝等入此城 하면

각가수소락
各可隨所樂 하리라

제인기입성
諸人旣入城 하여

심개대환희
心皆大歡喜 하고

개생안온상
皆生安穩想 하여

자위이득도
自謂已得度 거늘

도사지식이
導師知息已 하고

집중이고언
集衆而告言 하되

여등당전진
汝等當前進 하라

차시화성이
此是化城耳 라

아견여피극
我見汝疲極 하여

중로욕퇴환
中路欲退還 하고

고이방편력
故以方便力 으로

권화작차성
權化作此城 이나라

여금근정진
汝今勤精進 하여

당공지보소
當共至寶所 나라

아역부여시
我亦復如是 하니

위일체도사
爲一切導師 하여

견제구도자
見諸求道者 가

중로이해폐
中路而懈廢 하여

불능도생사
不能度生死

번뇌제험도
煩惱諸險道 하고

고이방편력
故以方便力 으로

위식설녕반
爲息說涅槃 하되

언여등고멸
言汝等苦滅 하고

소작개이판
所作皆已辦 하니

기지도녕반
既知到涅槃 하여

개득아라한
皆得阿羅漢 하고

이 내 집 대 중
爾乃集大衆 하여

위 설 진 실 법
爲說眞實法 이니라

제 불 방 편 력
諸佛方便力 으로

분 별 설 삼 승
分別說三乘 이시나

유 유 일 불 승
唯有一佛乘 이요

식 처 고 설 이
息處故說二니

금 위 여 설 실
今爲汝說實 하노라

여 소 득 비 멸
汝所得非滅 이니

위 불 일 체 지
爲佛一切智 하여

당 발 대 정 진
當發大精進 하라

여 증 일 체 지
汝證一切智 와

십 력 등 불 법
十力等佛法 하여

구 삼 십 이 상
具三十二相 이라야

내 시 진 실 멸
乃是眞實滅 이니라

제 불 지 도 사
諸佛之導師

위 식 설 념 반
爲息說涅槃 하시고

기 지 시 식 이
既知是息已 면

인 입 어 불 혜
引入於佛慧 하시니라

묘 법련 화 경 화 성 유 품 종
妙法蓮華經化城喻品終

묘법蓮華經 권 제 삼 종
妙法蓮華經 卷 第 三 終

묘법蓮華經 권 제 사
妙法蓮華經 卷 第 四

묘법蓮華經 오백제자 수기품 제 팔
妙法蓮華經 五百弟子 授記品 第八

이시 부루나미 다라니자 종불문시지혜 방편 수
爾時 富樓那彌多羅尼子 從佛聞是智慧方便隨

의설법 우문수제대제자 아능다라삼막삼보
宜說法 하며 又聞授諸大弟子에게 阿耨多羅三藐三菩

제기 부문숙세인연지사 부문제불유대자재
提記 하고 復聞宿世因緣之事 하며 復聞諸佛有大自在

신통지력 득미증유 심정용약 즉종좌기
神通之力 하고 得未曾有 하여 心淨踊躍 하며 卽從座起

도어불전 두면례족 각주일면 첨앙존안
到於佛前 하여 頭面禮足 하고 却住一面 하여 瞻仰尊顏 하

목불잡사 이작시념 세존심기특 소위
目不暫捨 하고 而作是念 이라 世尊 甚奇特 하시고 所爲

희유 수순세간약간종성 이방편지견 이
希有 시라 隨順世間若干種性 하여 以方便知見 으로 而

위설법 발출중생처처탐착 아등어불공
爲說法 하시어 拔出衆生處處貪著 하시니 我等於佛功

덕 언불능선 유불세존 능지아등 심심본원
德에言不能宣이니다 唯佛世尊이能知我等深心本願

이시 불고제비구 여등견시부루나 미
하시니이다 爾時佛告諸比丘하시되 汝等見是富樓那 彌

다라니자불 아상칭기어설법인중 최위제일
多羅尼子不아我常稱其於說法人中에最爲第一 하고

역상탄기종종공덕 정근호지조선아법 능
亦常歎其種種功德 하니라 精勤護持助宣我法 하며 能

어사중 시교리희 구족해석불지정법 이대
於四衆에示敎利喜 하며 具足解釋佛之正法 하여 而大

요익동범행자 자사여래 무능진기언론지변
饒益同梵行者 나라 自捨如來코 無能盡其言論之辯이

여등물위 부루나 단능호지조선아법 역
니라 汝等勿謂 富樓那 但能護持助宣我法 이니라 亦

어과거구십억제불소 호지조선불지정법
於過去九十億諸佛所에서도 護持助宣佛之正法 하여

어피설법인중 역최제일 우어제불소설공법
於彼說法人中에 亦最第一이며 又於諸佛所說空法

명료통달 득사무애지 상능심체 청정
에 明了通達 하여 得四無礙智 하고 常能審諦 하여 清淨

설법 무유의혹 구족보살신통지력 수기
說法 하되 無有疑惑 하고 具足菩薩神通之力 하며 隨其

수명 상수법행 피불세인 함개위지실시성
壽命 하여 常修梵行 하니 彼佛世人이 咸皆謂之實是聲

문 이부루나 이사방편 요익무량백천
聞 이라하리니 而富樓那는 以斯方便으로 饒益無量百千

중생 우화무량아승기인 령립아녹다라삼막
衆生 하며 又化無量阿僧祇人 하여 令立阿耨多羅三藐

삼보제 위정불토고 상작불사 교화중생
三菩提 하니 爲淨佛土故로 常作佛事 하며 教化衆生 하느

나라

제비구 부루나 역어칠불설법인중 이득제일
諸比丘야 富樓那는 亦於七佛說法人中에 而得第一

금어아소설법인중 역위제일 어현겁중당
이며 今於我所說法人中에 亦爲第一이며 於賢劫中當

래제불설법인중 역부제일 이개호지조선불
來諸佛說法人中에 亦復第一이라 而皆護持助宣佛

법 역어미래 호지조선무량무변제불지법
法 하리라 亦於未來에 護持助宣無量無邊諸佛之法 하

교화요익무량중생 령립아녹다라삼막삼보
여 教化饒益無量衆生 하고 令立阿耨多羅三藐三菩

제 위정불토고 상근정진 교화중생 점
提 하며 爲淨佛土故로 常勤精進 하며 教化衆生 하여 漸

점구족보살지도 과무량아승기겁 당어차토
漸具足菩薩之道하고 過無量阿僧祇劫하여 當於此土

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호왈법명여래 응공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하리니 號曰法明如來 應供

정편지명행족선서세간해무상사조어장부
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

천인사불세존기불이항하사등삼천대천
天人師佛世尊이시라 其佛이以恒河沙等三千大千

세계위일불토칠보위지지평여장무
世界로爲一佛土하되 七寶爲地하고 地平如掌하여 無

유산릉계간구학칠보대관충만기중제천
有山陵谿澗溝壑하며 七寶臺觀이充滿其中하고 諸天

궁전근처허공인천교접량득상견무제
宮殿이近處虛空커든 人天交接에 兩得相見하며 無諸

악도역무녀인일체중생개이화생무
惡道하고 亦無女人하며 一切衆生이皆以化生하고 無

유음욕득대신통신출광명비행자재
有婬欲이니라 得大神通하여 身出光明하고 飛行自在하

지념견고정진지혜보개금색삼십이
며志念堅固하여 精進智慧하고 普皆金色이라 三十二

상이자장엄기국중생상이이식일자
相으로而自莊嚴하리라 其國衆生은常以二食하되 一者

법희식 이자선열식 유무량아승기 천만
法喜食 이요 二者 禪悅食 이니라 有無量阿僧祇 千萬

억나유타제보살중 득대신통사무애지 선능
億那由他諸菩薩衆 하되 得大神通四無礙智 하여 善能

교화중생지류 기성문중 산수교제 소불능
教化衆生之類 니라 其聲聞衆 은 算數校計 로도 所不能

지 개득구족륙통삼명 급팔해탈 기불국토
知 리니 皆得具足六通三及八解脫 하리라 其佛國土

유여시등무량공덕 장엄성취 겁명보명
에 有如是等無量功德 으로 莊嚴成就 하니 劫名寶明 이요

극명선정 기불수명 무량아승기 겁 법주
國名善淨 이리니 其佛壽命 은 無量阿僧祇 劫 이요 法住

심구 불멸도후 기칠보탑 편만기국
甚久 하리라 佛滅度後 에 起七寶塔 하여 徧滿其國 하리라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世尊 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제비구체청
諸比丘諦聽 하라

불자소행도
佛子所行道 는

선학방편고
善學方便故 니

불가득사의
不可得思議 니라

지중락소법
知衆樂小法 하며

이외어대지
而畏於大智 라

시 고 제 보 살
是 故 諸 菩 薩 이

작 성 문 연 각
作 聲 聞 緣 覺 하여

이 무 수 방 편
以 無 數 方 便 으로

화 제 중 생 류
化 諸 衆 生 類 하며

자 설 시 성 문
自 說 是 聲 聞 하고

거 불 도 심 원
去 佛 道 甚 遠 이라 하여

도 탈 무 량 중
度 脫 無 量 衆 하여

개 실 득 성 취
皆 悉 得 成 就 케 함 이라

수 소 욕 해 태
雖 小 欲 懈 怠 라도

점 당 령 작 불
漸 當 令 作 佛 이니라

내 비 보 살 행
內 秘 菩 薩 行 하고

외 현 시 성 문
外 現 是 聲 聞 이라

소 욕 업 생 사
少 欲 厭 生 死 하되

실 자 정 불 토
實 自 淨 佛 土 하니라

시 중 유 삼 독
示 衆 有 三 毒 하며

우 현 사 견 상
又 現 邪 見 相 이니라

아 제 자 여 시
我 弟 子 如 是

방 편 도 중 생
方 便 度 衆 生 하니라

약 아 구 족 설
若 我 具 足 說

종 종 현 화 사
種 種 現 化 事 하면

중 생 문 시 자
衆 生 聞 是 者 는

심 즉 회 의 혹
心 則 懷 疑 惑 하리라

금차부루나
今此富樓那는

어석천억불
於昔千億佛에

근수소행도
勤修所行道하고

선호제불법
宣護諸佛法하여

위구무상혜
爲求無上慧하여

이어제불소
而於諸佛所에

현거제자상
現居弟子上하며

다문유지혜
多聞有智慧

소설무소외
所說無所畏하여

능령중환희
能令衆歡喜하되

미증유피권
未曾有疲倦하여

이이조불사
而以助佛事하며

이도대신통
已度大神通하여

구사무애지
具四無礙智하고

지제근리둔
知諸根利鈍하여

상설청정법
常說淸淨法이니라

연창여시의
演暢如是義하여

교제천억중
敎諸千億衆하며

령주대승법
令住大乘法하여

이자정불토
而自淨佛土니라

미래역공양
未來亦供養

무량무수불
無量無數佛하고

호조선정법
護助宣正法 하여

역자정불토
亦自淨佛土 하고

상이제방편
常以諸方便 으로

설법무소외
說法無所畏 하며

도불가계중
度不可計衆 하여

성취일체지
成就一切智 하니라

공양제여래
供養諸如來 하고

호지법보장
護持法寶藏 하며

기후득성불
其後得成佛 하면

호명왈법명
號名曰法明 이요

기국명선정
其國名善淨 이니

칠보소합성
七寶所合成 이니라

겁명위보명
劫名爲寶明 이며

보살중심다
菩薩衆甚多 하여

기수무량억
其數無量億 이라

개도대신통
皆度大神通 하고

위덕력구족
威德力具足 이

충만기국토
充滿其國土 리라

성문역무수
聲聞亦無數 하되

삼명팔해탈
三明八解脫

득사무애지
得四無礙智 한

이시등위승
以是等爲僧 이리라

기국제중생
其國諸衆生은

음욕개이단
婬欲皆已斷하고

순일변화생
純一變化生하며

구상장엄신
具相莊嚴身하고

법희선열식
法喜禪悅食하되

갱무여식상
更無餘食想이리라

무유제녀인
無有諸女人하고

역무제악도
亦無諸惡道리니

부루나비구
富樓那比丘는

공덕실성만
功德悉成滿하고

당득사정토
當得斯淨土하되

현성중심다
賢聖衆甚多리라

여시무량사
如是無量事를

아금단략설
我今但略說하노라

이시천이백아라한심자재자작시념아등환
爾時千二百阿羅漢心自在者는作是念하되我等歡

희득미증유악세존각견수기여여대
喜하여得未曾有하니若世尊이各見授記하시되如餘大

제자자불역쾌호불지차등심지소념고
弟子者시면不亦快乎아佛知此等心之所念하시고告

마가가섭시천이백아라한아금당현전
摩訶迦葉하시되是千二百阿羅漢에我今當現前에서

차 제 여 수 아 녹 다 라 삼 막 삼 보 제 기 어 차 중 중
次第與授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 하리라 於此衆中

아 대 제 자 교 진 여 비 구 당 공 양 륵 만 이 천 억 불 연
我大弟子憍陳如比丘는 當供養六萬二千億佛 然

후 득 성 위 불 호 월 보 명 여 래 응 공 정 편 지 명
後得成爲佛 하리니 號曰普明如來 應供 正遍知 明

행 족 선 서 세 간 해 무 상 사 조 어 장 부 천 인 사 불
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

세 존 기 오 백 아 라 한 우 루 빈 라 가 섭 가 야 가 섭
世尊이라 其五百阿羅漢의 優樓頻螺迦葉 伽耶迦葉

나 제 가 섭 가 류 타 이 우 타 이 아 누 루 타 리 파 다 겁
那提迦葉 迦留陀夷 優陀夷 阿菟樓駄 離婆多劫

빈 나 박 구 라 주 타 사 가 타 등 개 당 득 아 녹 다 라 삼
賓那薄拘羅 周陀 莎伽陀等도 皆當得阿耨多羅三

막 삼 보 제 진 동 일 호 명 월 보 명
藐三菩提 하고 盡同一號로 名曰普明 이리라

이 시 세 존 욕 중 선 차 의 이 설 게 언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교 진 여 비 구
憍陳如比丘는

당 견 무 량 불
當見無量佛 하고

과 아 승 기 겁
過阿僧祇劫 하여

내 성 등 정 각
乃成等正覺 하리라

상방대광명
常放大光明 하며

구족제신통
具足諸神通 하고

명무편십방
名聞遍十方 하여

일체지소경
一切之所敬 이며

상설무상도
常說無上道 리니

고호위보명
故號爲普明 이라

기국토청정
其國土淸淨 하고

보살개용맹
菩薩皆勇猛 하리라

함승묘루각
咸昇妙樓閣 하여

유제십방국
遊諸十方國 하며

이무상공구
以無上供具로

몽헌어제불
奉獻於諸佛 하며

작시공양이
作是供養已 하고

심회대환희
心懷大歡喜 하여

수유환본국
須臾還本國 하리니

유여시신력
有如是神力 하리라

불수륙만겁
佛壽六萬劫 이요

정법주배수
正法住倍壽 이며

상법부배시
像法復倍是니

법멸천인우
法滅天人憂 하리라

기오백비구
其五百比丘는

차제당작불
次第當作佛 하되

동호왈보명
同號曰普明이라

전차이수기
轉次而授記하되

아멸도지후
我滅度之後에

모갑당작불
某甲當作佛하리니

기소화세간
其所化世間은

역여아금일
亦如我今日이리라

국토지엄정
國土之嚴淨과

급제신통력
及諸神通力과

보살성문중
菩薩聲聞衆과

정법급상법
正法及像法과

수명겁다소
壽命劫多少도

개여상소설
皆如上所說이리라

가섭여이지
迦葉汝已知

오백자재자
五百自在者리라

여제성문중
餘諸聲聞衆도

역당부여시
亦當復如是리니

기불재차회
其不在此會는

여당위선설
汝當爲宣說하라

이시오백아라한 어불전득수기이 환희응약
爾時五百阿羅漢이 於佛前得授記已하고 歡喜踊躍하

즉종좌기 도어불전 두면례족 회과자책
며 卽從座起 到於佛前 하여 頭面禮足 하고 悔過自責하

세 존 아등상작시념 자위이득구경멸도
되 世尊 이시여 我等常作是念 하되 自謂已得究竟滅度 러

금내지 지 여 무지자 소이 자하 아등응
니 今乃知之 하니 如無智者 니이다 所以者何 오 我等應

득여래지혜 이변자이소지위족 세 존
得如來智慧 거늘 而便自以小智爲足 이니이다 世尊 이시여

비여유인 지친우가 취주이와 시시친우
譬如有 人 이 至親友家 하여 醉酒而臥 러니 是時親友는

관사당행 이무가보주 제기의리여지이거
官事當行 하여 以無價寶珠 를 繫其衣裏與之而去 니이

기인취와 도불각지 기이유행 도어타
다 其人醉臥 하여 都不覺知 하고 起已遊行 하여 到於他

국 위의식고 근력구색 심대간난 약소
國 하며 爲衣食故 로 勤力求索 하되 甚大艱難 이라 若少

유소득 변이위족 어후친우회우견지
有所得 이라도 便以爲足 이니이다 於後親友會遇見之 하고

이작시언 돌재장부 하위의식 내지여시
而作是言 하되 咄哉丈夫 여 何爲衣食 하여 乃至如是 뇨

아석욕령여득안락 오욕자자 어모년일
我昔欲令 汝得安樂 하고 五欲自恣 케하고자 於某年日

월 이무가보주 제여의리 금고현재 이여
月 에 以無價寶珠 를 繫汝衣裏 하니 今故現在 리라 而汝

불지 근고우뇌 이구자활 심위치야 여
不知 하고 勤苦憂惱 하며 以求自活 하니 甚爲癡也 로다 汝

금가이차보 무역소수 상가여의 무소핍단
今可以此寶로 貿易所須 하라 常可如意 하여 無所乏 短

불역여시 위보살시 교화아등 령발일
이리라 佛亦如是 하여 爲菩薩時에 敎化我等 하여 令發一

체지심 이심폐망 불지불각 기득아라한
切智心 이거늘 而尋廢忘 하여 不知不覺 하고 既得阿羅漢

도 자위멸도 자생간난 득소위족 일체
道 라하여 自謂滅度나 資生艱難 하여 得少爲足 이나 一切

지원 유재불실 금자세존 각오아등 작
智願 은 猶在不失 이니이다 今者世尊이 覺悟我等 하여 作

여시언 제비구 여등소득 비구정멸 아
如是言 하시되 諸比丘야 汝等所得 은 非究竟滅 이니라 我

구령여등종불선근 이방편고 시널반상
久令汝等種佛善根 하되 以方便故로 示涅槃相 이거늘

이여위위실득멸도 세존 아금내지실시
而汝謂爲實得滅度 라하니라 世尊 이시여 我今乃知實是

보살 득수아녹다라삼막삼보제기 이시인연
菩薩로 得受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 하고 以是因緣으

심대환희 득미증유
로 甚大歡喜 하여 得未曾有 니이다

이시 아야교진여등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阿若憍陳如等 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되

아등문무상
我等聞無上

안온수기성
安穩授記聲 하고

환희미증유
歡喜未曾有 하여

례무량지불
禮無量智佛 하고

금어세존전
今於世尊前 에서

자회제과구
自悔諸過咎 니이다

어무량불보
於無量佛寶 에

득소널반분
得少涅槃分 하고

여무지우인
如無智愚人 하여

변자이위족
便自以爲足 이니이다

비여빈궁인
譬如貧窮人 이

왕지친우가
往至親友家 하니

기가심대부
其家甚大富 하여

구설제호선
具設諸肴饌 하고

이무가보주
以無價寶珠 를

제착내의리
繫著內衣裏 하고

묵여이사거
默與而捨去 라

시와불각지
時臥不覺知 하고

시인기이기
是人既已起 하여

유행예타국
遊行詣他國 하며

구의식자제
求衣食自濟 하되

자생심간난
資生甚艱難 이나

득소변위족
得少便爲足 하고

개불원호자
更不願好者 하며

불각내의리
不覺內衣裏

유무가보주
有無價寶珠 라

여주지친우
與珠之親友 가

후견차빈인
後見此貧人 하고

고절책지이
苦切責之已 하며

시이소계주
示以所繫珠 하니

빈인견차주
貧人見此珠 하고

기심대환희
其心大歡喜 하여

부유재물
富有諸財物 로

오욕이자자
五欲而自恣 니이다

아등역여시
我等亦如是 하니

세존어장야
世尊於長夜 에

상민견교화
常慙見敎化 하여

령종무상원
令種無上願 이거늘

아등무지고
我等無智故 로

불각역불지
不覺亦不知 하여

득소녕반분
得少涅槃分 하고

자족불구여
自足不求餘 니이다

금불각오아
今佛覺悟我하여

언비실멸도
言非實滅度요

득불무상혜
得佛無上慧라야

이내위진멸
爾乃爲眞滅이라하시니

아금종불문
我今從佛聞

수기장엄사
授記莊嚴事와

금전차수결
及轉次受決하고

신심편환희
身心遍歡喜하나이다

묘법련화경 오백제자 수기품 종
妙法蓮華經 五百弟子 授記品 終

묘법련화경 수학무학인기품 제구
妙法蓮華經 授學無學人記品 第九

이시 아난 라후라 이작시념 아등 매자사
爾時에 阿難과 羅睺羅는 而作是念하되 我等이 每自思

유 설득수기 불역쾌호 즉종좌기 도어불
惟를 設得授記면 不亦快乎하고 卽從座起하여 到於佛

전 두면례족 구백불언 세존 아등
前하여 頭面禮足하고 俱白佛言하되 世尊이시여 我等이

어차 역응유분 유유여래 아등소귀 우아
於此에 亦應有分하니 唯有如來는 我等所歸니다 又我

등위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소견지식 아난
等爲一切世間 天人 阿修羅의 所見知識이며 阿難

상위시자 호지법장 라후라시불지자 약
常爲侍者하여 護持法藏하고 羅睺羅是佛之子니다 若

불견수아녹다라삼막삼보제기자 아원기만
佛見授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者면 我願既滿하고

중망역족 이시학무학성무제자이천인 개종
衆望亦足이리다 爾時學無學聲聞弟子二千人이 皆從

좌기 편단우견 도어불전 일심합장 침瞻
座起하여 偏袒右肩하고 到於佛前하여 一心合掌하고 瞻

앙세존 여아난 라후라소원 주립일면
仰世尊하며 如阿難 羅睺羅所願하고 住立一面이라

이시 불고아난 여어래세 당득작불
爾時에 佛告阿難 하시되 汝於來世에서 當得作佛 하리라

호산해혜자재통왕여래 응공 정편지 명행족
號는 山海慧自在通王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이

당공양륙십이억제불 호지법장연후 득아
라 當供養六十二億諸佛하고 護持法藏然後에 得阿

녹다라삼막삼보제 교화이십천만억항하사제
耨多羅三藐三菩提하고 教化二十千萬億恒河沙諸

보살등 령성아녹다라삼막삼보제 국명
菩薩等 하여 令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리라 國名은

상립승번 기토청정 류리위지 겁명묘음
常立勝旛이요 其土清淨 하여 琉璃爲地 하며 劫名妙音

편만 기불수명 무량천만억아승기겁 약
徧滿이며 其佛壽命은 無量千萬億阿僧祇劫이니라 若

인어천만억무량아승기겁중 산수교제 불능
人於千萬億無量阿僧祇劫中에 算數校計라도 不能

득지 정법주세 배어수명 상법주세 부배
得知리라 正法住世는 倍於壽命하고 像法住世는 復倍

정법 아난 시산해혜자재통왕불 위십방무
正法이니라 阿難아 是山海慧自在通王佛은 爲十方無

량천만억항하사등제불여래 소공찬탄 칭기
量千萬億恒河沙等諸佛如來 所共讚歎 稱其

공덕
功德 이나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아금승중설
我今僧中說 하노라

아난지법자
阿難持法者 는

당공양제불
當供養諸佛 하고

연후성정각
然後成正覺 하리라

호왈산해혜
號曰山海慧

자재통왕불
自在通王佛 이며

기국토청정
其國土清淨 하고

명상립승번
名常立勝旛 이나라

교화제보살
教化諸菩薩 하되

기수여항사
其數如恒沙 하며

불유대위덕
佛有大威德 하여

명문만십방
名聞滿十方 하고

수명무유량
壽命無有量 이니

이민중생고
以愍衆生故 라

정법배수명
正法倍壽命 하고

상법부배시
像法復倍是 나라

여항하사등
如恒河沙等

무수제중생이
無數諸衆生이

어차불법중
於此佛法中에서

종불도인연
種佛道因緣하리라

이시 회중 신발의보살팔천인 함작시념 아
爾時에會中의新發意菩薩八千人이咸作是念하되我

등상불문제대보살득여시기 유하인연 이제
等尙不聞諸大菩薩得如是記거늘有何因緣으로而諸

성문 득여시결
聲聞이得如是決이까

이시 세존 지제보살심지소념 이고지왈
爾時에世尊이知諸菩薩心之所念하시고而告之曰하시

제선남자 아여아난등어공왕불소 동시발
되諸善男子야我與阿難等於空王佛所에서同時發

아녹다라삼막삼보제심 아난상락다문 아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이니라阿難常樂多聞하고我

상근정진 시고 아이득성아녹다라삼막삼보
常勤精進하니라是故로我已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

제 이아난호지아법 역호장래제불법장
提하고而阿難護持我法하며亦護將來諸佛法藏하여

교화성취제보살중 기본원여시 고획사기
敎化成就諸菩薩衆하리니其本願如是니故獲斯記니

아난 면어 불전 자문수기 급국토장엄 소
라 阿難이 面於佛前에서 自聞授記及國土莊嚴하고 所

원구족 심대환희 득미증유 즉시 억념과
願具足하여 心大歡喜하며 得未曾有라 卽時에 憶念過

거무량천만억제 불법장 통달무애 여금소문
去無量千萬億諸佛法藏하니 通達無礙하되 如今所聞

역식본원
하며 亦識本願이라

이시 아난 이설게언
爾時에 阿難이 而說偈言하되

세존심희유
世尊甚希有하여

령아념과거
令我念過去

무량제불법
無量諸佛法하시되

여금일소문
如今日所聞이라

아금무부의
我今無復疑하며

안주어불도
安住於佛道하니

방편위시자
方便爲侍者하여

호지제불법
護持諸佛法이리다

이시 불고라후라 여어래세 당득작불
爾時에 佛告羅睺羅하시되 汝於來世에서 當得作佛하리

호도칠보화여래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
니 號蹈七寶華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

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 존 당공
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 이라 當供

양십세계미진등수제불여래 상위제불이작장
養十世界微塵等數諸佛如來 하며 常爲諸佛而作長

자 유여금야 시도칠보화불 국토장엄 수
子 하여 猶如今也 리라 是蹈七寶華佛 의 國土莊嚴 과 壽

명겁수 소화제자 정법상법 역여산해혜자재
命劫數 와 所化弟子 와 正法像法 이 亦如山海慧自在

통왕여래무이 역위차불이작장자 과시이후
通王如來無異 하며 亦爲此佛而作長子 리라 過是已後

당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에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니라

이시 세 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 에 世尊 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아위태자시
我爲太子時 에

라후위장자
羅睺爲長子 하고

아금성불도
我今成佛道 하니

수법위법자
受法爲法子 라

어미래세중
於未來世 中 에서

견무량억불
見無量億佛 하고

개위기장자
皆爲其長子 하여

일심구불도
一心求佛道 하리니

라후라밀행
羅睺羅密行을

유아능지 지
唯我能知之나라

현위아장자
現爲我長子하여

이시제증생
以示諸衆生하니

무량억천만
無量億千萬

공덕불가수
功德不可數며

안주어불법
安住於佛法하여

이구무상도
以求無上道나라

이시 세존 견학무학이천인 기의유연 적
爾時에世尊이見學無學二千人하니其意柔軟하고寂

연청정 일심관불 불고아난 여견시학무
然淸淨하며一心觀佛이라佛告阿難하시되汝見是學無

학이천인불 유연이견 아난 시제인등 당
學二千人不아唯然已見이니다阿難아是諸人等은當

공양오십세제미진수제불여래 공경존중 호
供養五十世界微塵數諸佛如來하고恭敬尊重하며護

지법장 말후동시 어십방국 각득성불
持法藏하고末後同時에於十方國에서各得成佛하리라

개동일호 명왈보상여래 응공 정편지 명행족
皆同一號니名曰寶相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이

수명일겁 국토장엄 성문보살 정법상법
라 壽命一劫 이요 國土莊嚴 과 聲聞菩薩 과 正法像法 이

개실동등
皆悉同等 이리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시이천성문
是二千聲聞이

금어아전주
今於我前住를

실개여수기
悉皆與授記하니

미래당성불
未來當成佛이라

소공양제불
所供養諸佛은

여상설진수
如上說塵數니

호지기법장
護持其法藏하고

후당성정각
後當成正覺하리라

각어십방국
各於十方國에서

실동일명호
悉同一名號이며

구시좌도장
俱時坐道場하여

이증무상혜
以證無上慧라

개명위보상
皆名爲寶相이며

국토급제자
國土及弟子와

정법여상법
正法與像法이

실등무유이
悉等無有異라

합이제신통
威以諸神通으로

도십방중생
度十方衆生하여

명무보주편
名聞普周徧하고

점입어널반
漸入於涅槃하리라

이시 학무학이천인 무불수기 환희용약
爾時에學無學二千人在聞佛授記하고歡喜踊躍하며

이설게언
而說偈言하되

세존혜등명
世尊慧燈明이니다

아문수기음
我聞授記音하고

심환희충만
心歡喜充滿하여

여감로전관
如甘露見灌이니다

묘법련화경 수학무학인기품 종
妙法蓮華經授學無學人記品終

묘법蓮華經 법사품 제십
妙法蓮華經 法師品 第十

이시 세존 인약왕보살 고팔만대사 약
爾時에 世尊이 因藥王菩薩 하여 告八萬大士 하시되 藥

왕 여견시대중중 무량제천 룡왕 야차 건달파
王아 汝見是大衆中의 無量諸天 龍王 夜叉 乾闥婆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여비인 급비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人與非人 及比

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구성문자 구벽지
丘 比丘尼와 優婆塞 優婆夷의 求聲聞者와 求辟支

불자 구불도자 여시등류 함어불전 문묘
佛者와 求佛道者 하라 如是等類가 咸於佛前에서 聞妙

법화경 일게일구 내지일념수희자 아개여수
法華經 一偈一句 하고 乃至一念隨喜者는 我皆與授

기 당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불고약왕
記 하여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리라 佛告藥王 하시

우여래멸도지후 약유인문묘법화경 내지일
되 又如來滅度之後에 若有人聞妙法華經 乃至一

게일구 일념수희자 아역여수아녹다라삼막
偈一句 하고 一念隨喜者는 我亦與授阿耨多羅三藐

삼보제기 약부유인 수지 독송해설 서사
三菩提 記 하리라 若復有人이 受持 讀誦 解說 書寫

묘법화경내지일게 어차경권 경시여불 종
妙法華經乃至一偈 하며 於此經卷을 敬視如佛 하고 種

종공양 화향 영락 말향 도향 소향 증개 당번 의
種供養 華香 瓔珞 抹香 塗香 燒香 繪蓋 幢幡 衣

복 기악 내지합장공경 약왕당지 시제인
服 伎樂 하고 乃至合掌恭敬 하면 藥王當知 하라 是諸人

등 이증공양십만억불 어제불소 성취대원
等 은 已曾供養十萬億佛 하고 於諸佛所에서 成就大願

민중생고 생차인간 약왕 약유인문 하
하고 慳衆生故로 生此人間이라 藥王아 若有人問 하되 何

등중생 어미래세 당득작불 응시시제인 등
等衆生이 於未來世에서 當得作佛 하면 應示是諸人等

어미래세 필득작불 하이고 약선남자 선
이 於未來世에서 必得作佛 하라 何以故오 若善男子 善

녀인 어법화경내지일구 수지 독송 해설 서
女人이 於法華經乃至一句를 受持 讀誦 하고 解說 書

사 종종공양경권 화향 영락 말향 도향 소
寫 하며 種種供養經卷 하되 華香 瓔珞 抹香 塗香 燒

향 증개 당번 의복 기악 합장공경 시인
香 繪蓋 幢幡 衣服 伎樂 하고 合掌恭敬 하면 是人을

일체세간 소응침봉 응이여래공양 이공양
一切世間이 所應瞻奉 하며 應以如來供養으로 而供養

지 당지 차인 시대 보살 성취 아늑 다라삼
之 니라 當 知 하라 此 人 是 大 菩 薩 이니 成 就 阿 耨 多 羅 三

막삼보제 애민증생 원생 차간 광연 분별
藐 三 菩 提 하고 哀 愍 衆 生 하여 願 生 此 間 하여 廣 演 分 別

묘법화경 하황진능수지 종종공양자
妙 法 華 經 이라 何 況 盡 能 受 持 種 種 供 養 者 이라

약왕 당지 시인 자사 청정업보 어아멸도
藥 王 아 當 知 하라 是 人 은 自 捨 清 淨 業 報 하고 於 我 滅 度

후 민증생고 생어악세 광연차경
後 에 愍 衆 生 故 로 生 於 惡 世 하여 廣 演 此 經 이니라

약시선남자 선녀인 아멸도후 능절위일인
若 是 善 男 子 善 女 人 이 我 滅 度 後 에 能 竊 爲 一 人 하여

설법화경내지일구 당지시인 즉여래사
說 法 華 經 乃 至 一 句 하면 當 知 是 人 은 則 如 來 使 라

여래소견 행여래사 하황어대중중 광위인
如 來 所 遣 으로 行 如 來 事 니 何 況 於 大 衆 中 에서 廣 爲 人

설
說 이라

약왕 약유악인 이불선심 어일겁중 현어불
藥 王 아 若 有 惡 人 이 以 不 善 心 으로 於 一 劫 中 을 現 於 佛

전 상훼매불 기죄상경 악인 이일악
前 하여 常 毀 罵 佛 이라도 其 罪 尙 輕 이니라 若 人 이 以 一 惡

언 言 으로 毀 皆 在 家 出 家 의 讀 誦 法 華 經 者 면 其 罪 甚 重 이

약왕 藥王 아 其 有 讀 誦 法 華 經 者 거든 當 知 하라 是 人 以

불장엄 佛莊嚴 으로 而 自 莊嚴 하고 則 爲 如來 肩 所 荷 擔 이니라

기소지방 其所至方 에 應 隨 向 禮 나라 一 心 合 掌 하고 恭 敬 供 養 하며

존중찬탄 尊重讚歎 하되 華 香 瓔 珞 抹 香 塗 香 燒 香 繪 蓋 幢

번의복 幡衣服 肴饌 과 作 諸 伎 樂 하여 人 中 上 供 으로 而 供 養

지 之 하며 應 持 天 寶 하여 而 以 散 之 하고 天 上 寶 聚 를 應 以

봉헌 奉獻 이니라 所 以 者 何 오 是 人 歡 喜 說 法 커든 須 與 聞 之 라

즉득구경아녹다라삼막삼보제고 卽得究竟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나라

이시 爾時 에 世 尊 이 欲 重 宣 此 義 하여 而 說 偈 言 하시되

약욕주불도 若欲住佛道 하여

성취자연지 成就自然智 거든

상당근공양
常當勤供養

수지법화자
受持法華者나라

기유욕질득
其有欲疾得

일체종지혜
一切種智慧거든

당수지시경
當受持是經하고

병공양지자
并供養持者나라

약유능수지
若有能受持

묘법화경자
妙法華經者면

당지불소사
當知佛所使니

민념제중생
愍念諸衆生이라

제유능수지
諸有能受持

묘법화경자
妙法華經者는

사어청정토
捨於清淨土하고

민중고생차
愍衆故生此나라

당지여시인
當知如是人은

자재소욕생
自在所欲生이라

능어차악세
能於此惡世에서

광설무상법
廣說無上法이니

응이천화향
應以天華香

급천보의복
及天寶衣服과

천상묘보취
天上妙寶聚로

공양설법자
供養說法者나라

오멸후악세
吾滅後惡世에서

능지시경자
能持是經者에는

당합장례경
當合掌禮敬하되

여공양세존
如供養世尊하라

상찬중감미
上饌衆甘美

급종종의복
及種種衣服을

공양시불자
供養是佛子하고

기득수유문
冀得須臾聞이니라

약능어후세
若能於後世에서

수지시경자
受持是經者는

아전재인중
我遣在人中하여

행어여래사
行於如來事니라

약어일겁중
若於一劫中에

상회불선심
常懷不善心하고

작색이매불
作色而罵佛하면

획무량중죄
獲無量重罪리라

기유독송지
其有讀誦持

시법화경자
是法華經者를

수유가악언
須臾加惡言하면

기죄부과피
其罪復過彼니라

유인구불도
有人求佛道하여

이어일겁중
而於一劫中을

합장재아전
合掌在我前 하여

이무수게찬
以無數偈讚 하면

유시찬불고
由是讚佛故로

득무량공덕
得無量功德 이나라

탄미지경자
歎美持經者는

기복부과피
其福復過彼 나라

어팔십억겁
於八十億劫을

이최묘색성
以最妙色聲과

급여향미촉
及與香味觸으로

공양지경자
供養持經者 하라

여시공양이
如是供養已 하고

약득수유문
若得須臾聞 이라도

즉응자흥경
則應自欣慶 하되

아금획대리
我今獲大利 나라

약왕금고여
藥王今告汝 하노니

아소설제경
我所說諸經

이어차경중
而於此經中에서

법화최제일
法華最第一 이라

이시 불 부고약왕보살마가살 아소설경전
爾時에 佛이 復告藥王菩薩摩訶薩 하시되 我所說經典

무량천만억 이설금설당설 이어기중
이 無量千萬億 이니 已說今說當說 이나라 而於其中에

차법화경 최위난신난해
此法華經이 最爲難信難解니라

약왕 차경시제불비요지장 불가분포망수여
藥王아 此經是諸佛秘要之藏이라 不可分布妄授與

인 제불세존지소수호 종석이래 미증현설
人이니 諸佛世尊之所守護니라 從昔已來로 未曾顯說

이차경자 여래현재 유다원질 황멸도후
而此經者는 如來現在에도 猶多怨嫉이거늘 況滅度後리

약왕당지 여래멸후 기능서지 독송공양
藥王當知하라 如來滅後에 其能書持 讀誦供養하고

위타인설자 여래즉위의의부지 우위타방현
爲他人說者는 如來卽爲以衣覆之하며 又爲他方現

재제불지소호념 시인유대신력급지원력 제
在諸佛之所護念이라 是人有大信力及志願力과 諸

선근력 당지시인여여래공숙 즉위여래수마
善根力하니 當知是人與如來共宿하며 則爲如來手摩

기두
其頭니라

약왕 재재처처 약설 약독 약송 약서 약
藥王아 在在處處에서 若說 若讀하고 若誦 若書하며 若

경권소주지처 개응기칠보탑 극령고광엄식
經卷所住之處에는 皆應起七寶塔하되 極令高廣嚴飾

불수부안사리 소이자하 차중이유여래전
하고 不須復安舍利나라 所以者何오 此中已有如來全

신 차탑응이일체화향 영락 증개 당번 기악
身 이나라 此塔應以一切華香 瓔珞 繒蓋 幢幡 伎樂

가송 공양공경 존중찬탄 약유인득견차
歌 頌으로 供養恭敬 하고 尊重讚歎 하라 若有人得見此

탑 레배공양 당지시등 개근아녹다라삼막
塔 하고 禮拜供養 하면 當知是等은 皆近阿耨多羅三藐

삼보제
三菩提 나라

약왕 다유인 재가출가 행보살도 약불능
藥王아 多有人이 在家出家 하여 行菩薩道 하되 若不能

득견문독송 서지 공양 시법화경자 당지 시
得見聞讀誦 書持 供養 是法華經者는 當知 하라 是

인미선행보살도 약유득문시경전자 내능선행
人未善行菩薩道라 若有得聞是經典者는 乃能善行

보살지도 기유중생 구불도자 약견약문시
菩薩之道 나라 其有衆生이 求佛道者 하여 若見若聞是

법화경 문이신해수지자 당지 시인득근아
法華經 하며 聞已信解受持者는 當知 하라 是人得近阿

녹다라삼막삼보제 약왕 비여유인갈필수수
耨多羅三藐三菩提 나라 藥王아 譬如有人渴乏須水하

어피고원 천착구지 유견건토 지수상원
여 於 彼 高 原 에 穿 鑿 求 之 하되 猶 見 乾 土 하면 知 水 尙 遠

시공불이 전전습토 수점지니 기심결
이라 施 功 不 已 하여 轉 見 濕 土 하고 遂 漸 至 泥 하면 其 心 決

정지수필근 보살역부여시 약미문미해 미
定 知 水 必 近 이라 菩 薩 亦 復 如 是 하여 若 未 聞 未 解 未

능수습 시법화경 당지 시인거아녹다라삼
能 修 習 是 法 華 經 하면 當 知 하라 是 人 去 阿 耨 多 羅 三

막삼보제 상원 약득문해 사유수습 필지
藐 三 菩 提 尙 遠 이요 若 得 聞 解 하며 思 惟 修 習 하면 必 知

득근아녹다라삼막삼보제 소이자하 일체보
得 近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니라 所 以 者 何 오 一 切 菩

살 아녹다라삼막삼보제 개속차경 차경개
薩 의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는 皆 屬 此 經 이니라 此 經 開

방편문 시진실상 시법화경장 심고유원
方 便 門 하여 示 眞 實 相 이니라 是 法 華 經 藏 은 深 固 幽 遠 하

무인능도 금불교화성취보살 이위개시
여 無 人 能 到 거늘 今 佛 敎 化 成 就 菩 薩 코자 而 爲 開 示 니라

약왕 약유보살 문시법화경 정의포외 당
藥 王 아 若 有 菩 薩 이 聞 是 法 華 經 하고 驚 疑 怖 畏 하면 當

지 시위신발의보살 약성문인 문시경
知 하라 是 爲 新 發 意 菩 薩 이니라 若 聲 聞 人 이 聞 是 經 하고

경의포외 당지 시위증상만자 약왕 약
驚疑怖畏 하면 當知 하라 是爲增上慢者 나라 藥王 아 若

유선남자 선녀인 여래멸후 욕위사중 설시
有善男子 善女人 이 如來滅後 에 欲爲四衆 하여 說 是

법화경자 운하응설 시선남자 선녀인 입여래
法華經 者 는 云何應說 고 是善男子 善女人 은 入如來

실 착여래의 좌여래좌 이내응위사중
室 하여 著如來衣 하고 坐如來座 하여 爾乃應爲四衆 하여

광설사경 여래실자 일체중생중대자비심시
廣說斯經 이라 如來室 者 는 一切衆生中大慈悲心 是니

여래의자 유화인욕심시 여래좌자 일체법
라 如來衣 者 는 柔和忍辱心 是 나라 如來座 者 는 一切法

공시 안주시중연후 이불해태심 위제보살
空 是 나라 安住是中然後 에 以不懈怠心 으로 爲諸菩薩

급사중 광설시법화경
及四衆 하여 廣說 是法華經 이나라

약왕 아어여국 견화인 위기집청법중
藥王 아 我於餘國 에서 遣化人 하여 爲其集聽法衆 하며

역견화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청기설법
亦遣化比丘 比丘尼 와 優婆塞 優婆夷 하여 聽其說法

시제화인 문법신수 수순불역
하리라 是諸化人 은 聞法信受 하며 隨順不逆 하리라

약설법자 재공한처 아시광견 천 룡 귀신 건달
若說法者 在空閑處 我時廣遣 天龍鬼神 乾闥

파 아수라등 청기설법 아수재이국 시
婆阿修羅等 聽其說法 我雖在異國 이라도 時

시령설법자 득견아신 약어차경망실구두
時令說法者 得見我身 若於此經 忘失句逗 면

아환위설 령득구족
我還爲說 令得具足 하리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 世尊 欲重宣此義 而說偈言 하시되

욕사제해태
欲捨諸懈怠 하면

응당청차경
應當聽此經 하라

시경난득문
是經難得聞 이며

신수자역난
信受者亦難 이라

여인갈수수
如人渴須水 하여

천착어고원
穿鑿於高原 하되

유견건조토
猶見乾燥土 면

지거수상원
知去水尙遠 이며

점견습토니
漸見濕土泥 면

결정지근수
決定知近水 나라

약왕여당지
藥王汝當知 하라

여시제인등
如是諸人 등이

불문법화경
不聞法華經 하면

거불지심원
去佛智甚遠 이라

약문시심경
若聞是深經 하면

결료성문법
決了聲聞法 이니라

시제경지왕
是諸經之王 이니

무이체사유
聞已諦思惟 하면

당지차인등
當知此人等 은

근어불지혜
近於佛智慧 니라

약인설차경
若人說此經 하면

응입여래실
應入如來室 하여

착어여래의
著於如來衣 하고

이좌여래좌
而坐如來座 하여

처중무소외
處衆無所畏 하여

광위분별설
廣爲分別說 이니라

대자비위실
大慈悲爲室 하고

유화인욕의
柔和忍辱衣 하고

제법공위좌
諸法空爲座 하여

처차위설법
處此爲說法 하라

약설차경시
若說此經時 에

유인악구매
有人惡口罵 하며

가도장와석
加刀杖瓦石 이라도

념불고응인
念佛故應忍 하라

아천만억토
我千萬億土에서

현정견고신
現淨堅固身하여

어무량억겁
於無量億劫에

위중생설법
爲衆生說法하노라

약아멸도후
若我滅度後에

능설차경자
能說此經者는

아견화사중
我遣化四衆인

비구비구니
比丘比丘尼와

급청신사녀
及淸信士女하여

공양어법사
供養於法師하고

인도제중생
引導諸衆生하여

집지령청법
集之令聽法하리라

약인욕가악
若人欲加惡하여

도장급와석
刀杖及瓦石하면

즉견변화인
則遣變化人하여

위지작위호
爲之作衛護하리라

약설법지인
若說法之人이

독재공한처
獨在空閑處

적막무인성
寂寞無人聲하여

독송차경전
讀誦此經典이면

아이시위현
我爾時爲現

청정광명신
淸淨光明身이며

약망실장구
若忘失章句 하면

위설령통리
爲說令通利 하리라

약인구시덕
若人具是德 하고

혹위사중설
或爲四衆說 하며

공처독송경
空處讀誦經 하면

개득견아신
皆得見我身 하리라

약인재공한
若人在空閑 이면

아견천룡왕
我遣天龍王 과

야차귀신등
夜叉鬼神等 하여

위작청법중
爲作聽法衆 하리라

시인요설법
是人樂說法 하며

분별무괘애
分別無罣礙 하면

제불호념고
諸佛護念故 로

능령대중희
能令大衆喜 나라

약친근법사
若親近法師 면

속득보살도
速得菩薩道 하며

수순시사학
隨順是師學 하면

득견항사불
得見恒沙佛 이리라

묘법련화경 법사품 중
妙法蓮華經 法師品 終

묘법蓮華經 見寶塔品 第十一

이시불전 유칠보탑 고오백유순 종광이백
爾時佛前에 有七寶塔 하되 高五百由旬 이요 縱廣二百

오십유순 종지용출 주재공중 종종보물
五十由旬 이며 從地涌出 하여 住在空中 이라 種種寶物로

이장고지 오천란수 감실천만 무수당번
而莊校之 하며 五千欄楯에 龕室千萬 이며 無數幢幡으로

이위엄식 수보영락 보령만억 이현기상
以爲嚴飾 하며 垂寶瓔珞 하고 寶鈴萬億을 而懸其上 하며

사면개출다마라발전단지향 충편세계 기제
四面皆出多摩羅跋耨檀之香 하여 充徧世界 하며 其諸

번개 이금 은 류리 차거 마노 진주 매괴 칠보
幡蓋는 以金銀琉璃碑磬碼瑙眞珠玫瑰七寶

합성 고지사천왕궁 삼십삼천 우천만타라
合成 하고 高至四天王宮 이라 三十三天은 雨天曼陀羅

화 공양보탑 여제천 룡 야차 건달파 아수
華 하여 供養寶塔 하고 餘諸天龍夜叉乾闥婆阿修

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 등천만억 중
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千萬億衆

이일체화향 영락 번개 기악 공양보탑 공
이 以一切華香瓔珞幡蓋伎樂으로 供養寶塔 하고 恭

경 존 중 찬 탄
敬 尊 重 讚 歎 이라

이 시 보 탑 중 출 대 음 성 탄 언 선 재 선 재 석 가
爾 時 寶 塔 中 에서 出 大 音 聲 歎 言 하되 善 哉 善 哉 라 釋 迦

모 니 세 존 능 이 평 등 대 혜 교 보 살 법 불 소 호
牟 尼 世 尊 이 能 以 平 等 大 慧 로 敎 菩 薩 法 이며 佛 所 護

념 묘 법 화 경 위 대 중 설 여 시 여 시
念 은 妙 法 華 經 으로 爲 大 衆 說 하시니 如 是 如 是 라

석 가 모 니 세 존 여 소 설 자 개 시 진 실
釋 迦 牟 尼 世 尊 如 所 說 者 는 皆 是 眞 實 이라

이 시 사 중 전 대 보 탑 주 재 공 중 우 문 탑 중 소 출
爾 時 四 衆 은 見 大 寶 塔 住 在 空 中 하고 又 聞 塔 中 所 出

음 성 개 득 법 희 괴 미 증 유 종 좌 이 기 공
音 聲 하고 皆 得 法 喜 하며 怪 未 曾 有 하고 從 座 而 起 하여 恭

경 합 장 각 주 일 면
敬 合 掌 하고 却 住 一 面 하니라

이 시 유 보 살 마 가 살 명 대 요 설 지 일 체 세 간
爾 時 에 有 菩 薩 摩 訶 薩 하되 名 大 樂 說 이라 知 一 切 世 間

천 인 아 수 라 등 심 지 소 의 이 백 불 언 세 존
天 人 阿 修 羅 等 心 之 所 疑 하고 而 白 佛 言 하되 世 尊 이

이 하 인 연 유 차 보 탑 중 지 응 출 우 어 기
시여 以 何 因 緣 으로 有 此 寶 塔 이 從 地 涌 出 하며 又 於 其

중 발시 음성
中에서發是音聲이니까

이시 불고대요설보살 차보탑중 유여래전
爾時에佛告大樂說菩薩하시되此寶塔中有如來全

신 내왕과거동방무량천만억 아승기세계
身이라乃往過去東方無量千萬億阿僧祇世界하여

국명보정 피중유불 호왈다보 기불행보살
國名寶淨이요彼中有佛하니號曰多寶라其佛行菩薩

도시 작대서원 약아성불멸도지후 어십방
道時에作大誓願하시되若我成佛滅度之後於十方

국토 유설법화경처 아지탑묘 위청시경고
國土에有說法華經處면我之塔廟는爲聽是經故로

응현기전 위작증명 찬언선재
涌現其前하여爲作證明하고讚言善哉하리라

피불성도이 림멸도시 어천인대중중 고제
彼佛成道已하고臨滅度時에於天人大衆中에서告諸

비구 아멸도후 욕공양아전신자 응기일대
比丘하시되我滅度後에欲供養我全身者는應起一大

탑 기불이신통원력 십방세계재재처처
塔하라其佛以神通願力으로十方世界在在處處에서

약유설법화경자 피지보탑 개응출기전 전
若有說法華經者면彼之寶塔이皆涌出其前하여全

신재어탑중 찬언 선재선재
身在於塔中 하여 讚言 하시되 善哉 善哉 하시니라

대요설 금다보여래탑 문설법화경고 종지응
大樂說 아 今多寶如來塔 이 聞說法華經故로 從地涌

출 찬언 선재선재 시시대요설보살
出 하여 讚言 하시되 善哉 善哉 하시니라 是時大樂說菩薩이

이여래신력고 백불언 세존 아등원욕견
以如來神力故로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我等願欲見

차불신
此佛身 이나다

불고 대요설보살마가살 시다보불 유심중
佛告 大樂說菩薩摩訶薩 하시되 是多寶佛이 有深重

원 약아보탑 위청법화경고 출어제불전시
願 이라 若我寶塔이 爲聽法華經故로 出於諸佛前時에

기유욕이아신 시사증자 피불분신제불 재
其有欲以我身으로 示四衆者 하면 彼佛分身諸佛이 在

어십방세계설법 진환집일처연후 아신내출현
於十方世界說法을 盡還集一處然後에 我身乃出現

이 대요설 아분신제불 재어십방세계설법
耳 니라 大樂說 아 我分身諸佛이 在於十方世界說法

자 금응당집
者를 今應當集 하리라

대요설이 백불언 세존 아등역원욕견세존
大樂說이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我等亦願欲見世尊

분신제불 레배공양
分身諸佛 하고 禮拜供養 이니다

이시 불방백호일광 즉견동방오백만억나유
爾時에 佛放白毫一光 하시니 卽見東方五百萬億那由

타항하사등 극토제불 피제극토 개이파려위
他恒河沙等 國土諸佛 이라 彼諸國土는 皆以玻瓈爲

지 보수보의 이위장엄 무수천만억보살
地 하고 寶樹寶衣 로 以爲莊嚴 하고 無數千萬億菩薩이

충만기중 편장보만 보망라상 피극제불
充滿其中 하며 徧張寶幔 하고 寶網羅上 이라 彼國諸佛이

이대묘음 이설제법 급견무량천만억보살
以大妙音 으로 而說諸法 하시되 及見無量千萬億菩薩

편만제국 위중설법 남서북방사유상하
이 徧滿諸國 하여 爲衆說法 이라 南西北方四維上下의

백호상광소조지처 역부여시
白毫相光所照之處도 亦復如是 나라

이시 십방제불 각고중보살언 선남자 아
爾時에 十方諸佛이 各告衆菩薩言 하시되 善男子야 我

금응왕사파세계 석가모니불소 병공양다보여
今應往娑婆世界 釋迦牟尼佛所 하여 并供養多寶如

래보탑 시사파세계 즉변청정 류리위지
來寶塔 하리라 時娑婆世界은 卽變淸淨 하여 瑠璃爲地 하

고보수장엄 황금위승 이제팔도 무제취
고寶樹莊嚴 하며 黃金爲繩 하여 以界八道 하고 無諸聚

락촌영성읍 대해강하산천림수 소대보향
落村營城邑 과 大海江河山川林藪 하며 燒大寶香 하고

만타라화편포기지 이보망만 라부기상
曼陀羅華徧布其地 하고 以寶網幔 으로 羅覆其上 하며

현제보령 유류차회중 이제천인 치어타
懸諸寶鈴 이라 唯留此會衆 하고 移諸天人 하여 置於他

토 시시제불 각장일대보살 이위시자 지
土 나라 是時諸佛이 各將一大菩薩로 以爲侍者 하여 至

사파세계 각도보수하 일일보수 고오백유
娑婆世界 하여 各到寶樹下 라 一一寶樹는 高五百由

수 지엽화과 차제장엄 제보수하 개유사
旬 이요 枝葉華果를 次第莊嚴 하고 諸寶樹下에 皆有師

자지좌 고오유수 역이대보 이교식지
子之座 하되 高五由旬 이요 亦以大寶로 而校飾之 라

이시제불 각어차좌결가부좌 여시전전
爾時諸佛이 各於此座結跏趺坐 하시니 如是展轉 하여

편만삼천대천세계 이어석가모니불 일방소
徧滿三千大千世界 하시되 而於釋迦牟尼佛의 一方所

분지신 유고미진
分之身도 猶故未盡이라

시석가모니불 욕응수소분신제불고 팔방각개
時釋迦牟尼佛이 欲容受所分身諸佛故로 八方各更

변이백만억나유타국 개령청정 무유지옥
變二百萬億那由他國하여 皆令淸淨하시니 無有地獄

아귀 축생 급아수라 우이제천인 치어타토
餓鬼 畜生 及阿修羅나라 又移諸天人하여 置於他土

소화지국 역이류리 위지 보수장엄
하고 所化之國도 亦以琉璃로 爲地 하고 寶樹莊嚴하니

수고오백유수 지엽화과 차례엄식 수하개
樹高五百由旬이요 枝葉華果를 次第嚴飾하며 樹下皆

유보사자좌 고오유수 종종제보 이위장교
有寶師子座하되 高五由旬이요 種種諸寶로 以爲莊校

역무대해강하 급목진린타산 마가목진린타산
나라 亦無大海江河 及目眞隣陀山 摩訶目眞隣陀山

철위산 대철위산 수미산등제산왕 통위일불국
鐵圍山 大鐵圍山 須彌山等諸山王하여 通爲一佛國

토 보지평정 보교로만 편부기상 현제
土하며 寶地平正하고 寶交露幔을 徧覆其上하고 懸諸

번개 소대보향 제천보화 편포기지
旛蓋하고 燒大寶香하고 諸天寶華를 徧布其地라

석가모니불 위세불당래좌고 부어팔방각개변
釋迦牟尼佛이 爲諸佛當來坐故로 復於八方各更變

이백만억나유타국 개령청정 무유지옥 아
二百萬億那由他國하여 皆令淸淨하시니 無有地獄餓

귀 축생 급아수라 우이제천인 치어타토
鬼畜生及阿修羅라 又移諸天人하여 置於他土하고

소화지국 역이류리위지 보수장엄 수고오
所化之國도 亦以瑠璃爲地하고 寶樹莊嚴하니 樹高五

백유수 지엽화과차제장엄 수하개유보사자
百由旬이요 枝葉華果次第莊嚴하며 樹下皆有寶師子

좌 고오유수 역이대보 이교식지 역무대
座하니 高五由旬이며 亦以大寶로 而校飾之라 亦無大

해강하 급목진린타산 마가목진린타산 철위산 대
海江河及目眞隣陀山 摩訶目眞隣陀山 鐵圍山大

철위산 수미산등제산왕 통위일불국토 보
鐵圍山 須彌山等諸山王하며 通爲一佛國土하고 寶

지평정 보교로만 편부기상 현제번개
地平正하고 寶交露幔을 徧覆其上하고 懸諸幡蓋하며

소대보향 제천보화 편포기지
燒大寶香하고 諸天寶華를 徧布其地니라

이시 동방석가모니소분지신 백천만억나유타
爾時에 東方釋迦牟尼所分之身의 百千萬億那由他

항하사등국토중 제불 각각설법 래집어차
恒河沙等國土中 諸佛이 各各說法을 來集於此 나라

여시차제 십방제불 개실래집 좌어팔방
如是次第로 十方諸佛이 皆悉來集하여 坐於八方 하니

이시일일방 사백만억 나유타국토 제불여래
而時一一方 四百萬億 那由他國土의 諸佛如來도

편만기중 시시제불 각재보수하 좌사자
徧滿其中 하나라 是時諸佛이 各在寶樹下 하여 坐師子

좌 개견시자 문신석가모니불 각제보화
座하시고 皆遣侍者하여 問訊釋迦牟尼佛하되 各齎寶華

만국 이고지언 선남자 여왕예기사굴산
滿掬하고 而告之言 하시되 善男子야 汝往詣耆闍崛山

석가모니불소 여아사왈 소병소뇌 기력
釋迦牟尼佛所하여 如我辭曰하되 少病少惱 하시며 氣力

안락 급보살성문중 실안은부 이차보화
安樂하시고 及菩薩聲聞衆도 悉安隱不 하고 以此寶華로

산불공양 이작시언 피모갑불 여욕개차보
散佛供養하고 而作是言 하라 彼某甲佛이 與欲開此寶

탑 제불전사 역부여시
塔 이니다 諸佛遣使도 亦復如是 나라

이시 석가모니불 전소분신불 실이래집 각
爾時에 釋迦牟尼佛이 見所分身佛이 悉已來集하여 各

각좌어사자지좌 개문제불여욕동개보탑
各坐於師子之座 하시고 皆聞諸佛與欲同開寶塔 하시고

즉종좌기 주허공중 일체사중 기립합장
卽從座起 하여 住虛空中 이라 一切四衆 이 起立合掌 하고

일심관불 어시석가모니불 이우지개칠보탑
一心觀佛 하니라 於是釋迦牟尼佛 이 以右指開七寶塔

호 출대음성 여각관약 개대성문 즉시
戶 하니 出大音聲 하되 如却關鑰 하고 開大城門 이라 卽時

일체중회 개견다보여래어보탑중좌사자좌
一切衆會 는 皆見多寶如來於寶塔中坐師子座 하시되

전신불산 여입선정 우문기언 선재선재
全身不散 하고 如入禪定 이라 又聞其言 하되 善哉善哉 라

석가모니불 쾌설시법화경 아워청시경고
釋迦牟尼佛 이 快說是法華經 하시니 我爲聽是經故 로

이래지차
而來至此 나라

이시사중등 전과거무량천만억겁멸도불 설
爾時四衆 등 이 見過去無量千萬億劫滅度佛 이 說

여시언 탄미증유 이천보화취 산다보불 급
如是言 하고 歎未曾有 하며 以天寶華聚 를 散多寶佛 及

석가모니불상
釋迦牟尼佛 上 이라

이시 다보불 어보탑중 분반좌 여석가모니
爾時多寶佛이 於寶塔中에서 分半座하여 與釋迦牟尼

불 이작시언 석가모니불 가취차좌
佛하시고 而作是言하시되 釋迦牟尼佛은 可就此座하소서

즉시 석가모니불 입기탑중 좌기반좌결가
卽時에 釋迦牟尼佛이 入其塔中하여 坐其半座結跏

부좌 이시대중 견이여래재칠보탑중 사자
跏坐니라 爾時大衆이 見二如來在七寶塔中하여 師子

좌상결가부좌 각작시념 불좌고원 유원
座上結跏跏坐하고 各作是念하되 佛座高遠이라 唯願

여래이신통력 령아등배 구처허공
如來以神通力으로 令我等輩를 俱處虛空하소서

즉시석가모니불 이신통력 접제대중 개재
卽時釋迦牟尼佛이 以神通力으로 接諸大衆하여 皆在

허공 이대음성 보고사중 수능어차사파
虛空하고 以大音聲으로 普告四衆하시되 誰能於此娑婆

극토 광설묘법화경 금정시시 여래 불구
國土에서 廣說妙法華經일고 今正是時라 如來는 不久

당입넬반 불욕이차묘법화경 부촉유재
當入涅槃하니 佛欲以此妙法華經을 付囑有在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시되

성주세존이
聖主世尊이

수구멸도나
雖久滅度나

재보탑중하여
在寶塔中하여

상위법래거늘
尙爲法來거늘

제인운하하여
諸人云何하여

불근위법고
不勤爲法고

차불멸도는
此佛滅度는

무앙수겁이니라
無央數劫이니라

처처청법은
處處聽法은

이난우고니라
以難遇故니라

피불본원은
彼佛本願은

아멸도후에
我滅度後에

재재소왕하여
在在所往하여

상위청법이니라
常爲聽法이니라

우아분신인
又我分身인

무량제불하고
無量諸佛하고

여항사등이
如恒沙等이

래욕청법하고
來欲聽法하고

급견멸도
及見滅度

다보여래하여
多寶如來하여

각사묘토와
各捨妙土와

급제자중과
及弟子衆과

천인룡신의
天人龍神의

제공양사하고
諸供養事하고

령법구주하여
令法久住하여

고래지차나라
故來至此나라

위좌제불하여
爲坐諸佛하여

이신통력으로
以神通力으로

이무량중하고
移無量衆하고

령극청정이라
令國淸淨이라

제불각각
諸佛各各

예보수하하니
詣寶樹下하니

여청정지를
如淸淨池를

련화장엄하며
蓮華莊嚴하며

기보수하의
其寶樹下의

제사자좌에
諸師子座에

불좌기상하시니
佛坐其上하시니

광명엄식이
光明嚴飾이

여야암중에
如夜闇中에

연대거화라
然大炬火라

신출묘향하여
身出妙香하여

편십방국하니
徧十方國하니

중생몽훈하고
衆生蒙薰하고

희불자승이라
喜不自勝이라

비여대풍이
譬如大風이

취소수지
吹小樹枝하여

이시방편으로
以是方便으로

령법구주나라
令法久住나라

고제대중하시되
告諸大衆하시되

아멸도후에
我滅度後에

수능호지하여
誰能護持하여

독설사경고
讀說斯經고

금어불전에서
今於佛前에서

자설서언하라
自說誓言하라

기다보불이
其多寶佛이

수구멸도나
雖久滅度나

이대서원으로
以大誓願으로

이사자후나라
而師子吼나라

다보여래와
多寶如來와

금여아신과
及與我身과

소집화불은
所集化佛은

당지차의나라
當知此意나라

제불자등아
諸佛子等아

수능호법고
誰能護法고

당발대원하여
當發大願하여

령득구주나라
令得久住나라

기 유 능 호
其 有 能 護

차 경 법 자
此 經 法 者 是

즉 위 공 양
則 爲 供 養

아 급 다 보
我 及 多 寶 尼 羅

차 다 보 불
此 多 寶 佛 子

처 어 보 탑
處 於 寶 塔 下 耶

상 유 십 방
常 遊 十 方 是

위 시 경 고
爲 是 經 故 以 耶

역 부 공 양
亦 復 供 養

제 래 화 불
諸 來 化 佛 子

장 엄 광 식
莊 嚴 光 飾

제 세 계 자
諸 世 界 者 尼 羅

약 설 차 경
若 說 此 經 下 門

즉 위 전 아
則 爲 見 我 와

다 보 여 래
多 寶 如 來 와

급 제 화 불
及 諸 化 佛 子 尼 羅

제 선 남 자
諸 善 男 子 亞

각 체 사 유
各 諦 思 惟 下 耶

차 위 난 사
此 爲 難 事 尼

의 발 대 원
宜 發 大 願 子 尼 羅

제 여 경 전
諸 餘 經 典 子

수 여 항 사
數 如 恒 沙 를

수설차등
雖說此等이라도

미족위난
未足爲難이라

약삽수미
若接須彌하여

척치타방
擲置他方

무수불토
無數佛土라도

역미위난
亦未爲難이며

약이족지
若以足指로

동대천계
動大千界하여

원척타국
遠擲他國이라도

역미위난
亦未爲難이며

약립유정
若立有頂하여

위중연설
爲衆演說

무량여경
無量餘經이라도

역미위난
亦未爲難이며

약불멸후
若佛滅後

어악세중
於惡世中에서

능설차경
能說此經이면

시즉위난
是則爲難이니라

가사유인
假使有人이

수파허공
手把虛空하고

이이유행
而以遊行이라도

역미위난
亦未爲難이며

어아멸후
於我滅後에

약자서지
若自書持커나

약사인서
若使人書면

시즉위난
是則爲難이니라

약이대지
若以大地를

치족갑상
置足甲上하고

승어범천
昇於梵天이라도

역미위난
亦未爲難이며

불멸도후
佛滅度後

어악세중
於惡世中에서

잡독차경
暫讀此經이

시즉위난
是則爲難이니라

가사겁소
假使劫燒에

담부건초
擔負乾草하고

입중불소
入中不燒는

역미위난
亦未爲難이며

아멸도후
我滅度後에

약지차경
若持此經하고

위일인설
爲一人說이면

시즉위난
是則爲難이니라

약지팔만
若持八萬

사천법장
四千法藏과

십이부경
十二部經 하고

위인연설
爲人演說 하여

령제청자
令諸聽者 로

득륙신통
得六神通 하여

수능여시
雖能如是 라도

역미위난
亦未爲難 이며

어아멸후
於我滅後 에

청수차경
聽受此經 하며

문기의취
問其義趣 를

시즉위난
是則爲難 이니라

약인설법
若人說法 하여

령천만억
令千萬億

무량무수
無量無數

항사중생
恒沙衆生 으로

득아라한
得阿羅漢 하여

구륙신통
具六神通 하고

수유시익
雖有是益 이라도

역미위난
亦未爲難 이며

어아멸후
於我滅後 에

약능봉지
若能奉持

여사경전
如斯經典 이면

시즉위난
是則爲難 이니라

아워불도
我爲佛道 하여

어무량토
於無量土에서

종시지금
從始至今토록

광설제경
廣說諸經이나

이어기중
而於其中에서

차경제일
此經第一이니라

약유능지
若有能持면

즉지불신
則持佛身이니라

제선남자
諸善男子야

어아멸후
於我滅後에

수능수지
誰能受持

독송차경
讀誦此經고

금어불전
今於佛前에서

자설서언
自說誓言하라

차경난지
此經難持니

약잠지자
若暫持者면

아즉환희
我則歡喜하고

제불역연
諸佛亦然이니라

여시지인
如是之人은

제불소탄
諸佛所歎이니

시즉용맹
是則勇猛이며

시즉정진
是則精進이며

시명지제
是名持戒며

행두타자
行頭陀者니

즉위질득
則爲疾得

무상불도
無上佛道니라

능어래세
能於來世에서

독지차경
讀持此經하면

시진불자
是眞佛子니

주순선지
住淳善地며

불멸도후
佛滅度後에

능해기의
能解其義면

시제천인
是諸天人

세간지안
世間之眼이며

어공외세
於恐畏世에서

능수유설
能須與說하면

일체천인
一切天人이

개응공양
皆應供養하니라

묘법련화경 전보탑품 종
妙法蓮華經 見寶塔品 終

묘법蓮華經 제파달다품 제십이
妙法蓮華經 提婆達多品 第十二

이시 불고제보살 급천인사중 오어과거 무
爾時에 佛告諸菩薩과 及天人四衆하시되 吾於過去無

량겁중 구법화경 무유해권 어다겁중 상
量劫中에 求法華經하되 無有懈怠하며 於多劫中에 常

작극왕 발원구어무상보제 심불퇴전 위
作國王하여 發願求於無上菩提하되 心不退轉이니라 爲

욕만족륙파라밀 근행포시 심무린석 상
欲滿足六波羅蜜하여 勤行布施하되 心無憍惜하며 象

마 칠진 국성 처자 노비복종 두목 수뇌 신육 수
馬七珍國城妻子奴婢僕從頭目髓腦身肉手

족 불석구명 시세인민 수명무량 위어
足과 不惜軀命하나라 時世人民의 壽命無量이나 爲於

법고 연사국위 위정태자 격고선령 사
法故로 捐捨國位하고 委政太子하고 擊鼓宣令하여 四

방구법 수능위아설대승자 오당종신 공급
方求法하되 誰能爲我說大乘者오 吾當終身토록 供給

주사 시유선인 래백왕언 아유대승 명
走使하리라 時有仙人이 來白王言하되 我有大乘하니 名

묘법화경 약불위아 당위선설 왕문선언
妙法華經이라 若不違我시면 當爲宣說하리다 王聞仙言

환희용약 즉수선인 공급소수 채과급
하고 歡喜踊躍 하며 卽隨仙人 하여 供給所須 하되 采果汲

수 습신설식 내지이신 이위상좌 신심
水 하고 拾薪設食 하며 乃至以身 으로 而爲牀座 라도 身心

무권 우시봉사 경어천세 위어법고 정근급
無倦 하여 于時奉事 를 經於千歲 나 爲於法故 로 精勤給

시 령무소핍
侍 하여 令無所乏 하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 에 世尊 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아념과거겁
我念過去劫 하니

위구대법고
爲求大法故 로

수작세국왕
雖作世國王 이나

불탐오욕락
不貪五欲樂 하고

추종고사방
椎鐘告四方 하되

수유대법자
誰有大法者 오

약위아해설
若爲我解說 하면

신당위노복
身當爲奴僕 하리라

시유아사선
時有阿私仙 이

래백어대왕
來白於大王 하되

아유미묘법
我有微妙法 하니

세간소희유
世間所希有 라

약능수행자
若能修行者면

오당위여설
吾當爲汝說하리라

시왕문선언
時王聞仙言하고

심생대희열
心生大喜悅하여

즉편수선인
卽便隨仙人하여

공급어소수
供給於所須하되

채신급과라
採薪及果蓏하여

수시공경여
隨時恭敬與하니

정존묘법고
情存妙法故로

신심무해권
身心無懈倦이니라

보위제중생
普爲諸衆生하여

근구어대법
勤求於大法하며

역불위기신
亦不爲己身하여

급이오욕락
及以五欲樂이니라

고위대국왕
故爲大國王하여

근구획차법
勤求獲此法하고

수치득성불
遂致成佛하여

금고위여설
今故爲汝說이니라

불고제비구 이시왕자 즉아신시 시선인자
佛告諸比丘하시되 爾時王者는 則我身是요 時仙人者

금제파달다시 유제파달다선지식고 령아구
는 今提婆達多是라 由提婆達多善知識故로 令我具

족록파라밀 자비희사 삼십이상 팔십종호 자
足六波羅蜜과 慈悲喜捨와 三十二相 八十種好와 紫

마금색 십력 사무소외 사섭법 십팔불공 신
磨金色과 十力 四無所畏와 四攝法과 十八不共 神

통도력 성등정각 광도증생 개인제파달
通道力하여 成等正覺하고 廣度衆生하니 皆因提婆達

다선지식고 고제사중 제파달다 각후과
多善知識故나라 告諸四衆하노라 提婆達多는 却後過

무량겁 당득성불 호왈천왕여래 응공정
無量劫하여 當得成佛하리니 號曰天王如來 應供 正

편지명행족 선서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
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

인사불세존 세계명천도 시천왕불주세 이
人師 佛 世尊이며 世界名天道라 時天王佛住世는 二

십중겁 광위증생 설어묘법 항하사증생
十中劫이니 廣爲衆生하여 說於妙法하리니 恒河沙衆生

득아라한과 무량증생 발연각심 항하사
이 得阿羅漢果하며 無量衆生이 發緣覺心하며 恒河沙

증생 발무상도심 득무생인 지불퇴전
衆生이 發無上道心하여 得無生忍하고 至不退轉하리라

시천왕불 반넬반후 정법주세 이십중겁 전
時天王佛이 般涅槃後에 正法住世는 二十中劫이며 全

신사리 기칠보탑 고륙십유순 종광사십유
身舍利로起七寶塔하되 高六十由旬이요 縱廣四十由

순 제천인민 실이잡화 말향 소향 도향 의복
旬이라 諸天人民이 悉以雜華 抹香 燒香 塗香 衣服

영락당번 보개기악가송 레배공양칠보묘탑
瓔珞幢幡 寶蓋 伎樂 歌頌으로 禮拜供養七寶妙塔

무량중생 득아라한과 무량중생 오벽지
하며 無量衆生이 得阿羅漢果하고 無量衆生이 悟辟支

불 불가사의중생 발보제심 지불퇴전
佛하며 不可思議衆生이 發菩提心하여 至不退轉하리라

불고제비구 미래세중 약유선남자 선녀인
佛告諸比丘하시되 未來世中에서 若有善男子 善女人

이 문묘법화경 제파달다품 정심신경 불생
이 聞妙法華經 提婆達多品하고 淨心信敬하여 不生

의혹자 불타지옥 아귀 축생 생십방불전
疑惑者는 不墮地獄 餓鬼 畜生하고 生十方佛前하며

소생지처 상문차경 약생인천중 수승묘
所生之處에서 常聞此經하고 若生人天中이면 受勝妙

락 약재불전 려화화생 어시하방다보세
樂하고 若在佛前이면 蓮華化生하리라 於時下方多寶世

존 소종보살 명왈지적 백다보불 당환본
尊을 所從菩薩은 名曰智積이라 白多寶佛하고 當還本

토 석가모니불 고지적왈 선남자 차대수
土 거늘 釋迦牟尼佛이 告智積曰하되 善男子야 且待須

유 차유보살 명문수사리 가여상견 론
與 하라 此有菩薩 하니 名文殊師利라 可與相見 하여 論

설묘법 가화본토
說妙法 하고 可還本土 나라

이시 문수사리 좌천엽련화 대여거륜 구
爾時에 文殊師利는 坐千葉蓮華 하니 大如車輪 하며 俱

래보살 역좌보련화 종어대해사갈라룡궁
來菩薩도 亦坐寶蓮華 하여 從於大海娑竭羅龍宮으로

자연응출 주허공중 예령취산 종련화하
自然涌出 하여 住虛空中 하여 詣靈鷲山 하여 從蓮華下 하

지어불소 두면경레이세존족 수정이필
여 至於佛所 하여 頭面敬禮二世尊足이라 修敬已畢 하고

왕지적소 공상위문 각좌일면 지적보살
往智積所 하여 共相慰問 하고 却坐一面이라 智積菩薩이

문문수사리 인왕룡궁 소화중생 기수기하
問文殊師利하되 仁往龍宮 하여 所化衆生은 其數幾何

니까

문수사리언 기수무량 불가칭계 비구소
文殊師利言 하되 其數無量 하여 不可稱計 리니 非口所

선 비심소측 차대수유 자당증지 소언
宣이며 非心所測이니 且待須臾면 自當證知리라 所言

미경 무수보살 좌보련화 종해응출 예령
未竟에 無數菩薩이 坐寶蓮華하여 從海涌出하여 詣靈

취산 주재허공 차제보살 개시문수사리지
驚山하여 住在虛空이라 此諸菩薩은 皆是文殊師利之

소화도 구보살행 개공론설륙파라밀 본성
所化度니 具菩薩行하고 皆共論說六波羅蜜하며 本聲

문인 재허공중 설성문행 금개수행대승공
聞人은 在虛空中하여 說聲聞行하고 今皆修行大乘空

의 문수사리 위지적왕 어해교화 기사여
義라 文殊師利가 謂智積曰하되 於海敎化는 其事如

시
是 니이다

이시 지적보살 이게찬왕
爾時에 智積菩薩이 以偈讚曰하되

대지덕용건
大智德勇健하여

화도무량중
化度無量衆하시니

금차제대회
今此諸大會를

금아개이전
及我皆已見이니다

연창실상의
演暢實相義하시고

개천일승법
開闡一乘法하여

광도제중생
廣導諸衆生 하여

령속성보제
令速成菩提 니다

문수사리언 아어해중 유상선설묘법화경
文殊師利言 하되 我於海中에서 唯常宣說妙法華經 이

지적문문수사리언 차경심심미묘 제경
니다 智積問文殊師利言 하되 此經甚深微妙 하여 諸經

중보 세소희유 파유중생 근가정진 수행
中寶이며 世所希有 라 頗有衆生이 勤加精進 하여 修行

차경 속득불부 문수사리언 유사갈라룡
此經 하면 速得佛不 이니까 文殊師利言 하되 有娑竭羅龍

왕녀 년시팔세 지혜리근 선지중생제근행
王女 하니 年始八歲 라 智慧利根 하여 善知衆生諸根行

업 득타라니 제불소설심심비장 실능수지
業 하고 得陀羅尼 하여 諸佛所說甚深秘藏 을 悉能受持

심입선정 료달제법 어찰나경 발보제
하고 深入禪定 하여 了達諸法 하고 於刹那頃에 發菩提

심 득불퇴전 변재무애 자념중생 유여
心 하여 得不退轉 이라 辯才無礙 하고 慈念衆生 을 猶如

적자 공덕구족 심념구연 미묘광대 자
赤子 하며 功德具足 하여 心念口演 이 微妙廣大 하며 慈

비인양 지의화아 능지보제 지적보살언
悲仁讓 하며 志意和雅 하여 能至菩提 니라 智積菩薩言 하

아견석가여래 어무량겁 난행고행 적공
되 我見釋迦如來 하니 於無量劫에 難行苦行 하고 積功

루덕 구보제도 미증지식 관삼천대천세
累德 하여 求菩提道 하시되 未曾止息 이라 觀三千大千世

계 내지무유여개자허 비시보살사신명처
界 하되 乃至無有如芥子許 도 非是菩薩捨身命處 라

위중생고 연후내득성보제도 불신차녀어수
爲衆生故 로 然後乃得成菩提道 거늘 不信此女於須

유경 변성정각 언론미글 시룡왕녀홀현어
與頃에 便成正覺 이니다 言論未訖에 時龍王女忽現於

전 두면례경 각주일면 이게찬왈
前 하여 頭面禮敬 하고 却住一面 하여 以偈讚曰 하되

심달죄복상
深達罪福相 하여

편조어십방
徧照於十方 이라

미묘정법신
微妙淨法身 이

구상삼십이
具相三十二 하시고

이팔십종호
以八十種好 로

용장엄법신
用莊嚴法身 하시니

천인소대앙
天人所戴仰 이며

룡신함공경
龍神咸恭敬 하고

일체중생류
一切衆生類 도

무불종봉자
無不宗奉者 니이다

우문성보제
又聞成菩提는

유불당증지
唯佛當證知라

아천대승교
我闡大乘敎하여

도탈고중생
度脫苦衆生하리다

시사리불어룡녀언여위불구득무상도시는
時舍利弗이語龍女言하되汝謂不久得無上道는是

사난신소이자하녀신구예비시법기운
事難信이라所以者何오女身垢穢하여非是法器니云

하능득무상보제불도현광경무량겁근
何能得無上菩提리오佛道懸曠하여經無量劫토록勤

고적행구수제도연후내성우녀인신유
苦積行하고具修諸度然後乃成이니라又女人身은猶

유오장일자불득작범천왕이자제석삼
有五障하니一者不得作梵天王하며二者帝釋이요三

자마왕사자전륜성왕오자불신운하녀
者魔王이요四者轉輪聖王이요五者佛身이라云何女

신속득성불
身으로速得成佛이리요

이시룡녀유일보주가치삼천대천세계지
爾時에龍女有一寶珠하되價值三千大千世界라持

이상불불즉수지룡녀위지적보살존자
以上佛하니佛卽受之시니라龍女謂智積菩薩과尊者

사리불언 아헌보주 세존납수 시사질부
舍利弗言 하되 我獻寶珠를 世尊納受 하시니 是事疾不 아

답언심질 너언 이여신력 관아성불 부
答言甚疾 이라 女言 하되 以汝神力 으로 觀我成佛 하라 復

속어차 당시중회개견룡녀 홀연지간 변성
速於此 리라 當時衆會皆見 龍女 하니 忽然之間 에 變成

남자 구보살행 즉왕남방무구세계 좌보
男子 하여 具菩薩行 하고 卽往南方無垢世界 하여 坐寶

련화 성등정각 삼십이상 팔십종호 보
蓮華 하여 成等正覺 하니 三十二相 이요 八十種好 라 普

위십방일체중생 연설묘법
爲十方一切衆生 하여 演說妙法 이라

이시 사파세계 보살 성문 천룡 팔부인여비
爾時 에 娑婆世界 의 菩薩 聲聞 天龍 八部 人與非

인 개요견피룡녀성불 보위시회인천설법
人 이 皆遙見 彼龍女成佛 하여 普爲時會人天說法 하고

심대환희 실요경례 무량중생 무법해오
心大歡喜 하여 悉遙敬禮 하니라 無量衆生 이 聞法解悟 하

득불퇴전 무량중생 득수도기 무구세계
여 得不退轉 하며 無量衆生 이 得受道記 하며 無垢世界

륙반진동 사파세계삼천중생 주불퇴지
는 六反震動 하니라 娑婆世界三千衆生 은 住不退地 하고

삼천중생 발보제심 이득수기 지적보살 급
三 千 衆 生 은 發 菩 提 心 하여 而 得 受 記 라 智 積 菩 薩 과 及

사리불 일체중회 묵연신수
舍 利 弗 과 一 切 衆 會 는 默 然 信 受 니라

묘법련화경 제파달다품 종
妙 法 蓮 華 經 提 婆 達 多 品 終

묘법蓮華經 지품 제십삼
妙法蓮華經 持品 第十三

이시 약왕보살마가살 급대요설보살마가살
爾時에 藥王菩薩摩訶薩과 及大樂說菩薩摩訶薩이

여이만보살권속구 개어불전작시서언 유원
與二萬菩薩眷屬俱하여 皆於佛前作是誓言하되 唯願

세존 불이위려 아등어불멸후 당봉지
世尊이시여 不以爲慮하소서 我等於佛滅後에 當奉持

독송설 차경전 후악세중생 선근전소 다
讀誦說此經典하리다 後惡世衆生은 善根轉少하고 多

증상만 탐리공양 증불선근 원리해탈
增上慢하며 貪利供養하여 增不善根하며 遠離解脫하여

수난가교화 아등당기대인력 독송차경 지
雖難可教化나 我等當起大忍力하여 讀誦此經하며 持

설서사 종중공양 불석신명
說書寫하고 種種供養하되 不惜身命하리다

이시 중중오백아라한 득수기자 백불언 세
爾時에 衆中五百阿羅漢得受記者는 白佛言하되 世

존 아등역자서원 어이국토광설차경
尊이시여 我等亦自誓願하여 於異國土廣說此經하리다

부유학무학팔천인 득수기자 종좌이기 합장
復有學無學八千人得受記者는 從座而起하여 合掌

향불 작시서언 세존 아등역당어타국토
向佛 하고 作是誓言 하되 世尊 이시여 我等亦當於他國土

광설차경 소이자하 시사파국중 인다
에서 廣說此經 하리다 所以者何 오 是娑婆國中에는 人多

폐악 회증상만 공덕천박 진탁침곡 심
弊惡 하고 懷增上慢 하여 功德淺薄 하며 瞋濁諂曲 하여 心

불실고
不實 故 니다

이시 불이모 마가파사파제비구니 여학무학
爾時에 佛姨母 摩訶波闍波提比丘尼는 與學無學

비구니륙천인구 종좌이기 일심합장 침
比丘尼六千人俱 하되 從座而起 하여 一心合掌 하고 瞻

앙존안 목불잠사 어시세존 고교담미
仰尊顏 하되 目不暫捨 거늘 於時世尊이 告憍曇彌 하시되

하고우색 이시여래 여심장무위아불설여명
何故憂色 으로 而視如來 오 汝心將無謂我不說汝名 하

수아녹다라삼막삼보제기야 교담미 아선총
여 授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 耶 아 憍曇彌 야 我先總

설일체성문 개이수기 금여욕지기자 장래
說一切聲聞 皆已授記 거늘 今汝欲知記者 하면 將來

지세 당어륙만팔천억제불법중 위대법사
之世에 當於六萬八千億諸佛法中 하여 爲大法師 하며

급륙천학무학비구니 구위법사 여여시점점구
及六千學無學比丘尼도俱爲法師라汝如是漸漸具

보살도 당득작불 호일체중생희견여래응
菩薩道하여當得作佛하리니號一切衆生喜見如來應

공정편지명행족선서세간해무상사조어장
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

부천인사불세존교담미시일체중생희견
夫天人師佛世尊이라憍曇彌야是一切衆生喜見

불급륙천보살전차수기득아녹다라삼막
佛과及六千菩薩도轉次授記하여得阿耨多羅三藐

삼보제
三菩提나라

이시라후라모야수타라비구니작시념세
爾時에羅睺羅母耶輸陀羅比丘尼는作是念하되世

존어수기중독불설아명불고야수타라
尊이於授記中에獨不說我名하니佛告耶輸陀羅하되

여어래세백천만억제불법중수보살행위대
汝於來世百千萬億諸佛法中에서修菩薩行하여爲大

법사점구불도어선국중당득작불호구
法師하며漸具佛道하여於善國中當得作佛하리니號具

족천만광상여래응공정편지명행족선서세간
足千萬光相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

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 존 불수무
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 이며 佛壽無

량아승기 겁
量阿僧祇劫 이나라

이시 마가파사파제비구니 급야수타라비구니
爾時에 摩訶波闍波提比丘尼와 及耶輸陀羅比丘尼

병기권속 개대환희 득미증유
와 并其眷屬은 皆大歡喜하고 得未曾有라

즉어불전 이설게언
卽於佛前에서 而說偈言 하되

세 존도사
世尊導師

안은천인
安隱天人 하시니

아등문기
我等聞記 하고

심안구족
心安具足 이니다

제비구니 설시게이 백불언 세 존 아등
諸比丘尼는 說是偈已하고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我等

역능어타방국토 광선차경
亦能於他方國土에서 廣宣此經 하리다

이시세 존 시팔십만억나유타 제보살마가살
爾時世尊이 視八十萬億那由他 諸菩薩摩訶薩 하시니

시제보살 개시아유월치 전불퇴법륜득제타라
是諸菩薩은 皆是阿惟越致로 轉不退法輪得諸陀羅

니 즉종좌기 지어불전 일심합장 이작
尼 即 從 座 起 하여 至 於 佛 前 하여 一 心 合 掌 하고 而 作

시념 약세존 고척아등 지설차경자 당여불
是 念 하되 若 世 尊 이 告 勅 我 等 持 說 此 經 者 면 當 如 佛

교광선사법 부작시념 불금묵연 불견고
教 廣 宣 斯 法 하리다 復 作 是 念 하되 佛 今 默 然 하여 不 見 告

칙 아당운하 시제보살 경순불의 병욕자
勅 하니 我 當 云 何 노 時 諸 菩 薩 이 敬 順 佛 意 하며 并 欲 自

만본원 변어불전 작사자후 이발서언
滿 本 願 하고 便 於 佛 前 에서 作 師 子 吼 하고 而 發 誓 言 하되

세존 아등어여래멸후 주선왕반십방세계
世 尊 이시여 我 等 於 如 來 滅 後 에 周 旋 往 返 十 方 世 界 하

능령중생 서사 차경 수지 독송 해설기의
여 能 令 衆 生 書 寫 此 經 하고 受 持 讀 誦 하며 解 說 其 義

여법수행 정억념 개시불지위력 유
하고 如 法 修 行 하여 正 憶 念 하리니 皆 是 佛 之 威 力 이니다 唯

원세존 재어타방 요견수호
願 世 尊 은 在 於 他 方 이라도 遙 見 守 護 하소서

즉시제보살 구동발성 이설게언
卽 時 諸 菩 薩 이 俱 同 發 聲 하여 而 說 偈 言 하되

유원불위려
唯 願 不 爲 慮 하소서

어불멸도후
於 佛 滅 度 後 에

공포악세중
恐怖惡世中에

아등당광설
我等當廣說하리다

유제무지인
有諸無智人이

악구매리등
惡口罵詈等하며

급가도장자
及加刀杖者라도

아등개당인
我等皆當忍하리다

악세중비구
惡世中比丘는

사지심침곡
邪智心諂曲하여

미득위위득
未得謂爲得하며

아만심충만
我慢心充滿이니라

혹유아련야
或有阿練若에서

남의재공한
納衣在空閑하여

자위행진도
自謂行眞道라하고

경천인간자
輕賤人間者하고

탐착리양고
貪著利養故로

여백의설법
與白衣說法하되

위세소공경
爲世所恭敬이

여륙통라한
如六通羅漢이리다

시인회악심
是人懷惡心하고

상념세속사
常念世俗事하며

가명아련야
假名阿練若로

호출아등과
好出我等過하고

이작여시언
而作如是言 하되

차제비구등
此諸比丘等 은

위탐리양고
爲貪利養故 로

설외도론의
說外道論義 하며

자작차경전
自作此經典 하여

광혹세간인
誑惑世間人 하며

위구명문고
爲求名聞故 로

분별어시경
分別於是經 이니라

상재대중중
常在大衆中 하여

욕훼아등고
欲毀我等故 로

향국왕대신
向國王大臣 과

파라문거사
婆羅門居士 와

급여비구중
及餘比丘衆 에

비방설아악
誹謗說我惡 하되

위시사견인
謂是邪見人 이니

설외도론의
說外道論義 하리다

아등경불고
我等敬佛故 로

실인시제악
悉忍是諸惡 하리다

위사소경언
爲斯所輕言 하되

여등개시불
汝等皆是佛 이라도

여차경만언
如此輕慢言 을

개당인수지
皆當忍受之 하리다

탁겁악세중
濁劫惡世中에는

다유제공포
多有諸恐怖하며

악귀입기신
惡鬼入其身하여

매리훼욕아
罵詈毀辱我라도

아등경신불
我等敬信佛하여

당착인욕개
當著忍辱鎧하리다

위설시경고
爲說是經故로

인차제난사
忍此諸難事하되

아불애신명
我不愛身命하고

단석무상도
但惜無上道하리다

아등어래세
我等於來世에

호지불소촉
護持佛所囑하리니

세존자당지
世尊自當知니이다

탁세악비구
濁世惡比丘는

불지불방편
不知佛方便으로

수의소설법
隨宜所說法하고

악구이빈촉
惡口而顰蹙하며

삭삭견빈출
數數見擯出하여

원리어탑사
遠離於塔寺라도

여시등중악
如是等衆惡을

념불고칙고
念佛告勅故로

개당인시사
皆當忍是事니이다

제취락성읍
諸聚落城邑에

기유구법자
其有求法者면

아개도기소
我皆到其所하여

설불소촉법
說佛所囑法하리다

아시세존사
我是世尊使라

처중무소외
處衆無所畏하여

아당선설법
我當善說法하리니

원불안은주
願佛安隱住하소서

아어세존전
我於世尊前과

제래십방불
諸來十方佛에

발여시서언
發如是誓言하오니

불자지아심
佛自知我心이니다

묘법련화경 지품 종
妙法蓮華經 持品 終

묘법련화경 권 제 사 종
妙法蓮華經 卷 第四 終

묘법蓮華經 권 제 오
妙法蓮華經 卷 第五

묘법蓮華經 안락행품 제 십 사
妙法蓮華經 安樂行品 第十四

이시 문수사리법왕자보살마가살 백불언 하되
爾時에 文殊師利法王子菩薩摩訶薩이 白佛言 하되

세존 시제보살 심위난유 경수불고 발
世尊이시여 時諸菩薩은 甚爲難有니다 敬順佛故로 發

대서원 어후악세 호지독설시법화경 세
大誓願하되 於後惡世에 護持讀說是法華經하리다 世

존 보살마가살 어후악세 운하능설시경
尊이시여 菩薩摩訶薩이 於後惡世에 云何能說是經 합니

불고문수사리 약보살마가살 어후악세
佛告文殊師利하시되 若菩薩摩訶薩이 於後惡世에

욕설시경 당안주사법 일자 안주보살행처
欲說是經하면 當安住四法이니 一者는 安住菩薩行處

급친근처 능위중생 연설시경
와 及親近處하여 能爲衆生하여 演說是經하라

문수사리 운하명 보살마가살행처 약보살마
文殊師利야 云何名 菩薩摩訶薩行處인가 若菩薩摩

가살 주인 욱지 유화선순 이불졸포 심
訶薩 이 住忍辱地 하여 柔和善順 하되 而 不 卒暴 하고 心

역불경 우부어법무소행 이관제법여실상
亦 不 驚 하며 又 復 於 法 無 所 行 하여 而 觀 諸 法 如 實 相 하

역불행불분별 시명보살마가살행처 운하
고 亦 不 行 不 分 別 이 是 名 菩 薩 摩 訶 薩 行 處 니라 云 何

명보살마가살친근처 보살마가살 불친근 국
名 菩 薩 摩 訶 薩 親 近 處 인가 菩 薩 摩 訶 薩 은 不 親 近 國

왕 왕자 대신 관장 불친근 제외도 범지 니
王 王 子 와 大 臣 官 長 하며 不 親 近 諸 外 道 梵 志 와 尼

건자등 급조세속문필 찬영외서 급로가야타
犍 子 等 과 及 造 世 俗 文 筆 과 讚 詠 外 書 와 及 路 伽 耶 陀

역로가야타자 역불친근 제유흥희 상차상
와 逆 路 伽 耶 陀 者 하며 亦 不 親 近 諸 有 兇 戲 와 相 扱 相

박 급나라등 중중변현지희 우불친근 전타
撲 과 及 那 羅 等 의 種 種 變 現 之 戲 하며 又 不 親 近 旃 陀

라 급축저양제구 전렵어포 제악률의 여시
羅 와 及 畜 猪 羊 雞 狗 와 畋 獵 漁 捕 의 諸 惡 律 儀 하라 如 是

인등 혹시래자 즉위설법 무소희망 우
人 等 이 或 時 來 者 거든 則 爲 說 法 하되 無 所 希 望 하며 又

불친근 구성문 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不 親 近 求 聲 聞 比 丘 比 丘 尼 優 婆 塞 優 婆 夷 하며

역불문신 약어방중 약경행처 약재강당중
亦不問訊 하며 若於房中 이나 若經行處 나 若在講堂中

불공주지 혹시래자 수의설법 무소희
하여 不共住止 하고 或時來者 거든 隨宜說法 하되 無所希

구 문수사리 우보살마가살 불응어녀인신
求 하라 文殊師利 야 又菩薩摩訶薩 은 不應於女人身에

취능생욕상상 이위설법 역불락견 약입
取能生欲想相 하여 而爲說法 하고 亦不樂見 하며 若入

타가 불여소녀 처녀 과녀 등공어 역부불
他家 라도 不與少女 處女 寡女 와 等共語 하며 亦復不

근오종불남지인 이위친후 불독입타가
近五種不男之人 하여 以爲親厚 하며 不獨入他家 하고

약유인연 수독입시 단일심념불 약위녀인
若有因緣 하여 須獨入時 는 但一心念佛 하라 若爲女人

설법 불로치소 불현흉억 내지위법
說法 이면 不露齒笑 하고 不現胸臆 하라 乃至爲法 하여도

유불친후 황부여사 불락축 년소제자 사
猶不親厚 하며 況復餘事 이라 不樂畜 年少弟子 와 沙

미소아 역불락여동사 상호좌선 재어한
彌小兒 하고 亦不樂與同師 하며 常好坐禪 하되 在於閑

처 수섭기심 문수사리 시명초친근처
處 하여 修攝其心 이니라 文殊師利 야 是名初親近處 니라

부차보살마가살 관일체법공여실상 불전도
復次菩薩摩訶薩이 觀一切法空如實相하여 不顛倒하

고 불동불퇴불전 여허공 무소유성 일체
고 不動不退不轉하며 如虛空하여 無所有性이라 一切

어언도단 불생불출불기 무명무상 실무
語言道斷하여 不生不出不起하며 無名無相하여 實無

소유 무량무변 무애무장 단이인연유
所有하고 無量無邊하며 無礙無障이건만 但以因緣有니

종전도생고 설상락 관여시법상 시명보
從顛倒生故로 說常樂이니 觀如是法相이니라 是名菩

살마가살 제이친근처
薩摩訶薩의 第二親近處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시되

약유보살
若有菩薩이

어후악세
於後惡世에

무포외심
無怖畏心으로

욕설시경
欲說 是經하면

응입행처
應入行處와

급친근처
及親近處니라

상리국왕
常離國王과

급국왕자
及國王王子와

대신관장
大臣官長과

흉험희자
兇險戲者와

금전타라
及梅陀羅와

외도범지
外道梵志하며

역불친근
亦不親近

증상만인
增上慢人과

탐착소승
貪著小乘하는

삼장학자
三藏學者하며

파제비구
破戒比丘와

명자라한
名字羅漢과

금비구니
及比丘尼

호희소자
好戲笑者와

심착오욕
深著五欲하여

구현멸도
求現滅度하는

제우파이
諸優婆夷를

개물친근
皆勿親近이니라

약시인등
若是人 등이

이호심래
以好心來

도보살소
到菩薩所하여

위문불도
爲聞佛道하면

보살즉이
菩薩則以

무소외심
無所畏心으로

불회희망
不懷希望 하고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라

과녀처녀
寡女處女 와

급제불남
及諸不男 을

개물친근
皆勿親近 하여

이위친후
以爲親厚 니라

역막친근
亦莫親近

도아괴회
屠兒魁膾 와

전렵어포
畋獵漁捕 와

위리살해
爲利殺害 니라

판육자활
販肉自活 하며

현매녀색
銜賣女色 하는

여시지인
如是之人 을

개물친근
皆勿親近 하며

흉험상박
兇險相撲 과

종종희희
種種嬉戲 와

제음녀등
諸姪女等 을

진물친근
盡勿親近 이니라

막독병처
莫獨屏處 에서

위녀설법
爲女說法 하고

약설법시
若說法時 에는

무득희소
無得戲笑 하며

입리걸식
入里乞食에는

장일비구
將一比丘니

약무비구
若無比丘면

일심념불
一心念佛하라

시즉명위
是則名爲

행처근처
行處近處나라

이차이처
以此二處로

능안락설
能安樂說이니라

우부불행
又復不行

상중하법
上中下法과

유위무위
有爲無爲와

실불실법
實不實法하며

역불분별
亦不分別

시남시녀
是男是女하며

불득제법
不得諸法하며

불지불견
不知不見하라

시즉명위
是則名爲

보살행처
菩薩行處나라

일체제법
一切諸法이

공무소유
空無所有이며

무유상주
無有常住하고

역무기멸
亦無起滅이니

시명지자
是名智者의

소친근처
所親近處나라

전도분별
顛倒分別

제법유무
諸法有無와

시실비실
是實非實

시생비생
是生非生이나라

재어한처
在於閑處하여

수섭기심
修攝其心하되

안주불동
安住不動이

여수미산
如須彌山하라

관일체법
觀一切法이

개무소유
皆無所有니

유여허공
猶如虛空하여

무유견고
無有堅固하며

불생불출
不生不出하고

불동불퇴
不動不退하며

상주일상
常住一相하라

시명근처
是名近處나라

약유비구
若有比丘가

어아멸후
於我滅後에

입시행처
入是行處

급친근처
及親近處하면

설사경시
說斯經時에

무유겁약
無有怯弱이니라

보살유시
菩薩有時

입어정실
入於靜室하여

이정억념
以正憶念으로

수의관법
隨義觀法하고

종선정기
從禪定起하여

위제국왕
爲諸國王과

왕자신민
王子臣民

파라문등
婆羅門等하여

개화연창
開化演暢하여

설사경전
說斯經典하면

기심안은
其心安隱하여

무유겁약
無有怯弱이니라

문수사리
文殊師利야

시명보살
是名菩薩이

안주초법
安住初法하여

능어후세
能於後世에

설법화경
說法華經이니라

우문수사리 여래멸후 어말법중 욕설시경
又文殊師利야 如來滅後 於末法中에 欲說是經하면

응주안락행 약구선설 약독경시 불락설
應住安樂行 하여 若口宣說 하고 若讀經時에 不樂說

인급경전과 역불경만 제여법사 불설타인
人及經典過 하라 亦不輕慢 諸餘法師 하며 不說他人

호악장단 어성무인역불칭명 설기과악
好惡長短 하라 於聲聞人亦不稱名 하여 說其過惡 하며

역불칭명 찬탄기미 우역불생원협지심
亦不稱名 하여 讚歎其美 하며 又亦不生怨嫌之心 하라

선수여시안락심 고제유청자불역기의 유소
善修如是安樂心 이면 故諸有聽者不逆其意 하며 有所

난문 불이소승법답 단이대승 이위해설
難問 하면 不以小乘法答 하고 但以大乘으로 而爲解說 하

령득일체종지
여 令得一切種智 나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보살상락
菩薩常樂

안은설법
安隱說法 하되

어청정지
於清淨地에

이시상좌
而時牀座 하며

이유도신
以油塗身 하여

조욕진예
澡浴塵穢 하고

착신정의
著新淨衣 하여

내외구정
內外俱淨 하고

안처법좌
安處法座 하여

수문위설
隨問爲說 하라

약유비구
若有比丘

급비구니
及比丘尼 와

제우파새
諸優婆塞

급우파이
及優婆夷 와

국왕왕자
國王王子

구신사민
群臣士民 이면

이미묘의
以微妙義로

화안위설
和顏爲說 하라

약유난문
若有難問 이면

수의이답
隨義而答 하되

인연비유
因緣譬喩로

부연분별
敷演分別 하여

이시방편
以是方便으로

개사발심
皆使發心 하고

점점증익
漸漸增益 하여

입어불도
入於佛道 나라

제뢰타의
除懶惰意

급해태상
及懈怠想 하고

리제우뇌
離諸憂惱하여

자심설법
慈心說法하되

주야상설
晝夜常說

무상도교
無上道教하되

이제인연
以諸因緣과

무량비유
無量譬喻

개시중생
開示衆生하여

함령환희
咸令歡喜하고

의복와구
衣服臥具와

음식의약
飮食醫藥을

이어기중
而於其中에

무소희망
無所希望하랴

단일심념
但一心念으로

설법인연
說法因緣하되

원성불도
願成佛道하고

령중역이
令衆亦爾하면

시즉대리
是則大利며

안락공양
安樂供養이니라

아멸도후
我滅度後에

약유비구
若有比丘가

능연설사
能演說斯

묘법화경
妙法華經하면

심 무질에
心 無 嫉 恚 와

제 뇌 장애
諸 惱 障 礙 하며

역 무우수
亦 無 憂 愁 와

급 매 리 자
及 罵 詈 者 리라

우 무포외
又 無 怖 畏 와

가 도 장 등
加 刀 杖 等 하며

역 무빈출
亦 無 擯 出 은

안 주 인 고
安 住 忍 故 나라

지 자 여 시
智 者 如 是

선 수 기 심
善 修 其 心 하면

능 주 안 락
能 住 安 樂 이

여 아 상 설
如 我 上 說 하여

기 인 공 덕
其 人 功 德 은

천 만 억 겁
千 萬 億 劫 에

산 수 비 유
算 數 譬 喻 로

설 불 능 진
說 不 能 盡 이니라

우 문 수 사 리 보 살 마 가 살 어 후 말 세 법 욕 멸 시
又 文 殊 師 利 야 菩 薩 摩 訶 薩 이 於 後 末 世 法 欲 滅 時 에

수 지 독 송 사 경 전 자 무 회 질 투 첨 광 지 심 역
受 持 讀 誦 斯 經 典 者 는 無 懷 嫉 妬 諂 誑 之 心 하고 亦

물 경 매 학 불 도 자 구 기 장 단 약 비 구 비 구 니
勿 輕 罵 學 佛 道 者 하여 求 其 長 短 하라 若 比 丘 比 丘 尼

우파새 우파이 구성문자 구벽지불자 구보
와 優婆塞 優婆夷의 求聲聞者와 求辟支佛者와 求菩

살도자 무득뇌지 령기의회 어기인언
薩道者를 無得惱之하여 令其疑悔하여 語其人言하되

여등 거도심원 종불능득일체종지 소이자
汝等은 去道甚遠하여 終不能得一切種智라 所以者

하 여시방일지인 어도해태고 우역불응희
何오 汝是放逸之人이라 於道懈怠故하며 又亦不應戲

론제법 유소쟁경 당어일체중생 기대비상
論諸法하여 有所諍競하라 當於一切衆生에 起大悲想

어제여래기자부상 어제보살기대사상
하고 於諸如來起慈父想하고 於諸菩薩起大師想하여

어십방제대보살 상응심심공경례배 어일체
於十方諸大菩薩에 常應深心恭敬禮拜하며 於一切

중생 평등설법 이순법고 불다불소 내지
衆生에 平等說法하되 以順法故로 不多不少하며 乃至

심애법자 역불위다설 문수사리 시보살마
深愛法者라도 亦不爲多說하라 文殊師利야 是菩薩摩

가살 어후말세법욕멸시 유성취시 제삼안락
訶薩이 於後末世法欲滅時에 有成就 是第三安樂

행자 설시법시 무능뇌란 득호동학 공독
行者는 說是法時에 無能惱亂하며 得好同學하여 共讀

송시경 역득대중이래청수 청이능지 지
誦是經 하며 亦得大衆而來聽受 하며 聽已能持 하고 持

이능송 송이능설 설이능서 약사인서
已能誦 하며 誦已能說 하고 說已能書 하며 若使人書 하여

공양경권 공경존중찬탄
供養經卷 하고 恭敬尊重讚歎 하리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약욕설시경
若欲說是經 하면

당사질에만
當捨嫉恚慢 과

침광사위심
諂誑邪僞心 하고

상수질직행
常修質直行 하며

불경멸어인
不輕蔑於人 하며

역불희론법
亦不戲論法 하라

불령타의회
不令他疑悔 하되

운여불득불
云汝不得佛 하라

시불자설법
是佛子說法 하면

상유화능인
常柔和能忍 하고

자비어일체
慈悲於一切 하여

불생해태심
不生懈怠心 이니라

십방대보살
十方大菩薩 이

민증고행도
愍衆故行道 하니

응생공경심
應生恭敬心 하여

시즉아대사
是則我大師 라하라

어제불세존
於諸佛世尊 을

생무상부상
生無上父想 하여

파어교만심
破於憍慢心 하고

설법무장애
說法無障礙 하라

제삼법여시
第三法如是 라

지자응수호
智者應守護 하여

일심안락행
一心安樂行

무량중소경
無量衆所敬 이니라

우문수사리 보살마가살 어후말세법욕멸시
又文殊師利야菩薩摩訶薩이 於後末世法欲滅時에

유지시법화경자 어재가출가인중 생대자심
有持是法華經者면 於在家出家人中에 生大慈心 하고

어비보살인중 생대비심 응작시념 여시지
於非菩薩人中도 生大悲心 하여 應作是念 하되 如是之

인 즉위대실 여래방편 수의설법 불문불
人은 則爲大失이라 如來方便으로 隨宜說法을 不聞不

지 불각불문 불신불해 기인수불문불신
知 하며 不覺不問 하며 不信不解 로다 其人雖不問不信 하

불해시경 아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시 수
며 不解是經 하나 我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에 隨

재하지 이신통력지혜력 인지 령득주시
在何地라도以神通力智慧力으로引之하여令得住是

법중 문수사리 시보살마가살 어여래멸후
法中하라文殊師利야是菩薩摩訶薩이於如來滅後에

유성취차제사법자 설시법시 무유과실 상
有成就此第四法者는說是法時에無有過失이니라常

위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국왕 왕자 대신
爲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國王王子大臣

인민 파라문 거사등 공양공경 존중찬탄
人民婆羅門居士等이供養恭敬하며尊重讚歎하고

허공제천 위청법고 역상수시 약재취락성
虛空諸天이爲聽法故로亦常隨侍하리라若在聚落城

읍 공한림중 유인래욕난문자 제천주야상
邑과空閑林中하여有人來欲難問者라도諸天晝夜常

위법고 이위호지 능령청자개득환희 소이
爲法故로而衛護之하여能令聽者皆得歡喜니라所以

자하 차경 시일체과거미래현재제불 신력소
者何오此經은是一切過去未來現在諸佛이神力所

호고
護故니라

문수사리 시법화경 어무량국중 내지명자
文殊師利야是法華經은於無量國中에乃至名字도

불가득문 하황득견 수지 독송 문수사리
不可得聞_{인데} 何況得見 受持 讀誦_{이라} 文殊師利_야

비여강력전륜성왕 욕이위세 항복제국 이
譬如強力轉輪聖王_이 欲以威勢_로 降伏諸國_{하되} 而

제소왕 불순기명 시전륜왕 기종종병 이
諸小王_이 不順其命_{이면} 時轉輪王_이 起種種兵_{하여} 而

왕토벌 왕견병중 전유공자 즉대환희
往討伐_{하되} 王見兵衆_에 戰有功者_{하고} 卽大歡喜_{하여}

수공상사 혹여전택취락성읍 혹여의복엄신
隨功賞賜_{하되} 或與田宅聚落城邑_{하며} 或與衣服嚴身

지구 혹여종종진보금은 류리 차거 마노 산
之具_{하고} 或與種種珍寶 金銀 琉璃 硨磲 碼瑙 珊

호 호박 상마거승 노비 인민 유제중명주 불
瑚 琥珀 象馬車乘 奴婢 人民_{하되} 唯髻中明珠_는 不

이여지 소이자하 독왕정상 유차일주 약
以與之_{나라} 所以者何_오 獨王頂上_에 有此一珠_{하니} 若

이여지 왕제권속 필대경괴 문수사리 여래
以與之_면 王諸眷屬_이 必大驚怪_{나라} 文殊師利_야 如來

역부여시 이선정지혜력 득법국토 왕어
亦復如是_{하여} 以禪定智慧力_{으로} 得法國土_{하니} 王於

삼제 이제마왕 불응순복 여래현성제장 여
三界_라 而諸魔王_이 不肯順伏_{이면} 如來賢聖諸將_이 與

지공전 기유공자 심역환희 어사중중 위
之共戰 하되 其有功者 를 心亦歡喜 하여 於四衆中에 爲

설제경 령기심열 사이선정 해탈 무루근력
說諸經 하여 令其心悅 하고 賜以禪定 解脫 無漏根力

제법지재 우부사여닐반지성 언득멸도
諸法之財 하며 又復賜與涅槃之城 하고 言得滅度 라하여

인도기심 령개환희 이불위설시법화경
引導其心 하여 令皆歡喜 하되 而不爲說 是法華經 이니라

문수사리 여전륜왕 견제병중유대공자 심
文殊師利야 如轉輪王이 見諸兵衆有大功者 하고 心

심환희 이차난신지주 구재제중 불망여인
甚歡喜 하여 以此難信之珠를 久在髻中 하고 不妄與人

이금여지 여래역부여시 어삼제중위대
타가 而今與之 하니 如來亦復如是 하여 於三界中爲大

법왕 이법교화일체중생 견현성군 여오음
法王 하여 以法教化一切衆生 이라 見賢聖軍이 與五陰

마번뇌마사마공전 유대공훈 멸삼독 출
魔煩惱魔死魔 共戰 하여 有大功勳 하여 滅三毒 하고 出

삼제 파마망 이시 여래역대환희 차법
三界 하여 破魔網 하고 爾時에 如來亦大歡喜 니라 此法

화경 능령중생지일체지 일체세간 다원난
華經이 能令衆生至一切智 하되 一切世間에 多怨難

신 선 소미 설 이 금 설 지 문수사리 차법
信 하여 先所未說 을 而 今說 之 하나라 文殊師利야 此法

화경 시제여래제일지설 어제설중 최위심
華經 은 是 諸 如來 第一 之 說 이라 於 諸 說 中 에 最 爲 甚

심 말후사여 여피강력지왕 구호명주 금
深 하여 末後 賜與 하니 如彼 強力 之 王 이 久護 明珠 를 今

내여지 문수사리 차법화경 제불여래비밀
乃 與 之 나라 文殊師利야 此法 華經 은 諸佛 如來 秘密

지장 어제경중 최재기상 장야수호 불
之 藏 이라 於 諸 經 中 에 最 在 其 上 하니 長夜 守護 하여 不

망선설 시어금일 내여여등 이부연지
妄宣說 타가 始 於 今 日 에야 乃 與 汝 等 하여 而 敷演 之 나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 에 世尊 이 欲重宣 此義 하여 而 說偈言 하시되

상행인욕
常行忍辱 하고

애민일체
哀愍一切 하여

내능연설
乃能演說

불소찬경
佛所讚經 하라

후말세시
後末世時 에

지차경자
持此經者 는

어가출가
於家出家

금비보살
及非菩薩 이나

응생자비
應生慈悲 나라

사등불문
斯等不聞 하고

불신시경
不信是經 이면

즉위대실
則爲大失 이라

아득불도
我得佛道 하여

이제방편
以諸方便 으로

위설차법
爲說此法 하여

령주기중
令住其中 하나라

비여강력
譬如強力

전륜지왕
轉輪之王 이

병전유공
兵戰有功 에게

상사제물
賞賜諸物 하되

상마거승
象馬車乘

엄신지구
嚴身之具 와

급제전택
及諸田宅 과

취락성읍
聚落城邑 이며

혹여의복
或與衣服

종종진보
種種珍寶 와

노비재물
奴婢財物 을

환희사여
歡喜賜與 하며

여유용건
如有勇健 하여

능위난사
能爲難事 면

왕해제중
王解髻中 하여

명주사지
明珠賜之

여래역이
如來亦爾 하여

위제법왕
爲諸法王 이니

인욕대력
忍辱大力

지혜보장
智慧寶藏 이라

이대자비
以大慈悲 로

여법화세
如法化世 하니라

견일체인
見一切人 이

수제고뇌
受諸苦惱 하고

욕구해탈
欲求解脫 하여

여제마전
與諸魔戰 하고

위시중생
爲是衆生 하여

설종종법
說種種法 하되

이대방편
以大方便 으로

설차제경
說此諸經 하며

기지중생
既知衆生

득기력이
得其力已 하고

말후내위
末後乃爲

설시법화
說是法華 하니

여왕해제
如王解髻

명주여지
明珠與之 니라

차경위존
此經爲尊 하여

중경중상
衆經中上 이니

아상수호
我常守護 하여

불망개시
不妄開示 나

금정시시
今正是時 라

위여등설
爲汝等說 하노라

아멸도후
我滅度後 에

구불도자
求佛道者

욕득안은
欲得安隱 하여

연설사경
演說斯經 이면

응당친근
應當親近

여시사법
如是四法 이니라

독시경자
讀是經者 는

상무우뇌
常無憂惱 하며

우무병통
又無病通 하여

안색선백
顔色鮮白 하리라

불생빈궁
不生貧窮

비천추루
卑賤醜陋 하고

중생락견
衆生樂見 하되

여모현성
如慕賢聖 하며

천제동자
天諸童子 가

이위급사
以爲給使 하리라

도장불가
刀杖不加 하고

독불능해
毒不能害 하며

약인악매
若人惡罵 하면

구즉폐색
口則閉塞 하리라

유행무외
遊行無畏 하되

여사자왕
如師子王 하고

지혜광명
智慧光明 은

여일지조
如日之照 나라

약어몽중
若於夢中 에

단견묘사
但見妙事 하되

견제여래
見諸如來

좌사자좌
坐師子座 하시고

제비구중
諸比丘衆 이

위요설법
圍繞說法 하며

우견룡신
又見龍神

아수라등
阿修羅等 이

수여항사
數如恒沙

공경합장
恭敬合掌 하고

자견기신
自見其身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우견제불
又見諸佛 이

신상금색
身相金色 으로

방무량광
放無量光 하여

조어일체
照於一切 하며

이범음성
以梵音聲 으로

연설제법
演說諸法 이라

불위사중
佛爲四衆 하여

설무상법
說無上法 하되

견신처중
見身處中 하여

합장찬불
合掌讚佛 하며

무법환희
聞法歡喜 하여

이위공양
而爲供養 하며

득타라니
得陀羅尼 하여

증불퇴지
證不退智 하니

불지기심
佛知其心 이

심입불도
深入佛道 하고

즉위수기
卽爲授記

성최정각
成最正覺 하되

여선남자
汝善男子 는

당어래세
當於來世 에서

득무량지
得無量智 의

불지대도
佛之大道 하여

국토엄정
國土嚴淨 하고

광대무비
廣大無比 하며

역유사중
亦有四衆이

합장청법
合掌聽法하리라

우견자신
又見自身이

재산림중
在山林中하여

수습선법
修習善法하고

증제실상
證諸實相하며

심입선정
深入禪定하여

견십방불
見十方佛하리라

제불신금색
諸佛身金色이요

백복상장엄
百福相莊嚴이며

문법위인설
聞法爲人說하는

상유시호몽
常有是好夢이니라

우몽작국왕
又夢作國王하여

사궁전권속
捨宮殿眷屬과

급상묘오욕
及上妙五欲하고

행예어도장
行詣於道場하여

재보제수하
在菩提樹下하여

이처사자좌
而處師子座하여

구도과칠일
求道過七日하고

득제불지지
得諸佛之智하여

성무상도이
成無上道已하고

기이전법륜
起而轉法輪하되

위사중설법
爲四衆說法이

경천만억겁
經千萬億劫토록

설무루묘법
說無漏妙法하여

도무량중생
度無量衆生하고

후당입넬반
後當入涅槃하되

여연진등멸
如煙盡燈滅이니라

약후악세중
若後惡世中에

설시제일법
說是第一法하면

시인득대리
是人得大利는

여상제공덕
如上諸功德이니라

묘법련화경 안락행품 종
妙法蓮華經 安樂行品 終

묘법련화경 중지응출품 제십오
妙法蓮華經 從地涌出品 第十五

이시 타방국토제래보살마가살 과팔항하사수
爾時에 他方國土諸來菩薩摩訶薩이 過八恒河沙數

어대중중기 합장작례 이백불언 세존
라 於大衆中起하여 合掌作禮하고 而白佛言하되 世尊이

약청아등 어불멸후 재차사파세계 근가
시여 若聽我等이 於佛滅後에 在此娑婆世界하여 勤加

정진 호지 독송서사 공양 시경전자 당어차
精進하고 護持 讀誦書寫 供養 是經典者면 當於此

토 이광설지
土에서 而廣說之하리다

이시 불고제보살마가살중 지선남자 불수
爾時에 佛告諸菩薩摩訶薩衆하시되 止善男子야 不須

여등호지차경 소이자하 아사파세계 자유
汝等護持此經이라 所以者何오 我娑婆世界에 自有

륙만항하사등 보살마가살 일일보살 각유륙
六萬恒河沙等 菩薩摩訶薩하고 一一菩薩이 各有六

만항하사권속 시제인등 능어아멸후 호지
萬恒河沙眷屬하니 是諸人等이 能於我滅後에 護持

독송광설차경 불설시시 사파세계 삼천대
讀誦廣說此經이니라 佛說是時에 娑婆世界 三千大

천국토 지개진렬 이어기중 유무량천만억
千國土는地皆震裂하고而於其中에서有無量千萬億

보살마가살 동시응출 시제보살 신개금색
菩薩摩訶薩이同時涌出이라 是諸菩薩은身皆金色에

삼십이상 무량광명 선진재차사파세제지하
三十二相이며無量光明이라 先盡在此娑婆世界之下

차제허공중주 시제보살 문석가모니불소설
此界虛空中住하니 是諸菩薩은 聞釋迦牟尼佛所說

음성 종하발래 일일보살 개시대중창도지
音聲하고從下發來라 一一菩薩이皆是大眾唱導之

수 각장륙만항하사권속 황장오만사만삼만
首라各將六萬恒河沙眷屬하니 況將五萬四萬三萬

이만일만 항하사등권속자 황부내지 일항하
二萬一萬과 恒河沙等眷屬者이라 況復乃至一恒河

사 반항하사 사분지일 내지천만억나유타분
沙와半恒河沙와四分之一과 乃至千萬億那由他分

지일 황부천만억나유타권속 황부억만권속
之一이며 況復千萬億那由他眷屬이며 況復億萬眷屬

황부천만백만내지일만 황부일천일백내지
이라 況復千萬百萬乃至一萬이라 況復一千一百乃至

일십 황부장오사삼이일제자자 황부단기락
一十이며 況復將五四三二一弟子者이라 況復單己樂

원리행 여시등비 무량무변 산수비유 소
遠離行 하니 如是等比는 無量無邊 하여 算數譬喩로 所

불능지 시제보살 종지출이 각예허공칠보
不能知 나라 是諸菩薩이 從地出已 하여 各詣虛空七寶

묘탑다보여래 석가모니불소도이 향이세존
妙塔多寶如來 釋迦牟尼佛所到已 하여 向二世尊 하여

두면례족 급지제보수하 사자좌상불소 역
頭面禮足 하며 及至諸寶樹下 師子座上佛所 하여 亦

개작례 우요삼잡 합장공경 이제보살종
皆作禮 하고 右繞三帀 하며 合掌恭敬 이라 以諸菩薩種

종찬법 이이찬탄 주재일면 후락첨앙어
種讚法 으로 而以讚歎 하고 住在一面 하여 欣樂瞻仰於

이세존 시제보살마가살 종초응출 이제보
二世尊 이라 是諸菩薩摩訶薩이 從初涌出 하여 以諸菩

살 종종찬법 이찬어불 여시시간 경오십
薩의 種種讚法 으로 而讚於佛 하되 如是時間이 經五十

소겁 시시석가모니불 묵연이좌 급제사중
小劫 이라 是時釋迦牟尼佛이 默然而坐 하고 及諸四衆

역개묵연 오십소겁 불신력고 령제대중
도 亦皆默然이 五十小劫이로되 佛神力故로 令諸大衆

위여반일
이 謂如半日 하십이라

이시 사중 역이 불신력고 전제보살 편만무
爾時에 四衆이 亦以佛神力故로 見諸菩薩이 徧滿無

량백천만억국토허공 시보살중중 유사도사
量百千萬億國土虛空이라 是菩薩衆中에 有四導師하

일명상행 이명무변행 삼명정행 사명
니 一名上行이요 二名無邊行이요 三名淨行이요 四名

안립행 시사보살 어기중중 최위상수창도
安立行이라 是四菩薩이 於其衆中에 最爲上首唱導

지사 재대중전 각공합장 관석가모니불
之師라 在大衆前하여 各共合掌하고 觀釋迦牟尼佛하여

이무신언 세존 소병소뇌 안락행부
而問訊言하되 世尊이시여 少病少惱 安樂行不하시니까

소응도자 수교이부 불령세존생피로야
所應度者는 受教易不잇까 不令世尊生疲勞耶니까

이시 사대보살 이설게언
爾時에 四大菩薩이 而說偈言하되

세존안락
世尊安樂하여

소병소뇌
少病少惱하시며

교화중생
教化衆生에

득무피권
得無疲倦하시며

우제중생
又諸衆生은

수화이부
受化易不잇까

불령세존
不令世尊으로

생피로야
生疲勞耶니까

이시 세존 어제보살대중중 이작시언
爾時에 世尊이 於諸菩薩大衆中에서 而作是言 하시되

여시여시 제선남자 여래안락 소병소뇌
如是如是니라 諸善男子야 如來安樂하여 少病少惱하며

제중생등 이가화도 무유피로 소이자하 시
諸衆生等도 易可化度니 無有疲勞니라 所以者何오 是

제중생 세세이래 상수아화 역어과거제불
諸衆生은 世世已來로 常受我化하며 亦於過去諸佛을

공경존중 종제선근 차제중생 시견아신
恭敬尊重하고 種諸善根이니라 此諸衆生이 始見我身하

문아소설 즉개신수 입여래혜 제선수
고 聞我所說하고 卽皆信受하여 入如來慧하니 除先修

습학소승자 여시지인 아금역령득문시경
習學小乘者라 如是之人을 我今亦令得聞是經하여

입어불혜
入於佛慧니라

이시 제대보살 이설게언
爾時에 諸大菩薩이 而說偈言 하되

선재선재
善哉善哉니다

대웅세존
大雄世尊이시여

제중생등을
諸衆生等을

이가화도
易可化度시니

능문제불
能問諸佛의

심심지혜
甚深智慧하여

무이신행
聞已信行하니

아등수희
我等隨喜니다

어시세존 찬탄상수제대보살 선재선재 선
於時世尊이讚歎上首諸大菩薩하시되 善哉善哉라 善

남자 여등능어여래 발수희심
男子야汝等能於如來發隨喜心고

이시 미륵보살 급팔천항하사제보살중 개작
爾時彌勒菩薩과及八千恒河沙諸菩薩衆이皆作

시념 아등 종석이래 불견불문여시대보살
是念하되我等이從昔已來로不見不聞如是大菩薩

마가살중 종지용출 주세존전 합장공양
摩訶薩衆이從地涌出하여住世尊前하며合掌供養하고

문신여래 시미륵보살마가살 지팔천항하사
問訊如來하니라時彌勒菩薩摩訶薩이知八千恒河沙

제보살등 심지소념 병욕자결소의 합장향
諸菩薩等의心之所念하고并欲自決所疑하여合掌向

불 이게문왈
佛하여以偈問曰하되

무량천만억
無量千萬億

대중제보살
大衆諸菩薩은

석소미증견
昔所未曾見이니다

원량족존설
願兩足尊說하소서

시종하소래
是從何所來며

이하인연집
以何因緣集이니까

거신대신통
巨身大神通이며

지혜파사의
智慧叵思議라

기지념전고
其志念堅固하고

유대인욕력
有大忍辱力하여

중생소락견
衆生所樂見이니

위종하소래
爲從何所來니까

일일제보살
一一諸菩薩이

소장제권속
所將諸眷屬은

기수무유량
其數無有量하여

여항하사등
如恒河沙等이니다

혹유대보살
或有大菩薩은

장륙만항사
將六萬恒沙이며

여시제대중
如是諸大衆이

일심구불도
一心求佛道하여

시제대사등
是諸大師等

륙만항하사
六萬恒河沙이

구래공양불
俱來供養佛 하며

급호지시경
及護持是經 이니다

장오만항사
將五萬恒沙 하되

기수과어시
其數過於是 하며

사만급삼만
四萬及三萬 과

이만지일만
二萬至一萬 하고

일천일백등
一千一百等 으로

내지일항사
乃至一恒沙 며

반급삼사분
半及三四分 과

억만분지일
億萬分之一 이며

천만나유타
千萬那由他 의

만억제제자
萬億諸弟子 가

내지어반억
乃至於半億 이니

기수부과상
其數復過上 이라

백만지일만
百萬至一萬 하며

일천급일백
一千及一百 과

오십여일십
五十與一十 으로

내지삼이일
乃至三二一 이며

단기무권속
單己無眷屬 으로

요어독처자
樂於獨處者 가

구래지불소
俱來至佛所 하니

기수전과상
其數轉過上 이니다

여시제대중
如是諸大衆을

약인행주수
若人行籌數하되

과어항사겁
過於恒沙劫이라도

유불능진지
猶不能盡知니이다

시제대위덕
是諸大威德

정진보살중
精進菩薩衆을

수위기설법
誰爲其說法하여

교화이성취
教化而成就하며

종수초발심
從誰初發心하여

칭양하불법
稱揚何佛法이며

수지행수경
受持行誰經하고

수습하불도
修習何佛道니까

여시제보살
如是諸菩薩이

신통대지력
神通大智力으로

사방지진렬
四方地震裂하고

개종중응출
皆從中涌出하니

세존아석래
世尊我昔來로

미증견시사
未曾見是事니다

원설기소종
願說其所從

극토지명호
國土之名號하소서

아상유제국
我常遊諸國하되

미증견시중
未曾見是衆하며

아어차중중
我於此衆中에

내불식일인
乃不識一人이니다

홀연종지출
忽然從地出하니

원설기인연
願說其因緣하소서

금차지대회
今此之大會의

무량백천억
無量百千億

시제보살등
是諸菩薩等이

개욕지차사
皆欲知此事하오니

시제보살중
是諸菩薩衆의

본말지인연
本末之因緣을

무량덕세존
無量德世尊이시여

유원결중의
惟願決衆疑하소서

이시 석가모니분신제불 종무량천만억 타방
爾時에 釋迦牟尼分身諸佛이 從無量千萬億 他方

극토래자 재어팔방제보수하 사자좌상 결
國土來者하여 在於八方諸寶樹下 師子座上하여 結

가부좌 기불시자 각각견시보살대중 어삼
跏趺坐하시니 其佛侍者도 各各見是菩薩大衆이 於三

천대천세계사방 중지응출 주어허공 각
千大千世界四方에서 從地涌出하여 住於虛空하고 各

백기불언 세존 차제무량무변 아승기보살
白其佛言하되 世尊이시여 此諸無量無邊 阿僧祇菩薩

대중종하소래
大衆은從何所來니까

이시 제불 각고시자 제선남자 차대수유
爾時에諸佛이各告侍者하시되諸善男子야且待須臾

유보살마가살 명왈미륵 석가모니불지
하라有菩薩摩訶薩하니名曰彌勒이며釋迦牟尼佛之

소수기 차후작불 이문사사 불금답지
所授記니次後作佛하리라已問斯事하니佛今答之하시

여등자당인시득문
리니汝等自當因是得聞이니라

이시 석가모니불 고미륵보살 선재선재
爾時에釋迦牟尼佛이告彌勒菩薩하시되善哉善哉라

아일다 내능문불여시대사 여등당공일심
阿逸多야乃能問佛如是大事하고汝等當共一心으로

피정진개 발견고의 여래금욕현발선시제불
被精進鎧하고發堅固意하라如來今欲顯發宣示諸佛

지혜 제불자재신통지력 제불사자분신지력
智慧와諸佛自在神通之力과諸佛師子奮迅之力과

제불위맹대세지력
諸佛威猛大勢之力하노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世尊이欲重宣此義하여而說偈言하시되

당정진일심
當精進一心 하라

아욕설차사
我欲說此事 하니

물득유의회
勿得有疑悔 하라

불지파사의
佛智叵思議 나라

여금출신력
汝今出信力 하여

주어인선중
住於忍善中 하면

석소미문법
昔所未聞法 을

금개당득문
今皆當得聞 하리라

아금안위여
我今安慰汝 하니

물득회의구
勿得懷疑懼 라

불무불실어
佛無不實語 하며

지혜불가량
智慧不可量 이라

소득제일법
所得第一法 은

심심파분별
甚深叵分別 이나라

여시금당설
如是今當說 하니

여등일심청
汝等一心聽 하라

이시 세존 설차게이 고미륵보살 아금
爾時에世尊이說此偈已 하시고 告彌勒菩薩 하시되 我今

어차대중 선고여등 아일다 시제대보살마
於此大衆에 宣告汝等 하노라 阿逸多야 是諸大菩薩摩

가살 무량무수아승기 중지용출 여등석소미견
訶薩無量無數阿僧祇의 從地涌出은 汝等昔所未見

자 아어시사파세계 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者 니라 我 於 是 娑 婆 世 界 에 서 得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이 교화시도시제보살 조복기심 령발도
已 하고 敎 化 示 導 是 諸 菩 薩 하 여 調 伏 其 心 하 며 令 發 道

의 차제보살 개어시사파세계지하 차제허
意 니라 此 諸 菩 薩 은 皆 於 是 娑 婆 世 界 之 下 의 此 界 虛

공중주 어제경전독송통리 사유분별정억념
空 中 住 하고 於 諸 經 典 讀 誦 通 利 하 여 思 惟 分 別 正 憶 念

아니라

아일다 시제선남자등 불락재중다유소설
阿 逸 多 야 是 諸 善 男 子 等 은 不 樂 在 衆 多 有 所 說 하고

상락정처 근행정진 미증휴식 역불의지
常 樂 靜 處 하 며 勤 行 精 進 하 되 未 曾 休 息 하 며 亦 不 依 止

인천이주 상락심지 무유장애 역상락어
人 天 而 住 하고 常 樂 深 智 하 여 無 有 障 礙 니라 亦 常 樂 於

제불지법 일심정진 구무상혜
諸 佛 之 法 하 며 一 心 精 進 하 여 求 無 上 慧 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 時 에 世 尊 이 欲 重 宣 此 義 하 여 而 說 偈 言 하시되

아일여당지
阿 逸 汝 當 知 하라

시제대보살
是 諸 大 菩 薩 은

종무수겁래
從無數劫來로

수습불지혜
修習佛智慧나라

실시아소화
悉是我所化로

령발대도심
令發大道心이나라

차등시아자
此等是我子라

의지시세계
依止是世界하여

상행두타사
常行頭陀事하고

지락어정처
志樂於靜處하여

사대중궤노
捨大衆憤鬧하고

불락다소설
不樂多所說이나라

여시제자등
如是諸子等은

학습아도법
學習我道法하고

주야상정진
晝夜常精進하여

위구불도고
爲求佛道故로

재사파세계
在娑婆世界의

하방공중주
下方空中住나라

지념력견고
志念力堅固하여

상근구지혜
常勤求智慧하며

설종종묘법
說種種妙法하되

기심무소외
其心無所畏나라

아어가야성
我於伽耶城

보제수하좌
菩提樹下坐하여

득성최정각
得成最正覺 하고

전무상법륜
轉無上法輪 하여

이내교화지
爾乃敎化之 하고

령초발도심
令初發道心 하니라

금개주불퇴
今皆住不退 하고

실당득성불
悉當得成佛 이니라

아금설실어
我今說實語 하니

여등일심신
汝等一心信 하라

아종구원래
我從久遠來 로

교화시등중
敎化是等衆 이니라

이시 미륵보살마가살 급무수제보살등 심생의
爾時에 彌勒菩薩摩訶薩 及無數諸菩薩等 이 心生疑

혹 괴미증유 이작시념 운하세존 어소시
惑 하되 怪未曾有 라 而作是念 하니 云何世尊 이 於少時

간 교화여시 무량무변아승기 제대보살 령
間에 敎化如是 無量無邊阿僧祇 諸大菩薩 하여 令

주아녹다라삼막삼보제 즉백불언 세존
住阿耨多羅三藐三菩提 까 卽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여래위태자시 출어석궁 거가야성불원 좌
如來爲太子時에 出於釋宮 하여 去伽耶城不遠에 坐

어도장 득성아녹다라삼막삼보제 종시이
於道場 하여 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시고 從是已

래 시과사십여년 세 존운하어차소시 대작
來 始 過 四 十 餘 年 이거늘 世 尊 云 何 於 此 少 時 에 大 作

불사 이불세력 이불공덕 교화여시무량대
佛 事 니까 以 佛 勢 力 과 以 佛 功 德 으로 教 化 如 是 無 量 大

보살중 당성아녹다라삼막삼보제 세 존
菩 薩 衆 하여 當 成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니까 世 尊 이시여

차대보살중 가사유인 어천만억겁 수불능진
此 大 菩 薩 衆 을 假 使 有 人 이 於 千 萬 億 劫 에 數 不 能 盡

불득기변 사등구원이래 어무량무변제
이며 不 得 其 邊 이니다 斯 等 久 遠 已 來 로 於 無 量 無 邊 諸

불소 식제선근 성취보살도 상수범행
佛 所 에서 植 諸 善 根 하여 成 就 菩 薩 道 하고자 常 修 梵 行 이

세 존 여차지사 세소난신
니다 世 尊 이시여 如 此 之 事 는 世 所 難 信 이니다

비여유인 색미발흑 년이십오 지백세인
譬 如 有 人 이 色 美 髮 黑 하고 年 二 十 五 가 指 百 歲 人 하며

언시아자 기백세인 역지년소 언시아부
言 是 我 子 하고 其 百 歲 人 도 亦 指 年 少 하여 言 是 我 父 라

생육아등 시사난신 불역여시 득도이래
生 育 我 等 하면 是 事 難 信 이니다 佛 亦 如 是 하여 得 道 已 來

기실미구 이차대중제보살등 이어무량천만
其 實 未 久 하고 而 此 大 衆 諸 菩 薩 等 은 已 於 無 量 千 萬

억 겁 위 불 도 고 근 행 정 진 선 입 출 주 무 량 백
億劫에爲佛道故로勤行精進하여善入出住無量百

천 만 억 삼 매 득 대 신 통 구 수 범 행 선 능 차
千萬億三昧하여得大神通하고久修梵行하여善能次

제 습 제 선 법 교 어 문 답 인 증 지 보 일 체 세 간
第習諸善法하고巧於問答하여人中之寶니一切世間

심 위 희 유 금 일 세 존 방 운 득 불 도 시 초 령 발
에甚爲希有니다今日世尊이方云得佛道時에初令發

심 교 화 시 도 령 향 아 녹 다 라 삼 막 삼 보 제
心하여敎化示導하여令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하시

세 존 득 불 미 구 내 능 작 차 대 공 덕 사 아 등 수
니世尊得佛未久에乃能作此大功德事니까我等雖

부 신 불 수 의 소 설 불 소 출 언 미 증 허 망 불 소
復信佛隨宜所說과佛所出言은未曾虛妄이며佛所

지 자 개 실 통 달 연 제 신 발 의 보 살 어 불 멸 후
知者는皆悉通達이나然諸新發意菩薩이於佛滅後에

약 문 시 어 혹 불 신 수 이 기 파 범 죄 업 인 연
若聞是語면或不信受하고而起破法罪業因緣하리니

유 연 세 존 원 위 해 설 제 아 등의 급 미 래
唯然世尊이시여願爲解說하여除我等疑하고及未來

세 제 선 남 자 문 차 사 이 역 불 생 의
世諸善男子가聞此事已하고亦不生疑하소서

이시 미륵보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彌勒菩薩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되

불석종석종
佛昔從釋種으로

출가근가야
出家近伽耶하여

좌어보제수
坐於菩提樹하니

이래상미구
爾來尙未久하여

차제불자등
此諸佛子等

기수불가량
其數不可量이며

구이행불도
久已行佛道하여

주어신통력
住於神通力하고

선학보살도
善學菩薩道하여

불염세간법
不染世間法이

여련화재수
如蓮華在水라

종지이응출
從地而涌出하여

개기공경심
皆起恭敬心하여

주어세존전
住於世尊前이라

시사난사의
是事難思議라

운하이가신
云何而可信이까

불득도심근
佛得道甚近하고

소성취심다
所成就甚多니

원위제중의
願爲除衆疑하고

여실분별설
如實分別說하소서

비여소장인
譬如少壯人이

년시이십오
年始二十五의

시인백세자
示人百歲子

발백이면추
髮白而面皺하여

시등아소생
是等我所生하고

자역설시부
子亦說是父하면

부소이자로
父少而子老하여

거세소불신
舉世所不信이니다

세존역여시
世尊亦如是하여

득도래심근
得道來甚近하고

시제보살등
是諸菩薩等은

지고무겁약
志固無怯弱하여

종무량겁래
從無量劫來에

이행보살도
而行菩薩道하여

교어난문답
巧於難問答하며

기심무소외
其心無所畏라

인욕심결정
忍辱心決定하고

단정유위덕
端正有威德하여

십방불소찬
十方佛所讚이라

선능분별설
善能分別說하며

불락재인중
不樂在人衆하고

상호재선정
常好在禪定하여

위 구 불 도 고
爲 求 佛 道 故 로

어 하 공 중 주
於 下 空 中 住 니라

아 등 증 불 문
我 等 從 佛 聞 하여

어 차 사 무 의
於 此 事 無 疑 나

원 불 위 미 래
願 佛 爲 未 來 하여

연 설 령 개 해
演 說 令 開 解 하소서

약 유 어 차 경
若 有 於 此 經 에

생 의 불 신 자
生 疑 不 信 者 는

즉 당 타 악 도
卽 當 墮 惡 道 리다

원 금 위 해 설
願 今 爲 解 說 하소서

시 무 량 보 살
是 無 量 菩 薩 을

운 하 어 소 시
云 何 於 少 時 에

교 화 령 발 심
敎 化 令 發 心 하여

이 주 불 퇴 지
而 住 不 退 地 니이까

묘 법 련 화 경 종 지 용 출 품 종
妙 法 蓮 華 經 從 地 涌 出 品 終

묘법蓮華經 여래수량품 제십륙
妙法蓮華經 如來壽量品 第十六

이시 불고제보살급일체대중 제선남자 여
爾時에 佛告諸菩薩及一切大衆하시되 諸善男子야 汝

등 당신해여래성체지어 부고대중 여등
等은當信解如來誠諦之語니라 復告大衆하시되 汝等은

당신해여래성체지어 우부고제대중 여등
當信解如來誠諦之語니라 又復告諸大衆하시되 汝等

당신해여래성체지어 시시보살대중 미륵
은當信解如來誠諦之語니라 是時菩薩大衆에서 彌勒

위수 합장백불언 세존 유원설지
이爲首하여 合掌白佛言하시되 世尊이시여 唯願說之하소서

아등당신수불어 여시삼백이 부언 유원
我等當信受佛語하리다 如是三白已하고 復言하시되 唯願

설지 아등 당신수불어
說之하소서 我等이當信受佛語하리다

이시 세존 지제보살삼청불지 이고지언
爾時에 世尊이知諸菩薩三請不止하시고 而告之言하시

여등 체청여래비밀신통지력 일체세간 천
되 汝等은諦聽如來秘密神通之力하라 一切世間과 天

인급아수라 개위금석가모니불 출석씨궁
人及阿修羅는皆謂今釋迦牟尼佛이 出釋氏宮하여

거가야성불원 좌어도장 득아녹다라삼막삼
去伽耶城不遠에坐於道場하여得阿耨多羅三藐三

보제 연선남자 아실성불이래 무량무변백
菩提나라然善男子야我實成佛已來는無量無邊百

천만억 나유타겁
千萬億 那由他劫이니라

비여오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삼천대천세계
譬如五百千萬億 那由他 阿僧祇 三千大千世界를

가사유인 말위미진 과어동방오백천만억 나
假使有人이抹爲微塵하여過於東方五百千萬億 那

유타 아승기국 내하일진 여시동행 진시
由他 阿僧祇國하여乃下一塵하되如是東行하여盡是

미진 제선남자 어의운하 시제세계 가득사
微塵이면 諸善男子야於意云何오是諸世界를可得思

유교제 지기수불
惟校計하여知其數不아

미륵보살등 구백불언 세존 시제세계
彌勒菩薩等이俱白佛言하되世尊이시여是諸世界는

무량무변 비산수소지 역비심력소급 일
無量無邊하여非算數所知며亦非心力所及이니다一

체성문벽지불 이무루지 불능사유지기한수
切聲聞辟支佛이以無漏智로不能思惟知其限數니이

아등주아유월치지 어시사중 역소불달
다 我等住阿惟越致地라도 於是事中에 亦所不達이니다

세존 여시제세계 무량무변
世尊이시여 如是諸世界는 無量無邊이니다

이시 불고대보살중 제선남자 금당분명선
爾時에 佛告大菩薩衆하시되 諸善男子야 今當分明宣

어여등 시제세계 약착미진급불착자 진이
語汝等하리라 是諸世界에 若著微塵及不著者를 盡以

위진 일진일겁 아성불이래 부과어차백
爲塵하여 一塵一劫이라도 我成佛已來는 復過於此百

천만억 나유타 아승기겁 자종시래 아상재
千萬億 那由他 阿僧祇劫이니라 自從是來로 我常在

차사파세계 설법교화 역어여처백천만억
此娑婆世界하여 說法教化하며 亦於餘處百千萬億

나유타 아승기국 도리중생 제선남자 어시
那由他 阿僧祇國에 導利衆生이라 諸善男子야 於是

중간 아설연등불등 우부언기입어넬반 여
中間에 我說燃燈佛等하며 又復言其入於涅槃이나 如

시개이방편분별 제선남자 약유중생 래지
是皆以方便分別이니라 諸善男子야 若有衆生이 來至

아소 아이불안 관기신등제근리둔 수소응
我所면 我以佛眼으로 觀其信等諸根利鈍하고 隨所應

도 처처자설 명자불동 년기대소 역부
度 하여 處處 自說 하되 名字 不同 하며 年紀 大小 하며 亦 復

현언당입넢반 우이종종방편 설미묘법
現言 當入 涅槃 하며 又 以 種種 方便 으로 說 微妙 法 하여

능령증생발환희심 제선남자 여래견제증생
能 令 衆生 發 歡喜 心 하니라 諸 善 男子 야 如來 見 諸 衆生

락어소법 덕박구중자 위시인설 아소
이 樂 於 小 法 하여 德 薄 垢 重 者 하면 爲 是 人 說 하되 我 少

출가 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연아실성불
出 家 하여 得 阿耨 多羅 三藐 三菩 提 하니라 然 我 實 成 佛

이래 구원약사 단이방편 교화증생 령
已 來 는 久 遠 若 斯 건만은 但 以 方便 으로 敎 化 衆生 하여 令

입불도 작여시설 제선남자 여래소연경전
入 佛 道 코자 作 如 是 說 이라 諸 善 男子 야 如來 所 演 經 典

개위도탈증생 혹설기신 혹설타신 혹
은 皆 爲 度 脫 衆生 이니 或 說 己 身 하고 或 說 他 身 하며 或

시기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示 己 身 하고 或 示 他 身 하며 或 示 己 事 하고 或 示 他 事 니라

제소언설 개실불허 소이자하 여래여실지
諸 所 言 說 은 皆 實 不 虛 니라 所 以 者 何 오 如來 如 實 知

전삼제지상 무유생사약퇴약출 역무재세급
見 三 界 之 相 하여 無 有 生 死 若 退 若 出 하고 亦 無 在 世 及

멸도자 비실비허 비여비이 불여삼제견
滅度者 하며 非實非虛 하고 非如非異 나라 不如三界 見

어삼제 여사지사 여래명견 무유착류
於三界 니 如斯之事 를 如來明 見 하여 無有錯謬 건만은

이제증생 유종종성 종종욕 종종행 종종억상 분
以諸衆生 이 有種種性 種種欲 種種行 種種憶想 分

별고 욕령생제선근 이약간인연비유언사
別故 로 欲令生諸善根 하여 以若干因緣 譬喻言辭 로

종종설법 소작불사 미증잠폐 여시 아
種種說法 하여 所作佛事 를 未曾暫廢 나라 如是 하여 我

성불이래 십대구원 수명무량아승기겁 상
成佛已來 는 甚大久遠 하여 壽命無量阿僧祇劫 이라 常

주불멸 제선남자 아본행보살도 소성수
住不滅 이나라 諸善男子 야 我本行菩薩道 하여 所成壽

명 금유미진 복배상수 연금비실멸도
命 이 今猶未盡 이며 復倍上數 건만 然 今非實滅度 로되

이편창언당취멸도 여래이시방편 교화중생
而便唱言當取滅度 나라 如來以是方便 으로 教化衆生

소이자하 약불구주어세 박덕지인 불종선
이라 所以者何 오 若佛久住於世 면 薄德之人 은 不種善

근 빈궁하천 탐착오욕 입어억상망견망
根 하여 貧窮下賤 하며 貪著五欲 하여 入於憶想妄見網

중 약견여래 상재 불멸 편기고자 이회
中 하리라 若 見 如 來 常 在 不 滅 하면 便 起 憍 恣 하고 而 懷

염태 불능생어난조지상 공경지심 시고
厭 怠 하고 不 能 生 於 難 遭 之 想 과 恭 敬 之 心 일새 是 故 로

여래이방편설
如 來 以 方 便 說 이라

비구당지 제불출세 난가치우 소이자하
比 丘 當 知 하라 諸 佛 出 世 는 難 可 值 遇 니라 所 以 者 何 오

제박덕인 과무량백천만억겁 혹유견불 혹
諸 薄 德 人 은 過 無 量 百 千 萬 億 劫 하여 或 有 見 佛 하고 或

불견자 이차사고 아작시언 제비구 여래
不 見 者 하고 以 此 事 故 로 我 作 是 言 하되 諸 比 丘 야 如 來

난가득견 사중생등 문여시어 필당생어난
難 可 得 見 하면 斯 衆 生 等 이 聞 如 是 語 하고 必 當 生 於 難

조지상 심회련모 갈앙어불 편종선근
遭 之 想 하여 心 懷 戀 慕 하고 渴 仰 於 佛 하여 便 種 善 根 이리

시고 여래수불실멸 이언멸도 우선남자
니 是 故 로 如 來 雖 不 實 滅 이나 而 言 滅 度 니라 又 善 男 子

제불여래법 개여시 위도중생 개실불허
야 諸 佛 如 來 法 이 皆 如 是 하여 爲 度 衆 生 이니 皆 實 不 虛

니라

비여량이지혜총달 명련방약 선치중병
譬如良醫智慧聰達 하여 明練方藥 하고 善治衆病 이라

기인다제자식 약십이십 내지백수 이유사
其人多諸子息 하여 若十二十 으로 乃至百數 라 以有事

연 원지여국 제자어후 음타독약 약발
緣 하여 遠至餘國 하되 諸子於後 에 飲他毒藥 하고 藥發

민란 완전우지 시시기부환래귀가 제자음
悶亂 하여 宛轉于地 라 是時其父還來歸家 하니 諸子飲

독 흑실본심 흑불실자 요견기부 개대
毒 하여 或失本心 하고 或不失者 라 遙見其父 하고 皆大

환희 배궤문신 선안은귀 아등우치 오
歡喜 하여 拜跪問訊 하되 善安隱歸 니까 我等愚癡 하여 誤

복독약 원견구료 갱사수명 부견자등고
服毒藥 하니 願見救療 하여 更賜壽命 하소서 父見子等苦

뇌여시 의제경방 구호약초 색향미미개실
惱如是 하고 依諸經方 하여 求好藥草 에 色香美味 皆悉

구족 도사화합 여자령복 이작시언 차
具足 하여 擣篩和合 하여 與子令服 하고 而作是言 하되 此

대량약 색향미미 개실구족 여등가복
大良藥 이라 色香美味 를 皆悉具足 하니 汝等可服 하면

속제고뇌 무부중환 기제자중 불실심자
速除苦惱 하고 無復衆患 이니라 其諸子中 에 不失心 者는

견차량약색향구호 즉편복지 병진제유
見此良藥色香俱好 하고 卽便服之 하니 病盡除愈 하고

여실심자 전기부래 수역환희문신 구색치
餘失心者 는 見其父來 하고 雖亦歡喜問訊 하고 求索治

병 연여기약이불증복 소이자하 독기심입
病 하나 然與其藥而不肯服 이라 所以者何 오 毒氣深入

 실본심고 어차호색향약 이위불미 부작
하여 失本心故 로 於此好色香藥 을 而謂不美 니라 父作

시념 차자가민 위독소중 심개전도 수
是念 하되 此子可慙 이라 爲毒所中 하여 心皆顛倒 하여 雖

견아희 구색구료 여시호약 이불증복
見我喜 하며 求索救療 하나 如是好藥 을 而不肯服 하니

아금당설방편 령복차약 즉작시언
我今當設方便 하여 令服此藥 하리라하고 卽作是言 하되

여등당지 아금쇠로 사시이지 시호량약
汝等當知 하라 我今衰老 하여 死時已至 하니 是好良藥 을

금류재차 여가취복 물우불차 작시교이
今留在此 하니 汝可取服 하되 勿憂不差 하여 作是敎已 하

 부지타국 전사환고 여부이사
고 復至他國 하여 遣使還告 하되 汝父已死 하니라

시시제자 문부배상 심대우뇌 이작시념
是時諸子 는 聞父背喪 하고 心大憂惱 하여 而作是念 하되

약부재자 자민아등 능견구호 금자사아
若父在者면 慈愍我等 하여 能見救護 이건만 今者捨我 하

원상타국 자유고로 무부시호 상회비
고 遠喪他國 이라 自惟孤露 하고 無復恃怙 하며 常懷悲

감 심수성오 내지차약색향미미 즉취복
憾 타가 心 遂醒悟 하여 乃知此藥色香味美 하고 卽取服

지 독병개유 기부문자실이득차 심편래귀
之니 毒病皆愈 라 其父聞子悉已得差 하고 尋便來歸 하

함사견지 제선남자 어의운하 파유인 능
여 威使見之 니라 諸善男子야 於意云何 오 頗有人이 能

설차량의허망죄불 불야 세존 불언
說此良醫虛妄罪不 아 不也 니다 世尊 이시여 佛 言 하시되

아역여시 성불이래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
我亦如是 라 成佛已來 는 無量無邊 百千萬億 那由

타 아승기겁 위중생고 이방편력 언당멸
他 阿僧祇劫 이나 爲衆生故 로 以方便力 으로 言當滅

도 역무유능여법설아 허망과자
度 나 亦無有能如法說我 를 虛妄過者 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 에 世尊 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자아득불래
自我得佛來 의

소경제겁수
所經諸劫數 는

무량백천만
無量百千萬

억재아승기
億載阿僧祇라

상설법교화
常說法敎化

무수억중생
無數億衆生하여

령입어불도
令入於佛道나라

이래무량겁
爾來無量劫하여

위도중생고
爲度衆生故로

방편현멸반
方便現涅槃이나

이실불멸도
而實不滅度하고

상주차설법
常住此說法하노라

아상주어차
我常住於此하여

이제신통력
以諸神通力으로

령전도중생이
令顛倒衆生이

수근이불견
雖近而不見하나라

중견아멸도
衆見我滅度하고

광공양사리
廣供養舍利하며

함개회련모
咸皆懷戀慕하여

이생갈앙심
而生渴仰心이라

중생기신복
衆生既信伏하고

질직의유연
質直意柔軟하여

일심욕견불
一心欲見佛하되

불자석신명
不自惜身命이니라

시아급중승이
時我及衆僧이

구출령취산하여
俱出靈驚山하여

아시어중생하되
我時語衆生하되

상재차불멸이건만
常在此不滅이건만

이방편력고로
以方便力故로

현유멸불멸이니라
現有滅不滅이니라

여국유중생이
餘國有衆生이

공경신락자면
恭敬信樂者면

아부어피중
我復於彼中에

위설무상법이건만
爲說無上法이건만

여등불문차하여
汝等不聞此하여

단위아멸도니라
但謂我滅度니라

아견제중생하니
我見諸衆生하니

몰재어고뇌라
沒在於苦惱라

고불위현신하고
故不爲現身하고

령기생갈앙하여
令其生渴仰하여

인기심련모하고
因其心戀慕하고

내출위설법이니라
乃出爲說法이니라

신통력여시하여
神通力如是하여

어아승기겁에
於阿僧祇劫에

상재령취산과
常在靈驚山과

급여제주처니라
及餘諸住處니라

중생견겁진
衆生見劫盡 하여

대화소소시
大火所燒時에

아차토안은
我此土安隱 하고

천인상충만
天人常充滿 이라

원림제당각
園林諸堂閣 은

종종보장엄
種種寶莊嚴 하고

보수다화과
寶樹多華果 하여

중생소유락
衆生所遊樂 이며

제천격천고
諸天擊天鼓 하여

상작중기악
常作衆伎樂 하며

우만타라화
雨曼陀羅華 하여

산불급대중
散佛及大衆 이라

아정토불훼
我淨土不毀 하고

이중견소진
而衆見燒盡 하여

우포제고뇌
憂怖諸苦惱 가

여시실충만
如是悉充滿 이라

시제죄중생
是諸罪衆生 은

이악업인연
以惡業因緣 으로

과아승기겁
過阿僧祇劫 도

불문삼보명
不聞三寶名 이라

제유수공덕
諸有修功德 하여

유화질직자
柔和質直者 는

즉개견아신
則皆見我身이

재차이설법
在此而說法이니라

혹시위차중
或時爲此衆하여

설불수무량
說佛壽無量하며

구내견불자
久乃見佛者는

위설불난치
爲說佛難値니라

아지력여시
我智力如是하여

혜광조무량
慧光照無量하고

수명무수겁
壽命無數劫이니

구수업소득
久修業所得이라

여등유지자
汝等有智者는

물어차생의
勿於此生疑하고

당단령영진
當斷令永盡하라

불어실불허
佛語實不虛니라

여의선방편
如醫善方便으로

위치광자고
爲治狂子故로

실재이언사
實在而言死하되

무능설허망
無能說虛妄이라

아역위세부
我亦爲世父하여

구제고환자
救諸苦患者니라

위범부전도
爲凡夫顛倒하여

실재이언멸
實在而言滅이니라

이상견아고
以常見我故로

이생교자심
而生憍恣心하며

방일착오욕
放逸著五欲하여

타어악도중
墮於惡道中이라

아상지중생
我常知衆生이

행도불행도
行道不行道하여

수소응가도
隨所應可度하여

위설종종법
爲說種種法이라

매자작시념
每自作是念하되

이하령중생
以何令衆生으로

득입무상도
得入無上道하여

속성취불신
速成就佛身하니라

묘법련화경 여래수량품 종
妙法蓮華經 如來壽量品 終

묘법蓮華經 分別功德品 第十七

이시대회 문불설수명겁수장원여시무량무변
爾時大會에서 聞佛說壽命劫數長遠如是無量無邊

아승기중생 득대요익 어시세존 고미
하고 阿僧祇衆生이 得大饒益이니라 於時世尊이 告彌

륵보살마가살 아일다 아설시여래수명장원
勒菩薩摩訶薩하시되 阿逸多야 我說是如來壽命長遠

시 륵백팔십만억 나유타 항하사중생 득무생법
時에 六百八十萬億 那由他 恒河沙衆生 得無生法

인 부유천배보살마가살 득문지타라니문
忍이니라 復有千倍菩薩摩訶薩은 得聞持陀羅尼門하

부유일세제미진수보살마가살 득요설무애변
며 復有一世界微塵數菩薩摩訶薩은 得樂說無礙辯

재 부유일세제미진수보살마가살 득백천만
才하며 復有一世界微塵數菩薩摩訶薩은 得百千萬

억 무량선타라니 부유삼천대천세계 미진수보
億 無量旋陀羅尼라 復有三千大千世界 微塵數菩

살마가살 능전불퇴법륜 부유이천중국토 미
薩摩訶薩은 能轉不退法輪하며 復有二千中國土 微

진수보살마가살 능전청정법륜 부유소천국
塵數菩薩摩訶薩은 能轉清淨法輪하니라 復有小千國

토 미진수보살마가살 팔생 당득아녹다라삼
土 微塵數菩薩摩訶薩은 八生에 當得阿耨多羅三

막삼보제 부유사사천하 미진수보살마가살
藐三菩提하며 復有四四天下 微塵數菩薩摩訶薩은

사생 당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부유삼사천
四生에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하며 復有三四天

하 미진수보살마가살 삼생 당득아녹다라삼
下 微塵數菩薩摩訶薩은 三生에 當得阿耨多羅三

막삼보제 부유이사천하 미진수보살마가살
藐三菩提하며 復有二四天下 微塵數菩薩摩訶薩은

이생 당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부유일사천
二生에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하며 復有一四天

하 미진수보살마가살 일생 당득아녹다라삼
下 微塵數菩薩摩訶薩은 一生에 當得阿耨多羅三

막삼보제 부유팔세계 미진수중생 개발아녹
藐三菩提하며 復有八世界 微塵數衆生은 皆發阿耨

다라삼막삼보제심
多羅三藐三菩提心이라

불설시제보살마가살 득대법리시 어허공중
佛說是諸菩薩摩訶薩이 得大法利時에 於虛空中에서

우만타라화 마가만타라화 이산무량백천만
雨曼陀羅華와 摩訶曼陀羅華하여 以散無量百千萬

억보수하사자좌상제불 병산칠보탑중 사자좌
億寶樹下師子座上諸佛 하며 并散七寶塔中 師子座

상석가모니불 급구멸도 다보여래 역산일체
上釋迦牟尼佛 과 及久滅度多寶如來 하며 亦散一切

제대보살 급사부중 우우세말전단 침수향
諸大菩薩 과 及四部衆 하며 又雨細抹梅檀 과 沈水香

등 어허공중 천고자명 묘성심원 우우
等 하며 於虛空中에 天鼓自鳴 하니 妙聲深遠 하며 又雨

천종천의 수제영락 진주영락 마니주영락 여
千種天衣 하고 垂諸瓔珞 眞珠瓔珞 摩尼珠瓔珞 과 如

의주영락 편어구방 증보향로 소무가향
意珠瓔珞 을 遍於九方 하며 衆寶香爐에 燒無價香 하니

자연주지 공양대회 일일불상 유제보살
自然周至 하여 供養大會 나라 一一佛上에 有諸菩薩 하

집지번개 차례이상 지우범천 시제보
되 執持幡蓋 하고 次第而上 하여 至于梵天 하며 是諸菩

살 이묘음성 가무량송 찬탄제불
薩은 以妙音聲으로 歌無量頌 하며 讚歎諸佛 이라

이시 미륵보살 종좌이기 편단우견 합장
爾時에 彌勒菩薩이 從座而起 하며 偏袒右肩 하고 合掌

향불 이설게언
向佛 하여 而說偈言 하되

불설희유법
佛說希有法은

석소미증문
昔所未曾聞이니다

세존유대력
世尊有大力하고

수명불가량
壽命不可量하며

무수제불자
無數諸佛子는

무세존분별
聞世尊分別

설득법리자
說得法利者하고

환희충편신
歡喜充遍身이니다

혹주불퇴지
或住不退地하고

혹득타라니
或得陀羅尼와

혹무애요설
或無礙樂說과

만억선총지
萬億旋總持니다

혹유대천계
或有大千界

미진수보살
微塵數菩薩은

각각개능전
各各皆能轉

불퇴지법륜
不退之法輪하며

부유중천계
復有中千界

미진수보살
微塵數菩薩은

각각개능전
各各皆能轉

청정지법륜
淸淨之法輪이니다

부유소천계
復有小千界

미진수보살
微塵數菩薩은

여각팔생재
餘各八生在에

당득성불도
當得成佛道하며

부유사삼이
復有四三二의

여차사천하
如此四天下

미진제보살
微塵諸菩薩은

수수생성불
隨數生成佛하리다

혹일사천하
或一四天下

미진수보살
微塵數菩薩은

여유일생재
餘有一生在에

당성일체지
當成一切智니다

여시등중생이
如是等衆生이

무불수장원
聞佛壽長遠하고

득무량무루
得無量無漏의

청정지과보
淸淨之果報이니다

부유팔세계
復有八世界

미진수중생
微塵數衆生은

무불설수명
聞佛說壽命하고

개발무상심
皆發無上心이니다

세존설무량
世尊說無量

불가사의법
不可思議法하여

다유소요익
多有所饒益하되

여허공무변
如虛空無邊이니다

우천만타라
雨 天 曼 陀 羅 와

마가만타라
摩 訶 曼 陀 羅 하며

석범여항사
釋 梵 如 恒 沙

무수불토래
無 數 佛 土 來 하여

우전단침수
雨 梅 檀 沈 水 하고

빈분이란추
繽 紛 而 亂 墜 하되

여조비공하
如 鳥 飛 空 下 하여

공산어제불
供 散 於 諸 佛 이라

천고허공중
天 鼓 虛 空 中 에

자연출묘성
自 然 出 妙 聲 하고

천의천만종
天 衣 千 萬 種 이

선전이래하
旋 轉 而 來 下 하며

중보묘향로
衆 寶 妙 香 爐 에

소무가지향
燒 無 價 之 香 하여

자연실주편
自 然 悉 周 遍 하며

공양제세존
供 養 諸 世 尊 이라

기대보살중
其 大 菩 薩 衆 은

집칠보번개
執 七 寶 幡 蓋

고묘만억종
高 妙 萬 億 種 하고

차제지범천
次 第 至 梵 天 이라

일일제불전
一 一 諸 佛 前 에

보당현승번
寶 幢 懸 勝 幡 하며

역이천만게
亦以千萬偈로

가영제여래
歌詠諸如來라

여시종종사
如是種種事는

석소미증유
昔所未曾有라

문불수무량
聞佛壽無量하고

일체개환희
一切皆歡喜니다

불명문십방
佛名聞十方하여

광요익중생
廣饒益衆生하시니

일체구선근
一切具善根하시고

이조무상심
以助無上心이니다

이시 불고미륵보살마가살 아일다 기유중
爾時에 佛告彌勒菩薩摩訶薩하시되 阿逸多야 其有衆

생 문불수명장원여시 내지능생일념신해
生이 聞佛壽命長遠如是하고 乃至能生一念信解하면

소득공덕 무유한량
所得功德이 無有限量이니라

약유선남자 선녀인 위아녹다라삼막삼보제고
若有善男子 善女人이 爲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로

어팔십만억 나유타겁 행오파라밀 단파라밀 시
於八十萬億 那由他劫에 行五波羅蜜 檀波羅蜜 尸

라파라밀 찬제파라밀 비리야파라밀 선파라밀
羅波羅蜜 羼提波羅蜜 毗梨耶波羅蜜 禪波羅蜜하고

제반야파라밀 이시공덕 비전공덕 백분
除般若波羅蜜 이나라 以是功德 으로 比前功德 하면 百分

천분 백천만억분 불급기일 내지산수비유
千分 과 百千萬億分 으로 不及其一 이며 乃至算數 譬喻

소불능지 약선남자 선녀인 유여시공덕
로도 所不能知 나라 若善男子 善女人이 有如是功德 하

어아늑다라삼막삼보제 퇴자 무유시처
고 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退者는 無有是處 나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약인구불혜
若人求佛慧 하여

어팔십만억
於八十萬億

나유타겁수
那由他劫數에

행오파라밀
行五波羅蜜 하면

어시제겁중
於是諸劫中에

포시공양불
布施供養佛

급연각제자
及緣覺弟子와

병제보살중
并諸菩薩衆과

진이지음식
珍異之飲食과

상복여와구
上服與臥具와

전단림정사
梅檀立精舍와

이원림장엄
以園林莊嚴이라

여시등포시
如是等布施는

종종개미묘
種種皆微妙하며

진차제겁수
盡此諸劫數토록

이회향불도
以廻向佛道니라

약부지금계
若復持禁戒하되

청정무결루
淸淨無缺漏하여

구어무상도
求於無上道하니

제불지소탄
諸佛之所歎이라

약부행인욕
若復行忍辱하여

주어조유지
住於調柔地하면

설중악래가
設衆惡來加라도

기심불경동
其心不傾動하며

제유득법자
諸有得法者가

회어증상만
懷於增上慢하고

위차소경뇌
爲此所輕惱라도

여시실능인
如是悉能忍하며

약부근정진
若復勤精進하여

지념상견고
志念常堅固하면

어무량억겁
於無量億劫에

일심불해식
一心不懈息하며

우어무수겁
又於無數劫에

주어공한처
住於空閑處하여

약좌약경행
若坐若經行 하되

제수상섭심
除睡常攝心 이니라

이시인연고
以是因緣故 로

능생제선정
能生諸禪定 하며

팔십억만겁
八十億萬劫 을

안주심불란
安住心不亂 하고

지차일심복
持此一心福 하고

원구무상도
願求無上道 하면

아득일체지
我得一切智 하여

진제선정제
盡諸禪定際 하리라

시인어백천
是人於百千

만억겁수중
萬億劫數中 에

행차제공덕
行此諸功德 은

여상지소설
如上之所說 이라

유선남녀등
有善男女等 이

문아설수명
聞我說壽命 하고

내지일념신
乃至一念信 하면

기복과어피
其福過於彼 니라

약인실무유
若人悉無有

일체제의회
一切諸疑悔 하고

심심수유신
深心須臾信 하여도

기복위여차
其福爲如此 니라

기유제보살
其有諸菩薩이

무량겁행도
無量劫行道하되

문아설수명
聞我說壽命하고

시즉능신수
是則能信受하면

여시제인등
如是諸人等은

정수차경전
頂受此經典하고

원아어미래
願我於未來에

장수도중생
長壽度衆生하되

여금일세존
如今日世尊

제석중지왕
諸釋中之王이

도장사자후
道場師子吼로

설법무소외
說法無所畏하며

아등미래세
我等未來世에

일체소존경
一切所尊敬이며

좌어도장시
坐於道場時에

설수역여시
說壽亦如是나라

약유심심자
若有深心者가

청정이질직
淸淨而質直하여

다문능총지
多聞能總持하며

수의해불어
隨義解佛語하면

여시지인등
如是之人等은

어차무유의
於此無有疑나라

우아일다 약유문불수명장원 해기언취 시
又阿逸多야 若有聞佛壽命長遠하고 解其言趣하면 是

인소득공덕 무유한량 능기여래무상지혜
人所得功德은 無有限量하여 能起如來無上之慧나라

하황광문시경 약교인문 약자지 약교인
何況廣聞是經하고 若敎人聞하며 若自持하고 若敎人

지 약자서 약교인서 약이화향 영락 당
持하며 若自書하고 若敎人書하며 若以華香 瓔珞과 幢

번 증개 향유 소등 공양경권 시인공덕
幡 繒蓋와 香油 蘇燈으로 供養經卷하면 是人功德은

무량무변 능생일체종지
無量無邊하여 能生一切種智나라

아일다 약선남자 선녀인 문아설수명장원
阿逸多야 若善男子 善女人이 聞我說壽命長遠하고

심심신해 즉위전불상재기사굴산 공대보살
深心信解하면 則爲見佛常在耆闍崛山하여 共大菩薩

제성문중 위요설법 우견차사파세계 기지
과 諸聲聞衆 圍遶說法이니라 又見此娑婆世界는 其地

류리 탄연평정 염부단금 이제팔도 보
琉璃라 坦然平正하며 閻浮檀金으로 以界八道하며 寶

수항렬 제대루관 개실보성 기보살중 함
樹行列하고 諸臺樓觀이 皆悉寶成이며 其菩薩衆이 咸

처기중 약유능여시관자 당지 시위심신
處其中 이나라 若有能如是觀者 는 當知 하라 是爲深信

해상 우부여래멸후 약문시경 이불훼자
解相 이나라 又復如來滅後에 若聞是經 하고 而不毀 皆 하

기수희심 당지이위심신해상 하황독송
며 起隨喜心 하면 當知已爲深信解相 이나라 何況讀誦

수지자 사인즉위정대여래
受持之者 리요 斯人則爲頂戴如來 나라

아일다 시선남자 선녀인 불수위아 부기탑
阿逸多야 是善男子 善女人 은 不須爲我 하여 復起塔

사 급작승방 이사사 공양중승 소이자하
寺 及作僧坊 하고 以四事로 供養衆僧 이나라 所以者何

시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송 시경전자 위이
오 是善男子 善女人 이 受持 讀誦 是經典者 는 爲已

기탑 조립승방 공양중승 즉위이불사리
起塔 하고 造立僧坊 하여 供養衆僧 이나라 則爲以佛舍利

기칠보탑 고광점소 지우범천 현제번
로 起七寶塔 하되 高廣漸小 하여 至于梵天 하고 懸諸幡

개 급중보령 화향영락 말향 도향 소향 중
蓋와 及衆寶鈴 하고 華香瓔珞 과 抹香 塗香 燒香 과 衆

고기악 소적공후 종종무희 이묘음성 가패
鼓伎樂 과 簫笛箏篴와 種種舞戲와 以妙音聲으로 歌唄

찬송 즉위어 무량천만억겁 작시공양이
讚頌하며 則爲於無量千萬億劫에 作是供養已니라

아일다 약아멸후 문시경전 유능수지 약
阿逸多야 若我滅後에 聞是經典 하고 有能受持 하며 若

자서 약교인서 즉위기림승방 이적전단
自書거나 若敎人書 하면 則爲起立僧坊 하되 以赤梅檀으

작제전당삼십유이 고팔다라수 고헌엄호
로 作諸殿堂三十有二 하며 高八多羅樹라 高廣嚴好 하

백천비구 어기중지 원림욕지 경행선굴
며 百千比丘가 於其中止 하고 園林浴池와 經行禪窟과

의복음식 상옥탕약 일체락구 충만기중 여
衣服飮食과 床褥湯藥과 一切樂具가 充滿其中이라 如

시승방당각 약간백천만억 기수무량 이차
是僧坊堂閣이 若干百千萬億으로 其數無量하니 以此

현전공양어아 급비구승 시고아설여래멸후
現前供養於我 及比丘僧이니라 是故我說如來滅後에

약유수지 독송 위타인설 약자서 약교인
若有受持 讀誦하며 爲他人說 하고 若自書 하며 若敎人

서 공양경권 불수부기탑사급조승방 공
書 하여 供養經卷 하고 不須復起塔寺及造僧坊 하여 供

양중승 황부유인 능지시경 겸행 포시 지
養衆僧이니라 況復有人이 能持是經 하고 兼行 布施 持

제 인 욱 정 진 일 심 지 혜 기 덕 최 승 무 량 무 변
戒 忍 辱 精 進 一 心 智 慧 이 라 其 德 最 勝 하 여 無 量 無 邊

비 여 허 공 동 서 남 북 사 유 상 하 무 량 무 변
이 라 譬 如 虛 空 이 東 西 南 北 과 四 維 上 下 가 無 量 無 邊 이

시 인 공 덕 역 부 여 시 무 량 무 변 질 지 일 체
라 是 人 功 德 도 亦 復 如 是 하 여 無 量 無 邊 하 여 疾 至 一 切

종 지 약 인 독 송 수 지 시 경 위 타 인 설 약
種 智 니 라 若 人 이 讀 誦 受 持 是 經 하 여 爲 他 人 說 하 며 若

자 서 약 교 인 서 부 능 기 탑 급 조 승 방 공 양
自 書 하 고 若 教 人 書 하 면 復 能 起 塔 及 造 僧 坊 하 여 供 養

찬 탄 성 무 중 승 역 이 백 천 만 억 찬 탄 지 법 찬 탄
讚 歎 聲 聞 衆 僧 하 고 亦 以 百 千 萬 億 讚 歎 之 法 으 로 讚 歎

보 살 공 덕 우 위 타 인 종 종 인 연 수 의 해 설
菩 薩 功 德 하 며 又 爲 他 人 하 여 種 種 因 緣 으 로 隨 義 解 說

차 법 화 경 부 능 청 정 지 계 여 유 화 자 이 공 동 지
此 法 華 經 하 며 復 能 清 淨 持 戒 하 여 與 柔 和 者 而 共 同 止

인 욱 무 진 지 념 견 고 상 귀 좌 선 득 제 심
하 며 忍 辱 無 瞋 하 고 志 念 堅 固 하 여 常 貴 坐 禪 하 고 得 諸 深

정 정 진 용 맹 섭 제 선 법 리 근 지 혜 선 답
定 하 여 精 進 勇 猛 하 며 攝 諸 善 法 하 여 利 根 智 慧 로 善 答

무 난
問 難 이 라

아일다 약아멸 후 제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
阿逸多야 若我滅後에 諸善男子 善女人이 受持 讀

송 시경전자 부유여시제선공덕 당지시인
誦 是經典者 하고 復有如是諸善功德 하면 當知是人

이취도장 근아녹다라삼막삼보제 좌도수하
已趣道場 하여 近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여 坐道樹下

아일다 시선남자 선녀인 약좌 약립 약경
나라 阿逸多야 是善男子 善女人이 若坐 若立 若經

행처 차중편응기탑 일체천인 개응공양여
行處에 此中便應起塔 하고 一切天人이 皆應供養如

불지탑
佛之塔 이나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약아멸도후
若我滅度後에

능봉지차경
能奉持此經 하면

사인복무량
斯人福無量 은

여상지소설
如上之所說 이니

시즉위구족
是則爲具足

일체제공양
一切諸供養 이나라

이사리기탑
以舍利起塔 하되

칠보이장엄
七寶而莊嚴 하고

표찰심고광
表刹甚高廣 하되

점소지범천
漸小至梵天 하며

보령천만억
寶鈴千萬億 이

풍동출묘음
風動出妙音 하며

우어무량겁
又於無量劫 에

이공양차탑
而供養此塔 에

화향제영락
華香諸瓔珞 과

천의중기악
天衣衆伎樂 하며

연향유소등
然香油蘇燈 하여

주잡상조명
周市常照明 이라

악세법말시
惡世法末時 에

능지시경자
能持是經者 는

즉위이여상
則爲已如上

구족제공양
具足諸供養 이니라

약능지차경
若能持此經 하면

즉여불현재
則如佛現在 에

이우두전단
以牛頭栴檀 으로

기승방공양
起僧坊供養 하며

당유삼십이
堂有三十二 하니

고팔다라수
高八多羅樹 이며

상찬묘의복
上饌妙衣服 과

상와개구족
床臥皆具足 하며

백천중주처와
百千衆住處와

원림제욕지와
園林諸浴池와

경행급선굴을
經行及禪窟을

중중개엄호나라
種種皆嚴好나라

약유신해심하야
若有信解心하야

수지독송서하고
受持讀誦書하고

약부고인서하고
若復敎人書하고

급공양경권하되
及供養經卷하되

산화향말향하고
散華香抹香하고

이수만첨복과
以須曼薝蔔과

아제목다가로
阿提目多伽로

후유상연지하고
薰油常然之하고

여시공양자
如是供養者는

득무량공덕하되
得無量功德하되

여허공무변하여
如虛空無邊하여

기복역여시나라
其福亦如是나라

황부지차경하고
況復持此經하고

점포시지제하며
兼布施持戒하며

인욕락선정하고
忍辱樂禪定하고

불진불악구하며
不瞋不惡口하며

공경어탑묘하고
恭敬於塔廟하고

점하제비구하며
謙下諸比丘하며

원리자고심
遠離自高心 하고

상사유지혜
常思惟智慧 하며

유문난불진
有問難不瞋 하고

수순위해설
隨順爲解說 하리니

약능행시행
若能行是行 하면

공덕불가량
功德不可量 이라

약견차법사
若見此法師

성취여시덕
成就如是德 커든

응이천화산
應以天華散 하고

천의부기신
天衣覆其身 하라

두면접족례
頭面接足禮 하되

생심여불상
生心如佛想 하며

우응작시념
又應作是念 하되

불구예도수
不久詣道樹 하며

득무루무위
得無漏無爲 하여

광리제인천
廣利諸人天 하리라

기소주지처
其所住止處 에

경행약좌와
經行若坐臥 하여

내지설일게
乃至說一偈 거든

시중응기탑
是中應起塔 하되

장엄령묘호
莊嚴令妙好 하여

종종이공양
種種以供養 하라

불자주차지
佛子住此地 하면

즉시불수용
則是佛受用이니

상재어기중
常在於其中 하여

경행급좌와
經行及坐臥 나라

묘법련화경 분별공덕품 종
妙法蓮華經 分別功德品 終

묘법련화경 권 제 오 종
妙法蓮華經 卷 第五 終

묘법蓮華經 권 제 육
妙法蓮華經 卷 第六

묘법蓮華經 수희功德품 제십팔
妙法蓮華經 隨喜功德品 第十八

이시 미륵보살마가살 백불언 세존 약
爾時에 彌勒菩薩摩訶薩이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若

유선남자 선녀인 문시법화경수희자 득기소
有善男子 善女人이 聞是法華經隨喜者는 得幾所

복 이설게언
福이니까 而說偈言 하되

세존멸도후
世尊滅度後에

기유문시경
其有聞是經 하고

약능수희자
若能隨喜者는

위득기소복
爲得幾所福이니까

이시 불고미륵보살마가살 아일다 여래멸
爾時에 佛告 彌勒菩薩摩訶薩 하시되 阿逸多야 如來滅

후 약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급여지자 약
後에 若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와 及餘智者 若

장약유 문시경수희이 종법회출 지어여처
長若幼가 聞是經隨喜已 하고 從法會出 하여 至於餘處

약재승방 약공한지 약성읍 항맥취락 전
하되 若在僧坊이나 若空閑地나 若城邑巷陌聚落田

리 여기소문 위부모 종친 선우 지식 수력
里에서 如其所聞이 爲父母宗親善友知識하여 隨力

연설 시제인등 무이수희 부행전교 여
演說하면 是諸人等이 聞已隨喜하여 復行轉敎하며 餘

인문이 역수희전교 여시전전 지제오십
人聞已하고 亦隨喜轉敎하되 如是展轉하여 至第五十하

아일다 기제오십 선남자 선녀인 수희공덕
면 阿逸多야 其第五十인 善男子 善女人의 隨喜功德

아금설지 여당선청 약사백만억 아승기
을 我今說之하리니 汝當善聽하라 若四百萬億 阿僧祇

세계 륵취사생중생 란생 태생 습생 화생 약유
世界 六趣四生衆生의 卵生 胎生 濕生 化生과 若有

형 무형 유상 무상 비유상비무상 무족 이족
形 無形 有想 無想과 非有想非無想과 無足 二足

사족 다족 여시등재중생수자 유인구복 수
四足 多足과 如是等在衆生數者를 有人求福하여 隨

기소욕 오락지구 개급여지 일일중생 여
其所欲하여 娛樂之具를 皆給與之하되 一一衆生에 與

만염부제 금 은 류리 차거 마노 산호호박 제
滿闍浮提 金 銀 琉璃 硨磲 碼瑙와 珊瑚琥珀의 諸

묘진보 급상마거승 칠보소성궁전루각등
妙珍寶와 及象馬車乘과 七寶所成宮殿樓閣等 이라

시대시주 여시포시 만팔십년이 이작시념
是大施主가 如是布施하여 滿八十年已하고 而作是念

아이시중생오락지구 수의소욕 연차중
하되 我已施衆生娛樂之具하여 隨意所欲이나 然此衆

생 개이쇠로 년과팔십 발백면추 장사
生이 皆已衰老하여 年過八十하고 髮白面皺하여 將死

불구 아당이불법 이훈도지 즉집차중생
不久하니 我當以佛法으로 而訓導之하고 卽集此衆生하

선포법화 시교리희 일시개득 수타원도
여 宣布法化하며 示敎利喜하여 一時皆得 須陀洹道

사타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진제유루 어
斯陀含道와 阿那含道 阿羅漢道하여 盡諸有漏하고 於

심선정 개득자재 구팔해탈 어여의운하
深禪定에 皆得自在하여 具八解脫하면 於汝意云何오

시대시주 소득공덕 녕위다불
是大施主의 所得功德이 寧爲多不아

미륵 백불언 세존 시인공덕심다 무량
彌勒이 白佛言하되 世尊이시여 是人功德甚多하여 無量

무변 약시시주 단시중생일체락구 공덕
無邊이니다 若是施主가 但施衆生一切樂具라도 功德

무량 하황령 득아라한과
無量 인데 何況 令得 阿羅漢果 이니까

불고미륵 아금분명어여 시인이일체락
佛告 彌勒 하시되 我今分明 語汝 하리라 是人以一切樂

구 시어사백만억 아승기세계 륵취중생 우령
具로 施於四百萬億 阿僧祇世界 六趣衆生 하고 又 令

득아라한과 소득공덕 불여시제오십인 문
得 阿羅漢果 하여 所得功德 이 不如是第五十人 의 聞

법화경일게 수희공덕 백분천분 백천만억
法華經 一偈 하고 隨喜功德 하여 百分千分 百千萬億

분 불급기일 내지산수비유 소불능지
分 에 不 及其一 이니 乃至 算數 譬 喻 로도 所 不 能 知 니라

아일다 여시제오십인 전전문법화경 수희
阿逸多 야 如是第五十人 이 展轉 聞法華經 하고 隨喜

공덕 상무량무변아승기 하황최초어회중 문
功德 도 尙無量無邊 阿僧祇 인데 何況最初於會中 聞

이수희자 기복부승 무량무변아승기 불
而隨喜者 이라 其福復勝 하여 無量無邊 阿僧祇 로서 不

가득비
可得 比 니라

우아일다 약인위시경고 왕예승방 약좌약
又 阿逸多 야 若人爲是經故 로 往詣僧坊 하여 若坐若

립 수유청수 연시공덕 전신소생 득호
立 하여 須與聽受 하면 緣是功德 하여 轉身所生 하면 得好

상묘상마거승진보련여 급승천궁 약부
上妙象馬車乘珍寶輦興 하고 及乘天宮 이나라 若復

유인 어강법처좌 갱유인래 권령좌청
有人 이 於講法處坐 다가 更有人來 하면 勸令坐聽 하고

약분좌령좌 시인공덕 전신 득제석좌처 약
若分座令坐 하면 是人功德 은 轉身에 得帝釋坐處 나 若

범왕좌처 약전륜성왕소좌지처
梵王坐處 나 若轉輪聖王所坐之處 니라

아일다 약부유인 어여인언 유경명법화 가
阿逸多 야 若復有人 이 語餘人言 하되 有經名法華 라 可

공왕청 즉수기교 내지수유간문 시인공
共往聽 하여 卽受其敎 하고 乃至須與間聞 하면 是人功

덕 전신 득여타라니보살 공생일처 리근지
德 이 轉身에 得與陀羅尼菩薩 과 共生一處 하며 利根智

혜 백천만세 종불음아 구기불취 설상
慧 하여 百千萬世에 終不瘡癰 하고 口氣不臭 하며 舌常

무병 구역무병 치불구흑 불황불소 역
無病 하고 口亦無病 하며 齒不垢黑 하고 不黃不疎 하며 亦

불결락 불차불곡 수불하수 역불건축
不缺落 하고 不差曲 하며 脣不下垂 하고 亦不褻縮 하며

불추삽 不麤澁 하고 불창진 不瘡疹 하며 역불결괴 亦不缺壞 하고 역불괘사 亦不佷斜 하며 불

후불대 厚不大 하고 역불러흑 亦不黧黑 하며 무제가악 無諸可惡 하고 비불변체 鼻不匾匯 하고

역불곡려 亦不曲戾 하며 면색 面色 이 불흑 不黑 하고 역불협장 亦不狹長 하며 역불와 亦不窠

곡 曲 하여 무유일체불가희상 無有一切不可喜相 하며 순설아치 脣舌牙齒가 실개엄호 悉皆嚴好

비수고직 鼻修高直 하고 면모원만 面貌圓滿 하며 미고이장 眉高而長 하고 액광평 額廣平

정 正 하고 인상구족 人相具足 하여 세세소생 世世所生 에 전불문법 見佛聞法 하고 신수 信受

교회 敎誨 리라

아일다 여차관시 권어일인 령왕청법 阿逸多야汝且觀是 하라 勸於一人 하여 승往聽法 이라도

공덕여차 하황일심 청설독송 이어대중 功德如此 인데 何況一心 으로 聽說讀誦 하고 而於大衆 에

위인분별 여설수행 爲人分別 하며 如說修行 이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 에 世尊 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약인어법회
若人於法會에서

득문시경전
得聞是經典하되

내지어일게
乃至於一偈라도

수희위타설
隨喜爲他說하며

여시전전교
如是展轉敎하여

지우제오십
至于第五十하면

최후인획복
最後人獲福을

금당분별지
今當分別之하리라

여유대시주
如有大施主하여

공급무량중
供給無量衆하되

구만팔십세
具滿八十歲를

수의지소욕
隨意之所欲하고

견피쇠로상
見彼衰老相

발백이면추
髮白而面皺하며

치소형고갈
齒疎形枯竭하고

넘기사불구
念其死不久하여

아금응당교
我今應當敎하여

령득어도과
令得於道果라하고

즉위방편설
卽爲方便說

넬반진실법
涅槃眞實法하되

세개불퇴고
世皆不牢固하여

여수말포염
如水沫泡燄이니

여 등 함 응 당
汝等咸應當

질 생 염 리 심
疾生厭離心 하라

제 인 문 시 법
諸人聞是法 하고

개 득 아 라 한
皆得阿羅漢 하여

구 족 륜 신 통
具足六神通

삼 명 팔 해 탈
三明八解脫 하여도

최 후 제 오 십
最後第五十 이

문 일 게 수 희
聞一偈隨喜 하면

시 인 복 승 피
是人福勝彼 하여

불 가 위 비 유
不可爲譬喩 니라

여 시 전 전 문
如是展轉聞 하여도

기 복 상 무 량
其福尙無量 커늘

하 황 어 법 회
何況於法會 에서

초 문 수 희 자
初聞隨喜者 이라

약 유 권 일 인
若有勸一人 하여

장 인 청 법 화
將引聽法華 하되

언 차 경 심 묘
言此經深妙 하고

천 만 겁 난 우
千萬劫難遇 하여

즉 수 교 왕 청
卽受敎往聽 하고

내 지 수 유 문
乃至須臾聞 하면

사 인 지 복 보
斯人之福報 를

금 당 분 별 설
今當分別說 하리라

세세무구환
世世無口患 하고

치불소황흑
齒不疎黃黑 하며

순불후건결
脣不厚褻缺 하여

무유가악상
無有可惡相 하며

설불건흑단
舌不乾黑短 하고

비고수차직
鼻高修且直 하며

액광이평정
額廣而平正 하고

면목실단엄
面目悉端嚴 하여

위인소희견
爲人所喜見 이며

구기무취예
口氣無臭穢 하고

우발화지향
優鉢華之香 이

상종기구출
常從其口出 이라

약고예승방
若故詣僧坊 하여

욕청법화경
欲聽法華經 하여

수유문환희
須與聞歡喜 하면

금당설기복
今當說其福 하리라

후생천인중
後生天人中 하여

득묘상마거
得妙象馬車 와

진보지련여
珍寶之輦興 하여

급승천궁전
及乘天宮殿 이라

약어강법처
若於講法處 에

권인좌청경
勸人坐聽經 하면

시복인연득
是福因緣得

석범전륜좌
釋梵轉輪座 하니

하황일심청
何況一心聽 하고

해설기의취
解說其義趣 하며

여설이수행
如說而修行 하면

기복불가한
其福不可限 이니라

묘법련화경 수희공덕품 종
妙法蓮華經 隨喜功德品 終

묘법蓮華經 법사功德품 제십구
妙法蓮華經 法師功德品 第十九

이시 불고상정진보살마가살 약선남자 선
爾時에 佛告常精進菩薩摩訶薩 하시되 若善男子 善

녀인 수지시법화경 약독 약송 약해설 약
女人이 受持是法華經 하고 若讀 若誦 하며 若解說 若

서사 시인 당득팔백안공덕 천이백이공덕
書寫 하면 是人은 當得八百眼功德과 千二百耳功德과

팔백비공덕 천이백설공덕 팔백신공덕 천이
八百鼻功德과 千二百舌功德과 八百身功德과 千二

백의공덕 이시공덕 장엄륙근 개령청정
百意功德이니라 以是功德으로 莊嚴六根 하여 皆令淸淨

이니라

시선남자 선녀인 부모소생 청정육안 견어삼
是善男子 善女人은 父母所生 淸淨肉眼으로 見於三

천대천세계 내외소유산림하해 하지아비지
千大千世界에 內外所有山林河海 하되 下至阿鼻地

옥 상지유정 역견기중 일체중생 급업인
獄 하고 上至有頂 하며 亦見其中에 一切衆生과 及業因

연 과보생처 실견실지
緣과 果報生處 悉見悉知니라

이시 세 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世尊이欲重宣此義하여而說偈言하시되

약어대중중
若於大衆中에

이무소외심
以無所畏心으로

설시법화경
說是法華經하면

여청기공덕
汝聽其功德하라

시인득팔백
是人得八百

공덕수승안
功德殊勝眼이니

이시장엄고
以是莊嚴故로

기목심청정
其目甚淸淨이니라

부모소생안
父母所生眼으로

실견삼천제
悉見三千界의

내외미루산
內外彌樓山과

수미급철위
須彌及鐵圍와

병제여산림
并諸餘山林과

대해강하수
大海江河水하며

하지아비옥
下至阿鼻獄하고

상지유정천
上至有頂天의

기중제중생
其中諸衆生과

일체개실견
一切皆悉見하며

수미득천안
雖未得天眼이나

육안력여시
肉眼力如是니라

부차상정진 약선남자 선녀인 수지차경 약
復次常精進아 若善男子 善女人이 受持此經 하여 若

독약송 약해설 약서사 득천이백이공덕
讀若誦 하며 若解說 若書寫 하여 得千二百耳功德 이나라

이시청정이 무삼천대천세계 하지아비지옥
以是清淨耳로 聞三千大千世界의 下至阿鼻地獄 하고

상지유정 기증내외 증종어언음성 상성 마성
上至有頂 其中內外의 種種語言音聲 하되 象聲 馬聲

우성 거성 제곡성 수탄성 라성 고성 종성 령성
牛聲 車聲 啼哭聲 愁歎聲 螺聲 鼓聲 鐘聲 鈴聲

소성 어성 남성 녀성 동자성 동녀성 법성 비법
笑聲 語聲 男聲 女聲 童子聲 童女聲 法聲 非法

성 고성 락성 범부성 성인성 희성 불희성 천성
聲 苦聲 樂聲 凡夫聲 聖人聲 喜聲 不喜聲 天聲

룡성 야차성 건달파성 아수라성 가루라성 긴나
龍聲 夜叉聲 乾闥婆聲 阿修羅聲 迦樓羅聲 緊那

라성 마후라가성 화성수성 풍성 지옥성 축생성
羅聲 摩睺羅伽聲 火聲 水聲 風聲 地獄聲 畜生聲

아귀성 비구성 비구니성 성문성 벽지불성 보살
餓鬼聲 比丘聲 比丘尼聲 聲聞聲 辟支佛聲 菩薩

성 불성 이요언지 삼천대천세계중 일체내
聲 佛聲 이라 以要言之 하면 三千大千世界中 一切內

외 소 유 제 성 수 미 득 천 이 이 부 모 소 생 청 정 상
外 의 所 有 諸 聲 을 雖 未 得 天 耳 나 以 父 母 所 生 清 淨 常

이 개 실 문 지 여 시 분 별 종 종 음 성 이 불 괴
耳 로 皆 悉 聞 知 니라 如 是 分 別 種 種 音 聲 하되 而 不 壞

이 근
耳 根 이니라

이 시 세 존 욕 중 선 차 의 이 설 계 언
爾 時 에 世 尊 이 欲 重 宣 此 義 하여 而 說 偈 言 하시되

부 모 소 생 이
父 母 所 生 耳 는

청 정 무 탁 예
清 淨 無 濁 穢 하여

이 차 상 이 문
以 此 常 耳 聞

삼 천 세 계 성
三 千 世 界 聲 이니라

상 마 거 우 성
象 馬 車 牛 聲

종 령 라 고 성
鐘 鈴 螺 鼓 聲 과

금 슬 공 후 성
琴 瑟 箏 篳 聲

소 적 지 음 성
簫 笛 之 音 聲 과

청 정 호 가 성
清 淨 好 歌 聲 을

청 지 이 불 착
聽 之 而 不 著 하고

무 수 종 인 성
無 數 種 人 聲 을

문 실 능 해 료
聞 悉 能 解 了 하며

우 문 제 천 성
又 聞 諸 天 聲 과

미 묘 지 가 음
微 妙 之 歌 音 하고

급무남녀성
及聞男女聲

동자동녀성
童子童女聲 하며

산천험곡중
山川險谷中 의

가릉빈가성
迦陵頻伽聲 과

명명등제조
命命等諸鳥 의

실문기음성
悉聞其音聲 하고

지옥중고통
地獄衆苦痛 과

종종초독성
種種楚毒聲 과

아귀기갈핍
餓鬼飢渴逼 하여

구색음식성
求索飲食聲 과

제아수라등
諸阿修羅等 이

거재대해변
居在大海邊 하여

자공언어시
自共言語時

출우대음성
出于大音聲 을

여시설법자
如是說法者

안주어차간
安住於此間 하여

요무시중성
遙聞是衆聲 하되

이불괴이근
而不壞耳根 이니라

십방세계중
十方世界中 에

금수명상호
禽獸鳴相呼 를

기설법지인
其說法之人 은

어차실문지
於此悉聞之 하며

기 제 범 천 상
其 諸 梵 天 上 의

광 음 급 편 정
光 音 及 徧 淨 과

내 지 유 정 천
乃 至 有 頂 天

언 어 지 음 성
言 語 之 音 聲 을

법 사 주 어 차
法 師 住 於 此 하여

실 개 득 무 지
悉 皆 得 聞 之 하며

일 체 비 구 중
一 切 比 丘 衆 과

급 제 비 구 니
及 諸 比 丘 尼 가

약 독 송 경 전
若 讀 誦 經 典 하며

약 위 타 인 설
若 爲 他 人 說 을

법 사 주 어 차
法 師 住 於 此 하여

실 개 득 무 지
悉 皆 得 聞 之 니라

부 유 제 보 살
復 有 諸 菩 薩 이

독 송 어 경 법
讀 誦 於 經 法 하며

약 위 타 인 설
若 爲 他 人 說 하고

찬 집 해 기 의
撰 集 解 其 義 하는

여 시 제 음 성
如 是 諸 音 聲 을

실 개 득 무 지
悉 皆 得 聞 之 하며

제 불 대 성 존
諸 佛 大 聖 尊 이

교 화 중 생 자
敎 化 衆 生 者 와

어 제 대 회 중
於 諸 大 會 中 에서

연 설 미 묘 법
演 說 微 妙 法 을

지차법화자
持此法華者는

실개득문지
悉皆得聞之하며

삼천대천계
三千大千界의

내외제음성
內外諸音聲을

하지아비옥
下至阿鼻獄하고

상지유정천
上至有頂天

개문기음성
皆聞其音聲하되

이불괴이근
而不壞耳根이니라

기이총리고
其耳聰利故로

실능분별지
悉能分別知니라

지시법화자
持是法華者는

수미득천이
雖未得天耳나

단용소생이
但用所生耳로

공덕이여시
功德已如是니라

부차상정진 약선남자 선녀인 수지시경 약
復次常精進아 若善男子 善女人이 受持是經하여 若

독약송 약해설 약서사 성취팔백비공덕
讀若誦하고 若解說 若書寫하면 成就八百鼻功德이니라

이시청정비근 문어삼천대천세계 상하내외
以是清淨鼻根으로 聞於三千大千世界 上下內外的

종종제향 수만나화향 사제화향 말리화향 첨
種種諸香하되 須曼那華香 闍提華香 末利華香 瞻

목화향 파라라화향 적련화향 청련화향 백련화향
蘗華香 波羅羅華香 赤蓮華香 靑蓮華香 白蓮華香

화수향 과수향 전단향 침수향 다마라발향 다가
華樹香 果樹香 梅檀香 沈水香 多摩羅跋香 多伽

라향 급천만종화향 약말 약환 약도향 지시
羅香 과 及千萬種和香 과 若抹 若丸 若塗香 을 持是

경자 어차간주 실능분별 우부별지중생
經者 는 於此間住 하여 悉能分別 이니라 又復別知衆生

지향 상향 마향 우양등향 남향 녀향 동자향
之香 이니 象香 馬香 牛羊等香 과 男香 女香 童子香

동녀향 급초목총림향 약근약원 소유제향 실
童女香 과 及草木叢林香 의 若近若遠 所有諸香 을 悉

개득문 분별불착 지시경자 수주어차
皆得聞 하여 分別不錯 이니라 持是經者 는 雖住於此나

역무천상제천지향 파리질다라 구비타라수향
亦聞天上諸天之香 이니 波利質多羅 拘鞞陀羅樹香

급만타라화향 마가만타라화향 만수사화향 마가
及曼陀羅華香 摩訶曼陀羅華香 曼殊沙華香 摩訶

만수사화향 전단침수 종종말향 제잡화향
曼殊沙華香 과 梅檀沈水 와 種種抹香 과 諸雜華香 의

여시등천향화합 소출지향 무불문지 우문
如是等天香和合 하여 所出之香 을 無不聞知 나라 又聞

제 천 신 향 석 제 환 인 재 승 전 상 오 욕 오락 희
諸 天 身 香 이니 釋 提 桓 因 이 在 勝 殿 上 하여 五 欲 娛 樂 嬉

희 시 향 약 재 묘 법 당 상 위 도 리 제 천 설 법 시 향
戲 時 香 과 若 在 妙 法 堂 上 하여 爲 忉 利 諸 天 說 法 時 香 과

약 어 제 원 유 희 시 향 급 여 천 등 남 녀 신 향 개 실 요
若 於 諸 園 遊 戲 時 香 과 及 餘 天 等 男 女 身 香 을 皆 悉 遙

문 여 시 전 전 내 지 범 세 상 지 유 정 제 천
聞 이니라 如 是 展 轉 하여 乃 至 梵 世 하고 上 至 有 頂 諸 天

신 향 역 개 문 지 병 문 제 천 소 소 지 향 급 성 문
身 香 을 亦 皆 聞 之 하며 并 聞 諸 天 所 燒 之 香 하며 及 聲 聞

향 벽 지 불 향 보 살 향 제 불 신 향 역 개 요 문 지
香 辟 支 佛 香 菩 薩 香 諸 佛 身 香 을 亦 皆 遙 聞 하여 知

기 소 재 수 문 차 향 연 어 비 근 불 괴 불 착 약
其 所 在 니라 雖 聞 此 香 이나 然 於 鼻 根 不 壞 不 錯 이니라 若

욕 분 별 위 타 인 설 억 념 불 류
欲 分 別 하여 爲 他 人 說 하면 憶 念 不 謬 니라

이 시 세 존 욕 중 선 차 의 이 설 게 언
爾 時 에 世 尊 이 欲 重 宣 此 義 하여 而 說 偈 言 하시되

시 인 비 청 정
是 人 鼻 清 淨 하여

어 차 세 계 중
於 此 世 界 中 에

약 향 약 취 물
若 香 若 臭 物 을

종 종 실 문 지
種 種 悉 聞 知 니라

수만나사제
須曼那闍提

다마라전단
多摩羅梅檀과

침수급계향
沈水及桂香

종종화과향
種種華果香과

급지증생향
及知衆生香

남자녀인향
男子女人香을

설법자원주
說法者遠住하여

무향지소재
聞香知所在나라

대세전륜왕
大勢轉輪王

소전륜급자
小轉輪及子와

구신제궁인
群臣諸宮人을

무향지소재
聞香知所在하며

신소착진보
身所著珍寶와

급지중보장
及地中寶藏과

전륜왕보녀
轉輪王寶女를

무향지소재
聞香知所在나라

제인엄신구
諸人嚴身具와

의복급영락
衣服及瓔珞과

종종소도향
種種所塗香을

무향지기신
聞香知其身하며

제천약행좌
諸天若行坐하고

유희급신변
遊戲及神變을

지시법화자
持是法華者는

무향실능지
聞香悉能知나라

제수화과실
諸樹華果實과

급소유향기
及蘇油香氣를

지경자주차
持經者住此하여

실지기소재
悉知其所在하며

제산심험처
諸山深險處에

전단수화부
梅檀樹華數하고

중생재중자
衆生在中者를

무향실능지
聞香悉能知나라

철위산대해
鐵圍山大海와

지중제중생
地中諸衆生을

지경자문향
持經者聞香하고

실지기소재
悉知其所在하며

아수라남녀
阿修羅男女와

급기제권속
及其諸眷屬의

투쟁유희시
鬪諍遊戲時를

무향개능지
聞香皆能知나라

광야험애처
曠野險隘處의

사자상호랑
獅子象虎狼과

야우수우등
野牛水牛等을

무향지소재
聞香知所在하며

약유회임자
若 有 懷 妊 者

미변기남녀와
未 辯 其 男 女 와

무근급비인
無 根 及 非 人 을

무향실능지
聞 香 悉 能 知 하며

이무향력고
以 聞 香 力 故 로

지기초회임
知 其 初 懷 妊 에

성취불성취
成 就 不 成 就 와

안락산복자
安 樂 產 福 子 하며

이무향력고
以 聞 香 力 故 로

지남녀소념과
知 男 女 所 念 과

염욕치에심
染 欲 癡 恚 心 하며

역지수선자
亦 知 修 善 者 니라

지중중복장
地 中 衆 伏 藏

금은제진보와
金 銀 諸 珍 寶 와

동기지소성
銅 器 之 所 盛 을

무향실능지
聞 香 悉 能 知 하며

종종제영락의
種 種 諸 瓔 珞 의

무능식기가
無 能 識 其 價 를

무향지귀천과
聞 香 知 貴 賤 과

출처급소재
出 處 及 所 在 니라

천상제화등의
天 上 諸 華 等 의

만타만수사
曼 陀 曼 殊 沙

파리질다수
波利質多樹를

무향실능지
聞香悉能知하며

천상제궁전
天上諸宮殿의

상중하차별
上中下差別과

중보화장엄
衆寶華莊嚴을

무향실능지
聞香悉能知나라

천원림승전
天園林勝殿과

제관묘법당
諸觀妙法堂에

재중이오락
在中而娛樂을

무향실능지
聞香悉能知하며

제천악청법
諸天若聽法하고

혹수오욕시
或受五欲時에

래왕행좌와
來往行坐臥를

무향실능지
聞香悉能知나라

천녀소착의
天女所著衣에

호화향장엄
好華香莊嚴하고

주선유희시
周旋遊戲時를

무향실능지
聞香悉能知하며

여시전전상
如是展轉上하여

내지어범세
乃至於梵世

입선출선자
入禪出禪者를

무향실능지
聞香悉能知하며

광 음 편 정 천
光 音 徧 淨 天 과

내 지 유 유 정
乃 至 于 有 頂

초 생 급 퇴 물
初 生 及 退 沒 을

문 향 실 능 지
聞 香 悉 能 知 나라

제 비 구 중 등
諸 比 丘 衆 等 이

어 법 상 정 진
於 法 常 精 進 하 되

약 좌 약 경 행
若 坐 若 經 行 하며

급 독 송 경 전
及 讀 誦 經 典 하며

혹 재 림 수 하
或 在 林 樹 下 하여

전 정 이 좌 선
專 精 而 坐 禪 을

지 경 자 문 향
持 經 者 聞 香 하고

실 지 기 소 재
悉 知 其 所 在 하며

보 살 지 견 고
菩 薩 志 堅 固 하여

좌 선 약 독 송
坐 禪 若 讀 誦 하며

혹 위 인 설 법
或 爲 人 說 法 을

문 향 실 능 지
聞 香 悉 能 知 나라

재 재 방 세 존
在 在 方 世 尊 이

일 체 소 공 경
一 切 所 恭 敬 하고

민 중 이 설 법
慫 衆 而 說 法 을

문 향 실 능 지
聞 香 悉 能 知 하며

중 생 재 불 전
衆 生 在 佛 前 하여

문 경 개 환 희
聞 經 皆 歡 喜 하며

여법이수행
如法而修行을

무향실능지
聞香悉能知나라

수미득보살
雖未得菩薩

무루법생비
無漏法生鼻나

이시지경자
而是持經者는

선득차비상
先得此鼻相이나라

부차상정진 약선남자 선녀인 수지시경 약
復次常精進아 若善男子 善女人이 受持是經 하여 若

독 약송 약해설 약서사 득천이백설공덕
讀 若誦하고 若解說 若書寫하면 得千二百舌功德이니

약호약추 약미불미 급제고삼물 재기설
라 若好若醜거나 若美不美거나 及諸苦澁物이 在其舌

근 개변성상미 여천감로 무불미자 약
根이면 皆變成上味하되 如天甘露하여 無不美者나라 若

이설근 어대중중 유소연설 출심묘성 능
以舌根으로 於大衆中 有所演說하면 出深妙聲하여 能

입기심 개령환희쾌락
入其心하여 皆令歡喜快樂이나라

우제천자 천녀 석범제천 문시심묘음성 유
又諸天子 天女와 釋梵諸天은 聞是深妙音聲하고 有

소연설 언론차제 개실래청 급제룡 룡녀
所演說과 言論次第를 皆悉來聽하며 及諸龍 龍女와

야차 야차녀 건달파 건달파녀 아수라 아수라
夜叉 夜叉女와 乾闥婆 乾闥婆女와 阿修羅 阿修羅

녀 가루라 가루라녀 긴나라 긴나라녀 마후
女와 迦樓羅 迦樓羅女와 緊那羅 緊那羅女와 摩睺

라가 마후라가녀 위청법고 개래친근 공경
羅伽 摩睺羅伽女는 爲聽法故로 皆來親近하고 恭敬

공양 급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국왕왕
供養하며 及比丘 比丘尼와 優婆塞 優婆夷와 國王王

자 구신권속 소전륜왕 대전륜왕 칠보천자
子와 群臣眷屬이며 小轉輪王 大轉輪王과 七寶千子

내외권속 승기궁전 구래청법 이시보살 선
內外眷屬이 乘其宮殿하고 俱來聽法하며 以是菩薩 善

설법고 파라문 거사 국내인민 진기형수
說法故로 婆羅門 居士와 國內人民이 盡其形壽토록

수시공양 우제성문 벽지불 보살 제불 상락
隨侍供養이니라 又諸聲聞 辟支佛 菩薩 諸佛이 常樂

견지 시인소재방면제불 개향기처설법
見之하며 是人所在方面諸佛은 皆向其處說法하시니

실능수지일체불법 우능출어심묘법음
悉能受持一切佛法하며 又能出於深妙法音이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시되

시인설근정
是人舌根淨 하여

종불수악미
終不受惡味 하며

기유소식담
其有所食噉 은

실개성감로
悉皆成甘露 나라

이심정묘성
以深淨妙聲 으로

어대중설법
於大衆說法 하되

이제인연유
以諸因緣喻 로

인도중생심
引導衆生心 하여

문자개환희
聞者皆歡喜 하며

설제상공양
設諸上供養 이나라

제천룡야차
諸天龍夜叉

급아수라등
及阿修羅 등이

개이공경심
皆以恭敬心 으로

이공래청법
而共來聽法 이나라

시설법지인
是說法之人 이

약욕이묘음
若欲以妙音 으로

편만삼천계
徧滿三千界 하면

수의즉능지
隨意卽能至 하며

대소전륜왕
大小轉輪王 과

급천자권속
及千子眷屬 이

합장공경심
合掌恭敬心 으로

상래청수법
常來聽受法 이나라

제천룡야차
諸天龍夜叉

라찰비사사
羅刹毗舍闍도

역이환희심
亦以歡喜心으로

상락래공양
常樂來供養하며

범천왕마왕
梵天王魔王

자재대자재
自在大自在와

여시제천중
如是諸天衆도

상래지기소
常來至其所나라

제불급제자
諸佛及弟子는

문기설법음
聞其說法音하고

상념이수호
常念而守護하며

혹시위현신
或時爲現身이나라

부차상정진 약선남자 선녀인 수지시경 약
復次常精進아 若善男子 善女人이 受持是經 하여 若

독약송 약해설 약서사 득팔백신공덕 득
讀若誦 若解說 若書寫하면 得八百身功德이나라 得

청정신 여정류리 중생희견 기신정고
清淨身하되 如淨琉璃하여 衆生喜見하며 其身淨故로

삼천대천세계중생 생시사시 상하호추 생선
三千大千世界衆生의 生時死時와 上下好醜와 生善

처악처 실어중현 급철위산 대철위산 미루산
處惡處 悉於中現하며 及鐵圍山大鐵圍山과 彌樓山

마가미루산등제산 급기중중생 실어중현
摩訶彌樓山等諸山과 及其 中 衆生이 悉 於 中 現 하며

하지아비지옥 상지유정 소유급중생 실어중
下至 阿鼻地獄 하고 上至 有頂 所有 及 衆生이 悉 於 中

현 약성문 벽지불 보살 제불설법 개어신중
現 하며 若 聲聞 辟支佛 菩薩 諸佛 說法이 皆 於 身 中에

현기색상
現 其 色 象 이나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 時에 世尊이 欲 重宣此義 하여 而 說 偈 言 하시되

약지법화자
若 持 法 華 者는

기신심청정
其 身 甚 清 淨 하며

여피정류리
如 彼 淨 瑠 璃 하여

중생개희견
衆生 皆 喜 見 이나라

우여정명경
又 如 淨 明 鏡에

실견제색상
悉 見 諸 色 像 하여

보살어정신
菩 薩 於 淨 身에

개견세소유
皆 見 世 所 有 나라

유독자명료
唯 獨 自 明 了 하고

여인소불견
餘 人 所 不 見 이라

삼천세계중
三 千 世 界 中의

일체제구맹
一 切 諸 群 萌 과

천인아수라
天人阿修羅와

지옥귀축생의
地獄鬼畜生의

여시제색상
如是諸色像이

개어신중현
皆於身中現이니라

제천등궁전
諸天等宮殿과

내지어유정
乃至於有頂과

철위급미루
鐵圍及彌樓

마가미루산
摩訶彌樓山과

제대해수등
諸大海水等이

개어신중현
皆於身中現하며

제불급성문
諸佛及聲聞

불자보살등
佛子菩薩等이

약독약재중
若獨若在衆하여

설법실개현
說法悉皆現하며

수미득무루
雖未得無漏

법성지묘신
法性之妙身이나

이청정상체
以清淨常體로

일체어중현
一切於中現이니라

부차상정진약선남자선녀인여래멸후수지
復次常精進아若善男子善女人이如來滅後에受持

시경약독약송약해설약서사득천이백
是經하여若讀若誦하고若解說若書寫하면得千二百

의공덕 이니라 이시청정의근 내지문일게일구
意功德 이니라 以是清淨意根으로 乃至聞一偈一句라도

통달무량무변지의 해시의이 능연설일구일
通達無量無邊之義리니 解是義已하고 能演說一句一

게 지어일월사월 내지일세 제소설법 수기
偈하되 至於一月四月 乃至一歲하니 諸所說法이 隨其

의취 개여실상불상위배 약설속간경서 치
義趣하여 皆與實相不相違背하며 若說俗間經書나 治

세어언 자생업등 개순정법 삼천대천세
世語言이나 資生業등도 皆順正法이니라 三千大千世

계륙취중생 심지소행 심소동작 심소희론
界六趣衆生의 心之所行과 心所動作과 心所戲論을

개실지지 수미득무루지혜 이기의근 청정여
皆悉知之하니 雖未得無漏智慧나 而其意根清淨如

차 시인유소사 유주량언설 개시불법 무
此하여 是人有所思와 惟籌量言說이 皆是佛法이라 無

불진실 역시선불경중소설
不眞實하며 亦是先佛經中所說이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시되

시인의청정
是人意清淨하고

명리무탁에
明利無濁穢하여

이차묘의근
以此妙意根으로

지상중하법
知上中下法하고

내지문일게
乃至聞一偈라도

통달무량의
通達無量義하여

차제여법설
次第如法說하되

월사월지세
月四月至歲하며

시세계내외
是世界內外

일체제중생의
一切諸衆生의

약천룡급인
若天龍及人과

야차귀신등이
夜叉鬼神等이

기재륙취중
其在六趣中하여

소념약간종
所念若干種을

지법화지보
持法華之報로

일시개실지
一時皆悉知니라

십방무수불
十方無數佛이

백복장엄상
百福莊嚴相으로

위중생설법
爲衆生說法을

실문능수지
悉聞能受持하며

사유무량의
思惟無量義하고

설법역무량
說法亦無量하며

종시불망착
終始不忘錯하니

이지법화고
以持法華故니라

실지제법상
悉知諸法相 하고

수의식차제
隨義識次第 하며

달명자어언
達名字語言 하여

여소지연설
如所知演說 이니라

차인유소설
此人有所說 은

개시선불법
皆是先佛法 이니

이연차법고
以演此法故 로

어중무소외
於衆無所畏 니라

지법화경자
持法華經者 는

의근정약사
意根淨若斯 하여

수미득무루
雖未得無漏 나

선유여시상
先有如是相 이니라

시인지차경
是人持此經 하고

안주희유지
安住希有地 하여

위일체중생
爲一切衆生

환희이애경
歡喜而愛敬 하며

능이천만종
能以千萬種

선교지어언
善巧之語言 으로

분별이설법
分別而說法 은

지법화경고
持法華經故 니라

묘법련화경 법사공덕품 종
妙法蓮華經 法師功德品 終

묘법蓮華經 상불경보살품 제이십
妙法蓮華經 常不輕菩薩品 第二十

이시 불고득대세보살마가살 여금당지
爾時에 佛告得大勢菩薩摩訶薩 하시되 汝今當知 하라

약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지법화경자
若比丘 比丘尼와 優婆塞 優婆夷의 持法華經者를

약유악구 매리비방 획대죄보 여전소설
若有惡口 罵詈誹謗 하면 獲大罪報 하되 如前所說 하고

기소득공덕 여향소설 안이비설신의청정
其所得功德은 如向所說 이듯 眼耳鼻舌身意 清淨 하리

득대세 내왕고석 과무량무변불가사의아승
라 得大勢야 乃往古昔에 過無量無邊不可思議阿僧

기겁 유불 명위음왕여래 응공 정편지 명행
祇劫에 有佛 하시니 名威音王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

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
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

존 겁명리쇠 국명대성 기위음왕불 어
尊 이시라 劫名離衰 요 國名大成 이라 其威音王佛이 於

피세중 위천인 아수라설법 위구성문자
彼世中에 爲天人 阿修羅說法 하시되 爲求聲聞者 하여

설응사체법 도생로병사 구경멸반
는 說應四諦法 하여 度生老病死 하여 究竟涅槃 케하시며

위 구벽지불자 설응십이인연법 위제보
爲求辟支佛者 하여는 說應十二因緣法 하시고 爲諸菩

살 인아녹다라삼막삼보제 설응륙파라밀
薩 하여는 因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여 說應六波羅蜜

법 구경불혜 득대세 시위음왕불수
法 하여 究竟佛慧 케하시니라 得大勢야 是威音王佛 壽는

사십만억 나유타 항하사겁 정법주세겁수 여
四十萬億 那由他 恒河沙劫 이요 正法住世劫數는 如

일염부제미진 상법주세겁수 여사천하미진
一閻浮提微塵 하고 像法住世劫數는 如四天下微塵이

기불요익증생이 연후멸도 정법상법
라 其佛饒益衆生已 하신 然後에 滅度 하시고 正法 像法

멸진지후 어차국토 부유불출 역호위음왕
滅盡之後 於此國土에 復有佛出 하시니 亦號威音王

여래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여시차제 유이만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 이라 如是次第로 有二萬

억불 개동일호 최초위음왕여래 기이멸도
億佛이 皆同一號 니라 最初威音王如來가 既已滅度 하

정법멸후어상법중 증상만비구 유대세력
시고 正法滅後於像法中에 增上慢比丘가 有大勢力 하

이시 유일보살비구 명상불경
더니 爾時 有一 菩薩 比丘 하니 名 常 不 輕 이라

득대세 이하인연 명상불경 시비구범유소
得 大 勢 야 以 何 因 緣 으로 名 常 不 輕 인고 是 比 丘 凡 有 所

견약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개실례배찬
見 若 比 丘 比 丘 尼 와 優 婆 塞 優 婆 夷 를 皆 悉 禮 拜 讚

탄 이작시언 아심경여등 불감경만
歎 하며 而 作 是 言 하되 我 深 敬 汝 等 하여 不 敢 輕 慢 하노라

소이자하 여등개행보살도 당득작불 이
所 以 者 何 오 汝 等 皆 行 菩 薩 道 하여 當 得 作 佛 하리라 而

시비구 불전독송경전 단행례배 내지원견
是 比 丘 는 不 專 讀 誦 經 典 하고 但 行 禮 拜 하며 乃 至 遠 見

사중 역부고왕 례배찬탄 이작시언
四 衆 하여도 亦 復 故 往 하여 禮 拜 讚 歎 하고 而 作 是 言 하되

아불감경어여등 여등개당작불 사중지
我 不 敢 輕 於 汝 等 하노니 汝 等 皆 當 作 佛 하리라 四 衆 之

중 유생진에심불정자 악구 매리언 시무지
中 에서 有 生 瞋 恚 心 不 淨 者 惡 口 로 罵 詈 言 하되 是 無 智

비구 종하소래 자언아불경여 이여아등
比 丘 야 從 何 所 來 하여 自 言 我 不 輕 汝 라하고 而 與 我 等

수기 당득작불 아등 불용여시허망수기
授 記 하며 當 得 作 佛 이라하느냐 我 等 不 用 如 是 虛 妄 授 記

여차경력다년 상피매리 불생진에 상
하노라 如此經歷多年에 常被罵詈나 不生瞋恚 하고 常

작시언 여당작불 설시어시 증인혹이 장
作是言 하되 汝當作佛 하리라 說是語時에 衆人或以 杖

목와석 이타척지 피주원주 유고성창언
木瓦石으로 而打擲之 하면 避走遠住 하여 猶高聲唱言 하

아불감경어여등 여등개당작불 이기상
되 我不敢輕於汝等 하니 汝等皆當作佛 하리라 以其常

작시어고 증상만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作是語故로 增上慢比丘 比丘尼와 優婆塞 優婆夷는

호지위상불경
號之爲常不輕 이라하니라

시비구림욕종시 어허공중 구문위음왕불선
是比丘臨欲終時에 於虛空中에서 具聞威音王佛先

소설 법화경 이십천만억게 실능수지
所說 하신 法華經 二十千萬億 偈 하고는 悉能受持 하고

즉득여상안근청정 이비설신의근청정 득시
卽得如上眼根清淨과 耳鼻舌身意根清淨 하니 得是

륙근청정이 갱증수명이백만억나유타세 광
六根清淨已 하고 更增壽命二百萬億那由他歲 하여 廣

위인설시법화경 어시증상만사중 비구비
爲人說是法華經 하니라 於是增上慢四衆의 比丘比

구니 우파새 우파이 경천시인 위작불경명자
丘尼와 優婆塞 優婆夷 輕賤是人 하여 爲作不輕名者

전기득대신통력 요설변력 대선적력 문기소
가 見其得大神通力 樂說辯力 大善寂力 하고 聞其所

설 개신복수종 시보살 부화천만억중
說 코는 皆信伏隨從 하니라 是菩薩이 復化千萬億衆 하여

령주아녹다라삼막삼보제 명종지후 득치이
令住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고 命終之後에 得值二

천억불 개호일월등명 어기법중 설시법화
千億佛 하니 皆號日月燈明 이며 於其法中에 說是法華

경 이시인연 부치이천억불 동호운자재
經 하니라 以是因緣으로 復值二千億佛 하니 同號雲自在

등왕 어차제불법중 수지독송 위제사중
燈王 이시며 於此諸佛法中에 受持讀誦 하고 爲諸四衆 하

설차경전고 득시상안청정 이비설신의 제
여 說此經典故로 得是常眼清淨 하고 耳鼻舌身意 諸

근청정 어사중중설법 심무소외 득대세
根清淨 하여 於四衆中說法 하되 心無所畏 니라 得大勢야

시상불경보살마가살 공양여시약간제불 공
是常不輕菩薩摩訶薩이 供養如是若干諸佛 하고 恭

경존중찬탄 종제선근 어후부치 천만억불
敬尊重讚歎 하며 種諸善根 하고 於後復值 千萬億佛 하

역어제불법중 설시경전 공덕성취 당득
며 亦於諸佛法中에 說 是經 典 하여 功 德 成 就 하고 當 得

작불
作佛 하나라

득대세 어의운하 이시 상불경보살 기이인호
得大勢야 於意云何오 爾時 常不輕菩薩이 豈異人乎

즉아신시 약아어숙세 불수지독송차경 위
아 則我身是라 若我於宿世에 不 受 持 讀 誦 此 經 하여 爲

타인설자 불능질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아
他人說者면 不 能 疾 得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하리라 我

어선불소 수지독송차경 위인설고 질득아
於先佛所에서 受 持 讀 誦 此 經 하여 爲 人 說 故로 疾 得 阿

녹다라삼막삼보제
耨多羅三藐三菩提니라

득대세 피시사중 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
得大勢야 彼時四衆의 比丘 比丘尼와 優婆塞 優婆

이 이진에의 경천아고 이백억겁 상불치불
夷는 以瞋恚意로 輕賤我故로 二 百 億 劫에 常 不 值 佛 하

불문법 불견승 천겁 어아비지옥 수대고
고 不聞法 不 見 僧 하며 千 劫을 於 阿 鼻 地 獄에서 受 大 苦

뇌 필시죄이 부우상불경보살교화 아녹
惱 하나라 畢 是 罪 已 하고 復 遇 常 不 輕 菩 薩 教 化 하여 阿 耨

다라삼막삼보제 득대세 어여의운하 이시
多羅三藐三菩提 하나라 得大勢야 於汝意云何 오 爾時

사중 상경시보살자 기이인호 금차회중 발
四衆의 常輕是菩薩者가 豈異人乎아 今此會中의 跋

타파라등오백보살 사자월등오백비구 니사불
陀婆羅等五百菩薩과 師子月等五百比丘와 尼思弗

등 오백우파새 개어아녹다라삼막삼보제 불퇴
等 五百優婆塞로서 皆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退

전자시
轉者是나라

득대세 당지 시법화경 대요익제보살마가
得大勢야 當知하라 是法華經은 大饒益諸菩薩摩訶

살 능령지어 아녹다라삼막삼보제 시고
薩하여 能令至於 阿耨多羅三藐三菩提 나라 是故로

제보살마가살 어여래멸후 상응수지독송
諸菩薩摩訶薩은 於如來滅後에 常應受持讀誦하며

해설서사시경
解說書寫是經이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하여 而說偈言하시되

과거유불
過去有佛하니

호위음왕
號威音王이시라

신지무량
神智無量 하여

장도일체
將導一切 라

천인룡신
天人龍神 이

소공공양
所共供養 이나라

시불멸후
是佛滅後

법욕진시
法欲盡時 에

유일보살
有一菩薩 하니

명상불경
名常不輕 이라

시제사중
時諸四衆 이

제착어법
計著於法 커늘

불경보살
不輕菩薩 이

왕도기소
往到其所 하여

이어지언
而語之言 하되

아불경여
我不輕汝 니

여등행도
汝等行道 하여

개당작불
皆當作佛 하리라

제인문이
諸人聞已 하고

경훼매리
輕毀罵詈 거늘

불경보살
不輕菩薩 은

능인수지
能忍受之 하더니

기죄필이
其罪畢已 하고

림명종시
臨命終時 에

득무차경
得聞此經 하고

륙근청정
六根淸淨 함이라

신통력고
神通力故 로

증익수명
增益壽命 하고

부위제인
復爲諸人 하여

광설시경
廣說是經 하니

제착법중
諸著法衆 을

개몽보살
皆蒙菩薩

교화성취
敎化成就 하여

령주불도
令住佛道 하니라

불경명종
不輕命終 하여

치무수불
值無數佛 하고

설시경고
說是經故 로

득무량복
得無量福 하고

점구공덕
漸具功德 하여

질성불도
疾成佛道 하니라

피시불경
彼時不輕 은

즉아신시
卽我身是 요

시사부중
時四部衆

착법지자
著法之者 는

무불경언
聞不輕言

여당작불
汝當作佛 하고

이시인연
以是因緣으로

치무수불
值無數佛하니

차회보살
此會菩薩

오백지중
五百之衆과

병급사부
并及四部

청신사녀
清信士女

금어아전
今於我前에서

청법자시
聽法者是나라

아어전세
我於前世에

권시제인
勸是諸人하여

청수사경
聽受斯經

제일지법
第一之法하며

개시교인
開示敎人하여

령주널반
令住涅槃케하니

세세수지
世世受持

여시경전
如是經典하니라

억억만겁
億億萬劫으로

지불가의
至不可議토록

시내득문
時乃得聞

시법화경
是法華經하며

억억만겁
億億萬劫으로

지불가의
至不可議토록

제 불 세 존 이
諸 佛 世 尊 이

시 설 시 경
時 說 是 經 하시느니라

시 고 행 자
是 故 行 者 는

어 불 멸 후
於 佛 滅 後 에

무 여 시 경
聞 如 是 經 하고

물 생 의 혹
勿 生 疑 惑 하며

응 당 일 심
應 當 一 心 으로

광 설 차 경
廣 說 此 經 하면

세 세 치 불
世 世 值 佛 하여

질 성 불 도
疾 成 佛 道 하리라

묘 법련 화 경 상 불 경 보살 품 종
妙 法 蓮 華 經 常 不 輕 菩 薩 品 終

묘법蓮華經 여래神力품 제이십일
妙法蓮華經 如來神力品 第二十一

이시 천세계미진등 보살마가살 중지 응출자 개
爾時 千世界微塵等 菩薩摩訶薩 從地涌出者 皆

어불전에 일심합장 첨앙존안 이백불언
於佛前에 一心合掌 하고 瞻仰尊顏 하며 而白佛言 하되

세존 아등어불멸후 세존분신 소재국토
世尊 이시여 我等 於佛滅後에 世尊分身 의 所在國土

멸도지처 당광설차경 소이자하 아등
滅度之處에서 當廣說此經 하리이다 所以者何 오我等

역자욕득시진정대법 수지독송 해설서사
亦自欲得是眞淨大法 하여 受持讀誦 하고 解說書寫 하

이공양지
여而供養之니이다

이시 세존 어문수사리등 무량백천만억 구주
爾時에 世尊이 於文殊師利等 無量百千萬億과 舊住

사파세계 보살마가살 급제비구 비구니 우파
娑婆世界의 菩薩摩訶薩과 及諸比丘 比丘尼와 優婆

새 우파이 천룡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塞 優婆夷와 天龍夜叉와 乾闥婆 阿修羅와 伽樓羅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등 일체중전 현대신
緊那羅와 摩睺羅伽 人非人等의 一切衆前에 現大神

력 출광장설 상지범세 일체모공 방
力 하여 出 廣 長 舌 하시니 上 至 梵 世 하고 一 切 毛 孔 에서 放

어 무량무수색광 개실편조 십방세계 증보
於 無 量 無 數 色 光 하여 皆 悉 徧 照 十 方 世 界 하니 衆 寶

수하사자좌상제불 역부여시 출광장설 방
樹 下 師 子 座 上 諸 佛 도 亦 復 如 是 하여 出 廣 長 舌 하고 放

무량광 석가모니불 급보수하제불 현신력
無 量 光 하심이라 釋 迦 牟 尼 佛 及 寶 樹 下 諸 佛 도 現 神 力

시 만백천세 연후환섭설상 일시경해
時 滿 百 千 歲 하시고 然 後 還 攝 舌 相 하시고 一 時 譬 歎 하시

구공탄지 시이음성 편지십방제불세계
며 俱 共 彈 指 하시니 是 二 音 聲 이 徧 至 十 方 諸 佛 世 界 하여

지개륙종진동 기증중생 천룡야차 건달
地 皆 六 種 震 動 이라 其 中 衆 生 과 天 龍 夜 叉 와 乾 闥

파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인비인등
婆 阿 修 羅 와 伽 樓 羅 緊 那 羅 와 摩 睺 羅 伽 人 非 人 等 이

이불신력고 개견차사파세계 무량무변 백천만
以 佛 神 力 故 로 皆 見 此 娑 婆 世 界 無 量 無 邊 百 千 萬

억 증보수하사자좌상제불 급견석가모니불
億 의 衆 寶 樹 下 師 子 座 上 諸 佛 하며 及 見 釋 迦 牟 尼 佛 이

공다보여래 재보탑중 좌사자좌 우견무량
共 多 寶 如 來 와 在 寶 塔 中 하여 坐 師 子 座 하며 又 見 無 量

무변 백천만억 보살마가살 급제사중 공경위요
無邊百千萬億의菩薩摩訶薩及諸四衆이恭敬圍繞

석가모니불 기견시이 개대환희 득미증
釋迦牟尼佛하니既見是已하고皆大歡喜하여得未曾

유 즉시제천 어허공중 고성창언 과차
有하니라卽時諸天이於虛空中에서高聲唱言하되過此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승기세제유국 명사파
無量無邊百千萬億阿僧祇世界有國하되名娑婆요

시중유불 명석가모니 금위제보살마가살
是中有佛하시니名釋迦牟尼시라今爲諸菩薩摩訶薩

설대승경 명묘법련화 교보살법 불소
하여說大乘經하시니名妙法蓮華라敎菩薩法이며佛所

호념 여등당심심수희 역당례배공양석가
護念이니汝等當深心隨喜하고亦當禮拜供養釋迦

모니불 피제중생 문허공중성이 합장향
牟尼佛이니라彼諸衆生이聞虛空中聲已하고合掌向

사파세계 작여시언 남무석가모니불 남무
娑婆世界하며作如是言하되南無釋迦牟尼佛南無

석가모니불 이종종화향 영락번개 급제엄
釋迦牟尼佛하고以種種華香과瓔珞幡蓋와及諸嚴

신지구 진보묘물 개공요산사파세계 소산
身之具와珍寶妙物을皆共遙散娑婆世界하니所散

제물이 종십방래 비여유집 변성보장 편
諸物이從十方來하니譬如雲集이라變成寶帳하여徧

부차간제불지상 우시십방세계 통달무애
覆此間諸佛之上하니于時十方世界는通達無礙하여

여일불토
如一佛土니라

이시불고상행등보살대중 제불신력 여시
爾時佛告上行等菩薩大衆하시되諸佛神力이如是

무량무변불가사의약아이시신력 어무량무
無量無邊不可思議니若我以是神力으로於無量無

변백천만억아승기겁위촉루고설차경공덕
邊百千萬億阿僧祇劫에爲囑累故로說此經功德하

유불능진 이요언지 여래일체소유지법
여도猶不能盡이리라以要言之컨대如來一切所有之法

여래일체자재신력 여래일체비요지장 여래
과如來一切自在神力과如來一切秘要之藏과如來

일체심심지사 개어차경선시현설
一切甚深之事를皆於此經宣示顯說이니라

시고여등 어여래멸후 응당일심수지독송
是故汝等은於如來滅後에應當一心受持讀誦하고

해설서사 여설수행 소재국토 약유수지
解說書寫하며如說修行하라所在國土에서若有受持

독송 해설서사 여설수행 약경권소주지
讀誦 하고 解說書寫 하여 如說修行 하며 若經卷所住之

처 약어원중 약어림중 약어수하 약
處가 若於園中 이거나 若於林中 이거나 若於樹下 거나 若

어승방 약백의사 약재전당 약산곡광
於僧坊 이거나 若白衣舍 거나 若在殿堂 이거나 若山谷曠

야 시중개응기탑공양 소이자하 당지시
野라도 是中皆應起塔供養 할지니라 所以者何오 當知是

처 즉시도장 제불어차득 아녹다라삼막삼보
處는 卽是道場이니 諸佛於此得 阿耨多羅三藐三菩

제 제불어차전우법륜 제불어차이반넬
提 하시며 諸佛於此轉于法輪 하시며 諸佛於此而般涅

반
槃 이시니라

이시 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欲重宣此義 하여 而說偈言 하시되

제불구세자
諸佛救世者라

주어대신통
住於大神通 하시고

위열중생고
爲悅衆生故로

현무량신력
現無量神力 이시라

설상지범천
舌相至梵天 하고

신방무수광
身放無數光 하여

위 구 불 도 자
爲 求 佛 道 者 하여

현 차 희 유 사
現 此 希 有 事 라

제 불 경 해 성
諸 佛 聲 效 聲 과

급 탄 지 지 성
及 彈 指 之 聲 이

주 무 십 방 국
周 聞 十 方 國 하여

지 개 륵 종 동
地 皆 六 種 動 이라

이 불 멸 도 후
以 佛 滅 度 後 에

능 지 시 경 고
能 持 是 經 故 로

제 불 개 환 희
諸 佛 皆 歡 喜 하여

현 무 량 신 력
現 無 量 神 力 이시라

촉 루 시 경 고
觸 累 是 經 故 로

찬 미 수 지 자
讚 美 受 持 者 하되

어 무 량 겁 중
於 無 量 劫 中 에

유 고 불 능 진
猶 故 不 能 盡 이리라

시 인 지 공 덕
是 人 之 功 德 은

무 변 무 유 궁
無 邊 無 有 窮 하니

여 십 방 허 공
如 十 方 虛 空 하여

불 가 득 변 제
不 可 得 邊 際 리라

능 지 시 경 자
能 持 是 經 者 는

즉 위 이 견 아
則 爲 已 見 我 며

역 전 다 보 불
亦 見 多 寶 佛 과

급 제 분 신 자
及 諸 分 身 者 며

우견아금일
又見我今日에

교화제보살
敎化諸菩薩함이라

능지시경자
能持是經者는

령아금분신
令我及分身과

멸도다보불
滅度多寶佛과

일체개환희
一切皆歡喜며

십방현재불
十方現在佛과

병과거미래
并過去未來에

역견역공양
亦見亦供養하고

역령득환희
亦令得歡喜니라

제불좌도장
諸佛坐道場하여

소득비요법
所得秘要法을

능지시경자
能持是經者는

불구역당득
不久亦當得하리라

능지시경자
能持是經者는

어제법지의
於諸法之義와

명자급언사
名字及言辭를

요설무궁진
樂說無窮盡함이

여풍어공중
如風於空中에

일체무장애
一切無障礙듯하리라

어여래멸후
於如來滅後에

지불소설경
知佛所說經의

인연 급차제
因緣及次第 하여

수의 여실설
隨義如實說 하되

여일월광명
如日月光明 이

능제제유명
能除諸幽冥 듯하여

사인행세간
斯人行世間 하여

능멸중생암
能滅衆生闇 하고

교무량보살
敎無量菩薩 하여

필경주일승
畢竟住一乘 케하리라

시고유지자
是故有智者 는

문차공덕리
聞此功德利 하고

어아멸도후
於我滅度後 에

응수지사경
應受持斯經 이니

시인어불도
是人於佛道 에

결정무유의
決定無有疑 하리라

묘법련화경 여래신력품 종
妙法蓮華經 如來神力品 終

묘법련화경 축루품 제이십이
妙法蓮華經 囑累品 第二十二

이시 석가모니불 중법좌기 현대신력
爾時에 釋迦牟尼佛이 從法座起 하여 現大神力 하시여

이우수 마무량보살마가살정 이작시언
以右手 摩無量菩薩摩訶薩頂 하시고 而作是言 하시되

아어 무량백천만억 아승기겁 수습시난득아녹
我於無量百千萬億 阿僧祇劫에 修習是難得阿耨

다라삼막삼보제법 금이부촉여등 여등
多羅三藐三菩提法 하나라 今以付囑汝等 하노니 汝等

응당일심 류포차법 광령증익 여시삼마
應當一心으로 流布此法 하여 廣令增益 하라 如是三摩

제보살마가살정 이작시언 아어 무량백
諸菩薩摩訶薩頂 하시고 而作是言 하시되 我於無量百

천만억 아승기겁 수습시난득아녹 다라삼막삼
千萬億 阿僧祇劫에 修習是難得阿耨多羅三藐三

보제법 금이부촉여등 여등 당수지독송
菩提法 하나라 今以付囑汝等 하노니 汝等 當受持讀誦 하

광선차법 령일체중생 보득문지 소이자
고 廣宣此法 하여 令一切衆生 普得聞知 케하라 所以者

하 여래 유대자비 무제간린 역무소외 능
何오 如來 有大慈悲 하여 無諸慳慳 하고 亦無所畏 라 能

여중생 불지지혜 여래지혜 자연지혜 여래
與衆生 佛之智慧와 如來智慧와 自然智慧하시니 如來

시일체 중생지대시주 여등 역응수학여래지
是一切衆生之大施主시니라 汝等 亦應隨學 如來之

법 물생간린 어미래세 약유선남자 선녀
法이니 勿生慳慳하라 於未來世에 若有善男子 善女

인 신여래지혜자 당위연설 차법화경 사득
人이 信 如來智慧者는 當爲演說 此法華經하여 使得

문지 위령기인 득불혜고 약유중생 불신수
聞知니 爲令其人이 得佛慧故니라 若有衆生 不信受

자 당어여래 여심묘법중 시교리희 여등
者는 當於如來 餘深妙法中에서 示敎利喜니라 汝等

약능여시 즉위이보 제불지은 시제보살마
若能如是하면 則爲已報 諸佛之恩이리라 時諸菩薩摩

가살 문불작시설이 개대환희편만기신 익
訶薩이 聞佛作是說已하고 皆大歡喜徧滿其身하여 益

가공경 곡궁저두 합장향불 구발성언
加恭敬하고 曲躬低頭하여 合掌向佛하며 俱發聲言하되

여세존 칙당구봉행 유연세존 원불유려
如世尊 勅當具奉行하리이다 唯然世尊은 願不有廬하소

제보살마가살중 여시삼반 구발성언 여
서 諸菩薩摩訶薩衆이 如是三反하여 俱發聲言하되 如

세 존 칙 당 구 봉 행 유 연 세 존 원 불 유 러
世尊勅當具奉行하리이다唯然世尊은願不有廬하소서

이 시 석 가 모 니 불 령 십 방 래 제 분 신 불 각 환 본 토
爾時釋迦牟尼佛이令十方來諸分身佛을各還本土

이 작 시 언 제 불 각 수 소 안 다 보 불 탑
케하시고而作是言하시되諸佛各隨所安하고多寶佛塔도

환 가 여 고 설 시 어 시 십 방 무 량 분 신 제 불 좌
還可如故하소서說是語時에十方無量分身諸佛과坐

보 수 하 사 자 좌 상 자 급 다 보 불 병 상 행 등 무 변
寶樹下師子座上者와及多寶佛과并上行等無邊

아 승 기 보 살 대 중 사 리 불 등 성 문 사 중 급 일 체
阿僧祇菩薩大衆과舍利弗等聲聞四衆과及一切

세 간 천 인 아 수 라 등 문 불 소 설 개 대 환 희
世間天人阿修羅等이聞佛所說하고皆大歡喜하니라

묘 법 려 화 경 촉 루 품 종
妙法蓮華經囑累品終

묘법蓮華經 약왕보살본사품 제이십삼
妙法蓮華經 藥王菩薩本事品 第二十三

이시 숙왕화보살 백불언 세존 약왕보
爾時 宿王華菩薩 이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藥王 菩

살 운하유어사파세계 세존 시약왕보살
薩 은 云何遊於娑婆世界 니까 世尊 이시여 是 藥王 菩 薩 은

유약간 백천만억 나유타 난행고행 선재세
有若干 百千萬億 那由他 難行苦行 이니까 善哉 世

존 원소해설 제천 룡 야차 건달파 아수
尊 이시여 願少解說 하소서 諸天 龍 夜叉 乾闥婆 阿修

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등 우타국
羅 와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人 非人等 과 又他國

토제래보살 급차성문중 문개환희
土諸來菩薩 及此聲聞衆 이 聞皆歡喜 하리이다

이시 불고숙왕화보살 내왕과거무량항하사
爾時 佛告宿王華菩薩 하시되 乃往過去無量恒河沙

겁유불 호일월정명덕여래 응공 정편지 명
劫有佛 하시니 號日月淨明德如來 應供 正遍知 明

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세존 기불유팔십억 대보살마가살 칠십이
世尊 이시라 其佛有八十億 大菩薩摩訶薩 과 七十二

항하사 대성문중 불수사만이천겁 보살수
恒河沙大聲聞衆 하나라 佛壽四萬二千劫 이요 菩薩壽

명역등 피국무유녀인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命亦等 이라 彼國無有女人 地獄 餓鬼 畜生 阿修羅

등 급이제난 지평여장 류리소성 보수
等 及以諸難 하나라 地 平 如 掌 하고 瑠璃所成 이며 寶樹

장엄 보장부상 수보화번 보병향로 주
莊嚴 하고 寶帳覆上 하며 垂寶華幡 하고 寶瓶香爐 가 周

편극제 칠보위대 일수일대 기수거대 진
徧國界 하고 七寶爲臺 하되 一樹一臺 요 其樹去臺 는 盡

일전도 차제보수 개유보살성문 이좌기하
一箭道 라 此諸寶樹에 皆有菩薩聲聞 하여 而坐其下 하

제보대상 각유백억제천 작천기악 가탄
고 諸寶臺上에 各有百億諸天 하여 作天伎樂 하고 歌歎

어불 이위공양
於佛 하여 以爲供養 하나라

이시피불 위일체중생 희견보살 급중보살 제
爾時彼佛 이 爲一切衆生 喜見菩薩 과 及衆菩薩 諸

성문중 설법화경 시일체중생 희견보살
聲聞衆 하여 說法華經 하시니라 是一切衆生 喜見菩薩 이

락습고행 어일월정명덕불법중 정진경행
樂習苦行 하고 於日月淨明德佛法中에 精進經行 하여

일심구불 만만이천세이 득현일체색신삼매
一心求佛 하되 滿萬二千歲 已 하고 得現一切色身三昧

득차삼매이 심대환희 즉작념언 아득
得此三昧 已 하고 心大歡喜 하여 卽作念言 하되 我得

현일체색신삼매 개시득문 법화정력 아금
現一切色身三昧 合은 皆是得聞 法華經力 이라 我今

당공양 일월정명덕불급법화경 즉시입시
當供養 日月淨明德佛及法華經 하리라 하고 卽時入是

삼매 어허공중 우만타라화마가만타라화 세
三昧 하여 於虛空中에 雨曼陀羅華 摩訶曼陀羅華 細

말전흑전단 만허공중 여운이하 우우해차
抹堅黑梅檀 하여 滿虛空中에 如雲而下 하며 又雨海此

안전단지향 차향륙수 가치사파세계 이공
岸梅檀之香 하니 此香六銖는 價直娑婆世界 라 以供

양불
養佛 하니라

작시공양이 종삼매기 이자념언 아수이
作是供養 已 하고 從三昧起 하여 而自念言 하되 我雖以

신력 공양어불 불여이신공양 즉복제
神力으로 供養於佛 이나 不如以身供養 이라 하고 卽服諸

향전단후륙 두루파필력가 침수교향 우음
香梅檀薰陸과 兜樓婆畢力迦와 沈水膠香 하고 又飲

침복제화향유 만천이백세이 향유도신
瞻蔔諸華香油 하되 滿千二百歲已 하고 香油塗身 하여

어일월정명덕불전 이천보의 이자전신 관
於日月淨明德佛前 에서 以天寶衣 로 而自纏身 하고 灌

제향유 이신통력원 이자연신 광명편조
諸香油 하며 以神通力願 으로 而自然身 하니 光明徧照

팔십억 항하사세계 기중제불 동시찬언
八十億 恒河沙世界 라 其中諸佛 이 同時讚言 하시되

선재선재 선남자 시진정진 시명진 법공양
善哉善哉 라 善男子야 是眞精進 이라 是名眞 法供養

여래 약이화향영락 소향말향도향 천증번개
如來 니 若以華香瓔珞 과 燒香抹香塗香 과 天繒幡蓋

급해차안 전단지향 여시등종종 제물공양
及海此岸 梅檀之香 과 如是等種種 諸物供養 이라도

소불능급 가사국성 처자포시 역소불급
所不能及 이며 假使國城 妻子布施 라도 亦所不能 이리라

선남자 시명제일지시 어제시중 최존최
善男子야 是名第一之施 라하리라 於諸施中 에 最尊最

상 이법공양 제여래고 작시어이 이각
上 이니 以法供養 諸如來故 니라 作是語已 하시고 而各

묵연 기신화연천이백세 과시이후 기
默然 하시니라 其身火然千二百歲 하고 過是以後 에야 其

신내진 일체중생희견보살 작여시법공양이
身乃盡 하나라 一切衆生喜見菩薩이 作如是法供養已

명종지후 부생일월정명덕불극중 어정덕
하고 命終之後에 復生日月淨明德佛國中 하여 於淨德

왕가 결가부좌 홀연화생 즉위기부 이
王家에 結跏趺坐 하고 忽然化生 하여 卽爲其父 하여 而

설게언
說偈言 하되

대왕금당지
大王今當知 하소서

아경행피처
我經行彼處 하여

즉시득일체
卽時得一切

현제신삼매
現諸身三昧 하고

근행대정진
勤行大精進 하여

사소애지신
捨所愛之身 하고

공양어세존
供養於世尊 하고

위구무상혜
爲求無上慧 니이다

설시게이 이백부언 일월정명덕불 금고현
說是偈已 하고 而白父言 하되 日月淨明德佛이 今故現

재 아선공양불이 득해일체중생어언타라
在 니이다 我先供養佛已 하고 得解一切衆生語言陀羅

니 부문시법화경 팔백천만억나유타 전가라
尼 하며 復聞是法華經 八百千萬億那由他와 甄迦羅

빈파라 아촉파등게 대왕 아금당환공양
頻婆羅 阿閼婆等 偈 니이다 大王 이시여 我 今 當 還 供 養

차불 백이 즉좌칠보지대 상승허공
此 佛 하리이다 白 已 하고 卽 坐 七 寶 之 臺 하여 上 昇 虛 空 하되

고칠다라수 왕도불소 두면례족 합십지조
高 七 多 羅 樹 라 往 到 佛 所 하여 頭 面 禮 足 하고 合 十 指 爪

이게찬불
하여 以 偈 讚 佛 하되

응안심기묘
容 顏 甚 奇 妙 하시며

광명조십방
光 明 照 十 方 이로다

아적증공양
我 適 曾 供 養 하고

금부환친근
今 復 還 親 近 하나이다

이시일체중생희견보살 설시게이 이백불언
爾 時 一 切 衆 生 喜 見 菩 薩 이 說 是 偈 已 하고 而 白 佛 言

세존 세존유고재세
하되 世 尊 이시여 世 尊 猶 故 在 世 니이까

이시일월정명덕불 고일체중생희견보살
爾 時 日 月 淨 明 德 佛 이 告 一 切 衆 生 喜 見 菩 薩 하시되

선남자 아넬반시도 멸진시지 여가안시상
善 男 子 야 我 涅 槃 時 到 하고 滅 盡 時 至 니라 汝 可 安 施 牀

좌 아어금야 당반넬반 우척일체중생희
座 하라 我 於 今 夜 에 當 般 涅 槃 하리라 又 勅 一 切 衆 生 喜

견보살 선남자 아이불법 족루어여 급
見菩薩하시되 善男子야 我以佛法으로 囑累於汝하며 及

제보살대제자 병아녹다라삼막삼보제법 역이
諸菩薩大弟子와 并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과 亦以

삼천대천칠보세계 제보수보대 급급시제천
三千大千七寶世界의 諸寶樹寶臺와 及給侍諸天을

실부어여 아멸도후 소유사리 역부족여
悉付於汝하노라 我滅度後에 所有舍利도 亦付囑汝하노

당령류포 광설공양 응기약간천탑
니 當令流布하여 廣說供養하고 應起若干千塔토록하라

여시 일월정명덕불 칙일체중생 희견보살이
如是日月淨明德佛이 勅一切衆生 喜見菩薩已하고

어야후분 입어널반
於夜後分에 入於涅槃하시니라

이시 일체중생 희견보살 전불멸도 비감오뇌
爾時一切衆生 喜見菩薩이 見佛滅度하고 悲感懊惱

련모어불 즉이해차안 전단위자 공양불
하며 戀慕於佛하여 卽以海此岸 梅檀爲積하여 供養佛

신 이이소지 화멸이후 수취사리 작팔
身하고 而以燒之나라 火滅已後에 收取舍利하여 作八

만사천보병 이기팔만사천탑 고삼세계 표
萬四千寶瓶하고 以起八萬四千塔하니 高三世界라 表

찰장엄 수제번개 현중보령
刹莊嚴 하되 垂諸幡蓋 하고 懸衆寶鈴 하니라

이시 일체중생 희견보살 부자념언 아수작시
爾時 一切衆生 喜見菩薩 이 復自念言 하되 我雖作是

공양 심유미족 아금 당갱 공양사리
供養 이나 心猶未足 이라 我今에 當更 供養 舍利 하리라고

변어제보살대제자급 천 룡 야차등일체대중
便語 諸菩薩大弟子及 天 龍 夜叉等 一切大衆 하되

여등 당일심념 아금공양일월정명덕불사리
汝等은 當一心念 하라 我今供養日月淨明德佛舍利 하

작시어이 즉어팔만사천탑전 연백복장엄
리라 作是語 已 하고 卽於八萬四千塔前에 然百福莊嚴

비 칠만이천세 이이공양 령무수구성문중
臂 하고 七萬二千歲 를 而以供養 하여 令無數求聲聞衆

무량아승기인 발아녹다라삼막삼보제심
과 無量阿僧祇人 으로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케하

개사득주 현일체색신삼매
여 皆使得住 現一切色身三昧 케하니라

이시 제보살 천인 아수라등 전기무비 우뇌
爾時 諸菩薩 天人 阿修羅等 이 見其無臂 하고 憂惱

비애 이작시언 차일체중생 희견보살 시
悲哀 하며 而作是言 하되 此一切衆生 喜見菩薩 은 是

아등사 교화아자 이금소비 신불구족
我等師_니敎化我者_{시라}而_하今燒臂_{하여}身不具足_{이로다}

우시 일체중생 희견보살 어대중중 립차서언
于時_에一切衆生喜見菩薩_이於大衆中_에立此誓言

아사량비 필당득불 금색지신 약실불
하되 我捨兩臂_{하니}必當得佛金色之身_{하리라}若實不

허 령아량비 환부여고 작시서이 자연
虛_{인댄}令_하我兩臂還復如故_{하리라}作是誓已_{하니}自然

환부 유사보살 복덕지혜 순후소치 당이지
還復_{하니라}由斯菩薩福德智慧淳厚所致_{니라}當爾之

시 삼천대천세계 륵종진동 천우보화
時_{하여}三千大千世界_는六種震動_{하고}天雨寶華_{하니}

일체인천 득미증유
一切人天_이得未曾有_{하니라}

불고숙왕화보살 어여의운하 일체중생 희
佛告宿王華菩薩_{하시되}於汝意云何_오一切衆生喜

견보살 기이인호 금약왕보살 시야 기소사신
見菩薩_이豈異人乎_아今藥王菩薩是也_라其所捨身

포시 여시무량 백천만억 나유타수
布施_는如是無量百千萬億那由他數_{니라}

숙왕화 약유발심 욕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宿王華_야若有發心_{하여}欲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자 능연수지 내지족일지 공양불탑 승이국
者는 能然手指 乃至足一指 하여 供養佛塔 하면 勝以國

성처자 급삼천대천국토 산림河池의 제진보물
城妻子와 及三千大千國土 山林河池의 諸珍寶物로

이공양자
而供養者리라

약부유인 이칠보만삼천대천세계 공양어불
若復有人이 以七寶滿三千大千世界 하여 供養於佛과

급대보살 벽지불 아라한 시인소득공덕 불
及大菩薩 辟支佛 阿羅漢 하여도 是人所得功德은 不

여수지 차법화경내지일사구게 기복최다
如受持 此法華經 乃至一四句偈니 其福最多니라

숙왕화 비여일체 천류강하 제수지중 해위제
宿王華야 譬如一切 川流江河 諸水之中에 海爲第

일 차법화경 역부여시 어제여래소설경중
一이듯 此法華經도 亦復如是 하여 於諸如來所說經中

최위심대 우여토산 흑산 소철위산 대철위
에 最爲深大 하니라 又如土山 黑山 小鐵圍山 大鐵圍

산 급십보산 중산지중 수미산위제일 차법화
山 及十寶山 衆山之中에 須彌山爲第一이듯 此法華

경 역부여시 어제경중 최위기상 우여
經도 亦復如是 하여 於諸經中에 最爲其上 이니라 又如

중성지중 월천자최위제일 차법화경 역부
衆星之中에 月天子最爲第一이듯 此法華經도 亦復

여시 어천만억종제경법중 최위조명 우
如是하여 於千萬億種諸經法中에 最爲照明이니라 又

여일천자능제제압 차경 역부여시 능파일
如日天子能除諸闇이듯 此經도 亦復如是하여 能破一

체 불선지압 우여제소왕중 전륜성왕 최
切不善之闇이니라 又如諸小王中에 轉輪聖王이 最

위제일 차경 역부여시 어중경중 최위기
爲第一이듯 此經도 亦復如是하여 於衆經中에 最爲其

존 우여제석 어삼십삼천중왕 차경 역
尊이니라 又如帝釋이 於三十三天中王이듯 此經도 亦

부여시 제경중왕 우여대범천왕 일체중
復如是하여 諸經中王이니라 又如大梵天王이 一切衆

생지부 차경 역부여시 일체현성학무학
生之父이듯 此經도 亦復如是하여 一切賢聖學無學과

급발보살심자지부 우여일체범부인중 수타
及發菩薩心者之父니라 又如一切凡夫人中에 須陀

원 사타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위제일 차경
洹 斯陀含 阿那含 阿羅漢 辟支佛爲第一이듯 此經

역부여시 일체여래소설 약보살소설 약성
도 亦復如是하여 一切如來所說과 若菩薩所說과 若聲

문소설 제경법중 최위제일 유능수지시경
聞所說의諸經法中에最爲第一이니라 有能受持是經

전자 역부여시 어일체중생중 역위제일
典者도亦復如是하여 於一切衆生中에亦爲第一이니라

일체성문 벽지불중 보살위제일 차경 역부
一切聲聞辟支佛中에菩薩爲第一이듯 此經도亦復

여시 어일체제경법중 최위제일 여불위
如是하여 於一切諸經法中에最爲第一이니라 如佛爲

제법왕 차경 역부여시 제경증왕
諸法王이듯 此經도亦復如是하여 諸經中王이니라

숙왕화 차경 능구일체중생자 차경 능령일
宿王華야 此經은能求一切衆生者이며 此經은能令一

체중생 리제고뇌 차경 능대요익일체중생
切衆生으로離諸苦惱하며 此經은能大饒益一切衆生

충만기원 여청량지 능만일체제갈
하여 充滿其願 케하느니라 如淸涼池 하여 能滿一切諸渴

핍자 여한자득화 여라자득의 여상인득주
乏者듯이 如寒者得火며 如裸者得衣며 如商人得主며

여자득모 여도득선 여병득의 여암득등
如子得母며 如渡得船이며 如病得醫며 如暗得燈이며

여빈득보 여민득왕 여고객득해 여거제암
如貧得寶며 如民得王이며 如賈客得海며 如炬除暗이

차법화경 역부여시 능령중생 리일체고 일체
此法華經도亦復如是하여能令衆生離一切苦一切

병통 능해일체생사지박 약인득문 차법화
病痛하고能解一切生死之縛이나라若人得聞此法華

경 약자서 약사인서 소득공덕 이불지혜 주
經若自書若使人書하면所得功德은以佛智慧로籌

량다소 불득기변 약서시경권 화향영
量多少하여도不得其邊이리라若書是經卷하고華香瓔

락 소향 말향 도향 번개의복 종종지등 소등
珞과燒香抹香塗香幡蓋衣服과種種之燈蘇燈

유등 제향유등 침복유등 수만나유등 파라라
油燈諸香油燈과瞻蔔油燈須曼那油燈과波羅羅

유등 파리사가유등 나파마리유등 공양
油燈과婆利師迦油燈과那婆摩利油燈으로供養하면

소득공덕 역부무량
所得功德은亦復無量하리라

숙왕화 약유인 문시약왕보살본사품자 역득
宿王華야若有人이聞是藥王菩薩本事品者면亦得

무량무변공덕 약유녀인 문시약왕보살본사
無量無邊功德하리라若有一女人이聞是藥王菩薩本事

품 능수지자 진시녀신 후불부수
品하고能受持者는盡是女身하고後不復受하리라

약여래멸후 후오백세중 약유녀인 무시경전
若如來滅後 後五百歲中 有女人 聞是經典 하

여설수행 어차명중 즉왕안락세계 아미
如說修行 於此命終 卽往安樂世界 阿彌

타불 대보살중 위요주처 생련화중보좌지
陀佛의 大菩薩衆이 圍遶住處 하여 生蓮華中寶座之

상
上 하리라

불부위탐욕소뇌 역부불위 진에우치소뇌
不復爲貪欲所惱 하며 亦復不爲 瞋恚愚癡所惱 하며

역부불위 교만질투제구소뇌 득보살신통 무
亦復不爲 憍慢嫉妬諸垢所惱 하고 得菩薩神通 無

생법인 득시인이 안근청정 이시청정
生法忍 하리라 得是忍已 하면 眼根淸淨 하리라 以是淸淨

안근 전칠백만이천억 나유타 항하사등 제불
眼根으로 見七百萬二千億 那由他 恒河沙等 諸佛

여래 시시제불 요공찬언 선재선재 선
如來 하리라 是時諸佛이 遙共讚言 하시되 善哉善哉라 善

남자 여능어석가모니불법중 수지 독송사유
男子야 汝能於釋迦牟尼佛法中에 受持 讀誦 思惟

시경 위타인설 소득복덕 무량무변 화
是經 하여 爲他人說 하리니 所得福德이 無量無邊 하여 火

불능분 수불능표 여지공덕 천불공설
不能焚 하고 水不能漂 하리니 汝之功德 은 千佛共說 하여

불능령진 여금 이능파제마적 괴생사
도 不能令盡 이리라 汝今에 已能破諸魔賊 하며 壞生死

구 제여원적 개실최멸 선남자 백천제
軍 하니 諸餘怨敵 도 皆悉摧滅 이니라 善男子야 百千諸

불 이신통력 공수호여 어일체세간 천인
佛 이 以神通力 으로 共守護 汝 리니 於一切世間 天人

지중 무여여자 유제여래 기제성문 벽지
之中에 無如汝者 리라 唯除如來 코는 其諸聲聞 辟支

불 내지보살 지혜선정 무유여여등자
佛 과 乃至菩薩 의 智慧禪定 이라도 無有與汝等者 니라하

숙왕화 차보살 성취여시공덕 지혜지력
시리라 宿王華야 此菩薩 은 成就如是功德 智慧之力 하

약유인문시 약왕보살본사품 능수희찬선
니라 若有人聞是 藥王菩薩本事品 하고 能隨喜讚善

자 시인현세 구중 상출청련화향 신모공중
者 는 是人現世에 口中 常出靑蓮華香 하고 身毛孔中에

상출우두전단지향 소득공덕 여상소설
常出牛頭栴檀之香 하며 所得功德 은 如上所說 하리라

시고숙왕화 이차약왕보살본사품 촉루어여
是故宿王華야 以此藥王菩薩本事品 으로 囑累於汝 하

아멸도후 후오백세중 광선류포 어염부
노니 我滅度後 後五百歲中에 廣宣流布 하여 於閻浮

제 무령단절 악마마민 제천 룡 야차 구반
提에 無令斷絶 하여 惡魔魔民과 諸天 龍 夜叉와 鳩槃

다등 득기편야
茶等이 得其便也 케하라

숙왕화 여당이신통지력 수호시경 소이자
宿王華야 汝當以神通之力으로 守護是經 하라 所以者

하 차경 즉위염부제인 병지량약 약인유병
何오 此經은 則爲閻浮提人의 病之良藥이니 若人有病

득문시경 병즉소멸 불로불사
이라도 得聞是經 하면 病卽消滅 하고 不老不死 하리라

숙왕화 여약견유 수지시경자 응이청련화성
宿王華야 汝若見有 受持是經者거든 應以靑蓮華盛

만말향 공산기상 산이 작시념언 차인
滿抹香 하여 供散其上 하라 散已 하고 作是念言 하되 此人

불구 필당취초 좌어도장 파제마군 당
不久에 必當取草 하여 坐於道場 하여 破諸魔軍 하고 當

취법라 격대법고 도탈일체증생로병사해
吹法螺 하며 擊大法鼓 하여 度脫一切衆生老病死海 케

시고 구불도자 견유수지시경전인 응
하리라 是故로 求佛道者는 見有受持是經典人이면 應

당여시 생공경심 설시약왕보살본사품시 팔
當如是生恭敬心 하라 說 是藥王菩薩本事品時에 八

만사천보살 득해일체중생어언타라니 다보
萬四千菩薩이 得解一切衆生語言陀羅尼 하니라 多寶

여래 어보탑중 찬숙왕화보살언 선재선재
如來는 於寶塔中에 讚宿王華菩薩言 하시되 善哉善哉

숙왕화 여성취불가사의공덕 내능문석가
라 宿王華야 汝成就不可思議功德 하여 乃能問釋迦

모니불 여차지사 리익무량일체중생
牟尼佛 如此之事 하여 利益無量一切衆生 하니라

묘법련화경 약왕보살본사품 종
妙法蓮華經 藥王菩薩本事品 終

묘법련화경 권 제 육 종
妙法蓮華經 卷 第 六 終

묘법蓮華經 권 제칠
妙法蓮華經 卷第七

묘법蓮華經 묘음보살품 제이십사
妙法蓮華經 妙音菩薩品 第二十四

이시 석가모니불 방대인상육계광명 급방
爾時에 釋迦牟尼佛이 放大人相肉髻光明 하고 及放

미간백호상광 편조동방 백팔만억나유타 항
眉間白毫相光 하여 徧照東方 百八萬億那由他 恒

하사등 제불세계 과시수이 유세계 명
河沙等 諸佛世界 하시니라 過是數已 하여 有世界 하되 名

정광장엄 기국유불 호정화숙왕지여래 응
淨光莊嚴 이요 其國有佛 하시되 號淨華宿王智如來 應

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
供 正徧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

부 천인사 불 세존 위무량무변보살대중 공
夫 天人師 佛 世尊 이시라 爲無量無邊菩薩大衆이 恭

경위요 이위설법 석가모니불백호광명
敬圍繞 하여 而爲說法 하시니 釋迦牟尼佛白毫光明이

편조기국
徧照其國 하니라

이시일체정광장엄국중 유일보살 명왈묘음
爾時一切淨光莊嚴國中有一菩薩하되名曰妙音이

구이식 증덕본 공양친근무량백천만억제불
라久已植衆德本하고供養親近無量百千萬億諸佛

이실성취 심심지혜 득묘당상삼매 법화삼
하여而悉成就甚深智慧하고得妙幢相三昧法華三

매 정덕삼매 숙왕희삼매 무연삼매 지인삼매 해
昧淨德三昧宿王戲三昧無緣三昧智印三昧解

일체증생어언삼매 집일체공덕삼매 청정삼매 신
一切衆生語言三昧集一切功德三昧淸淨三昧神

통유희삼매 혜거삼매 장엄왕삼매 정광명삼매 정
通遊戲三昧慧炬三昧莊嚴王三昧淨光明三昧淨

장삼매 불공삼매 일선삼매 득여시등 백천만억
藏三昧不共三昧日旋三昧라得如是等百千萬億

항하사등 제대삼매 석가모니불 광조기신
恒河沙等諸大三昧나라釋迦牟尼佛光照其身하시니

즉백정화숙왕지불언 세존 아당왕에 사
卽白淨華宿王智佛言하시되世尊이시여我當往詣娑

파세제 례배친근공양석가모니불 급견문
婆世界하여禮拜親近供養釋迦牟尼佛하고及見文

수사리법왕자보살 약왕보살 용시보살 숙왕화보
殊師利法王子菩薩藥王菩薩勇施菩薩宿王華菩

살상행의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
薩上行意菩薩莊嚴王菩薩藥上菩薩이니이다

이시 정화숙왕지불 고묘음보살 여막경피
爾時에淨華宿王智佛이告妙音菩薩하시되汝莫輕彼

국 생하렬상 선남자 피사파세계 고하불
國하여生下劣想하라善男子야彼娑婆世界는高下不

평 토석제산 예악충만 불신비소 제보
平하며土石諸山에穢惡充滿하고佛身卑小하며諸菩

살중 기형역소 이여신 사만이천유수 아신
薩衆도其形亦小나라而汝身四萬二千由旬이요我身

륙백팔십만유수 여신 제일단정 백천만복
六百八十萬由旬이라汝身第一端正하여百千萬福

광명수묘 시고 여왕막경피국 약불보살급
光明殊妙라是故로汝往莫輕彼國하여若佛菩薩及

국토 생하렬상
國土를生下劣想하라

묘음보살 백기불언 세존 아금예사파세
妙音菩薩이白其佛言하되世尊이시여我今詣娑婆世

계 개시여래지력 여래신통유희 여래공덕
界는皆是如來之力이며如來神通遊戲이며如來功德

지혜장엄 어시묘음보살 불기우좌 신불
智慧莊嚴이니이다於是妙音菩薩이不起于座하고身不

동요 이입삼매 이삼매력 어기사굴산거
動搖 하고 而 入 三 昧 나라 以 三 昧 力 으로 於 耆 闍 崛 山 去

법좌불원 화작팔만사천중보련화 염부단금
法 座 不 遠 에 化 作 八 萬 四 千 衆 寶 蓮 華 하니 閻 浮 檀 金

위정 백은위엽 금강위수 전숙가보 이
爲 莖 하고 白 銀 爲 葉 하며 金 剛 爲 鬚 하고 甄 叔 迦 寶 로 以

위기대
爲 其 臺 나라

이시 문수사리법왕자 전시련화 이백불언
爾 時 에 文 殊 師 利 法 王 子 는 見 是 蓮 華 하고 而 白 佛 言 하

세존 시하인연 선현차서 유약간천만
되 世 尊 이시여 是 何 因 緣 으로 先 現 此 瑞 하여 有 若 干 千 萬

련화 염부단금위정 백은위엽 금강위수
蓮 華 하되 閻 浮 檀 金 爲 莖 하고 白 銀 爲 葉 하며 金 剛 爲 鬚 하

전숙가보 이위기대
고 甄 叔 迦 寶 로 以 爲 其 臺 니이까

이시 석가모니불 고문수사리 시묘음보살
爾 時 에 釋 迦 牟 尼 佛 이 告 文 殊 師 利 하시되 是 妙 音 菩 薩

마가살 욕중정화숙왕지불국 여팔만사천보살
摩 訶 薩 欲 從 淨 華 宿 王 智 佛 國 에서 與 八 萬 四 千 菩 薩

위요이래 지차사파세계 공양친근례배
에게 圍 繞 而 來 하여 至 此 娑 婆 世 界 하여 供 養 親 近 禮 拜

어아 역욕공양청법화경
於我 하며 亦欲供養聽法華經 이니라

문수사리 백불언 세존 시보살종하선본
文殊師利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是菩薩種何善本 이며

수하공덕 이능유시대신통력 행하삼매
修何功德 인대 而能有是大神通力 하며 行何三昧 니이까

원위아등 설시삼매명자 아등역욕근수행지
願爲我等 說是三昧名字 하소서 我等亦欲勤修行之니

행차삼매 내능견시보살색상대소위의진
이다 行此三昧 하여 乃能見是菩薩色相大小威儀進

지 유원세존 이신통력 피보살래 령
止 니이다 唯願世尊 이시여 以神通力 으로 彼菩薩來 를 令

아득견
我得見 하소서

이시 석가모니불 고문수사리 차구멸도다
爾時 에 釋迦牟尼佛 이 告文殊師利 하시되 此久滅度多

보여래 당위여등 이현기상 시다보불
寶如來 가 當爲汝等 하여 而現其相 하시리라 時多寶佛 이

고피보살 선남자 래 문수사리법왕자
告彼菩薩 하시되 善男子 야 來 하라 文殊師利法王子 가

욕견여신 우시 묘음보살 어피국물 여팔
欲見汝身 하노라 于時 妙音菩薩 이 於彼國沒 하여 與八

만사천보살 萬四千菩薩로 구공발래 俱共發來라 소경제국 所經諸國이 륜종진동 六種震動하고

개실우어칠보련화 皆悉雨於七寶蓮華하며 백천천악 百千天樂이 불고자명 不鼓自鳴이라 시 是

보살 菩薩은 목여광대청련화엽 目如廣大靑蓮華葉하여 정사화합백천만월 正使和合百千萬月이

기면모단정 其面貌端正이 부과어차 復過於此리라 신진금색 身眞金色이며 무량 無量

백천공덕장엄 百千功德莊嚴하여 위덕치성 威德熾盛하여 광명조요 光明照曜하며 제상 諸相

구족 具足하여 여나라연견고지신 如那羅延堅固之身이라 입칠보대 入七寶臺하여 상승 上昇

허공 虛空하니 거지칠다라수 去地七多羅樹라 제보살중 諸菩薩衆이 공경위요 恭敬圍繞하여

이래예차사파세계 而來詣此娑婆世界 기사굴산 耆闍崛山이라 도이하칠보대 到已下七寶臺하여

이가치백천영락 以價直百千瓔珞으로 지지석가모니불소 持至釋迦牟尼佛所하여 두면례 頭面禮

족 足하고 봉상영락 奉上瓔珞하고 이백불언 而白佛言하되 세존 世尊이시여 정화숙 淨華宿

왕지불 王智佛이 문신세존 問訊世尊하시니이다 소병소뇌 少病少惱하여 기거경리 起居輕利

안락행부 사대조화부 세사가인부
하시며 安樂行不 니이까 四大調和不 니이까 世事可忍不 니

중생이도부 무다탐욕진에 우치질투간
이까 衆生易度不 니이까 無多貪欲瞋恚 愚癡嫉妬慳

만부 무불효부모 불경사문 사전부
慢不 니이까 無不孝父母 하며 不敬沙門 하며 邪見不 니이까

선심불 섭오정불 세존 중생능항복
善心不 니이까 攝五情不 니이까 世尊 이시여 衆生能降伏

제마원부 구멸도다보여래 재칠보탑중
諸魔怨不 니이까 久滅度多寶如來 가 在七寶塔中 하여

래청법부 우문신다보여래 안은소뇌 감
來聽法不 니이까 又問訊多寶如來 하되 安隱少惱 하여 堪

인구주부 세존 아금욕견다보불신
忍久住不 니이까 世尊 이시여 我今欲見多寶佛身 하오니

유원세존 시아령전
唯願世尊 은 示我令 見 하소서

이시 석가모니불 어다보불 시묘음보살
爾時 에 釋迦牟尼佛 이 語多寶佛 하시되 是妙音菩薩 이

욕득상전 시다보불 고묘음언 선재선
欲得相見 하나이다 時多寶佛 이 告妙音言 하시되 善哉善

재 여능위공양석가모니불 급청법화경 병
哉 라 汝能爲供養釋迦牟尼佛 하고 及聽法華經 하며 并

견문수사리등 고래지차
見文殊師利等 하여 故來至此 이뇨

이시 화덕보살 백불언 세존 시묘음보
爾時에 華德菩薩이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是妙音菩

살 종하선근 수하공덕 유시신력
薩이 種何善根 하며 修何功德 하여 有是神力 이니까

불고화덕보살 과거유불 명운뢰음왕 다타
佛告華德菩薩 하시되 過去有佛 하니 名雲雷音王 多陀

아가도아라가삼막삼불타 극명현일체세간
阿伽度阿羅訶三藐三佛陀 시라 國名現一切世間 이요

겁명희전 묘음보살 어만이천세 이십만종
劫名喜見 이라 妙音菩薩이 於萬二千歲에 以十萬種

기악 공양운뢰음왕불 병봉상팔만사천칠보
伎樂으로 供養雲雷音王佛 하고 并奉上八萬四千七寶

발 이시인연과보 금생정화숙왕지불국
鉢 하니라 以是因緣果報로 今生淨華宿王智佛國 하여

유시신력 화덕 어여의운하 이시운뢰음왕
有是神力 이니라 華德아 於汝意云何오 爾時雲雷音王

불소 묘음보살 기악공양 봉상보기자 기
佛所에서 妙音菩薩이 伎樂供養 하고 奉上寶器者가 豈

이인호 금차묘음보살마가살시 화덕 시묘
異人乎 이라 今此妙音菩薩摩訶薩 是니라 華德아 是妙

음보살 이 증공양친근 무량제불 구식덕본
音菩薩이已曾供養親近無量諸佛하여久植德本하며

우치항하사등 백천만억 나유타불 화덕 여
又值恒河沙等百千萬億那由他佛하나라華德아汝

단전묘음보살 기신재차 이시보살 현종종신
但見妙音菩薩의其身在此나而是菩薩은現種種身

처처위제중생 설시경전 흑현범왕신
하며處處爲諸衆生하여說是經典이나라或現梵王身하

흑현제석신 흑현자재천신 흑현대자재천
고或現帝釋身하며或現自在天身하며或現大自在天

신 흑현천대장군신 흑현비사문천왕신
身하며或現天大將軍身하고或現毘沙門天王身하고

흑현전륜성왕신 흑현제소왕신 흑현장자신
或現轉輪聖王身하고或現諸小王身하며或現長者身

흑현거사신 흑현재관신 흑현파라문신
하고或現居士身하며或現宰官身하고或現婆羅門身하

흑현비구비구니 우파새 우파이신 흑현장자
며或現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身하고或現長者

거사 부녀신 흑현재관부녀신 흑현파라문
居士婦女身하며或現宰官婦女身하고或現婆羅門

부녀신 흑현동남동녀신 흑현천룡야차건
婦女身하며或現童男童女身하고或現天龍夜叉乾

달파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 등
闍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人 非人 等

신 이 설 시 경 제유지옥 아귀 축생 급중난
身 하여 而 說 是 經 하느니라 諸 有 地 獄 餓 鬼 畜 生 及 衆 難

처 개능구제 내지어왕후궁 변위녀신
處 에서 皆 能 救 濟 하며 乃 至 於 王 後 宮 에서 變 爲 女 身 하여

이 설 시 경
而 說 是 經 하느니라

화덕 시묘음보살 능구호사파세계제중생자
華 德 아 是 妙 音 菩 薩 은 能 救 護 娑 婆 世 界 諸 衆 生 者 나라

시묘음보살 여시종종변화현신 재차사파국
是 妙 音 菩 薩 이 如 是 種 種 變 化 現 身 하며 在 此 娑 婆 國

토 위제중생 설시경전 어신통변화지혜
土 에서 爲 諸 衆 生 하여 說 是 經 典 하되 於 神 通 變 化 智 慧 에

무소손감 시보살 이약간지혜 명조사파세
無 所 損 滅 이나라 是 菩 薩 이 以 若 干 智 慧 로 明 照 娑 婆 世

계 령일체중생 각득소지 어십방 항하사
界 하여 令 一 切 衆 生 으로 各 得 所 知 나라 於 十 方 恒 河 沙

세계중 역부여시 약응이성문형 득도자 현
世 界 中 에도 亦 復 如 是 나라 若 應 以 聲 聞 形 得 度 者 는 現

성문형 이위설법 응이벽지불형 득도자
聲 聞 形 하여 而 爲 說 法 하며 應 以 辟 支 佛 形 得 度 者 는

현벽지불형 이위설법 응이보살형 득도자
現辟支佛形 하여 而爲說法 하며 應以菩薩形 得度者는

현보살형 이위설법 응이불형 득도자 즉현
現菩薩形 하여 而爲說法 하며 應以佛形 得度者는 卽現

불형 이위설법 여시종종수소응도 이
佛形 하여 而爲說法 하느니라 如是種種隨所應度 하여 而

위현형 내지응이멸도이 득도자 시현멸도
爲現形 하고 乃至應以滅度而 得度者는 示現滅度니라

화덕 묘음보살마가살 성취대신통지혜지력
華德 아 妙音菩薩摩訶薩 이 成就大神通智慧之力 이

기사여시
其事如是니라

이시 화덕보살 백불언 세존 시묘음보
爾時에 華德菩薩 이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是妙音菩

살 심종선근 세존 시보살 주하삼매
薩 이 深種善根 이거니와 世尊 이시여 是菩薩 이 住何三昧 하

이능여시 재소변현 도탈중생 불고화
여 而能如是 在所變現 하여 度脫衆生 케합니까 佛告華

덕보살 선남자 기삼매명 현일체색신
德菩薩 하시되 善男子 야 其三昧名은 現一切色身 이니라

묘음보살 주시삼매중 능여시요익무량중생
妙音菩薩 이 住是三昧中 하여 能如是饒益無量衆生 이

설시묘음보살품시 여묘음보살구래자 팔만
나라 說 是 妙 音 菩 薩 品 時 에 與 妙 音 菩 薩 俱 來 者 八 萬

사천인 개득현일체색신삼매 차사파세계 무
四 千 人 이 皆 得 現 一 切 色 身 三 昧 하 고 此 娑 婆 世 界 無

량보살 역득시삼매 급타라니
量 菩 薩 도 亦 得 是 三 昧 及 陀 羅 尼 하 니 라

이시 묘음보살마가살 공양석가모니불 급다보
爾 時 에 妙 音 菩 薩 摩 訶 薩 이 供 養 釋 迦 牟 尼 佛 及 多 寶

불탑이 환귀본토 소경제국 륙종진동
佛 塔 已 하 고 還 歸 本 土 하 니 所 經 諸 國 이 六 種 震 動 하 고

우보련화 작백천만억 종종기악 기도본국
雨 寶 蓮 華 하 며 作 百 千 萬 億 種 種 伎 樂 하 니 라 既 到 本 國

여팔만사천보살위요 지정화숙왕지불소
하 여 與 八 萬 四 千 菩 薩 圍 繞 하 고 至 淨 華 宿 王 智 佛 所 하

백불언 세존 아도사파세계 요익중생
여 白 佛 言 하 되 世 尊 이 시 여 我 到 娑 婆 世 界 하 여 饒 益 衆 生

견석가모니불 급견다보불탑 례배공양
하 고 見 釋 迦 牟 尼 佛 及 見 多 寶 佛 塔 하 여 禮 拜 供 養 하 며

우견문수사리법왕자보살 급견약왕보살 득근
又 見 文 殊 師 利 法 王 子 菩 薩 하 고 及 見 藥 王 菩 薩 得 勤

정진력보살 용시보살등 역령시 팔만사천보
精 進 力 菩 薩 勇 施 菩 薩 等 하 며 亦 令 是 八 萬 四 千 菩

살득현일체색신삼매 설시묘음보살래
薩 得 現 一 切 色 身 三 昧 케하니이다 說 是 妙 音 菩 薩 來

왕품시 사만이천천자 득무생법인 화덕보
往 品 時 에 四 萬 二 千 天 子 는 得 無 生 法 忍 하고 華 德 菩

살득법화삼매
薩 은 得 法 華 三 昧 하니라

묘법련화경 묘음보살품 종
妙 法 蓮 華 經 妙 音 菩 薩 品 終

묘법蓮華經 관세음보살보문품 제이십오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第二十五

이시 무진의보살 즉종좌기 편단우견 합
爾時에 無盡意菩薩이 卽從座起 하여 偏袒右肩 하고 합

장향불 이작시언 세존 관세음보살 이
掌向佛 하여 而作是言 하되 世尊 이시여 觀世音菩薩 은 以

하인연 명관세음
何因緣 으로 名 觀世音 이니이까

불고무진의보살 선남자 약유무량백천만억
佛告 無盡意菩薩 하시되 善男子야 若有無量百千萬億

중생 수제고뇌 무시관세음보살 일심칭명
衆生이 受諸苦惱 하되 聞是觀世音菩薩 하고 一心稱名

관세음보살 즉시관기음성 개득해탈
하면 觀世音菩薩이 卽時觀其音聲 하고 皆得解脫 케하느

약유지시관세음보살명자 설입대화 화불
니라 若有持是觀世音菩薩名者는 設入大火라도 火不

능소 유시보살위신력고 약위대수소표
能燒 하리니 由是菩薩威神力故 니라 若爲大水所漂 라도

칭기명호 즉득천처 약유백천만억중생
稱其名號 하면 卽得淺處 하리라 若有百千萬億衆生이

위구금 은 류리 차거 마노 산호 호박 진주등보
爲求金 銀 琉璃 硨磲 碼瑙 珊瑚 琥珀 眞珠等寶 코

입어대해 가사흑풍취기선방 표타라찰귀
자 入於大海 거든 假使黑風吹其船 舫 하여 漂墮羅刹鬼

국 기중약유내지일인 칭관세음보살명자
國 이라도 其中若有乃至一人 이 稱觀世音菩薩名者면

시제인등 개득해탈라찰지난 이시인연
是諸人等 이 皆得解脫羅刹之難 하리라 以是因緣으로

명관세음 약부유인 립당피해 칭관세음
名觀世音 이나라 若復有人 이 臨當被害 하여 稱觀世音

보살명자 피소집도장 심단단괴 이득해탈
菩薩名者면 彼所執刀杖 이 尋段段壞 하여 而得解脫하

약삼천대천국토만중야차라찰 욕래뇌인
리라 若三千大千國土滿中夜叉羅刹 이 欲來惱人이라

문기칭관세음보살명자 시제악귀 상불능이
도 聞其稱觀世音菩薩名者면 是諸惡鬼가 尙不能以

악안시지 황부가해 설부유인 약유죄약무
惡眼視之 이니 況復加害 리오 設復有人 이 若有罪若無

죄 추제가쇄 검제기신 칭관세음보살명
罪 커나 杻械枷鎖 하여 檢繫其身 이라도 稱觀世音菩薩名

자 개실단괴 즉득해탈 약삼천대천국토
者면 皆悉斷壞 하여 卽得解脫 하리라 若三千大千國土

만중원적 유일상주장제상인 재지중보 경
滿中怨賊 에 有一商主將諸商人 하여 齎持重寶 하고 經

과험로 기중일인 작시창언 제선남자 물득
過險路에 其中一人이 作是唱言 하되 諸善男子야 勿得

공포 여등응당일심칭관세음보살명호
恐怖 하라 汝等應當一心稱觀世音菩薩名號 할지니라

시보살 능이무외 시어중생 여등약칭명
是菩薩은 能以無畏로 施於衆生 하시느니 汝等若稱名

자 어차원적 당득해탈 중상인문 구발
者면 於此怨賊에서 當得解脫 하리라 衆商人聞 하고 俱發

성언 남무관세음보살 칭기명고 즉득해탈
聲言 南無觀世音菩薩 하면 稱其名故로 卽得解脫 하리

무진의 관세음보살마가살 위신지력 외외
라 無盡意야 觀世音菩薩 摩訶薩의 威神之力은 巍巍

여시
如是 하니라

약유중생 다어음욕 상념공경관세음보살
若有衆生이 多於婬欲 하여도 常念恭敬觀世音菩薩 하

편득리욕 약다진에 상념공경관세음보살
면 便得離欲 하며 若多瞋恚 라도 常念恭敬觀世音菩薩

편득리진 약다우치 상념공경관세음보
하면 便得離瞋 하며 若多愚癡 라도 常念恭敬觀世音菩

살 편득리치
薩 하면 便得離癡 니라

무진의 관세음보살 유여시등대위신력 다
無盡意야 觀世音菩薩은 有如是等大威神力하여 多

소요익 시고 증생 상응심념 약유녀인
所饒益 하니 是故로 衆生常應心念 이니라 若有女人이

설욕구남 례배공양관세음보살 편생복덕지
設欲求男 하여 禮拜供養觀世音菩薩 하면 便生福德智

혜지남 설욕구녀 편생단정유상지녀 숙
慧之男 하며 設欲求女 하면 便生端正有相之女 하되 宿

식덕본 증인애경 무진의 관세음보살
植德本 하여 衆人愛敬 하리라 無盡意여 觀世音菩薩이

유여신력 약유증생 공경례배관세음보살
有如是力 하니라 若有衆生이 恭敬禮拜觀世音菩薩 하

복불당연 시고 증생개응수지관세음보살
면 福不唐捐 하리라 是故로 衆生皆應受持觀世音菩薩

명호
名號니라

무진의 약유인 수지륙십이억항하사보살명자
無盡意여 若有人이 受持六十二億恒河沙菩薩名字

부진형 공양음식의복와구의약 어여의
하고 復盡形 토록 供養飲食衣服臥具醫藥 하면 於汝意

운하 시선남자 선녀인공덕다불 무진의언
云何오 是善男子 善女人功德多不아 無盡意言 하되

심다 세 존 불언 약부유인 수지 관
甚多 하나이다 世尊 이시여 佛言 하시되 若復有人이 受持 觀

세 음보살명호 내지일시례배공양 시이인복
世音菩薩名號 하고 乃至一時禮拜供養 하면 是二人福

정등무이 어백천만억겁 불가궁진 무
이 正等無異 하여 於百千萬億劫 에도 不可窮盡 하리라 無

진의 수지관세음보살명호 득여시무량무변
盡意야 受持 觀世音菩薩名號 하면 得如是無量無邊

복덕지리
福德之利 하리라

무진의보살 백불언 세 존 관세음보살
無盡意菩薩이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觀世音菩薩은

운하유차사파세계 운하이위중생설법 방편
云何遊此娑婆世界 하며 云何而爲衆生說法 하며 方便

지력 기사운하
之力은 其事云何 니까

불고무진의보살 선남자 약유국토중생 응
佛告無盡意菩薩 하시되 善男子야 若有國土衆生이 應

이불신득도자 관세음보살 즉현불신 이위
以佛身得度者는 觀世音菩薩이 卽現佛身 하여 而爲

설법 응이벽지불신득도자 즉현벽지불신
說法 하며 應以辟支佛身得度者는 卽現辟支佛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성문신득도자 應以聲聞身得度者는 즉현성문신 卽現聲聞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범왕신득도자 應以梵王身得度者는 즉현범왕신 卽現梵王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제석신득도자 應以帝釋身得度者는 즉현제석신 卽現帝釋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자재천신득도자 應以自在天身得度者는 즉현자재천 卽現自在天

신 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대자재천신득도자 應以大自在天身得度者는 즉현 卽現

대자재천신 大自在天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천대장군신득도 應以天大將軍身得度

자 者는 즉현천대장군신 卽現天大將軍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비사문 應以毗沙門

신득도자 身得度者는 즉현비사문신 卽現毗沙門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소 應以小

왕신득도자 王身得度者는 즉현소왕신 卽現小王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장 應以長

자신득도자 者身得度者는 즉현장자신 卽現長者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거 應以居

사신득도자 士身得度者는 즉현거사신 卽現居士身 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 하며 응이재 應以宰

관신득도자 즉현재관신 이위설법 응이파
官身得度者는 卽現宰官身 하여 而爲說法 하며 應以婆

라문신득도자 즉현파라문신 이위설법 응
羅門身得度者는 卽現婆羅門身 하여 而爲說法 하며 應

이비구비구니 우파새 우파이신득도자 즉현비
以比丘比丘尼 優婆塞 優婆夷身得度者는 卽現比

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신 이위설법 응이
丘比丘尼 優婆塞 優婆夷身 하여 而爲說法 하며 應以

장자거사재관파라문 부녀신득도자 즉현부녀
長者居士宰官婆羅門 婦女身得度者는 卽現婦女

신 이위설법 응이동남동녀신득도자 즉현
身 하여 而爲說法 하며 應以童男童女身得度者는 卽現

동남동녀신 이위설법 응이천 룡 야차 건달
童男童女身 하여 而爲說法 하며 應以天 龍 夜叉 乾闥

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 등
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人 非人 等

신득도자 즉개현지 이위설법 응이집금강
身得度者는 卽皆現之 하여 而爲說法 하며 應以執金剛

신득도자 즉현집금강신 이위설법
身得度者는 卽現執金剛身 하여 而爲說法 하느니라

무진의 시관세음보살 성취여시공덕 이종
無盡意여 是觀世音菩薩은 成就如是功德 하고 以種

종형 유제국토 도탈중생 시고여등
種形으로遊諸國土하며度脫衆生하느니라是故汝等은

응당일심공양관세음보살 시관세음보살마
應當一心供養觀世音菩薩이니라是觀世音菩薩摩

가살 어포외급난지중 능시무외 시고 차
訶薩은於怖畏急難之中에도能施無畏니라是故로此

사파세제 개호지위시무외자
娑婆世界에서皆號之爲施無畏者니라

무진의보살 백불언 세존 아금당공양관
無盡意菩薩이白佛言하되世尊이시여我今當供養觀

세음보살 즉해경중보주영락가치백천량금
世音菩薩하리이다卽解頸衆寶珠瓔珞價直百千兩金

이이여지 작시언 인자 수차법시진보
하여而以與之하고作是言하되仁者시여受此法施珍寶

영락 시관세음보살 불응수지 무진의부
瓔珞하소서時觀世音菩薩이不肯受之커늘無盡意復

백관세음보살언 인자 민아등고 수차영락
白觀世音菩薩言하되仁者시여慙我等故로受此瓔珞

하소서

이시 불고관세음보살 당민차무진의보살급
爾時에佛告觀世音菩薩하시되當慙此無盡意菩薩及

사중 천 룡 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四衆 天 龍 夜叉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마후라가 인비인등고 수시영락 즉시관세음
摩睺羅伽 人非人等故로 受是瓔珞하라 卽時觀世音

보살 민제사중급어천룡인비인등 수기영락
菩薩이 愍諸四衆及於天龍人非人等하여 受其瓔珞하

분작이분 일분봉석가모니불 일분봉다보
고 分作二分하여 一分奉釋迦牟尼佛하고 一分奉多寶

불탑 무진의 관세음보살 유여시자재신력
佛塔이라 無盡意여 觀世音菩薩은 有如是自在神力하

유어사파세계
여 遊於娑婆世界나라

이시 무진의보살 이계문왈
爾時에 無盡意菩薩이 以偈問曰하되

세존묘상구
世尊妙相具하시니

아금중문피
我今重問彼하오리다

불자하인연
佛子何因緣으로

명위관세음
名爲觀世音이니이까

구족묘상존
具足妙相尊이

게답무진의
偈答無盡意하시되

여청관음행
汝聽觀音行

선응제방소
善應諸方所하라

홍서심여해
弘誓深如海 하여

력겁불사의
歷劫不思議 토록

시다천억불
侍多千億佛 하고

발대청정원
發大淸淨願 하리라

아위여략설
我爲汝略說 하나라

무명급견신
聞名及見身 하고

심념불공과
心念不空過 하며

능멸제유고
能滅諸有苦 하리라

가사흥해의
假使興害意 하여

추락대화갱
推落大火坑 하여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화갱변성지
火坑變成池 하며

혹표류거해
或漂流巨海 하여

룡어제귀난
龍魚諸鬼難 하여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파랑불능몰
波浪不能沒 하며

혹재수미봉
或在須彌峯 하여

위인소추타
爲人所推墮 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여일허공주
如日虛空住 하며

혹피악인축
或被惡人逐 하여

타락금강산
墮落金剛山 이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불능손일모
不能損一毛 하며

혹치원적요
或值怨賊遶 하여

각집도가해
各執刀加害 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함즉기자심
咸卽起慈心 하며

혹조왕난고
或遭王難苦 하여

림형옥수종
臨刑欲壽終 이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도심단단괴
刀尋段段壞 하며

혹수금가쇄
或囚禁枷鎖 하고

수족피추제
手足被杻械 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석연득해탈
釋然得解脫 하며

주저제독약
呪詛諸毒藥 으로

소욕해신자
所欲害身者 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환착어본인
還著於本人 하며

혹우악라찰
或遇惡羅刹

독룡제귀등
毒龍諸鬼等 이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시실불감해
時悉不敢害 하며

약악수위요
若惡獸圍遶 하여

리아조가포
利牙爪可怖 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질주무변방
疾走無邊方 하며

완사급복갈
虯蛇及蝮蠍 이

기독연화연
氣毒煙火然 이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심성자회거
尋聲自廻去 하며

운뢰고채전
雲雷鼓掣電 하고

강박주대우
降雹澍大雨 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 하면

응시득소산
應時得消散 하며

중생피곤액
衆生被困厄 하여

무량고핍신
無量苦逼身 하여도

관음묘지력
觀音妙智力 이

능구세간고
能救世間苦 하느니라

구족신통력
具足神通力 하고

광수지방편
廣修智方便 하여

십방제국토
十方諸國土 에

무찰불현신
無刹不現身 하느니

종종제악취
種種諸惡趣

지옥귀축생
地獄鬼畜生 의

생로병사고
生老病死苦를

이점실령멸
以漸悉令滅하느니라

진관청정관
眞觀淸淨觀하고

광대지혜관
廣大智慧觀하며

비관급자관
悲觀及慈觀함을

상원상첨앙
常願常瞻仰이니라

무구청정광
無垢淸淨光과

혜일파제암
慧日破諸暗하고

능복재풍화
能伏災風火하고

보명조세간
普明照世間하느니라

비체제뢰진
悲體戒雷震하고

자의묘대운
慈意妙大雲은

주감로법우
澍甘露法雨하여

멸제번뇌염
滅除煩惱燄하느니라

쟁송경관처
諍訟經官處거나

포외군진중
怖畏軍陣中이라도

념피관음력
念彼觀音力하면

중원실퇴산
衆怨悉退散하리라

묘음관세음
妙音觀世音이며

범음해조음
梵音海潮音이며

승피세간음
勝彼世間音이니

시고수상념
是故須常念하여

념념勿生의
念念勿生疑나라

관세음정성
觀世音淨聖은

어고뇌사액
於苦惱死厄에서

능위작의호
能爲作依怙하리라

구일체공덕
具一切功德하고

자안시중생
慈眼示衆生하며

복취해무량
福聚海無量하니

시고응정례
是故應頂禮나라

이시 지지보살 즉종좌기 전백불언 세존
爾時에 持地菩薩이 卽從座起하여 前白佛言 하되 世尊

약유중생 무시관세음보살품자재지업 보
이시여 若有衆生이 聞是觀世音菩薩品自在之業과 普

문시현신통력자 당지시인공덕불소 불설시
門示現神通力者는 當知是人功德不少 니이다 佛說 是

보문품시 중중팔만사천중생 개발무등등아녹
普門品時에 衆中八萬四千衆生이 皆發無等等阿耨

다라삼막삼보제심
多羅三藐三菩提心 하나라

묘법련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종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終

묘법蓮華經 타라니품 제이십륙
妙法蓮華經 陀羅尼品 第二十六

이시 약왕보살 즉종좌기 편단우견 합장
爾時에 藥王菩薩이 卽從座起하여 偏袒右肩하고 合掌

향불 이백불언 세존 약선남자선녀인
向佛하여 而白佛言하되 世尊이시여 若善男子善女人이

유능수지법화경자 약독송통리 약서사경권
有能受持法華經者하여 若讀誦通利하고 若書寫經卷

득기소복
하면 得幾所福이니까

불고약왕 약유선남자선녀인 공양팔백만억
佛告藥王하시되 若有善男子善女人이 供養八百萬億

나유타항하사등제불 어여의운하 기소득복
那由他恒河沙等諸佛하면 於汝意云何오 其所得福이

녕위다불 심다 세존 불언 약선남자
寧爲多不아 甚多니이다 世尊이시여 佛言하시되 若善男子

선녀인 능어시경 내지수지일사구게 독송해
善女人이 能於是經 乃至受持一四句偈하여 讀誦解

의 여설수행 공덕심다
義하고 如說修行하면 功德甚多하리라

이시 약왕보살 백불언 세존 아금당여
爾時에 藥王菩薩이 白佛言하되 世尊이시여 我今當與

설법자타라니주 이수호지 즉설주왈
說法者陀羅尼呪하여以守護之하리이다 卽說呪曰하되

안이 만이 마네 마마네 지레 차리제 사미
安爾₁ 曼爾₂ 摩禰₃ 摩摩禰₄ 旨隸₅ 遮梨第₆ 賒咩₇

사리다위 전제 목제 목다리 사리 아위사
賒履多瑋₈ 羶帝₉ 目帝₁₀ 目多履₁₁ 娑履₁₂ 阿瑋娑

리 상리 사리 차예 아차예 아기니 전
履₁₃ 桑履₁₄ 娑履₁₅ 叉裔₁₆ 阿叉裔₁₇ 阿耆膩₁₈ 羶

제 사리 타라니 아로가파사파자비차니
帝₁₉ 賒履₂₀ 陀羅尼₂₁ 阿盧伽婆娑簸蔗毗叉膩₂₂

네비체 아변치라네리체 아단치파레수지
禰毗剌₂₃ 阿便哆邏禰履剌₂₄ 阿亶哆波隸輸地₂₅

구구레 모구레 아라레 파라레 수가차
漚究隸₂₆ 牟究隸₂₇ 阿羅隸₂₈ 波羅隸₂₉ 首迦差₃₀

아삼마삼리 불타비길리구제 달마파리차제
阿三磨三履₃₁ 佛陀毗吉利裘帝₃₂ 達磨波利差帝₃₃

승가넬구사네 파사파사수지 만치라 만치
僧伽涅瞿沙禰₃₄ 婆舍婆舍輸地₃₅ 曼哆邏₃₆ 曼哆

라차야다 우루치 우루치교사략 악차라
邏叉夜多₃₇ 郵樓哆₃₈ 郵樓哆僑舍略₃₉ 惡叉邏₄₀

악차야다야 아파로 아마야나다야
惡叉治多治₄₁ 阿婆盧₄₂ 阿摩若那多夜₄₃

세 존 시타라니신주 륑십이억항하사등제 불
世尊이시여 是陀羅尼神呪는 六十二億恒河沙等諸佛

소설 약유침훼차법사자 즉위침훼시제 불이
所說이니 若有侵毀此法師者는 則爲侵毀是諸佛已니

시석가모니 불 찬약왕보살언 선재선재
이다 時釋迦牟尼佛이 讚藥王菩薩言 하시되 善哉善哉라

약왕 여민념 옹호차법사고 설시타라니 어
藥王아 汝愍念擁護此法師故로 說是陀羅尼하여 於

제 중생 다소요익
諸衆生에 多所饒益이리라

이시 응시보살 백불언 세 존 아역위 옹
爾時에 勇施菩薩이 白佛言 하되 世尊이시여 我亦爲擁

호독송수지법화경자 설타라니 약차법
護讀誦受持法華經者 하여 說陀羅尼하리이다 若此法

사득시타라니 약야차 약라찰 약부단나 약길
師得是陀羅尼하면 若夜叉 若羅刹 若富單那 若吉

자 약구반다 약아귀등 사구기단 무능득편
蔗 若鳩槃荼 若餓鬼等이 伺求其短이라도 無能得便

즉어불전 이설주왈
하리이다 卽於佛前에 而說呪曰 하되

좌레 마가좌레 욱지 목지 아레 아라파제
座隸₁ 摩訶座隸₂ 郁枳₃ 目枳₄ 阿隸₅ 阿羅婆第₆

넬레제 넬레다파제 이치니 위치니 지치니
涅槃第7 涅槃多婆第8 伊緻拈9 韋緻拈10 旨緻拈11

넬레지니 넬리지파저
涅槃墀拈12 涅槃墀婆底13

세존 시타라니신주 항하사등제불소설
世尊이시여 是陀羅尼神呪는 恒河沙等諸佛所說이며

역개수희 약유침훼차법사자 즉위침훼시제
亦皆隨喜니이다 若有侵毀此法師者는 則爲侵毀是諸

불이
佛已리이다

이시 비사문천왕호세자 백불언 세존
爾時에 毗沙門天王護世者가 白佛言하되 世尊이시여

아역위민념중생 옹호차법사고 설시타라니
我亦爲愍念衆生하여 擁護此法師故로 說是陀羅尼하

즉설주왈
리이다 卽說呪曰하되

아리 나리 누나리 아나로 나리 구나리
阿梨1 那梨2 𑖦那梨3 阿那盧4 那履5 拘那履6

세존 이시신주 옹호법사 아역자당옹호
世尊이시여 以是神呪로 擁護法師하고 我亦自當擁護

지시경자 령백유수내 무제쇠환
持是經者하여 令百由旬內에 無諸衰患하리이다

이시지극천왕 재차회중 여천만억나유타건
爾時持國天王在此會中하여與千萬億那由他乾

달파중 공경위요 전예불소 합장백불언
闍婆衆이恭敬圍遶하며前詣佛所하여合掌白佛言하되

세존 아역이타라니신주 옹호지법화경자
世尊이시여我亦以陀羅尼神呪로擁護持法華經者하리

즉설주왈
이다 卽說呪曰하되

아가네 가네 구리 건타리 전타리 마등기
阿伽禰₁ 伽禰₂ 瞿利₃ 乾陀利₄ 梅陀利₅ 摩蹬耆₆

상구리 부루사니 알저
常求利₇ 浮樓莎梬₈ 頻底₉

세존 시타라니신주 사십이억제불소설
世尊이시여是陀羅尼神呪는四十二億諸佛所說이니

약유침훼차법사자 즉위침훼시제불이
若有侵毀此法師者는則爲侵毀是諸佛已니이다

이시 유라찰녀등 일명람파 이명비람파 삼
爾時에有羅刹女等하니一名藍婆요二名毗藍婆요三

명곡치 사명화치 오명흑치 률명다발 칠명
名曲齒요四名華齒요五名黑齒요六名多髮이요七名

무염족 팔명지영락 구명고제 십명탈일체
無厭足이요八名持瓔珞이요九名皐帝요十名奪一切

중생정기 시 십라찰녀 여귀자모병기자급권속
衆生精氣_라是十羅刹女_는與鬼子母并其子及眷屬

구예불소 동성백불언 세존 아등역욕
俱詣佛所_{하여}同聲白佛言_{하되}世尊_{이시여}我等亦欲

옹호독송수지법화경자 제기쇠환 약유사구
擁護讀誦受持法華經者_{하여}除其衰患_{하여}若有伺求

법사단자 령불득편 즉어불전
法師短者_{라도}令不得便_{하리이다}卽於佛前_{에서}

이설주왈
而說呪曰_{하되}

이제리 이제민 이제리 아제리 이제리 니리
伊提履₁伊提泯₂伊提履₃阿提履₄伊提履₅泥履₆

니리 니리 니리 니리 루혜 루혜 루혜
泥履₇泥履₈泥履₉泥履₁₀樓醯₁₁樓醯₁₂樓醯₁₃

루혜 다혜 다혜 다혜 두혜 누혜
樓醯₁₄多醯₁₅多醯₁₆多醯₁₇兜醯₁₈𪛗醯₁₉

녕상아두상 막뇌어법사 약야차 약라찰
寧上我頭上_{이언정}莫惱於法師_{하며}若夜叉若羅刹_{이며}

약아귀 약부단나 약길자 약비타라 약견태 약
若餓鬼若富單那_며若吉蔗若毗陀羅_며若犍馱若

오마륵가 약아발마라 약야차길자 약인길자
烏摩勒伽_며若阿跋摩羅_며若夜叉吉蔗_며若人吉蔗

약열병 이 약일일 약이일 약삼일 약사일 약지칠일
若熱病이 若一日 若二日 若三日 若四日 若至七日 하

약상열병 약남형 약녀형 약동남형 약동녀
며 若常熱病이며 若男形 若女形이며 若童男形 若童女

형 내지몽중 역부막뇌 즉어불전 이
形이 乃至夢中이라도 亦復莫惱 하라하고 卽於佛前에서 而

설게언
說偈言 하되

약불순아주
若不順我呪 하고

뇌란설법자
惱亂說法者 면

두파작칠분
頭破作七分 하여

여아리수지
如阿梨樹枝 케하며

여살부모죄
如殺父母罪 하고

역여압유앙
亦如壓油殃 하며

두칭기광인
斗秤欺誑人 하고

조달파승죄
調達破僧罪 하리라

범차법사자
犯此法師者 는

당획여시앙
當獲如是殃 하리라

제라찰녀 설차게이 백불언 세존 아등
諸羅刹女가 說此偈已 하고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我等

역당신자옹호수지독송수행시경자 령득안은
亦當身自擁護受持讀誦修行是經者 하여 令得安隱 하

리제쇠환 소중독약
고離諸衰患하고消衆毒藥하리이다

불고제라찰녀 선재선재 여등 단능옹호수
佛告諸羅刹女하시되善哉善哉라汝等但能擁護受

지법화명자 복불가량 하황옹호구족수
持法華名者하여도福不可量이거든何況擁護具足受

지 공양경권 화향영락 말향도향소향 번
持하고供養經卷하되華香瓔珞과抹香塗香燒香과旛

개기악 연종종등 소등유등 제향유등 소마
蓋伎樂과然種種燈하되蘇燈油燈諸香油燈과蘇摩

나화유등 첨복화유등 파사가화유등 우발라화
那華油燈瞻蔔華油燈과婆師迦華油燈優鉢羅華

유등 여시등백천종공양자 고제 여등급권
油燈의如是等百千種供養者이라皐帝여汝等及眷

속 응당옹호여시법사 설시타라니품시 륵
屬은應當擁護如是法師나라說是陀羅尼品時에六

만팔천인 득무생법인
萬八千人이得無生法忍하니라

묘법련화경 타라니품 종
妙法蓮華經陀羅尼品終

묘법련화경 묘장엄왕본사품 제이십칠
妙法蓮華經 妙莊嚴王本事品 第二十七

이시 불고제대중 내왕고세 과무량무변불
爾時에 佛告諸大衆하시되 乃往古世에 過無量無邊不

가사의아승기겁유불 명운뢰음숙왕화지다타
可思議阿僧祇劫有佛하니 名雲雷音宿王華智多陀

아가도아라가삼막삼불타 극명광명장엄
阿伽度阿羅訶三藐三佛陀이시며 國名光明莊嚴이요

겁명희전 피불법중유왕 명묘장엄 기왕
劫名喜見이라 彼佛法中有王하니 名妙莊嚴이라 其王

부인 명월정덕 유이자 일명정장 이명
夫人은 名曰淨德이며 有二子하니 一名淨藏이요 二名

정안 시이자유대신력복덕지혜 구수보살소
淨眼이라 是二子有大神力福德智慧하니 久修菩薩所

행지도 소위단파라밀 시라파라밀 찬제파라밀
行之道나라 所謂檀波羅蜜 尸羅波羅蜜 羼提波羅蜜

비리야파라밀 선파라밀 반야파라밀 방편파라밀
毗梨耶波羅蜜 禪波羅蜜 般若波羅蜜 方便波羅蜜

자비희사 내지삼십칠품조도법 개실명료통달
慈悲喜捨와 乃至三十七品助道法을 皆悉明了通達

하나라 우득보살정삼매 일성숙삼매 정광삼매 정
하나라 又得菩薩淨三昧와 日星宿三昧 淨光三昧 淨

색삼매 정조명삼매 장장엄삼매 대위덕장삼매
色三昧 淨照明三昧 長莊嚴三昧 大威德藏三昧 하여

어차삼매 역실통달
於此三昧에 亦悉通達 하니라

이시 피불 욕인도묘장엄왕 급민념중생고
爾時에 彼佛이 欲引導妙莊嚴王 하시며 及愍念衆生 故

설시법화경 시정장정안이자 도기모소
로 說是法華經 하시니라 時淨藏淨眼二子가 到其母所 하

합십지조장 백언 원모왕에 운뢰음숙왕화
여 合十指爪掌 하고 白言 하되 願母往詣雲雷音宿王華

지불소 아등역당시종친근공양례배 소
智佛所 하소서 我等亦當侍從親近供養禮拜 하리이다 所

이자하 차불 어일체천인중중 설법화경 의
以者何오 此佛 於一切天人衆中에 說法華經 하시니 宜

응청수 모고자언 여부신수외도 심착파
應聽受 니이다 母告子言 하되 汝父信受外道 하여 深著婆

라문법 여등응왕백부 여공구거 정장정
羅門法 하시니 汝等應往白父 하여 與共俱去 니라 淨藏淨

안 합십지조장백모 아등시법왕자 이생차
眼이 合十指爪掌 白母 하되 我等是法王子 거늘 而生此

사전가
邪見家 니이까

모고자언 여등당우념여부 위현신변 약
母告子言 하되 汝等當憂念 汝父 하여 爲現神變 하라 若

득견자 심필청정 혹청아등왕지불소 어
得見者면 心必淸淨 하여 或聽我等往至佛所 하리라 於

시이자념기부고 응재허공 고칠다라수 현
是二子念其父故로 踊在虛空 하되 高七多羅樹 라 現

종종신변 어허공중행주좌와 신상출수
種種神變 하되 於虛空中行住坐臥 하며 身上出水 하고

신하출화 신하출수 신상출화 혹현대신
身下出火 하며 身下出水 하고 身上出火 하며 或現大身 하

만허공중 이부현소 소부현대 어공중
여 滿虛空中 이다가 而復現小 하고 小復現大 하며 於空中

멸 홀연재지 입지여수 리수여지 현여
滅 이다가 忽然在地 하며 入地如水 하고 履水如地 라 現如

시등종종신변 령기부왕심정신해
是等種種神變 하여 令其父王心淨信解 케하니라

시부견자신력여시 심대환희 득미증유 합
時父見子神力如是 하고 心大歡喜 하여 得未曾有 라 합

장향자언 여등사위시수 수지제자 이자백
掌向子言 하되 汝等師爲是誰며 誰之弟子 이뇨 二子白

언 대왕피운뢰음숙왕화지불 금재칠보보제
言 하되 大王彼雲雷音宿王華智佛 이 今在七寶菩提

수하법좌상좌 어일체세간천인중중 광설법
樹下法座上坐 하여 於一切世間天人衆中에 廣說法

화경 시아등사 아시제자 부어자언
華經 이시니 是我等師 요 我是弟子 니이다 父語子言 하되

아금억욕견여등사 가공구왕 어시이자종
我今亦欲見汝等師 하느니 可共俱往 이라 於是二子從

공중하 도기모소 합장백모 부왕금이신
空中下 하여 到其母所 하여 合掌白母 하되 父王今已信

해 감임발아녹다라삼막삼보제심 아등
解 하여 堪任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이니이다 我等

위부이작불사 원모견청어피불소출가수도
爲父已作佛事 하니 願母見聽於彼佛所出家修道 케하

이시이자 욕중선기의 이계백모
소서 爾時二子는 欲重宣其意 하여 以偈白母 하되

원모방아등
願母放我等 하여

출가작사문
出家作沙門 케하소서

제불심난치
諸佛甚難值 니

아등수불학
我等隨佛學 이니이다

여우담발화
如優曇鉢華 하여

치불부난시
值佛復難是 하며

탈제난역난
脫諸難亦難 이니

원청아출가
願聽我出家 케하소서

모즉고언 청여출가 소이자하 불난치고
母卽告言 하되 聽汝出家 하노라 所以者何 오 佛難值故 니

어시이자 백부모언 선재부모 원시왕예운
라 於是二子가 白父母言 하되 善哉父母여 願時往詣雲

뢰음숙왕화지불소 친근공양 소이자하
雷音宿王華智佛所 하여 親近供養 하소서 所以者何 오

불난득치 여우담발라화 우여일안지구 치
佛難得值 하여 如優曇鉢羅華 하며 又如一眼之龜가 值

부목공 이아등 숙복심후 생치불법
浮木孔 이니이다 而我等은 宿福深厚 하여 生値佛法 이니이

시고부모 당청아등령득출가 소이자하
다 是故父母는 當聽我等令得出家 케하소서 所以者何 오

제불난치 시역난우
諸佛難值며 時亦難遇 니이다

피시묘장엄왕후궁팔만사천인 개실감임수지시
彼時妙莊嚴王後宮八萬四千人이 皆悉堪任受持是

법화경 정안보살 어법화삼매 구이통달
法華經 하나라 淨眼菩薩은 於法華三昧에 久已通達 하고

정장보살 이어무량백천만억겁 통달리제악취
淨藏菩薩은 已於無量百千萬億劫에 通達離諸惡趣

삼매 욕령일체중생 리제악취고 기왕부인
三昧 하여 欲令一切衆生으로 離諸惡趣故라 其王夫人

득제불집삼매 능지제불비밀지장 이자
은 得 諸 佛 集 三 昧 하여 能 知 諸 佛 秘 密 之 藏 하니라 二 子

여시이방편력 선화기부 령심신해 호락
如 是 以 方 便 力 으로 善 化 其 父 하여 令 心 信 解 하여 好 樂

불법 어시묘장엄왕 여구신권속구 정덕
佛 法 케하니라 於 是 妙 莊 嚴 王 은 與 羣 臣 眷 屬 俱 하고 淨 德

부인 여후궁채녀권속구 기왕이자 여사만
夫 人 은 與 後 宮 采 女 眷 屬 俱 하고 其 王 二 子 는 與 四 萬

이천인구 일시공예불소도이 두면례족
二 千 人 俱 하여 一 時 共 詣 佛 所 到 已 하여 頭 面 禮 足 하고

요불삼잡 각주일면
遶 佛 三 市 하고 却 住 一 面 이라

이시 피불 위왕설법 시교리희王大환
爾 時 에 彼 佛 이 爲 王 說 法 하여 示 教 利 喜 하시니 王 大 歡

열 이시묘장엄왕급기부인 해경진주영락가
悅 이라 爾 時 妙 莊 嚴 王 及 其 夫 人 이 解 頸 眞 珠 瓔 珞 價

치백천 이산불상 어허공중 화성사주보대
值 百 千 하여 以 散 佛 上 하니 於 虛 空 中 에 化 成 四 柱 寶 臺

대중유대보상 부백천만천의 기상유불
하고 臺 中 有 大 寶 牀 하되 數 百 千 萬 天 衣 하고 其 上 有 佛 이

결가부좌 방대광명
結 跏 趺 坐 하여 放 大 光 明 이시라

이시 묘장엄왕 작시념 불신희유 단엄수
爾時에 妙莊嚴王이 作是念하되 佛身希有하여 端嚴殊

특 성취제일미묘지색 시운뢰음숙왕화지
特하여 成就第一微妙之色이로다 時雲雷音宿王華智

불 고사증언 여등견시묘장엄왕 어아전합
佛이 告四衆言하시되 汝等見是妙莊嚴王이 於我前合

장립불 차왕어아법중 작비구 정근수습 조
掌立不아 此王於我法中에 作比丘하여 精勤修習 助

불도법 당득작불 호사라수왕 국명대광
佛道法하여 當得作佛하리라 號娑羅樹王이며 國名大光

겁명대고왕 기사라수왕불 유무량보살중
이요 劫名大高王이라 其娑羅樹王佛은 有無量菩薩衆

급무량성문 기국평정 공덕여시 기왕
及無量聲聞하며 其國平正하니 功德如是니라 其王이

즉시이국부제 여부인이자병제권속 어불법
卽時以國付弟하고 與夫人二子并諸眷屬으로 於佛法

중 출가수도 왕출가이 어팔만사천세 상
中에 出家修道하니 王出家已하여 於八萬四千歲에 常

근정진 수행묘법화경 과시이후 득일체정
勤精進하여 修行妙法華經하고 過是已後에 得一切淨

공덕장엄삼매 즉승허공고칠다라수 이백불
功德莊嚴三昧하고 卽昇虛空高七多羅樹하여 而白佛

언 세 존 차아이자 이작불사 이신통
言 하되 世 尊 이시여 此 我 二 子 는 已 作 佛 事 니이다 以 神 通

변화 전아사심 령득안주어불법중 득견세
變 化 로 轉 我 邪 心 하여 令 得 安 住 於 佛 法 中 하고 得 見 世

존 차이자자 시아선지식 위욕발기숙
尊 케하니 此 二 子 者 는 是 我 善 知 識 이니이다 爲 欲 發 起 宿

세선근 요익아고 래생아가
世 善 根 하여 饒 益 我 故 로 來 生 我 家 니이다

이시 운뢰음숙왕화지불 고묘장엄왕언 여
爾 時 에 雲 雷 音 宿 王 華 智 佛 이 告 妙 莊 嚴 王 言 하시되 如

시여시 여여소언 약선남자선녀인 종선
是 如 是 니라 如 汝 所 言 이로다 若 善 男 子 善 女 人 이 種 善

근고 세세득선지식 기선지식 능작불사
根 故 로 世 世 得 善 知 識 하니 其 善 知 識 은 能 作 佛 事 하여

시교리희 령입아녹다라삼막삼보제
示 教 利 喜 하여 令 入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케하니라

대왕 당지 선지식자 시대인연 소위화도
大 王 아 當 知 하라 善 知 識 者 는 是 大 因 緣 이라 所 謂 化 導

령득견불 발아녹다라삼막삼보제심
하여 令 得 見 佛 하고 發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心 케하느니라

대왕 여견차이자불 차이자이증공양륙십오백
大 王 아 汝 見 此 二 子 아 此 二 子 已 曾 供 養 六 十 五 百

천만억나유타항하사제불 친근공경 어제불
千萬億那由他恒河沙諸佛하여 親近恭敬하며 於諸佛

소 수지법화경 민념사견증생 령주정견
所에서 受持法華經 하고 慳念邪見衆生하여 令住正見케

묘장엄왕 즉종허공중하 이백불언 세
하나라 妙莊嚴王이 卽從虛空中下하여 而白佛言하되 世

존 여래심희유 이공덕지혜고 정상육제
尊이시여 如來甚希有하여 以功德智慧故로 頂上肉髻의

광명현조 기안장광 이감청색 미간
光明顯照하시며 其眼長廣하시고 而紺靑色이시며 眉間

호상 백여가월 치백제밀 상유광명
毫相은 白如珂月하시며 齒白齊密하여 常有光明이시며

순색적호 여빈파과
脣色赤好하여 如頻婆果하시니이다

이시 묘장엄왕 찬탄불여시등무량백천만억공
爾時에 妙莊嚴王이 讚歎佛如是等無量百千萬億功

덕이 어여래전 일심합장 부백불언 세
德已하고 於如來前에서 一心合掌하고 復白佛言하되 世

존 미증유야 여래지법구족성취불가사
尊이시여 未曾有也로이다 如來之法具足成就不可思

의미묘공덕 교제소행 안은쾌선 아종
議微妙功德하여 敎戒所行이 安隱快善하시니이다 我從

금일 불부자수심행 불생사견고만진에제악지
今日不復自隨心行 하고 不生邪見憍慢瞋恚諸惡之

심 설시어이 레불이출 불고대중
心 하리이다 說 是 語 已 하고 禮 佛 而 出 하니 佛 告 大 衆 하시되

어의운하 묘장엄왕 기이인호 금화덕보살
於 意 云 何 오 妙 莊 嚴 王 이 豈 異 人 乎 아 今 華 德 菩 薩 이

시 기정덕부인 금불전 광조장엄상보살시
是 요 其 淨 德 夫 人 은 今 佛 前 에 光 照 莊 嚴 相 菩 薩 是 니

애민묘장엄왕급제권속고 어피중생 기이자자
哀 愍 妙 莊 嚴 王 及 諸 眷 屬 故 로 於 彼 中 生 한 其 二 子 者

금약왕보살 약상보살시 시약왕약상보살
는 今 藥 王 菩 薩 藥 上 菩 薩 是 니라 是 藥 王 藥 上 菩 薩 은

성취여차제대공덕 이어무량백천만억제불소
成 就 如 此 諸 大 功 德 하고 已 於 無 量 百 千 萬 億 諸 佛 所

식중덕본 성취불가사의제선공덕
에 植 衆 德 本 하여 成 就 不 可 思 議 諸 善 功 德 하니라

약유인 식시이보살명자자 일체세간제천인민
若 有 人 이 識 是 二 菩 薩 名 字 者 면 一 切 世 間 諸 天 人 民

역응례배 불설시묘장엄왕본사품시 팔만
이 亦 應 禮 拜 하리라 佛 說 是 妙 莊 嚴 王 本 事 品 時 에 八 萬

사천인 원진리구 어제법중 득법안정
四 千 人 이 遠 塵 離 垢 하고 於 諸 法 中 에 得 法 眼 淨 하니라

묘법련화경 묘장엄왕본사품 종
妙法蓮華經 妙莊嚴王本事品 終

묘법蓮華經 보현보살권발품 제이십팔
妙法蓮華經 普賢菩薩勸發品 第二十八

이시 보현보살 이자재신통력 위덕명문 여
爾時에 普賢菩薩이 以自在神通力과 威德名聞으로 與

대보살무량무변불가칭수 중동방래 소경제
大菩薩無量無邊不可稱數가 從東方來하니 所經諸

국 보개진동 우보련화 작무량백천만억종
國이 普皆震動하고 雨寶蓮華하며 作無量百千萬億種

종기악 우여무수제천 룡 야차 건달파 아수라
種伎樂이라 又與無數諸天 龍 夜叉 乾闥婆 阿修羅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등대중 위요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人 非人等大衆이 圍遶하

각현위덕신통지력 도사파세제기사굴산중
여 各現威德神通之力하여 到娑婆世界耆闍崛山中하

두면례석가모니불 우요칠잡 백불언
여 頭面禮釋迦牟尼佛하고 右遶七匝하고 白佛言하되

세존 아어보위덕상왕불국 요문차사파세
世尊이시여 我於寶威德上王佛國에서 遙聞此娑婆世

계설법화경 여무량무변백천만억제보살중
界說法華經하고 與無量無邊百千萬億諸菩薩衆과

공래청수 유원세존 당위설지 약선
共來聽受이니이다 唯願世尊 當爲說之하소서 若善

남자 선녀인 어여래멸후 운하능득시법화경
男子 善女人이 於如來滅後에 云何能得是法華經 하

리이가

불고보현보살 약선남자 선녀인 성취사법
佛告普賢菩薩 하시되 若善男子 善女人이 成就四法 하

어여래멸후 당득시법화경 일자위제불호
면 於如來滅後에 當得是法華經 하리라 一者爲諸佛護

념 이자식증덕본 삼자입정정취 사자발구
念 이요 二者植衆德本 이요 三者入正定聚 요 四者發救

일체중생지심 선남자 선녀인 여시성취사법
一切衆生之心 이라 善男子 善女人이 如是成就四法

어여래멸후 필득시경
하면 於如來滅後에 必得是經 하리라

이시 보현보살 백불언 세존 어후오백
爾時에 普賢菩薩이 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於後五百

세탁악세중 기유수지시경전자 아당수호
歲濁惡世中에 其有受持是經典者면 我當守護 하여

제기쇠환 령득안은 사무사구득기편자
除其衰患 하고 승得安隱 하며 使無伺求得其便者 케하리

악마 악마자 악마녀 악마민 악위마소착자
이다 若魔 若魔子 若魔女 若魔民 若爲魔所著者와

약야차 약라찰 약구반다 약비사사 약길자 약
若夜叉 若羅刹과 若鳩槃荼 若毗舍闍 若吉蔗 若

부단나 약위타라등제뇌인자 개불득편
富單那와 若韋陀羅等諸惱人者가 皆不得便 하리이다

시인 약행약립 독송차경 아이시승륙아백
是人이 若行若立 하여 讀誦此經 하면 我爾時乘六牙白

상왕 여대보살중구예기소 이자현신 공
象王 하고 與大菩薩衆俱詣其所 하여 而自現身 하고 供

양수호 안위기심 역위공양법화경고
養守護 하며 安慰其心 하리이다 亦爲供養法華經 故 니이다

시인약좌 사유차경 이시아부승백상왕 현
是人若坐 思惟此經 이면 爾時我復乘白象王 하고 現

기인전 기인약어법화경 유소망실일구일게
其人前 하며 其人若於法華經에 有所忘失一句一偈이

아당교지 여공독송 환령통리
면 我當教之 하여 與共讀誦 하여 還令通利 케하리이다

이시 수지독송법화경자득견아신 심대환희
爾時에 受持讀誦法華經者得見我身 하면 甚大歡喜 하

전부정진 이전아고 즉득삼매급타라니
여 轉復精進 하여 以見我故로 卽得三昧及陀羅尼 하리니

명위선타라니 백천만억선타라니 법음방편타
名爲旋陀羅尼요 百千萬億旋陀羅尼요 法音方便陀

라니 득여시등타라니
羅尼라得如是等陀羅尼하리이다

세 존 약 후세 후오백세 탁악세 중 비구 비구
世尊이시여 若後世後五百歲濁惡世中에比丘比丘

니 우파새 우파이 구색자수지자 독송자 서
尼와優婆塞優婆夷의求索者受持者와讀誦者書

사자 욕수습시법화경 어삼칠일중 응일심
寫者가欲修習是法華經하면於三七日中에應一心

정진 만삼칠일이 아당승륙아백상 여무
精進하며滿三七日已하면我當乘六牙白象하고與無

량보살이 자위요 이일체 중생 소희견신 현기
量菩薩而自圍遶하여以一切衆生所喜見身으로現其

인전 이위설법 시교리희 역부여기타
人前하여而爲說法하여示教利喜하리이다亦復與其陀

라니주 득시타라니고 무유비인능파괴자
羅尼呪하리니得是陀羅尼故로無有非人能破壞者하

역불위녀인지소혹란 아신역자상호시인
며亦不爲女人之所或亂하고我身亦自常護是人하리

유원세 존 청아설차타라니주
이다唯願世尊이시여聽我說此陀羅尼呪하소서

즉어불전이설주왈
卽於佛前而說呪曰하되

아단지 단타파지 단타파제 단타구사레 단타
阿檀地₁ 檀陀婆地₂ 檀陀婆帝₃ 檀陀鳩舍隸₄ 檀陀

수타레 수타레 수타라파저 불타파전네 살파
修陀隸₅ 修陀隸₆ 修陀羅婆底₇ 佛馱波羶禰₈ 薩婆

타라니아파다니 살파파사아파다니 수아파다
陀羅尼阿婆多尼₉ 薩婆婆沙阿婆多尼₁₀ 修阿婆多

니 승가파리차니 승가넬가타니 아승기
尼₁₁ 僧伽婆履叉尼₁₂ 僧伽涅伽陀尼₁₃ 阿僧祇₁₄

승가파가지 제레아타승가두락아라제 파라제
僧伽婆伽地₁₅ 帝隸阿惰僧伽兜略阿羅帝波羅帝₁₆

살파승가지 삼마지가란지 살파달마수파리찰
薩婆僧伽地三摩地伽蘭地₁₇ 薩婆達磨修波利刹

제 살파살타루타교사략아누가지 신아비길
帝₁₈ 薩婆薩埵樓馱橋舍略阿毘伽地₁₉ 辛阿毗吉

리지제
利地帝₂₀

세존 약유보살득문시타라니자 당지보현신
世尊_{이시여} 若有菩薩得聞是陀羅尼者_면 當知普賢神

통지력 약법화경 행염부제 유수지자 응
通之力_{이며} 若法華經_이 行闍浮提_{하여} 有受持者_면 應

작차념 개시보현위신지력 약유수지독
作此念_{하되} 皆是普賢威神之力_{이니이다} 若有受持讀

송정억념 해기의취 여설수행 당지시인
誦正憶念 하여 解其義趣 하고 如說修行 하면 當知是人

행보현행 어무량무변제불소 심종선근
行普賢行 하여 於無量無邊諸佛所 에서 深種善根 이라

위제여래수마기두 약단서사 시인명종
爲諸如來手摩其頭 리이다 若但書寫 라도 是人命終 하면

당생도리천상 시시팔만사천천녀작중기악
當生忉利天上 하리니 是時八萬四千天女作衆伎樂 하

이래영지 기인즉착칠보관 어채녀중오락
여 而來迎之 거든 其人卽著七寶冠 하고 於采女中娛樂

쾌락 하황수지독송정억념 해기의취 여
快樂 하리니 何況受持讀誦正憶念 하며 解其義趣 하고 如

설수행 약유인수지독송 해기의취 시
說修行 이리이까 若有人受持讀誦 하고 解其義趣 하면 是

인명종 위천불수수 령불공포 불타악
人命終 하고 爲千佛授手 하여 令不恐怖 케하시며 不墮惡

취 즉왕두솔천상미륵보살소 미륵보살
趣 하며 卽往兜率天上彌勒菩薩所 하리이다 彌勒菩薩이

유삼십이상대보살중 소공위요 유백천만억
有三十二相大菩薩衆 의 所共圍遶 하고 有百千萬億

천녀권속 이어중생 유여시등공덕리익
天女眷屬 하니 而於中生 하리이다 有如是等功德利益 하

시 고 지 자 응 당 일 심 자 서 약 사 인 서 수
尼 是 故 智 者 是 應 當 一 心 自 書 하거나 若 使 人 書 하며 受

지 독 송 정 억 념 여 설 수행 세 존 아 금
持 讀 誦 正 憶 念 하여 如 說 修 行 이니이다 世 尊 이시여 我 今

이 신 통 령 고 수 호 시 경 어 여 래 멸 후 염 부 제
以 神 通 力 故 로 守 護 是 經 하여 於 如 來 滅 後 에 閻 浮 提

내 광 령 류 포 사 불 단 절
內 廣 令 流 布 하여 使 不 斷 絕 하리이다

이 시 석 가 모 니 불 찬 언 선 재 선 재 보 현 여
爾 時 에 釋 迦 牟 尼 佛 讚 言 하시되 善 哉 善 哉 라 普 賢 아 汝

능 호 조 시 경 령 다 소 중 생 안 락 리 익 여 이 성
能 護 助 是 經 하여 令 多 所 衆 生 安 樂 利 益 케 하니 汝 已 成

취 불 가 사 의 공 덕 심 대 자 비 중 구 원 래 발
就 不 可 思 議 功 德 하여 深 大 慈 悲 하니라 從 久 遠 來 로 發

아 녹 다 라 삼 막 삼 보 제 의 이 능 작 시 신 통 지 원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意 하여 而 能 作 是 神 通 之 願 하여

수 호 시 경 아 당 이 신 통 령 수 호 능 수 지 보 현 보
守 護 是 經 하니 我 當 以 神 通 力 으로 守 護 能 受 持 普 賢 菩

살 명 자 보 현 약 유 수 지 독 송 정 억 념 수 습 서
薩 名 者 하리라 普 賢 아 若 有 受 持 讀 誦 正 憶 念 修 習 書

사 시 법 화 경 자 당 지 시 인 즉 견 석 가 모 니 불
寫 是 法 華 經 者 하면 當 知 하라 是 人 則 見 釋 迦 牟 尼 佛 하

여종불구 문차경전 당지 시인공양석
고 如從佛口로 聞此經典 이니라 當知 하라 是人供養釋

가모니불 당지 시인불찬선재 당지
迦牟尼佛 이니라 當知 하라 是人佛讚善哉 니라 當知 하라

시인위석가모니불수마기두 당지 시인위석
是人爲釋迦牟尼佛手摩其頭 니라 當知 하라 是人爲釋

가모니불의지소부 여시지인 불부탐착세락
迦牟尼佛衣之所覆 니라 如是之人은 不復貪著世樂 하

불호외도경서수필 역부불희친근기인급제
고 不好外道經書手筆 하며 亦復不喜親近其人及諸

악자 악도예악축저양계구 악렵사악현매녀색
惡者의 若屠兒若畜猪羊雞狗와 若獵師若街賣女色

시인심의질직 유정억념 유복덕력
이리라 是人心意質直 하고 有正憶念 하여 有福德力 이니라

시인 불위삼독소뇌 역불위 질투아만사만증
是人 不爲三毒所惱 하며 亦不爲 嫉妬我慢邪慢增

상만소뇌 시인 소욕지족 능수보현지행
上慢所惱 니라 是人 少欲知足 하여 能修普賢之行 하리

라

보현 악여래멸후후오백세 악유인견수지독
普賢아 若如來滅後後五百歲에 若有人見受持 讀

송 법화경자 응작시념 차인불구당에도장
誦 法華經者 거든 應作是念 하되 此人不久當詣道場 하

파제마증 득아녹다라삼막삼보제 전법륜
여 破諸魔衆 하고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여 轉法輪

격법고 취법라우법우 당좌천인대중중 사
擊法鼓 하고 吹法螺雨法雨 하고 當坐天人大衆中 師

자법좌상 보현 약어후세 수지 독송 시경
子法座上 하리라 普賢 아 若於後世에 受持 讀誦 是經

전자 시인 불부탐착의복와구음식자생지물
典者는 是人 不復貪著衣服臥具飲食資生之物 이라도

소원불허 역어현세득기복보 약유인경훼
所願不虛 하고 亦於現世得其福報 하리라 若有人輕毀

지언 여광인이 공작시행 종무소획
之言 하되 汝狂人耳 라 空作是行 이라도 終無所獲 이라하면

여시죄보 당세세무안 약유공양찬탄지자
如是罪報는 當世世無眼 이리라 若有供養讚歎之者면

당어금세득현과보 약부견수지시경자 출기
當於今世得現果報 리라 若復見受持是經者 하고 出其

과악 약실약불실 차인 현세득백라병
過惡 하면 若實若不實 커나 此人은 現世得白癩病 이리라

약유경소지자 당세세아치소결 추수평비
若有輕笑之者는 當世世牙齒疎缺 하고 醜脣平鼻 하며

수각료려 안목각래 신체취예 악창농혈
手脚繚戾하고 眼目角睐하며 身體臭穢하고 惡瘡膿血하

수복단기 제악중병 시고보현 약견수
며 水服短氣하고 諸惡重病하리라 是故普賢아 若見受

지시경전자 당기원영 당여경불 설시보
持是經典者 커든 當起遠迎하되 當如敬佛이니라 說是普

현권발품시 항하사등무량무변보살 득백천만
賢勸發品時에 恒河沙等無量無邊菩薩은 得百千萬

억선타라니 삼천대천세계미진등제보살 구
億旋陀羅尼하고 三千大千世界微塵等諸菩薩은 具

보현도 불설시경시 보현등제보살 사리불
普賢道나라 佛說是經時에 普賢等諸菩薩과 舍利弗

등제성문 급제천룡인 비인등일체대회 개대
等諸聲聞과 及諸天龍人非人等一切大會가 皆大

환희 수지불어 작례이거
歡喜하며 受持佛語하고 作禮而去하니라

묘법련화경 보현보살권발품 종
妙法蓮華經 普賢菩薩勸發品 終

묘법련화경 권 제칠 종
妙法蓮華經 卷 第七 終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유송제빈삼장법사담마밀다역
劉宋闍賓三藏法師曇摩蜜多譯

여시아문 일시불재비사리극대림정사중각
如是我聞 하노라 一時佛在毘舍離國大林精舍重閣

강당 고제비구 각후삼월 아당반넬반
講堂 하여 告諸比丘 하시되 却後三月에 我當般涅槃 하

존자아난 즉종좌기 정의복 차수합
리라 尊者阿難 이 卽從座起 하여 整衣服 하고 叉手 합

장 요불삼잡 위불작례 호궤합장 체
掌 하며 遶佛三匝 하여 爲佛作禮 하고 胡跪合掌 하고 諦

관여래 목불잠사 장로마가가섭 미륵보살
觀如來 하되 目不暫捨 라 長老摩訶迦葉 과 彌勒菩薩

마가살 역종좌기 합장작례 첨앙존안
摩訶薩 이 亦從座起 하여 合掌作禮 하고 瞻仰尊顏 이라

시삼대사 이구동음 이백불언 세존
時三大士 는 異口同音 으로 而白佛言 하되 世尊 이시여

여래멸후 운하중생기보살심 수행대승방
如來滅後에 云何衆生起菩薩心 하며 修行大乘方

등경전 정념사유일실경제 운하불실무
等經典 하며 正念思惟一實境界 니이가 云何不失無

상보제지심 운하부당불단번뇌 불리오
上菩提之心 니이가 云何復當不斷煩惱 하고 不離五

욕 득정제근멸제제죄 부모소생청정상
欲 이라도 得淨諸根滅除諸罪 하며 父母所生清淨常

안 불단오욕 이능득견제장외사
眼 으로 不斷五欲 이라도 而能得見諸障外事 니이가

불고아난 체청 체청 선사념지 여
佛告阿難 諦聽 하고 諦聽 하여 善思念之 하라 如

래석어기사굴산급여주처 이광분별일실지
來昔於耆闍崛山及餘住處 하여 已廣分別一實之

도 금어차처 위미래세제중생등욕행대승
道 나 今於此處 에서 爲未來世諸衆生等欲行大乘

무상법자 욕학보현행행보현행자 아금당
無上法者 와 欲學普賢行行普賢行者 하여 我今當

설기소념법 약견보현급불견자 제각죄
說其所念法 하리라 若見普賢及不見者 가 除却罪

수 금위여등당광분별 아난 보현보살
數 를 今爲汝等當廣分別 하리라 阿難 아 普賢菩薩 은

내생동방정묘국토 기국토상 잡화경중
乃生東方淨妙國土 라 其國土相 은 雜華經 中 에서

이광분별 아금어차경략이해설
已廣分別 하나라 我今於此經略而解說 하리라

아난 약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천룡팔
阿難 아 若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와 天龍 八

부일체중생 송대승자 수대승자 발대승의자
部一切衆生 이 誦大乘者 修大乘者 發大乘意者

락견보현보살색신자 락견다보불탑자 락견석
樂見普賢菩薩色身者 樂見多寶佛塔者 樂見釋

가모니불 급분신제불자 락득육근청정자 당
迦牟尼佛 及分身諸佛者 樂得六根清淨者 는 當

학시관 차관공덕 제제장애 견상묘색
學是觀 이니라 此觀功德 은 除諸障礙 하고 見上妙色

불입삼매 단송지고 전심수습 심심
하리니 不入三昧 라도 但誦持故 로 專心修習 하여 心心

상차 불리대승 일일지삼칠일 득견보현
相次 하여 不離大乘 이 一日至三七日 하면 得見普賢

유중장자 칠칠일진연후득견 부유중
하리라 有重障者 는 七七日盡然後得見 하며 復有重

자 일생득견 부유중자 이생득견 부유
者 는 一生得見 하며 復有重者 는 二生得見 하며 復有

중자 삼생득견 여시종종업보불동 시
重者 는 三生得見 하나니 如是種種業報不同 하니 是

고이설 故異說 이나라 보현보살 普賢菩薩 은 신량무변 身量無邊 하며 음성무 音聲無

변 邊 하며 색상무변 色像無邊 이나 욕래차국 欲來此國 하여 입자재신통 入自在神通 하여

촉신령소 促身令小 라 염부제인 閻浮提人 은 삼장중고 三障重故 로 이지혜력 以智慧力 으

화승백상 化乘白象 이나라 기상륙아 其象六牙 하고 칠지주지 七支跂地 하며 기 其

칠지하 七支下 에 생칠련화 生七蓮華 라 기상색선백 其象色鮮白 이며 백중상자 白中上 者

파리설산 頗梨雪山 도 불득위비 不得爲比 니라 신장사백오십유순 身長四百五十由旬

고사백유순 高四百由旬 이며 어륙아단 於六牙端 에는 유륙욕지 有六浴池 하고

일일욕지중 一一浴池中 에는 생십사련화 生十四蓮華 하되 여지정등 與池正等 하며 기 其

화개부 華開敷 는 여천수왕 如天樹王 이라 일일화상 一一華上 에 유일옥녀 有一玉女 하

안색여홍 顔色如紅 하며 휘유과천녀 暉有過天女 하며 수중자연화오공 手中自然化五莖

후 篲 라 일일공후 一一箜篌 에는 오백악기 五百樂器 로 이위권속 以爲眷屬 하고 유 有

오백조 부안원앙 개중보색 생화엽간
五百鳥 하되 鳧雁鴛鴦 이 皆衆寶色 으로 生花葉間 이

상비유화 기경비여적진주색 기화금색
라 象鼻有華 하되 其莖譬如赤眞珠色 이며 其華金色

함이미부 견시사이 부갱참회 지심
으로 含而未數 라 見是事已 하고 復更懺悔 하여 至心

체관 사유대승 심불휴폐 전화즉부
諦觀 하고 思惟大乘 하되 心不休廢 하면 見華卽數 하되

금색금광 기련화대 시견숙가보묘범마니
金色金光 이라 其蓮華臺 는 是甄叔迦寶妙梵摩尼 로

이위화만 금강보주 이위화수 전유화불
以爲華鬘 하고 金剛寶珠 로 以爲華鬘 하고 見有化佛

좌련화대 중다보살 좌련화수 화불미간
坐蓮華臺 하며 衆多菩薩 은 坐蓮華鬘 하고 化佛眉間

역출금광 입상비중 종상비출 입
에는 亦出金光 하며 入象鼻 中 하며 從象鼻 出 하여 入

상안중 종상안출 입상이중 종상이출
象眼中 하고 從象眼 出 하여 入象耳 中 하고 從象耳 出

조상정상 화작금대 기상두상유삼화
하여 照象頂上 하고 化作金臺 라 其象頭上有三化

인 일착금륜 일지마니주 일집금강저
人 하되 一捉金輪 하고 一持摩尼珠 하며 一執金剛杵

거저의상 상즉능행 각불리지 섭허
라 舉杵擬象 하면 象卽能行 하되 脚不履地 하고 躡虛

이유 리지칠척 지유인문 어인문중
而遊 하되 離地 七尺 이나 地有印文 이라 於印文中 에는

천복곡망 개실구족 일일망간 생일대
千幅轂輞 이 皆悉具足 이라 一一輞間 으로는 生一 大

련화 차련화상 생일화상 역유칠지
蓮華 하며 此蓮華 上 에는 生一 化象 하되 亦有 七支 하여

수대상행 거족하족 생칠천상 이위권
隨大象 行 이라 舉足 下足 에 生七千 象 하여 以爲 眷

속 수종대상 상비홍련화색 상유화불
屬 하여 隨從 大象 이라 象鼻紅蓮華色 이며 上有 化佛 하

방미간광 기광금색 여전입상비중
여 放眉間光 하시니 其光 金色 이라 如前 入象鼻中 하

어상비중출 입상안중 종상안출 환
고 於象鼻中 出 하여 入象眼中 하며 從象眼 出 하여 還

입상이 종상이출 지상경상 점점상지
入象耳 하며 從象耳 出 하여 至象頸上 하여 漸漸 上至

상배 화성금안 칠보교구 어안사면유
象背 하여 化成 金鞍 하고 七寶校具 라 於鞍四面 有

칠보주 중보교식 이성보대 대중유일
七寶柱 하고 衆寶校飾 하여 以成 寶臺 하고 臺中 有一

칠보련화 기련화수 백보공성 기련화
에 七寶蓮華라 其蓮華鬚는 百寶共成하며 其蓮華

대 시대마니 유일보살결가부좌 명왈보
臺는 是大摩尼와 有一菩薩結跏趺坐하시니 名曰普

현 신백옥색 오십종광 광오십종색
賢이라 身白玉色이요 五十種光이며 光五十種色으

이위항광 신제모공 류출금광 기금
로 以爲項光이라 身諸毛孔으로 流出金光하며 其金

광단 무량화불 제화보살 이위권속안상
光端하며 無量化佛에 諸化菩薩이 以爲眷屬安詳

서보 우대보화 지행자전 기상개구
徐步이라 雨大寶華하며 至行者前하여 其象開口하니

어상아상제지 옥녀고악현가 기성미묘
於象牙上諸池에서 玉女鼓樂絃歌하니 其聲微妙하

찬탄대승일실지도 행자견이 환희경례
여 讚歎大乘一實之道라 行者見已하고 歡喜敬禮

부갱송독심심경전 편례십방무량제불
하고 復更誦讀甚深經典하며 遍禮十方無量諸佛하

례다보불탑금석가모니불 병례보현제대
고 禮多寶佛塔及釋迦牟尼佛하며 并禮普賢諸大

보살 발시서원 약아숙복 응견보현
菩薩하고 發是誓願이니라 若我宿福하면 應見普賢하

원 존자편길시 아색신 작시원이 주
리라 願尊者遍吉示我色身 하소서 作是願已 하고 晝

야륙시 레십방불 행참회법 독대승경
夜六時에 禮十方佛 하고 行懺悔法 하며 讀大乘經 하

송대승경 사대승의 념대승사 공경
고 誦大乘經 하며 思大乘義 하고 念大乘事 하며 恭敬

공양지대승자 시일체인 유여불상 어
供養持大乘者 하고 視一切人 하되 猶如佛想 하고 於

제중생여부모상 작시념이 보현보살 즉
諸衆生如父母想 하라 作是念已 하면 普賢菩薩은 卽

어미간방대인상백호광명 차광현시 보
於眉間放大人相白毫光明 하시리라 此光現時에 普

현보살 신상단엄 여자금산 단정미묘
賢菩薩의 身相端嚴은 如紫金山 하고 端正微妙 하여

삼십이상 개실비유 신제모공 방대광명
三十二相이 皆悉備有 라 身諸毛孔으로 放大光明

조기대상 령작금색 일체화상 역
하여 照其大相 하시니 令作金色 이라 一切化象도 亦

작금색 제화보살 역작금색 기금색광
作金色 이라 諸化菩薩도 亦作金色 이라 其金色光

조우동방무량세계 개동금색 남서북
이 照于東方無量世界 하니 皆同金色 이라 南西北

방 사유상하 역부여시
方과 四維上下도 亦復如是라

이시 십방일일방면 유일보살 승륙아백
爾時에 十方一一方面에 有一菩薩 하되 乘六牙白

상왕 역여보현 등무유이 여시십방무
象王 하니 亦如普賢 하여 等無有異라 如是十方無

량무변만중화상 보현보살신통력고 령지경
量無邊滿中化象도 普賢菩薩神通力故로 令持經

자 개실득견 시시행자 견제보살 신
者로 皆悉得見이라 是時行者는 見諸菩薩 하고 身

심환희 위기작례백언 대자대비 민념
心歡喜 하여 爲其作禮白言 하되 大慈大悲 시여 愍念

아고 위아설법 설시어시 제보살등
我故로 爲我說法 하소서 說是語時에 諸菩薩等 이

이구동음 각설청정대승경법 작제게송
異口同音으로 各說淸淨大乘經法 하시고 作諸偈頌

찬탄행자 시명시관보현보살최초경계
하여 讚歎行者라 是名始觀普賢菩薩最初境界니라

이시 행자 견시사이 심념대승 주야불
爾時에 行者는 見是事已 하고 心念大乘 하되 晝夜不

사 어수면중 몽견보현위기설법 여각
捨하면 於睡眠中에 夢見普賢爲其說法 이리니 如覺

무이 안위기심 이작시언 여소송지망
無異리라 安慰其心 하여 而作是言 하시되 汝所誦持忘

실시구 망실시게
失是句 하고 忘失是偈 하시니라

이시 행자 문보현보살소설 심해의취
爾時에 行者는 聞普賢菩薩所說 하고 深解義趣 하여

억지불망 일일여시 기심점리 보현보
憶持不忘 하니 日日如是 하여 其心漸利 리라 普賢菩

살 교기억념십방제불 수보현교 정심정
薩이 敎其憶念十方諸佛 하니 隨普賢敎 하여 正心正

의 점이심안 전동방불 신황금색 단
意 하여 漸以心眼 으로 見東方佛 하니 身黃金色 이며 端

엄미묘 전일불이 부전일불 여시점
嚴微妙 시라 見一佛 已 하고 復見一佛 이라 如是漸

점편전동방일체제불 심상리고 편견십방
漸遍見東方一切諸佛 하며 心相利 故로 遍見十方

일체제불 전제불이 심생환희 이작시
一切諸佛 이라 見諸佛 已 하고 心生歡喜 하여 而作是

언 인대승고 득견대사 인대사력고 득
言 하시되 因大乘故로 得見大士 하고 因大士力故로 得

전제불 수견제불 유미료료 폐목즉견
見諸佛 이라 雖見諸佛 이나 猶未了了 하니 閉目則見

개 목 즉 실 작 시 어 이 오 체 투 지 편
하고 開 目 則 失 이라 作 是 語 已 하고 五 體 投 地 하여 遍

례 십 방 불 례 제 불 이 호 궤 합 장 이 작 시
禮 十 方 佛 하고 禮 諸 佛 已 하고 胡 跪 合 掌 하고 而 作 是

언 제 불 세 존 십 력 무 외 십 팔 불 공 법 대 자
言 이나라 諸 佛 世 尊 은 十 力 無 畏 十 八 不 共 法 大 慈

대 비 삼 념 처 상 주 세 간 색 중 상 색 아 유
大 悲 三 念 處 하시되 常 住 世 間 色 中 上 色 이시라 我 有

하 죄 이 불 득 견 설 시 어 이 부 갱 참 회
何 罪 하여 而 不 得 見 이니이까 說 是 語 已 하고 復 更 懺 悔

참 회 청 정 이 보 현 보 살 부 갱 현 전 행
하며 懺 悔 清 淨 已 하면 普 賢 菩 薩 이 復 更 現 前 하되 行

주 좌 와 불 리 기 측 내 지 몽 중 상 위 설 법
住 坐 臥 에 不 離 其 側 하고 乃 至 夢 中 에도 常 爲 說 法 하리

차 인 각 이 득 법 희 락 여 시 주 야 경 삼
라 此 人 覺 已 하고 得 法 喜 樂 하리라 如 是 晝 夜 經 三

칠 일 연 후 방 득 선 타 라 니 득 타 라 니 고
七 日 하고 然 後 方 得 旋 陀 羅 尼 리라 得 陀 羅 尼 故 로

제 불 보 살 소 설 묘 법 억 지 불 실 역 상 몽 견
諸 佛 菩 薩 의 所 說 妙 法 을 憶 持 不 失 하며 亦 常 夢 見

과 거 칠 불 유 석 가 모 니 불 위 기 설 법 시
過 去 七 佛 하되 唯 釋 迦 牟 尼 佛 이 爲 其 說 法 하시고 是

제세존 각각칭찬대승경전
諸世尊은 各各稱讚大乘經典 하시리라

이시행자 부갱참회 편례십방불 레
爾時에 行者는 復更懺悔 하고 遍禮十方佛 하리라 禮

십방불이 보현보살 주기인전 교설숙세
十方佛已 하면 普賢菩薩이 住其人前 하여 敎說宿世

일체업연 발로흑악일체죄사 향제세존
一切業緣 하고 發露黑惡一切罪事 라 向諸世尊 하여

구자발로 기발로이 심시즉득제불현전
口自發露 하라 既發露已 하면 尋時卽得諸佛現前

삼매 득시삼매이 전동방아촉불급묘희
三昧 리라 得是三昧已 하면 見東方阿閼佛及妙喜

국 료료분명 여시십방각견제불상묘국토
國 하되 了了分明 하며 如是十方各見諸佛上妙國土

료료분명 기견십방불이 몽상두상
하되 了了分明 하리라 既見十方佛已 하면 夢象頭上

유일금강인 이금강저 편의륙근 의륙
有一金剛人 하여 以金剛杵로 遍擬六根 하고 擬六

근이 보현보살 위어행자 설륙근청정
根已 하면 普賢菩薩이 爲於行者 하여 說六根清淨

참회지법 여시참회 일일지칠일 이
懺悔之法 하리라 如是懺悔 하되 一日至七日 하며 以

제 불 현 전 삼 매 력 고 보 현 보 살 설 법 장 엄 고 이
諸 佛 現 前 三 昧 力 故 普 賢 菩 薩 說 法 莊 嚴 故 耳

점 점 문 장 외 성 안 점 점 견 장 외 사 비 점 점
漸 漸 聞 障 外 聲 眼 漸 漸 見 障 外 事 鼻 漸 漸

문 장 외 향 광 설 여 묘 법 화 경 득 시 륜 근 청
聞 障 外 香 廣 說 如 妙 法 華 經 得 是 六 根 清

정 이 신 심 환 희 무 제 악 상 심 순 시 법
淨 已 身 心 歡 喜 無 諸 惡 相 心 純 是 法

여 법 상 응 부 갱 득 백 천 만 억 선 타 라 니 부
여 與 法 相 應 復 更 得 百 千 萬 億 旋 陀 羅 尼 復

갱 광 견 백 천 만 억 무 량 제 불 시 제 세 존 각
更 廣 見 百 千 萬 億 無 量 諸 佛 是 諸 世 尊 各

신 우 수 마 행 자 두 이 작 시 언 선 재 선
伸 右 手 摩 行 者 頭 而 作 是 言 善 哉 善

재 행 대 승 자 발 대 장 엄 심 자 념 대 승 자
哉 行 大 乘 者 發 大 莊 嚴 心 者 念 大 乘 者

아 등 석 일 발 보 제 심 시 개 역 여 시 여 은 근
我 等 昔 日 發 菩 提 心 時 皆 亦 如 是 汝 殷 勤

불 실 아 등 선 세 행 대 승 고 금 성 청 정 정 편 지
不 失 我 等 先 世 行 大 乘 故 今 成 清 淨 正 遍 知

신 여 금 역 당 근 수 불 해 차 대 승 경 제
身 汝 今 亦 當 勤 修 不 懈 此 大 乘 經 是 諸

불보장 십방삼세제불안목 출생삼세제여
佛寶藏이며 十方三世諸佛眼目이며 出生三世諸如

래종 지차경자 즉지불신 즉행불사
來種이니 持此經者는 卽持佛身 하고 卽行佛事니라

당지 시인즉시제불소사 제불세존의지소
當知하라 是人卽是諸佛所使라 諸佛世尊衣之所

부 제불여래진실법자 여행대승 불단
覆하며 諸佛如來眞實法子라 汝行大乘하여 不斷

법종 여금체관동방제불 설시어시 행
法種하라 汝今諦觀東方諸佛하라 說是語時에 行

자즉견동방일체무량세계 지평여장 무
者卽見東方一切無量世界하니 地平如掌하고 無

제퇴부구릉형극 류리위지 황금간측
諸堆阜丘陵荊棘하여 琉璃爲地하고 黃金間側이라

십방세계 역부여시 견시지이 즉견보
十方世界도 亦復如是니라 見是地已하고 卽見寶

수 보수고묘오천유수 기수상출황금백
樹하니 寶樹高妙五千由旬이라 其樹常出黃金白

은 칠보장엄 수하자연유보사자좌 기
銀하며 七寶莊嚴이라 樹下自然有寶師子座하되 其

사자좌 고이십유수 좌상역출백보광명
師子座는 高二十由旬이며 座上亦出百寶光明이라

여시제수급여보좌일일보좌 개유자연오백
如是諸樹及餘寶座一一寶座에는皆有自然五百

백상 상상개유보현보살
白象하고象上皆有普賢菩薩이라

이시행자례제보현 이작시언 아유하
爾時에行者는禮諸普賢하고而作是言하되我有何

죄 단견보지보좌급여보수 불견제불
罪하여但見寶地寶座及與寶樹하고不見諸佛이니이

작시어이 일일좌상 유일세존 단엄
가作是語已하면一一座상에有一世尊하시되端嚴

미묘 이좌보좌 견제불이 심대환희
微妙하며而坐寶座러니見諸佛已하고心大歡喜하여

부갱송습대승경전 대승력고 공중유성
復更誦習大乘經典하라大乘力故로空中有聲하여

이찬탄언 선재선재 선남자 여행대승공
而讚歎言하되善哉善哉라善男子야汝行大乘功

덕인연 능견제불 금수득견제불세존
德因緣으로能見諸佛이라今雖得見諸佛世尊이나

이불능견석가모니불분신제불급다보불탑
而不能見釋迦牟尼佛分身諸佛及多寶佛塔이라

문공중성이 부근송습대승경전 이송습
聞空中聲已하고復勤誦習大乘經典하라以誦習

대승방등경고 즉어몽중 견석가모니불
大乘方等經故로 卽於夢中에서 見釋迦牟尼佛이

여제대중 재기사굴산 설법화경 연일
與諸大衆으로 在耆闍崛山하여 說法華經하여 演一

실의 교이 참회 갈앙욕견 합장호괘향
實義라 敎已懺悔하고 渴仰欲見하여 合掌胡跪向

기사굴산 이작시언 여래세웅 상재세
耆闍崛山하고 而作是言하라 如來世雄은 常在世

간 민념아고 위아현신 작시어이
間하시니 愍念我故로 爲我現身하소서 作是語已하고

전기사굴산 칠보장엄 무수비구성문대중
見耆闍崛山하니 七寶莊嚴하고 無數比丘聲聞大衆

보수행렬 보지평정 부포묘보사자
하고 寶樹行列하며 寶地平正이라 復鋪妙寶師子

지좌 석가모니불 방미간광 기광편조
之座하고 釋迦牟尼佛이 放眉間光하시니 其光遍照

십방세계 부과십방무량세계 차광지처
十方世界하고 復過十方無量世界라 此光至處에

십방분신석가모니불 일시운집 광설여묘
十方分身釋迦牟尼佛이 一時雲集하여 廣說如妙

법화경 일일분신불 신자금색 신량무
法華經이라 一一分身佛은 身紫金色이요 身量無

변 좌사자좌 백억무량제대보살 이위
邊 하며 坐 師 子 座 하시니 百 億 無 量 諸 大 菩 薩 로 以 爲

권속 일일보살행동보현 여차십방무
眷 屬 이시라 一 一 菩 薩 行 同 普 賢 이라 如 此 十 方 無

량제불 보살권속 역부여시 대중집이
量 諸 佛 도 菩 薩 眷 屬 도 亦 復 如 是 나라 大 衆 集 已 하여

전석가모니불 거신모공방금색광 일일
見 釋 迦 牟 尼 佛 하면 舉 身 毛 孔 放 金 色 光 하시니 一 一

광증 유백억화불 제분신불 방미간백
光 中 에 有 百 億 化 佛 이시라 諸 分 身 佛 이 放 眉 間 白

호대인상광 기광류입석가모니불정 견
毫 大 人 相 光 하시니 其 光 流 入 釋 迦 牟 尼 佛 頂 이라 見

차상시 분신제불 일체모공출금색광 일
此 相 時 에 分 身 諸 佛 이 一 切 毛 孔 出 金 色 光 하시니 一

일광증 부유항하사미진수화불
一 光 中 에 復 有 恒 河 沙 微 塵 數 化 佛 이시라

이시 보현보살 부방미간대인상광 입행
爾 時 에 普 賢 菩 薩 이 復 放 眉 間 大 人 相 光 하여 入 行

자심 기입심이 행자자억과거무수백천
者 心 이라 既 入 心 已 하면 行 者 自 憶 過 去 無 數 百 千

불소 수지독송대승경전 자견고신 료
佛 所 에서 受 持 讀 誦 大 乘 經 典 하고 自 見 故 身 하되 了

료분명 여숙명통등무유이 활연대오
了分明 하리라 如宿命通等無有異 하고 豁然大悟 하

득선타라니 백천만억제타라니문 중삼
여 得旋陀羅尼 百千萬億諸陀羅尼門 하리라 從三

매기 면견일체분신제불중보수하좌사자좌
昧起 하여 面見一切分身諸佛衆寶樹下坐師子座

부견류리지여련화취중하방공중응출
하며 復見琉璃地如蓮華聚從下方空中涌出 하리라

일일화간 유미진수보살결가부좌 역견보
一一華間에 有微塵數菩薩結跏趺坐 하되 亦見普

현분신보살 재피중중 찬탄대승 시
賢分身菩薩이 在彼衆中 하여 讚歎大乘 하리라 時

제보살 이구동음 교어행자 청정륙근
諸菩薩이 異口同音 으로 敎於行者 하여 清淨六根 하

혹유설언 여당념불 혹유설언 여
리라 或有說言 하되 汝當念佛 이니라 或有說言 하되 汝

당념법 혹유설언 여당념승 혹유
當念法 이니라 或有說言 하되 汝當念僧 이니라 或有

설언 여당념제 혹유설언 여당념시
說言 하되 汝當念戒 니라 或有說言 하되 汝當念施 니

혹유설언 여당념천 여차륙법 시
라 或有說言 하되 汝當念天 이니라 如此六法 은 是

보제심 생보살법 여금응당어제불전
菩提心이며 생菩薩法이니라 汝今應當於諸佛前에서

발로선죄 지성참회 어무량세 안근인
發露先罪하고 至誠懺悔니라 於無量世에서 眼根因

연 탐착제색 이착색고 탐애제진 이
緣으로 貪著諸色이라 以著色故로 貪愛諸塵이라 以

애진고 수녀인신 세세생처 흑착제색
愛塵故로 受女人身하여 世世生處에서 惑著諸色이라

색괴여안 위은애노 고색사여 경력삼제
色壞汝眼하여 爲恩愛奴라 故色使汝 經歷三界라

위차폐사 맹무소견 금송대승방등경전
爲此弊使하여 盲無所見이라 今誦大乘方等經典하

차경중설십방제불색신불멸 여금득견심
니 此經中說十方諸佛色身不滅이라 汝今得見審

실이불 안근불선 상해여다 수순아
實爾不아 眼根不善하여 傷害汝多니라 隨順我

어 귀향제불석가모니불 설여안근소유
語하여 歸向諸佛釋迦牟尼佛하여 說汝眼根所有

죄구 제불보살 혜명법수 원여세제
罪咎하라 諸佛菩薩의 慧明法水로 願與洗除하여

령아청정 작시어이 편례십방불 향
令我淸淨 케하소서 作是語已하고 遍禮十方佛하고 向

석가모니불 대승경전 부설시언 아금소
釋迦牟尼佛 大乘經典 하여 復說 是言 하라 我今所

참안근중죄 장폐예탁 맹무소견
懺眼根重罪는 障蔽穢濁으로 盲無所見이니이다

원불대자 애민부호 보현보살 승대법
願佛大慈로 哀愍覆護 하소서 普賢菩薩이 乘大法

선 보도일체십방무량제보살반 유원자
船 하여 普度一切十方無量諸菩薩伴 하시니 唯願慈

애 청아회과안근불선악업장법
哀 하여 聽我悔過眼根不善惡業障法 하소서

여시삼설 오체투지 정념대승 심불망
如是三說 하고 五體投地 하고 正念大乘 하여 心不忘

사 시명참회안근죄법 칭제불명 소
捨 나라 是名懺悔眼根罪法 이나라 稱諸佛名 하고 燒

향산화 발대승의 현증번개 설안과환
香散華 하고 發大乘意 하고 懸繒幡蓋 하고 說眼過患

참회죄자 차인현세전석가모니불 금견
하여 懺悔罪者면 此人現世見釋迦牟尼佛 하며 及見

분신무량제불 아승기겁 불타악도 대승
分身無量諸佛 하고 阿僧祇劫을 不墮惡道는 大乘

력고 대승원고 항여일체타라니보살 공위
力故니 大乘願故로 恒與一切陀羅尼菩薩로 共爲

권속 작시념자 시위정념 약타념자
眷屬 하리라 作是念者 를 是爲正念 하며 若他念者 를

명위사념 시명안근초경계상 정안근
名爲邪念 이니라 是名眼根 初境界 相 이니라 淨眼根

이 부갱송독대승경전 주야륙시 호계참
已 하고 復更誦讀大乘經典 하고 晝夜六時에 胡跪懺

회 이작시언 아금운하단견석가모니불
悔 하고 而作是言 하라 我今云何但見釋迦牟尼佛

분신제불 불견다보불탑전신사리 다보
分身諸佛 하고 不見多寶佛塔全身舍利 니이까 多寶

불탑 항재불멸 아탁악안 시고불견
佛塔은 恒在不滅 이거늘 我濁惡眼 하여 是故不見 이라

작시어이 부갱참회 과칠일이 다보불
作是語已 하고 復更懺悔 하라 過七日已 하면 多寶佛

탑 종지용출 석가모니불 즉이우수
塔이 從地涌出 하리라 釋迦牟尼佛이 卽以右手로

개기탑호 견다보불입보현색신삼매
開其塔戶 하시면 見多寶佛入普現色身三昧 하니라

일일모공 류출항하사미진수광명 일일광
一一毛孔으로 流出恒河沙微塵數光明 하고 一一光

명 유백천만억화불 차상현시 행자환희
明에 有百千萬億化佛 이라 此相現時에 行者歡喜

게 찬요 탑만 칠 잡이 다보여래 출대 음성
하여 偈讚遶塔滿七匝已하면 多寶如來는 出大音聲

찬언 법자 여금진실능행대승 수순보
讚言 하시되 法子여 汝今眞實能行大乘 하고 隨順普

현 안근 참회 이시인연 아지여소 위
賢 하여 眼根懺悔라 以是因緣으로 我至汝所 하여 爲

여증명 설시어이 찬언 선재선재
汝證明 하리라 說是語已 하시고 讚言 하시되 善哉善哉

석가모니불 능설대법 우대법우 성취
라 釋迦牟尼佛이 能說大法 하고 雨大法雨 하여 成就

탁악제중생등 시시행자 전다보불탑이
濁惡諸衆生等이라 是時行者는 見多寶佛塔已 하고

부지보현보살소 합장경례 백언 대사
復至普賢菩薩所 하여 合掌敬禮 하고 白言 하되 大師

교아회과 보현부언 여어다겁 이근인
教我悔過 하소서 普賢復言 하되 汝於多劫에 耳根因

연 수축외성 무묘음시 심생혹착 문
緣으로 隨逐外聲 하여 聞妙音時에는 心生惑著 하고 聞

악성시 기백팔종번뇌적해 여차악이보득
惡聲時에는 起百八種煩惱賊害라 如此惡耳報得

악사 항문악성 생제반연 전도청고
惡事 하고 恒聞惡聲 하고 生諸攀緣 하여 顛倒聽故로

당타악도변지사견불문법처 여어금일송
當墮惡道邊地邪見不聞法處 하리라 汝於今日誦

지대승공덕해장 이시인연고 전십방불
持大乘功德海藏 하니라 以是因緣故로 見十方佛 하

다보불탑 현위여증 여응자당설이과악
고 多寶佛塔이 現爲汝證이라 汝應自當說已過惡 하

참회죄 죄 시시행자 무시어이 부갱
여 懺悔諸罪니라 是時行者는 聞是語已하고 復更

합장 오체투지 이작시언 정편지세존
合掌 하여 五體投地 하고 而作是言 하라 正遍知世尊

현위아증 방등경전 위자비주 유
이시여 現爲我證 하소서 方等經典은 爲慈悲主 시라 唯

원관아청아소설 아종다겁 내지금신
願觀我聽我所說 하소서 我從多劫으로 乃至今身 히

이근인연 무성혹착 여교착초 무제악성
耳根因緣으로 聞聲惑著이 如膠著草 하여 聞諸惡聲

시 기번뇌독 처처혹착 무잠정시 출
時는 起煩惱毒 하고 處處惑著 하여 無暫停時 로다 出

차규성 로아식신 추타삼도 금시각지
此竅聲 하여 勞我識神 하고 墜墮三塗 하니 今始覺知

향제세존 발로참회 기참회이 전
하고 向諸世尊 하여 發露懺悔 니이다 既懺悔已 하면 見

다보불방대광명 기광금색 편조동방급
多寶佛放大光明 하리라 其光金色 으로 遍照東方及

십방제무량제불 신진금색 동방공중에
十方界無量諸佛 하시니 身眞金色 이라 東方空中에

작시창언 차불세존 호왈선덕 역유무
作是唱言 하되 此佛世尊은 號曰善德 이시라 亦有無

수분신제불 좌보수하사자좌상결가부좌
數分身諸佛 하시되 坐寶樹下師子座上結跏趺坐시

시제세존 일체개입보현색신삼매 개작
라 是諸世尊은 一切皆入普現色身三昧 하시고 皆作

시언찬언 선재선재 선남자 여금독송
是言讚言 하시되 善哉善哉 라 善男子야 汝今讀誦

대승경전 여소송자 시불경계 설시
大乘經典 하느뇨 汝所誦者는 是佛境界 니라 說 是

어이 보현보살 부갱위설참회지법 여
語已 하면 普賢菩薩이 復更爲說懺悔之法 하리라 汝

어전세무량겁중 이탐향고 분별제식 처
於前世無量劫中에 以貪香故로 分別諸識 하고 處

처탐착 타락생사 여금응당관대승인
處貪著 하여 墮落生死 라 汝今應當觀大乘因 하리니

대승인자 제법실상 무시어이 오체투
大乘因者는 諸法實相 이니라 聞是語已 하고 五體投

지 부갱참회 기참회이 당작시어 남
地 하여 復更懺悔 하라 既懺悔已 거든 當作是語 하라 南

무석가모니불 남무다보불탑 남무십방석가
無釋迦牟尼佛 南無多寶佛塔 南無十方釋迦

모니분신제불 작시어이 편례십방
牟尼分身諸佛 이라할지니라 作是語已 하고 遍禮十方

불 남무동방선덕불급분신제불 여
佛 하고 南無東方善德佛及分身諸佛 이라할지니라 如

안소견 일일심례 향화공양 공양필이
眼所見으로 一一心禮 하고 香華供養 하라 供養畢已

호궤합장 이종종게 찬탄제불 기찬
하면 胡跪合掌 하고 以種種偈로 讚歎諸佛 하고 既讚

탄이 설십악업 참회제죄 기참회이
歎已 거든 說十惡業 하여 懺悔諸罪 하라 既懺悔已 거

이작시언 아어선세무량겁시 탐향미촉
든 而作是言 하라 我於先世無量劫時에 貪香味觸

조작중악 이시인연 무량세래 항
하여 造作衆惡 이니이다 以是因緣으로 無量世來에 恒

수지옥 아귀 축생 변지 사견 제불선신
受地獄 餓鬼 畜生 邊地 邪見 諸不善身 이니이다

여차악업 금일발로 귀향제불정법지왕
如此惡業을 今日發露 하고 歸向諸佛正法之王 하여

설죄참회 기참회이 신심불해 부갱
說罪懺悔 니이다 既懺悔已 하고 身心不懈 하고 復更

송독대승경전 대승력고 공중유성 고언
誦讀大乘經典 하라 大乘力故로 空中有聲 告言 하

법자 여금응당십방불 찬설대승
되 法子야 汝今應當向十方佛 하여 讚說大乘 하고

어제불전 자설기과 제불여래 시여자
於諸佛前에서 自說已過 하라 諸佛如來는 是汝慈

부 여당자설설근소작불선악업 차설근
父라 汝當自說舌根所作不善惡業 이니라 此舌根

자 동악업상 망언 기어 악구 량설 비방
者는 動惡業相 하여 妄言 綺語 惡口 兩舌 誹謗

망어 찬탄사견 설무익어 여시중다제잡
妄語 讚歎邪見 하며 說無益語라 如是衆多諸雜

악업 구투괴란 법설비법 여시중죄
惡業으로 遘鬪壞亂 하며 法說非法 이라 如是衆罪를

금실참회 제세웅전 작시어이 오체
今悉懺悔 니이다 諸世雄前에서 作是語已 하고 五體

투지 편례십방불 합장장궤 당작시어
投地 하여 遍禮十方佛 하고 合掌長跪 하고 當作是語

차설과환 무량무변 제악업자 종설근출
하라 此舌過患은 無量無邊 諸惡業刺從舌根出

단정법륜 종차설기 여차악설 단공
이니다 斷正法輪도 從此舌起니 如此惡舌은 斷功

덕종 어비의중 다단강설 찬탄사견
德種하며 於非義中에도 多端強說하며 讚歎邪見이

여화익신 유여맹화 상해중생 여음독자
如火益薪하며 猶如猛火하며 傷害衆生이 如飲毒者

무창우사 여차죄보 악사불선 당타악도
無瘡疣死라 如此罪報는 惡邪不善하여 當墮惡道

백겁천겁 이망어고 타대지옥 아금
百劫千劫하오리다 以妄語故로 墮大地獄하리니 我今

귀향남방제불 발로흑악 작시념시
歸向南方諸佛하여 發露黑惡이니이다 作是念時에

공중유성 남방유불 명전단덕 피
空中有聲하되 南方有佛하시니 名梅檀德이시라 彼

불역유무량분신 일체제불 개설대승
佛亦有無量分身이라 一切諸佛이 皆說大乘하여

제멸죄악 여차중죄 금향십방무량제불
除滅罪惡이시니라 如此衆罪를 今向十方無量諸佛

대비세존 발로흑악 성심참회 설시어
大悲世尊하여 發露黑惡하고 誠心懺悔하라 說是語

이 오체투지 부례제불 시시제불
已하고 五體投地하여 復禮諸佛이니라 是時諸佛이

부방광명 조행자신 령기신심 자연환
復放光明 하여 照行者身 하여 令其身心 으로 自然歡

희 발대자비 보념일체
喜 하고 發大慈悲 하여 普念一切 시라

이시 제불 광위행자 설대자비 급희사법
爾時에 諸佛이 廣爲行者 하여 說大慈悲及喜捨法 하

역교애어 수록화경 이시행자
시며 亦敎愛語 하시고 修六和敬 케하시리라 爾時行者는

문차교칙 심대환희 부갱송습 증불해
聞此敎勅 하고 心大歡喜 하여 復更誦習 하되 終不 懈

식 공중부유미묘음성 작여시언 여금
息 이라 空中復有微妙音聲 으로 作如是言 하되 汝今

응당신심 참회 신자살도음 심자념제불
應當身心懺悔 하라 身者殺盜婬 하며 心者念諸不

선 조십악업 급오무간 유여원후 역여
善 하여 造十惡業及五無間 하여 猶如猿猴 하며 亦如

치교처처탐착 편지일체 륵정근중 차륵
麤膠處處貪著 하여 遍至一切六情根中 이라 此六

근업 지조화엽 실만삼제이십오유일체생
根業이 枝條華葉 하여 悉滿三界二十五有一切生

처 역능증장무명로사십이고사 팔사팔난
處라 亦能增長無明老死十二苦事 하여 八邪八難

무불경중 여금응당참회여시악불선업
을 無不經中이라 汝今應當懺悔如是惡不善業이니

이시 행자 문차어이 문공중성 아
라 爾時에 行者는 聞此語已하고 問空中聲하되 我

금하처 행참회법 시공중성 즉설시
今何處에 行懺悔法하리이까 時空中聲하되 卽說是

어 석가모니불 명비로차나편일체처
語하리라 釋迦牟尼佛을 名毘盧遮那遍一切處니라

기불주처 명상적광 상파라밀 소섭성
其佛住處를 名常寂光이니라 常波羅蜜에 所攝成

처 아파라밀 소안립처 정파라밀 멸유상
處와 我波羅蜜의 所安立處와 淨波羅蜜의 滅有相

처 락파라밀 불주신심상처 불견유무제법
處와 樂波羅蜜의 不住身心相處와 不見有無諸法

상처 여적해탈 내지반야파라밀 시색
相處와 如寂解脫과 乃至般若波羅蜜이니라 是色

상주법고 여시응당관십방불 시십방불
常住法故로 如是應當觀十方佛이니라 時十方佛이

각신우수 마행자두 작여시언 선
各伸右手하여 摩行者頭하시고 作如是言하시되 善

재선재 선남자 여금독송대승경고 십방
哉善哉라 善男子야 汝今讀誦大乘經故로 十方

제 불 설 참회 법 보살 소행 불 단결 사
諸佛이說懺悔法이시니라 菩薩所行은不斷結使하

불 주사해 관심 무심 중전 도상기 여
고不住使海나라 觀心無心하니 從顛倒想起라 如

차상심 종망상기 여공증풍무의지처 여
此想心은 從妄想起라 如空中風無依止處하여 如

시법상 불생불멸 하자시죄 하자시복
是法相도 不生不滅이라 何者是罪이며 何者是福이

아심자공 죄복무주 일체법여시 무
노我心自空하면 罪福無主라 一切法如是하여 無

주무괴 여시참회 관심 무심 법불주법
住無壞나라 如是懺悔하면 觀心無心하고 法不住法

중 제법해탈 멸체적정 여시상자
中이라 諸法解脫이며 滅諦寂靜이라 如是想者를

명대참회 명장엄참회 명무죄상참회
名大懺悔라하며 名莊嚴懺悔라하며 名無罪相懺悔라

명파괴심식 행차참회자 신심청
하며 名破壞心識이라하느니라 行此懺悔者는 身心淸

정 불주법중 유여류수 념념지중 득견
淨하여 不住法中이 猶如流水니 念念之中에도 得見

보현보살십방불 시제세존 이대비광
普賢菩薩及十方佛하리라 時諸世尊이以大悲光

명 위 어 행 자 설 무 상 법 행 자 문 설
明 爲 於 行 者 하여 說 無 相 法 하시리라 行 者 聞 說

제 일 의 공 행 자 문 이 심 불 경 포 응 시
第 一 義 空 하리니 行 者 聞 已 하고 心 不 驚 怖 하고 應 時

즉 입 보살 정 위 불 고 아 난 여 시 행 자 명
卽 入 菩 薩 正 位 나라 佛 告 阿 難 하시되 如 是 行 者 는 名

위 참 회 차 참 회 자 십 방 제 불 제 대 보살 소
爲 懺 悔 나라 此 懺 悔 者 는 十 方 諸 佛 諸 大 菩 薩 이 所

행 참 회 법
行 懺 悔 法 이니라

불 고 아 난 불 멸 도 후 불 제 제 자 약 유 참 회
佛 告 阿 難 하시되 佛 滅 度 後 에 佛 諸 弟 子 가 若 有 懺 悔

악 불 선 업 단 당 독 송 대 승 경 전 차 방 등
惡 不 善 業 이거든 但 當 讀 誦 大 乘 經 典 이니라 此 方 等

경 시 제 불 안 제 불 인 시 득 구 오 안 불
經 은 是 諸 佛 眼 이니 諸 佛 因 是 得 具 五 眼 이시니라 佛

삼 종 신 종 방 등 생 시 대 법 인 인 널 반 해
三 種 身 은 從 方 等 生 이라 是 大 法 印 이니 印 涅 槃 海 니

여 차 해 중 능 생 삼 종 불 청 정 신 차 삼 종
라 如 此 海 中 에서 能 生 三 種 佛 清 淨 身 이거늘 此 三 種

신 인 천 복 전 응 공 중 최 기 유 송 독 대 승
身 은 人 天 福 田 이니 應 供 中 最 나라 其 有 誦 讀 大 乘

방등경전 당지 차인구불공덕 제악영
方等經典 하면 當知 하라 此人具佛功德 하고 諸惡永

멸 중불혜생
滅 하고 從佛慧生 이니라

이시 세존 이설게언
爾時에 世尊이 而說偈言 하시되

약유안근악
若有眼根惡 하여

업장안불정
業障眼不淨 하면

단당송대승
但當誦大乘 하고

사념제일의
思念第一義 니라

시명참회안
是名懺悔眼

진제불선업
盡諸不善業 이니라

이근문란성
耳根聞亂聲 하고

괴란화합의
壞亂和合義 라

유시기광란
由是起狂亂 하니

유여치원후
猶如癡猿猴 라

단당송대승
但當誦大乘 하고

관법공무상
觀法空無相 하며

영진일체악
永盡一切惡 하고

천이문십방
天耳聞十方 하라

비근착제향
鼻根著諸香 하여

수염기제촉
隨染起諸觸 하나니

여차광혹비
如此狂惑鼻는

수염생제진
隨染生諸塵이라

약송대승경
若誦大乘經하고

관법여실제
觀法如實際하면

영리제악업
永離諸惡業하고

후세불부생
後世不復生이리라

설근기오종
舌根起五種

악구불선업
惡口不善業하나니

약욕자조순
若欲自調順코자하면

응근수자심
應勤修慈心하고

사법진적의
思法眞寂義하여

무제분별상
無諸分別相이니라

심근여원후
心根如猿猴하여

무유잠정시
無有暫停時니

약욕절복자
若欲折伏者는

당근송대승
當勤誦大乘하고

념불대각신
念佛大覺身

력무외소성
力無畏所成할지니라

신위기관주
身爲機關主라

여진수풍전
如塵隨風轉듯이

륙적유희중
六賊遊戲中하되

자재무괘애
自在無罣礙라

악욕멸차악
若欲滅此惡 하고

영리제진로
永離諸塵勞 하여

상처널반성
常處涅槃城 하여

안락심담박
安樂心憺怕 코자하면

당송대승경
當誦大乘經 하여

념제보살모
念諸菩薩母 할지니라

무량승방편
無量勝方便 은

종사실상득
從思實相得 이니라

여차등륙법
如此等六法 을

명위륙정근
名爲六情根 이니라

일체업장해
一切業障海 는

개종망상생
皆從妄想生 이라

악욕참회자
若欲懺悔者 는

단좌념실상
端坐念實相 하라

중죄여상으로
衆罪如霜露 하여

혜일능소제
慧日能消除 니라

시고응지심
是故應至心 으로

참회륙정근
懺悔六情根 할지니라

설시게이 불고아난 여금지시참회륙
說 是 偈 已 하시고 佛 告 阿 難 하시되 汝 今 持 是 懺 悔 六

근관보현보살법 보위십방제천세인 광분
根 觀 普 賢 菩 薩 法 하여 普 爲 十 方 諸 天 世 人 하여 廣 分

별설 하라 불멸도후에 불제제자가 약유수지 독송
別說 하라 佛滅度後에 佛諸弟子가 若有受持 讀誦

해설 방등경전 하며 응어정처나 약재종간 이거나 약
解說 方等經典 하며 應於靜處나 若在塚間 이거나 若

림수하 약아련야처 독송방등 사대승
林樹下 거나 若阿練若處에서 讀誦方等 하고 思大乘

의 넘력강고 득견아신급다보불탑 십
義 할지니라 念力強故로 得見我身及多寶佛塔과 十

방분신무량제불 보현보살 문수사리보살 약
方分身無量諸佛과 普賢菩薩 文殊師利菩薩 藥

왕보살 약상보살 공경법고 지제묘화
王菩薩 藥上菩薩 하리라 恭敬法故로 持諸妙華 하고

주립공중 찬탄공경행지법자 단송대승
住立空中 하여 讚歎恭敬行持法者 하리라 但誦大乘

방등경고 제불보살 주야공양시지법자
方等經故로 諸佛菩薩이 晝夜供養是持法者니라

불고아난 아여현겁제보살급십방제불
佛告阿難 하시되 我與賢劫諸菩薩及十方諸佛이

인사대승진실의고 제각백만억아승기수생사
因思大乘眞實義故로 除却百萬億阿僧祇數生死

지죄 인차승묘참회법고 금어십방각득위
之罪니라 因此勝妙懺悔法故로 今於十方各得爲

불 이나라 약 욕질 성 아 녹 다 라 삼 막 삼 보 제 자 약
佛 佛 若 欲 疾 成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者 若

욕 현 신 전 십 방 불 급 보 현 보 살 당 정 조 욕
欲 現 身 見 十 方 佛 及 普 賢 菩 薩 當 淨 澡 浴

착 정 결 의 소 증 명 향 재 공 한 처 응 당 독
著 淨 潔 衣 燒 衆 名 香 在 空 閑 處 應 當 讀

송 대 승 경 전 사 대 승 의
誦 大 乘 經 典 思 大 乘 義

불 고 아 난 약 유 중 생 욕 관 보 현 보 살 자 당
佛 告 阿 難 若 有 衆 生 欲 觀 普 賢 菩 薩 者 當

작 시 관 작 시 관 자 시 명 정 관 약 타 관
作 是 觀 作 是 觀 者 是 名 正 觀 若 他 觀

자 시 명 사 관 불 멸 도 후 불 제 제 자 수
者 是 名 邪 觀 佛 滅 度 後 佛 諸 弟 子 隨

순 불 어 행 참 회 자 당 지 시 인 행 보 현 행
順 佛 語 行 懺 悔 者 當 知 是 人 行 普 賢 行

행 보 현 행 자 불 견 악 상 급 악 업 보 기
行 普 賢 行 者 不 見 惡 相 及 惡 業 報 其

유 중 생 주 야 륵 시 례 십 방 불 송 대 승 경
有 衆 生 晝 夜 六 時 禮 十 方 佛 誦 大 乘 經

사 제 일 의 심 심 공 법 일 탄 지 경 제 각 백 만 억
思 第 一 義 甚 深 空 法 一 彈 指 頃 除 却 百 萬 億

아승기겁생사지죄 행차행자 진시불자
阿僧祇劫生死之罪 行此行者 眞是佛子

종제불생 십방제불 급제보살 위기화상
從諸佛生 十方諸佛 及諸菩薩 爲其和尚

시명구족보살제자 불수갈마 자연성취
是名具足菩薩戒者 不須羯磨 自然成就

응수일체인천공양
應受一切人天供養

이시 행자 약욕구족보살제자 응당합장
爾時 行者 若欲具足菩薩戒者 應當合掌

재공한처 편례십방불 참회제죄 자
在空閑處 遍禮十方佛 懺悔諸罪 自

설기과 연후정처 백십방불 이작시언
說已過 然後靜處 白十方佛 而作是言

제불세존 상주재세 아업장고 수신방
諸佛世尊 常住在世 我業障故 雖信方

등 견불불료 금귀의불 유원석가
等 見佛不了 今歸依佛 唯願釋迦

모니불정편지세존 위아화상 문수사리
牟尼佛正遍知世尊 爲我和尚 文殊師利

구대혜자 원이지혜 수아청정제보살법
具大慧者 願以智慧 授我清淨諸菩薩法

미륵보살승대자일 려민아고 역응청아수
彌勒菩薩勝大慈日이여 憐愍我故로 亦應聽我受

보살법 십방제불 현위아증 제대보
菩薩法하소서 十方諸佛은 現爲我證하소서 諸大菩

살 각칭기명 시승대사 부호중생 조
薩은 各稱其名하시고 是勝大士는 覆護衆生하고 助

호아등 금일수지방등경전 내지실
護我等하소서 今日受持方等經典하나이다 乃至失

명 설타지옥 수무량고 종불훼방제
命이라도 設墮地獄하여 受無量苦라도 終不毀謗諸

불정법 이시인연공덕력고 금석가모니
佛正法하리이다 以是因緣功德力故로 今釋迦牟尼

불 위아화상 문수사리 위아아사리
佛은 爲我和尙하소서 文殊師利는 爲我阿闍梨하소

당래미륵 원수아법 십방제불 원증
서 當來彌勒은 願授我法하소서 十方諸佛은 願證

지아 대덕제보살 원위아반 아금의
知我하소서 大德諸菩薩은 願爲我伴하소서 我今依

대승경전심심묘의 귀의불 귀의법
大乘經典甚深妙義하여 歸依佛하나이다 歸依法하나

귀의승 여시삼설 귀의삼보
이다 歸依僧하나이다 如是三說할지니라 歸依三寶

이 차당자서 수륙중법 수륙중법
已 하고 次當自誓 하여 受六重法 할지니라 受六重法

이 차당근수 무애범행 발광제심
已 하고 次當勤修 하여 無礙梵行 하고 發廣濟心 하고

수팔중법 립차서이 어공한처 소
受八重法 할지니라 立此誓已 하고 於空閑處에서 燒

중명향산화 공양일체제불급제보살대승방
衆名香散華 하여 供養一切諸佛及諸菩薩大乘方

등 이작시언 아어금일발보제심 이
等 하고 而作是言 하라 我於今日發菩提心 하오니 以

차공덕 보도일체 작시어이 부갱
此功德으로 普度一切 하리이다 作是語已 하고 復更

정례일체제불급제보살 사방등의 일일
頂禮一切諸佛及諸菩薩 하고 思方等義 하라 一日

내지삼칠일 약출가재가 불수화상 불용
乃至三七日을 若出家在家이나 不須和尚 하고 不用

제사 불백갈마 수지독송대승경전력고
諸師 하고 不白羯磨 라도 受持讀誦大乘經典力故로

보현보살 권발행고 시십방제불 정법안
普賢菩薩이 勸發行故니라 是十方諸佛의 正法眼

목 인유시법 자연성취 오분법신 제정
目이라 因由是法 하여 自然成就 五分法身 戒定

혜 해탈 해탈지견 제불여래 종차법생
慧 解脫 解脫 知見 이나라 諸佛如來는 從此法生이

어대승경득수기별 시고지자약성문 훼
며 於大乘經得受記別이라 是故智者若聲聞이 毀

파삼귀 급오제 팔제 비구제 비구니제 사미제
破三歸 及五戒 八戒 比丘戒 比丘尼戒 沙彌戒

사미니제 식차마니제 급제위의 우치불선
沙彌尼戒 式叉摩尼戒 及諸威儀 하고 愚癡不善

악사심고 다범제제급위의법 악욕제멸
惡邪心故로 多犯諸戒及威儀法이라도 若欲除滅하

령무과환 환위비구 구사문법 당
여 令無過患 이거든 還爲比丘 하여 具沙門法 하여 當

근수독방등경전 사제일의심심공법 령
勤修讀方等經典 하여 思第一義甚深空法 하고 令

차공혜 여심상응 당지 차인어념
此空慧로 與心相應 케할지나라 當知 하라 此人於念

념경 일체죄구 영진무여 시명구족사문
念頃에 一切罪垢를 永盡無餘라 是名具足沙門

법제 구제위의 응수인천일체공양 약
法戒 하여 具諸威儀니 應受人天一切供養 이리라 若

우파새 범제위의 작불선사 불선사자
優婆塞가 犯諸威儀 하며 作不善事라 不善事者는

소위 설 불법 과악 론 설 사중 소범 악사 투
所謂說佛法過惡 하며 論說四衆所犯惡事 하고 偷

도 음 일 무 유 참 괴 약 욕 참 회 멸 제 죄 자
盜姪妹 이라도 無有慚愧 라 若欲懺悔滅諸罪者 면

당 근 독 송 방 등 경 전 사 제 일 의 약 왕 자
當勤讀誦方等經典 하고 思第一義 할지니라 若王者

대 신 파 라 문 거 사 장 자 재 관 시 제 인 등 탐 구
大臣 婆羅門 居士 長者 宰官 是諸人等 이 貪求

무 염 작 오 역 죄 방 방 등 경 구 십 악 업
無厭 하고 作五逆罪 하고 謗方等經 하면 具十惡業 이면

시 대 악 보 응 타 악 도 과 어 폭 우 필 정 당 타
是大惡報 로 應墮惡道 하되 過於暴雨 이듯 必定當墮

아 비 지 옥 약 욕 멸 제 차 업 장 자 응 생 참 괴
阿鼻地獄 하리라 若欲滅除此業障者 면 應生慚愧 하

개 회 제 죄
고 改悔諸罪 니라

불 언 운 하 명 찰 리 거 사 참 회 법 참 회 법 자
佛言 하시되 云何名刹利居士懺悔法 고 懺悔法者 는

단 당 정 심 불 방 삼 보 불 장 출 가 불 위 범 행
但當正心 不謗三寶 하고 不障出家 하며 不爲梵行

인 작 악 류 난 응 당 제 념 수 록 념 법 역 당
人作惡留難 하며 應當繫念修六念 법 할지니라 亦當

공급공양지대승자 가필례배 응당억
供給供養持大乘者 하며 可必禮拜 할지니라 應當憶

념심심경법제일의공 사시법자 시명찰
念甚深經法第一義空 할지니라 思是法者 是名刹

리거사수제일참회 제이참회자 효양부모
利居士修第一懺悔니라 第二懺悔者 是孝養父母

공경사장 시명수제이참회 제삼참회
하고 恭敬師長을 是名修第二懺悔니라 第三懺悔

자 정법치국 불사왕인민 시명수제삼참회
者 是正法治國 하여 不邪枉人民 이니 是名修第三懺

회 제사참회자 어륙재일 칙제경내
悔니라 第四懺悔者 是於六齋日에 勅諸境內 하여

력소급처 령행불살 수여차법 시명수제
力所及處에 令行不殺 이니 修如此法을 是名修第

사참회 제오참회자 단당심신인과 신
四懺悔니라 第五懺悔者 是但當深信因果 하며 信

일실도 지불불멸 시명수제오참회
一實道 하여 知佛不滅 이니 是名修第五懺悔니라

불고아난 어미래세 약유수습여차참회
佛告阿難 하시되 於未來世에 若有修習如此懺悔

법 당지 차인착참괴복 제불호조
法 이면 當知 하라 此人著慚愧服 하고 諸佛護助 하여

불구당성 아녹다라삼막삼보제 설시어시
不久當成 阿耨多羅三藐三菩提 하리라 說 是 語 時

에 십천천자 득법안정 미륵보살등제대보
에 十千天子 는 得法眼淨 하고 彌勒菩薩等諸大菩

살급이아난 무불소설 환희봉행
薩及以阿難 은 聞佛所說 하고 歡喜奉行 하니라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종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終

법화삼부경 종
法華三部經 終

한글 讀音 懸吐 : 513-832

全南 靈光郡 佛甲面 慈悲里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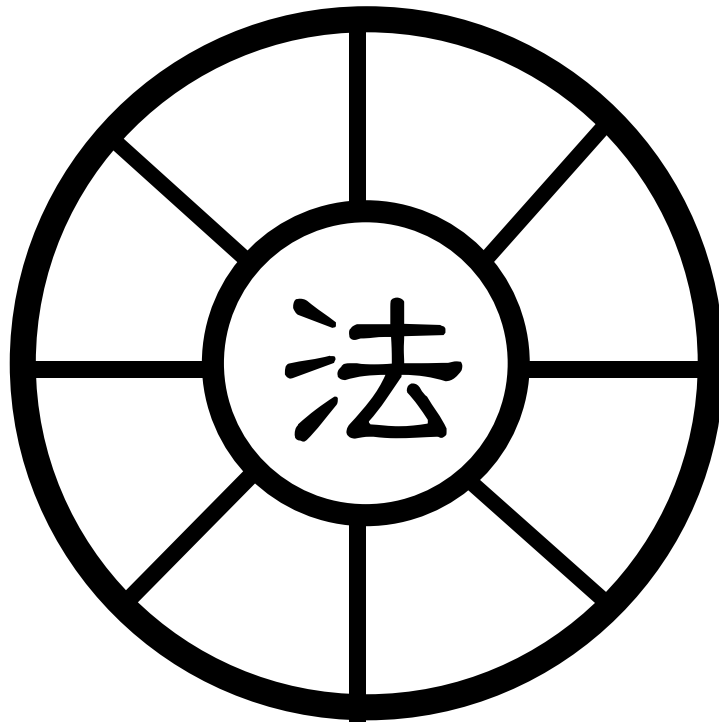
法華經 敎育院 法華行者 眞濟

<http://any.to/saddharma>

E-mail:saddharma@com.ne.kr

Tel : 061-353-9121

신입생 모집 요강



21 세기 佛敎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

法華經 敎育院

00 학년도 전·후기 신입생모집요강

1. 접수기간

①전기 1월 5일 - 2월 20일

②후기 7월 5일 - 8월 20일

2. 모집인원

①통신반(전국) ○○명

3. 입학자격

①대졸이상의 학력자

②불교교양대학 졸업자

③불교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자(특별전형)

4. 구비서류

- ① 입학원서 1 통(본원 소정양식)
- ② 주민등록등본 1 통
- ③ 사진(5x4) 3 매

5. 수강회비

- ① 한 학기당 100 만원(교재대 포함)

6. 교육기간

- ① 4년(8 학기) 통신반 동일

7. 교육방법

- ① 매주 교재와 강의테이프 2 개씩 우송
- ② 인터넷 e-mail 을 통한 지도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내
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수강회비는**

아래 구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

농협 643105-52-069287 (진제)

※ 우편 : 57057

전남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 369-12

법화경 교육원 교무처

전공 및 졸업후 특전

1. 전공과목

①무량의경(漢文本)②묘법연화경(漢文本) ③관·보현보살행법경
(漢文本) ④정법화경(正法華經)은 연구과정으로 현재 진행
⑤특강을 통한 모든 경전 비교연구

2. 졸업후 혜택

①수학(졸업)증서 수여 ②오종법사 자격증 수여(심사합격자)
③강원(포교원) 개원시 지원

3. 문의전화

①평생전화 (0502)353-9121 ②직통 010-2042-3733

21세기 佛敎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

法華經 敎育院

책임교수 진제(眞濟) 승掌

우 : 57052

전남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 369-12

영광 교육원 : (0502) 353-9121

H.P : 010-2042-3733

홈페이지 <http://법학경.kr>

e-mail : saddharma@gmail.com

수강신청서

1. 주 소 : _____
2. 성 명 : _____ 3. 나 이 : _____ 세 4. 남. 여 _____
5. 주민등록번호 : _____
6. 전 화 : H) _____ O) _____ H.P) _____
7. 주요학력 및 경력
- 1) 년 월 일 : _____
- 2) 년 월 일 : _____
- 3) 년 월 일 : _____
- 4) 년 월 일 : _____
- 5) 년 월 일 : _____

위 본인은 귀 법화경 교육원(대학원과정)에 수강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신정인 윤 이

법학원장